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A study on methods of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as a
strategy for urban revitaliz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차주영 Tchah, Chu Young
임현성 Lim, Hyun Sung
이상민 Lee, Sang Min

(a u r i

AURI-기본-2009-3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A study on methods of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as a strategy for urban revitaliz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지은이: 차주영, 임현성, 이상민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5호

인쇄: 2009년 12월 26일, 발행: 2009년 12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3216-42-4

발간물번호: AURI-기본-2009-3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Ⅰ 연구책임	차주영 부연구위원
Ⅰ 연구진	임현성 연구원 이상민 부연구위원
Ⅰ 외부연구진	이범현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최선주 성균관대 겸임교수
Ⅰ 조사원	정은경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김도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김한수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석사과정 김재영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졸업

Ⅰ 외부연구심의위원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장준호 안양대학교 교수 윤현수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
------------	--

연구요약

제1장 서론

국내 중소도시에서는 도로, 공원과 녹지, 공개공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공공공간 관련 사업이 단편적·일회적인 성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공공간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지역 활성화를 가로막고 도심 쇠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도심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물리적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공공간의 체계적·지속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공공공간의 구성과 이용,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공간 계획의 부재에 따른 해결책으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심내 공공공간이란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문화·경제적 자산으로서 첫째,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둘째, 한 도시의 사회·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장소로 도심활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며, 셋째,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 고유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란 이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심 활성화 수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 지역의 공공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관한 밑그림이다. 즉, 한 지역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대상),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목표) 지역현황 및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전(vision)과 목표를 제시하여 공공공간 조성과 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디자인 지침·사업지침 등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내용)을 의미한다.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역할은 크게 설계를 위한 도구, 소통을 위한 도구, 공간관리를 위한 도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공공공간 조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설계개념/지침 등을 글, 설계도면,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설명하는 설계 수단인 동시에 다양한 관련 주체 간의 협의를 유도하는 소통의 도구이다.

다음 장에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러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해외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사례와 시사점

해외사례는 도심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중 공공공간 관련 계획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공공공간의 계획·조성·관리 측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 1960년대부터 도심 공공공간을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시, 도심내 노후 공공공간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개선하여 주변 상권을 살리고 쇠퇴한 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킨 영국의 노팅엄(Nottingham)시·독일의 에쓰링엔(Esslingen am Neckar)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의 나가오카(Nagaoka)시이다.

구 분	노팅엄	코펜하겐	에쓰링엔	나가오카
위 치	영국 잉글랜드 중부	덴마크 셸란섬 동쪽	독일 남부	일본 중서부
면 적	74.61km ²	2673km ²	46.43km ²	840.88km ²
인 구	292,400명(2008)	1,145,804명(2008)	91,700(2007)	282,829명(2006)
지 도				

각 사례 대상지에 대해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 조직 운영체계 및 운영절차를 파악하고, 공공공간 관련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살펴본 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공간의 역할이 도시의 경쟁 요소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공공간은 지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생활공간으로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노후되고 침체된 도시의 활성화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나아가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

둘째, 공공공간 활용에 대한 비전(vision)을 설정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체계가 확립되어 있으며 계획 간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공공공간을 계획할 때, 관련 주체 모두가 도시의 비전(vision)을 공유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또한 공공공간 관련 계획 간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연동체계를 구축하여 시시각각 변하는 지역 여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셋째, 공공공간의 계획에 앞서 기존 도시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진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리뷰(review) 및 모니터링(monitring)을 실시하고 있다. 도심내 공간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활성화를 위한 잠재요소를 발굴하고, 리뷰(review) 제도와 모니터링(monitring) 제도를 통해 추진효과를 검증하여 향후 사업의 실천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서 지역 전문가나 대학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계획기법을 개발한다.

넷째,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하기 위해 관 주도 방식이 아닌 민·관 협력조직을 구성하여 공공공간을 계획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를 계획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진행된다.

다섯째, 지방정부의 담당 조직/ 부서 간 협력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공간의 계획은 제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부서들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유사사업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력을 수시로 선발하여 관련 부서에서 기술행정업무를 장기간 담당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양성/ 지원하고 있다.

제3장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계획 현황 및 심층조사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는 정주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다수의 중소도시에서 실업률과 공실률이 증가하고, 산업활동은 위축되며, 물리적 환경이 노후화 되고 서비스 투자 비중은 줄어드는 등 총체적인 도시 쇠퇴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의 발전이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황에서도 도심지는 여전히 주거지와 일자리가 집중되고 업무 및 구매활동이 다른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이며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중소도시 도심지에 대한 사회·경제·물리적인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내 지방 중소도시 도심지에서 공공공간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이 소유한 도로·광장·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 둘째, 문화회관·학교·근대역사건축물 등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 이외에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공시설, 셋째, 재래시장과 같이 공공이 일부 소유하고 있지만 민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절충적인 성격의 공간, 넷째, 공개공지와 같이 완전히 사적인 소유의 공간이지만 민간에게 개방되고 있는 공간이다.

국내 지방 중소도시의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를 살펴보면, 공공공간만을 다루고 있는 계획체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공공공간에 대한 계획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계획은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법정계획의 경우 다시 도시차원에서 수립되는 계획과 사업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법정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으며 사업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시장정비사업계획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계획들은 부분적으로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각 계획의 목적·시행주체·근거법에 따라 별도로 수립·실행되고 있고, 각 주체들 간의 협의나 공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 활성화에 있어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지금이 바로 공공공간에 대한 정책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시점임을 시사한다.

국내의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관리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순천시, 남원시, 거창군, 제천시 4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와 관리체계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심층조사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 분	거창군	남원시	제천시	순천시
위 치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북도 남원시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남도 순천시
면 적	804.09 km ²	752.81 km ²	882.98km ²	907.43km ²
인 구	69,744 명	102,279 명	135,360명	270,934 명
행정단위	1읍 11면	1읍 10면	9동 1읍 7면	12동 1읍 10면
지 도				

첫째, 공공공간 관련 사업의 분포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주로 구도심 외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도심 지역과 구도심 외부의 공공공간 관련 사업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구도심내 공공공간은 차량 중심의 가로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역 수요에 비해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당수가 중심상업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따라서 도심내 공공공간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필요하다. 차량중심의 도로체계는 공공공간 간 연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보행환경의 조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가로체계로의 변화가 요구되며, 구도심내 활용가능한 공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기존의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을 재활용하거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용도전환을 통해 공공공간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공간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구도심내 중심상업지역은 시장개선 사업과 상업가로와의 연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심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형성해야 한다.

셋째, 공공공간 관련 사업 및 계획의 진행 절차를 살펴보았을 때, 다양한 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공공공간 계획의 내용이나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모두 달라서 명확한 비전(vision)을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전문성

있는 공공공간 통합계획이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중앙부처의 단기적인 예산 지원에 의해 사업이 진행됨으로써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나 이용률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시기별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 단기간에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공간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처럼 공공공간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지역단위에서 기존 공공공간의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공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공간 현황이 명확하게 파악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관리체계를 순차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제4장 중소도시 도심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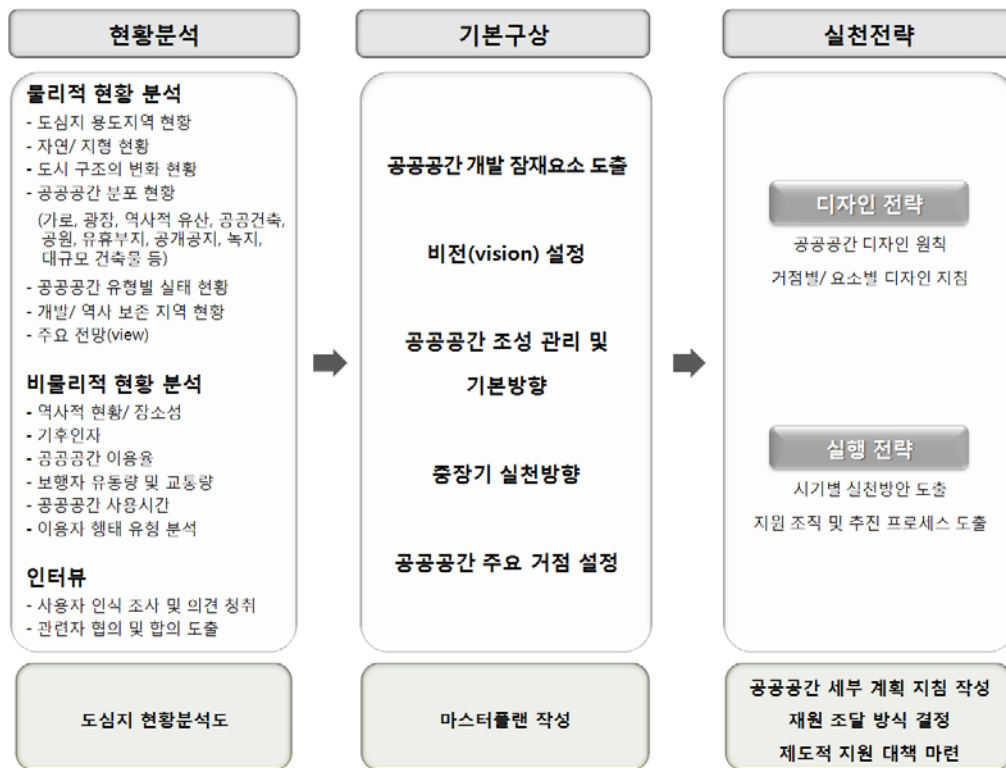
국내 중소도시의 공공공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기본전제와 구성 및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도심지내 공공공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을 적극 활용하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더불어 기획·계획·실행·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할 행정부서의 전문성과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의 단순사업지원 방식으로부터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지원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공공공간의 마스터플랜에 담아야 할 내용과 구성은 크게 현황분석, 기본구상, 실천전략의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 도시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황분석은 지역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전 단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의 비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와 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이나 관련계획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로는 도시구조, 지형, 지역 경계와 범위, 용도와 교통현황, 주요 공공공간과 각 공간의 이용실태, 공공공간의 공간적 특성과 구성요소 등이 있으며, 비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는 지역의 역사를 비롯해

인구, 사회, 경제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기본구상은 분석한 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의 비전(vision)과 공공공간 조성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단계이다. 공공공간 조성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은 크게 특징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기본원칙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차원의 기본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공공공간 정책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마련된다. 실천전략은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관한 사업추진 방식과 진행절차, 그리고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공공공간 조성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비전(vision)을 담아야 하며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민간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계획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민이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발전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인 참여 기회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활용방안으로는 첫째, 행정계획으로 채택하는 경우, 법정계획보다 수립절차나 운용의 측면에서 유연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특정경관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기존 경관관련 전담부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경우, 국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자생적으로 마련하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인정제도가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체제를 구성하고, 사후 관리체계 구축에 힘써야 하며,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전문가의 적극적인 활용과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공감대 형성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식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행정인력과 전문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

제5장 결론

구도심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으로는 주로 가로공간과 일부 공공시설물의 외부공간이나 이전적지가 있으며 이들을 수변공간, 공원, 산지 등의 주변 자연환경이나 신도심에 새롭게 조성된 공공공간과 상호 연계할 경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도심내 공공공간들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매개로써 활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현황과 수요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제반여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공공공간의 활용 및 조성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비전(vision)이 정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각 중소도시의 여건에 대응하여 공공공간 활용 비전(vision)과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다양한 활동을 담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공공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공간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정체성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수단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마스터플랜은 관련 주체들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를 설득하며 관련 담당 부서 간 협의를 유도하여 활력있는 지역 커뮤니티를 만드는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공공공간의 개선은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각각의 지방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 도시가 발달한 역사적 배경, 주요 산업기반 등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서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과 마스터플랜의 활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주제어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지방중소도시, 통합계획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1) 지방 중소도시 도심지 쇠퇴와 열악한 공공공간	1
2) 도심지 활성화 매개로서 공공공간의 중요성	2
3) 공공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수단의 필요성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7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10
1) 연구의 목적	10
2) 주요 연구내용	10
3. 연구 범위와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2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13
1) 선행연구 현황	13
2) 선행연구 종합 및 본연구와의 차별성	16
제2장 해외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사례와 시사점	19
1. 해외사례 조사개요	19
1) 해외사례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조사내용	19
2) 사례 도시 개요	20
2. 영국 노팅엄시 : 공공공간 거점 프로젝트를 통한 도심재생	21
1) 노팅엄시의 일반현황과 특성	21
2) 도심 활성화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계획	21

3) 계획의 운영과 관리	32
3. 덴마크 코펜하겐시 :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 조성 and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심 활성화	35
1) 코펜하겐시의 일반현황 and 특성	35
2)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공간 계획 and 조성	35
3) 계획의 운영 and 관리	49
4. 독일 에쓰링엔시 : 부문별 공공공간 계획을 통한 도시경관의 통합적 관리	53
1) 에쓰링엔시의 일반현황 and 특성	53
2) 통합관리 수단으로서 경관 형성 요소별 공공공간계획	55
3) 계획의 운영 and 관리	62
5. 일본 나가오카시 : 국가 도심재생정책 and 연계된 공공사업 중심의 도심활성화	66
1) 나가오카시의 일반현황 and 특성	66
2) 공공사업 중심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and 중앙정부의 지원	72
3) 계획의 운영 and 관리	77
6.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시사점	82
1) 도시의 경쟁 요소로서 공공공간의 역할의 변화 and 중요성 증대	82
2) 비전(Vision)을 공유하는 유연성 있는 계획체계 및 계획 간 역할 정립	84
3) 기존 도시의 면밀한 현황분석 및 지속적인 리뷰(review) and 모니터링(Monitoring) 병행	87
4)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89
5) 지방자치단체 담당 조직간 협력적 시스템 구성 및 전문성 확보	90

제3장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계획 현황 및 심층조사 91

1.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의 특성과 관리체계	91
1) 중소도시 공간구조 and 도심지의 역할	91
2)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의 유형	94
3)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관리체계	96
2. 국내사례 조사 개요	102
1) 국내 현황조사 및 심층조사 대상지 선정	102
3.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심층조사	106
1) 거창군(5~10만)	107
2) 남원시(5~10만)	118
3) 제천시(10~20만)	128

4) 순천시(20~30만)	141
5) 심층조사 결과 종합	152

제4장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방안 155

1. 기본전제	155
2. 계획의 구성과 활용	158
1)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158
2)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방안	162
3.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170

제5장 결 론 173

1. 필요성과 기대효과	173
1) 국내 중소도시 공공공간 이용 실태와 현황	173
2) 도심지 공공공간 관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	174
3)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 가능성	175
4) 기대효과	175
2. 연구의 한계	176

참고문헌	178
------------	-----

summary	185
---------------	-----

부록1. 1차 중소도시 선별과정	189
-------------------------	-----

부록2. 12개 중소도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요약	198
---------------------------------	-----

부록3. 중소도시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	240
-------------------------------	-----

표차례

[표 1] 지역 도심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14
[표 2] 마스터플랜 관련 선행연구	15
[표 3] 공공공간 관련 선행연구	15
[표 4] 선행연구 종합	17
[표 5] 사례분석의 내용	20
[표 6] 해외사례 도시별 개요	20
[표 7] 코펜하겐시 공공공간 관련 도시계획체계	49
[표 8] 코펜하겐시 공공공간 계획 관련 주관부서	51
[표 9] 나가오카 시민센터의 시설내용(2008년 4월 현재)	69
[표 10] 도시규모별 인구감소 현황(2001~2005년)	92
[표 11] 중심시가지 발전단계별 특성	94
[표 12] 우리나라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의 유형	96
[표 13]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	98
[표 14] 서울시 공공공간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	101
[표 15] 인구규모별 선정 지방자치단체(안)	102
[표 16] 중소도시 공공공간 관련 정비사업 유형	104
[표 17] 심층 조사개요	106
[표 18] 국내 심층사례 도시별 개요	106
[표 19] 공공공간 관련 계획 현황(거창군)	114
[표 20]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거창군)	115
[표 21] 공공공간 관련 계획 현황(남원시)	124
[표 22]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남원시)	126

[표 23] 공공공간 관련 계획 현황(제천시)	136
[표 24] 공공공간 관련사업협황(제천시)	137
[표 25] 공공공간 관련 계획수립 현황(제천시)	146
[표 26] 공공공간 관련사업현황(순천시)	148
[표 27] 중앙부처별 경관향상 관련 사업 추진 현황	167

그림차례

[그림 1] 공공공간 역할의 변화(Jan Gehl)	4
[그림 2]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경관	22
[그림 3] 도심내 다양한 문화유산의 산재	22
[그림 4] 중세 성곽에 의한 도심확장의 제한	23
[그림 5] Masterplan overview map	25
[그림 6] Public realm	26
[그림 7] 공공공간 관련 계획	26
[그림 8] Street Specification(Stragegy)	27
[그림 9] Street Network	27
[그림 10] Street Hierarchy(proposed)	27
[그림 11] 노팅엄시 개발 거점 구역	29
[그림 12] 거점 프로젝트의 선정과 단계별 실행	29
[그림 13] 도심 중심 공공공간으로서 The Old Market Square	30
[그림 14] 과거 시장으로서의 광장의 역할	30
[그림 15]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과거의 모습	30
[그림 16] The Old Market Square 계획안(건축가 Gustafson Porter 안)	31
[그림 17] 현재 노팅엄시 The Old Market Square 전경	31
[그림 18] 영국의 LDF 계획체계 및 구성(CABE, 2005)	32
[그림 19] 도시공간관리체계와 노팅엄시 공공공간 관련 계획	33
[그림 20] CUSAP(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Plan)	39
[그림 21] A plan for Copenhagen – the metropolis	40
[그림 22] A plan for the local neighbourhoods	40

[그림 23] 시민 워크샵 전경	42
[그림 24] 구도심 내 보행지역화 구역	43
[그림 25] 쇼핑거리로서 STRØGET(1880)	43
[그림 26] 활력이 사라진 차량 중심의 STRØGET(1960)	43
[그림 27]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1968)	43
[그림 28] 도심의 활력이 넘치는 보행가로(2005)	43
[그림 29] 주차장으로 사용	43
[그림 30] 집회의 장소로의 변화	43
[그림 31] Kalvebod Brygge 항구 다이어그램	44
[그림 32] Christian 운하, 코펜하겐	44
[그림 33] 수변지역의 Bathing 시설	45
[그림 34] Bathing 시설 조성 Ideas	45
[그림 35] Amager 해변 Bathing 공간	45
[그림 36] 자동화 지하 주차 시설 구조	46
[그림 37] 주차 시설 입구	46
[그림 38] 공공공간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 공유	46
[그림 39] During Elmene 공공공간 전경	46
[그림 40] During Elmene 배치도	46
[그림 41] 분석 내용(public space-public life 목차)	47
[그림 42] 보행지역화에 의한 보행환경 분석	48
[그림 43] 도시공간관리체계와 코펜하겐시 공공공간 관련 계획	50
[그림 44] 워크샵 풍경	52
[그림 45] Action Plan 전개 과정	52
[그림 46]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초기 아이디어	52
[그림 47] 에쓰링엔시의 중심시가지 전경	54
[그림 48] 1980년대 선적인 공공공간 개발 전략에서 중심시가지의 공공공간 전체를 네트워크화 하는 전략(2000년대)으로의 변화과정(Stadtbauatelier, 2002)	57
[그림 49] 상업, 교육, 문화권을 각각 설정하여 중심시가지의 용도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 본구상(Stadtbauatelier, 2002)	57

[그림 50] 에쓰링엔시 도심지 공공공간의 공간위계와 특성에 따른 공간유형	58
[그림 51] 에쓰링엔시 도심지 공공공간 특성별 주요 디자인요소	58
[그림 52] 공공에서 설치하는 휴지통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60
[그림 53] 민간에서 설치하는 파라솔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60
[그림 54] 중심시가지 야간경관 디자인 기본구상	61
[그림 55] 도시공간관리체계와 에쓰링엔시 공공공간 관련 계획	63
[그림 56]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	67
[그림 57]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구역	67
[그림 58] 중심상업가로인 오오테로	67
[그림 59] 평화의 숲공원	67
[그림 60]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의 기본방침	73
[그림 61]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에 의한 사업	74
[그림 62] 시민협동형 시티홀 지붕있는 광장의 투시도	75
[그림 63] 오오테로 중앙 서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 지역의 현재와 정비 후 모습	76
[그림 64] 오오테로 중앙 동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 지역의 현재와 정비 후 모습	76
[그림 65] 나가오카시 도시계획체계와 중앙부처의 도시재생지원 체계	79
[그림 66]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 추진체제도	80
[그림 67] 보행 가로 조성	82
[그림 68] 자전거 도로 조성	82
[그림 69] 보행 쉼터/ 광장 조성	82
[그림 70] 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광장 계획(the Old Market place, Nottingham)	82
[그림 71]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과 공공공간의 활용	83
[그림 72] 다양한 수변 공공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향상(코펜하겐 수변 계획)	83
[그림 73] 공공공간 관련 계획 비전(vision)의 공유(코펜하겐)	84
[그림 74] 시기별 공공개발 영역의 구분	84
[그림 75] 거점 프로젝트의 단계별 실행계획	84
[그림 76] 공공공간 개발 계획과 특정 계획(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Plan)	85
[그림 77]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 Nottingham)	85
[그림 78] Public realm(Nottingham)	85

[그림 79] 공공공간 관련 계획 간 연동체계(Nottingham)	86
[그림 80] 도심 수변 공공공간 활용	86
[그림 81] 옛 직물공장 전면 광장화	86
[그림 82] 기존시설의 재활용(에쓰링엔)	86
[그림 83]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도심 공공공간의 현황 분석(코펜하겐)	87
[그림 84] 건축물 높이	87
[그림 85] 천공률	87
[그림 86] 문화유산	87
[그림 87] 지상층 용도	87
[그림 88] 주요 지점별 인터뷰 및 이용율 조사(코펜하겐)	88
[그림 89] 에쓰링엔시 공공공간 계획 전문가 Michael Trieb	88
[그림 90] 코펜하겐 공공공간 분석 및 계획 전문가 Jan Gelh	88
[그림 91] 노팅엄시 디자인 참여 주체	89
[그림 92]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화협의회 참여 주체	89
[그림 93] 노팅엄시 주민 참여 워크숍 프로그램	89
[그림 94]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별 담당부서	99
[그림 95] 도시계획시설별 담당부서(예:서울시)	100
[그림 96]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 진행	109
[그림 97] 거창 스포츠파크	109
[그림 98] 도심지 토지이용도(거창군)	109
[그림 99] 도심지 가로체계도(거창군)	110
[그림 100] 상동지구내 책 읽는 공원	111
[그림 101] 상동지구 내 어린이 공원	111
[그림 102]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거창군)	111
[그림 103]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거창군)	112
[그림 104] 도로에 의한 위천변과의 접근성 저하	113
[그림 105] 수변 보행로의 단절	113
[그림 106] 재래시장 개선 사업	114
[그림 107]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거창군)	115

[그림 108] 도심지 가로체계도(남원시)	120
[그림 109] 도심지 토지이용도(남원시)	121
[그림 110]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남원시)	122
[그림 111]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남원시)	123
[그림 112] 구남원역 도심속 허브꽃단지 조성	123
[그림 113] 영어체험 학습센터 전면 부지	123
[그림 114]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남원시)	125
[그림 115] 간판 정비사업	126
[그림 116]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126
[그림 117] 도심지 토지이용도(제천시)	131
[그림 118] 도심지 가로체계도(제천시)	132
[그림 119] 중앙공원	134
[그림 120] 중앙시장 보행자전용도로	134
[그림 121]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제천시)	134
[그림 122]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제천시)	137
[그림 123] 도심지 토지이용도(순천시)	143
[그림 124] 도심지 가로체계도(순천시)	144
[그림 125]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순천시)	145
[그림 126]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순천시)	148
[그림 127] 도시관련계획체계(순천시)	150
[그림 128]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구성과 주요내용	159
[그림 129] 행정계획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활용	164
[그림 130] 특정경관계획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활용	166
[그림 131]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활용	168
도심내 공공공간 분포 현황(순천시)	265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연구의 배경

1) 지방 중소도시 도심지 쇠퇴와 열악한 공공공간

①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심지의 쇠퇴

우리나라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중심시가지에 업무 및 구매활동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인구규모 20~30만 정도의 중소도시는 일반적으로 단핵중심의 구조로, 주거와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도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의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경제·물리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공간이다.

2005년 현재 대부분의 중소도시에서 인구쇠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¹⁾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신도시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반면 기존의 중심시가지는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다. 특히 중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도심지에서 인구와 고용 감소, 공장, 상점, 사무실 등의 감소,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와 서비스 투자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사회·공간적 불균형 발생 등 도시문제와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1) 소규모도시(인구 10만 미만)의 약 95%와 중규모도시(인구 10~50만 미만)의 약 45%에서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어 중·소도시의 70%에서 정체 또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② 도심지 쇠퇴를 가속화하는 열악한 공공공간

이와 같은 중소도시의 쇠퇴현상과 더불어 도심지 내에는 도로, 공원 및 녹지, 공개공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서의 공공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존 중심시가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협소한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점적으로 개발된 고층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노후도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현재 진행중인 공공공간 관련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에 의한 일회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거나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획일적 프로그램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얻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공공공간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역개발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고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공간 관련 계획과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사람들의 만남과 커뮤니티 활동이 이루어져 사회적인 삶의 기초가 되는 공공공간의 부족은 중소도시 도심지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큰 요인 중의 하나로,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및 사용자 인식 조사결과에서 도심쇠퇴 진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도로, 오픈스페이스, 주차장 등 공공공간의 부족에 따른 쇠퇴현상을 중요 인자로 보고 있다.²⁾ 이처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간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지역 활성화를 가로막고 도심 쇠퇴를 가속화하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심재생의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2) 도심지 활성화 매개로써 공공공간의 중요성

① 도심지 공공공간의 가치

공공공간은 일상적인 삶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인 동시에 사회, 문화, 경제적 자산으로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다. 영국의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2) 장희명 외, 2008; 강민정 외, 2008; 오덕성 외,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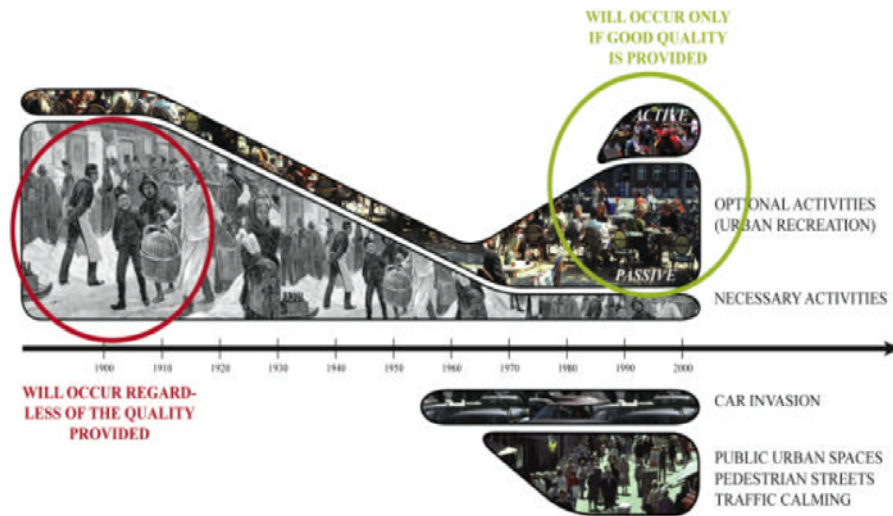
Built Environment)에서는 공공공간을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범죄의 감소와 예방효과를 가져오고 사회통합적 기능과 차량을 억제하여 보행을 장려하는 기능 등 수많은 환경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³⁾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은 도시공간에서 서로 이질적인 부분들을 기능적,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 건축물들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개방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전파하는 매개공간으로서, 그리고 도시문화의 가치를 상징하는 역동공간으로서 특성을 갖고 있다. Jan Gehl은 「Life Between Buildings(1971)」에서 공공공간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행위를 필수적인 외부활동(necessary outdoor activities), 선택적인 휴식활동(optional recreational activities),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social activities)으로 분류했는데, 현대 도시에서는 선택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을 오랜 조사 결과를 통해 밝히고 있다.⁴⁾ 1900년 대 초반 가로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필수적인 외부활동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공공공간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공간이었으며 공공공간의 질과는 무관하게 이동, 장보기, 상행위 등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발전속도가 정체된 저성장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 오늘날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행위 유형은 과거의 것과는 많이 다르다. 출퇴근에 필요한 이동활동 등 최소한의 필수적인 외부활동 이외의 쇼핑이나 여가활동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전화나 인터넷, 혹은 대형쇼핑몰이나 실내 체육관에서의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싶기 때문에 공공공간을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공간의 질, 즉 공공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가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21세기의 도시 중 활력 있고 매력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알려진 유명한 도시에는 가로와 광장, 공원 등 보행자의 활동을 유발하는 좋은 질의 공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3) CABE, 2004, The Value of Public Space

4) Jan Gehl, 2007, Public Spaces for a Changing Public Life



[그림 1] 공공공간 역할의 변화(Jan Gehl)

② 중소도시 도심지 활성화의 필요조건과 도심지 공공공간의 기능

도심지의 개념을 요약하면, 상업·업무 등 도시 활동의 중심적인 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긴 역사성을 지닌 문화와 전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도시얼굴’의 역할을 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⁵⁾ 다시 말해 한 도시의 도심지는 경제·사회·문화적 삶의 중심지로 오랜 세월을 걸쳐 사회기반이 조성되어 온 장소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 다양한 기능이 집적되어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함과 쾌적한 거주환경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장소다.

도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일본 나가오카대학의 나카데 분페이 교수는 기존의 상업기능의 일방적인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기능의 공간을 재구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도시, 거리, 시내, 기다림... - 중심시가지재생의 이론적 배경”⁶⁾이라는 논문에서 그는 첫째,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머무는 것이 즐거운 환경을 조성하고 가로를 보행자 우선지역을 설정하고 보행환경이 우수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정비하여 공공 교통서비스의 향상 전략과 연동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둘째, 다양한 기능을 필요로 하는 거주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매력적인 도심의 거주기회를

5) 일본내각, 2007,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지침

6) 나카데 분페이, 2007, “도시, 거리, 시내, 기다림... - 중심시가지재생의 이론적 배경”, 경제교통문제논집 「지혜의 힘」, 나이가타현 경제교통문제연구소

제공해야 하며, 셋째, 도시가 지닌 장소성을 재평가하고 회복시켜 지역색이 뚜렷한 개성 있는 도시로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심지의 활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와 오락이 가능한 거리를 조성하고 관공서,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유치해 우수한 공공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도심지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다양한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공공공간은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도심지내 공공공간의 기능은 사회적 활동무대로서의 기능,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도시아이덴티티와 경쟁력 확보의 구심점으로서의 기능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도시의 사회적 활동무대로서 도심지 공공공간

도시의 활동이 집약되어 나타나는 도심지 공공공간은 다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활용하는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며 한 도시의 사회적·문화적 관계를 형성하고 반영하는 장소이다. 도시사회에서 공공공간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⁷⁾ 공공공간은 여러 계층을 하나로 결집시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는 장소로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다양한 계층의 교류활동을 증진시켜 도심활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공간은 다양한 계층의 활동을 수용하는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짐으로써 도심활력에 기여할 수 있다.⁸⁾ 공공공간은 또한 근린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Jan Gehl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보행가로의 조성이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의식조사와 행태조사를 통해 밝히고 있다.

□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서 도심지 공공공간

공공공간은 한 지역의 자산으로서 기존의 물리적 자원을 활용하고 자연환경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한 거점장소로서의 역할을 한다. 공원이나 도심지내 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자연환경과 연계된 보행네트워크를 확보하거나 녹지와 공

7) A. Madanipour, 2003

8) 서수정 외, 2008,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공공간을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공간환경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원동력이자 도심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자원으로 기능한다. 또한 공공공간은 경제적 가치와 지역성을 제공하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⁹⁾

□ 도시 아이덴티티와 경쟁력 확보 구심점으로서 도심지 공공공간

도심지 내에서 연속된 공공공간의 형성은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장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지역의 고유한 자산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좋은 공공공간의 확보는 환경부하를 줄임으로써 도시차원의 유지관리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잘 조성된 공공공간은 새로운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민간투자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¹⁰⁾.

③ 도심지 활성화 매개로서 공공공간

1960년대 이후 선진국의 도시들은 중심시가지 기능이 쇠퇴되고 공동화되어 가는 문제를 경험하고 지역 인구의 감소, 상업시설의 교외화, 도심 공동화, 공공기관의 이전 등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도심 쇠퇴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이 기존에는 지역의 상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부흥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점차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도심지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역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하에 도심지 내 공공공간은 지역민에게 쾌적한 물리적 활동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상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지 재생을 유도하는 선도 프로젝트로 활용되는 예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는 잘 조성된 공공공간이 사람들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될 뿐만 아니라, 도심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담보할 수 있어 도심재생사업의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¹¹⁾ 특히 사업성이 낮은 도심지역일수록 공공의 참여를 통해 공공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도심활력을 도모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에서는 공공이

9) PPS, 2006

10) 서수정 외, 전계서

11) 서수정 외, 전계서

선도적으로 공공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낙후된 도심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공공공간 조성사업은 쇠퇴한 도심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민간투자와 인구유입을 통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재생을 유도하는 거점 프로젝트로서 실효성이 큰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공공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¹²⁾

3) 공공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수단의 필요성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① 공공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Jan Gehl은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 등이 사회적 접촉을 대체하고 가구당 구성원수가 점점 감소하여 개인화가 심화되는 현대사회에서도 공공공간은 중요하며 예전보다 더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음을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 밝히고 있다¹³⁾. 특히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과 경험을 공유하길 바라고, 여가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잘 조성된 공공공간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처럼 공공공간의 성패는 공공공간이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들이 즐겨 걷고, 머물고, 앉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람으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섬세한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수준 높게 조성된 공공공간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공간을 친숙하고, 인간적이고, 민주적이며, 안전하게 조성하는 것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이다.

현대의 공공공간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많은 조건을 고려하여 이들이 잘 부합될 수 있을 때 보행 및 다양한 외부 활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공공간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일이다. 기존의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짓고 나머지 공간에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공공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계획이 없을 뿐 아니라 공간이 형성되면 삶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왔다.

12) 서수정 외, 전계서

13) Jan Gehl, 2007, Public Spaces for a Changing Public Life

이제 이와 같은 계획 방식은 바뀌어야 하며 어떤 삶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후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건축물이 필요한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먼저 삶(life)을, 다음 공간(space)을, 그리고 건축물(buildings)을 계획해야 한다.

살기 좋은 도시, 가고 싶은 도시로 꼽히는 세계의 도시들은 쾌적하고 걷기 좋은 공공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체계와 공공공간 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어 보행자를 먼저 생각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활기 있는 상가와 문화시설, 축제 등 거리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의 일관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 지속적인 유지와 관리가 없었다면 실현되기 어려우며, 실제로 런던, 코펜하겐, 멜버른, 취리히 등 세계의 도시들은 도심지 공공공간에 대한 비전(vision)과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코펜하겐시가 시민들로부터 살고 싶은 도시로 인정받고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해온 것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공간 정책의 시행과 실현에 근거한다. 지난 40년간 도심지내 공공공간을 보행공간으로 바꾸고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Jan Gehl은 공공공간의 변화를 코펜하겐 시민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환영한 것은 시의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하였다. 이는 시의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코펜하겐시는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점진적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

② 공공공간 관리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의미와 역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삶의 터전으로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이에 앞서 정밀한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이 점차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가운데 낙후된 도심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의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 공공공간의 조성과 이용, 관리 방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마련과 공간 계획의 부재에 따른 해결책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궁극적으로 한 지역의 공공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즉, 지역의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vision), 이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의 기본방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한 사업지침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한 지역의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하며(대상),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 공공공간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목표) 비전(vision)과 목표를 제시하고, 지역현황 및 수요를 파악하여 단계별 전략과 실행수단을 마련,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것임(내용)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지역의 현황과 설계개념, 전략 등을 글, 설계도면,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설계도구인 동시에 다양한 관련 주체와 논의를 하기 위한 기초도구로 공통된 비전(vision)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역할은 크게 설계를 위한 도구, 소통을 위한 도구, 그리고 공간관리를 위한 도구로 분류할 수 있다.

□ 설계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향후 지역의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성할 것인지에 관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전(vision)을 그려보는 설계 수단이다.

□ 소통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관련 주체들이 상호 협의를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활용하는 소통 수단이다.

□ 관리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한 지역의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틀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에 관련된 주체들이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관련 주체들이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인 동시에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나가야 할 약속임을 의미한다.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내용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의 공공공간을 지역 내 삶의 중심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그 해결책의 하나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중소도시의 공공공간의 이용 및 계획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해외에서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현황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여건을 반영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끝으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을 통한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다.

2) 주요 연구내용

국내 여건에 맞는 공공공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수단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국내 중소도시 공공공간 계획 및 운영체계 분석, 순천시, 제천시, 남원시, 거창군 등 4개 중소도시에 대한 도심지 공공공간 이용 및 관리현황에 관한 심층조사, 해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사례조사, 그리고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 방안 제시 등 4개의 주요 내용을 다루었다.

① 국내 중소도시 공공공간 계획 및 운영체계 분석

국내 중소도시의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도시계획 체계에 기반하여 관련 계획들을 조사 분석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공공공간 전담 계획 및 관리 부서를 조사하여 운영체계를 분석하였다.

②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이용 및 관리현황 심층조사

국내 중소도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특성과 도심지의 역할, 그리고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국내의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관리현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인구 규모별로 순천시, 남원시, 거창군, 제천시 4

개의 도시를 선정하여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와 관리체계를 조사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③ 해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사례조사

해외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운영 사례는 도심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중 공공공간 관련 계획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공공공간의 계획·조성·관리 측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하여 조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례 대상지는 1960년대부터 도심지 내 공공공간을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시, 도심지의 노후화된 공공공간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함으로써 중심 상권을 살리고 쇠퇴한 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킨 영국의 노팅엄(Nottingham)시와 독일의 에쓰링엔(Esslingen am Neckar)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공공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나가오카(Nagaoka)시이다.

④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 방안 제시

국내 중소도시의 공공공간 실태조사와 해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기본전제와 구성, 그리고 활용방안을 알아보았다. 또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제언을 담고자 하였다.

3. 연구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①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인구 5~30만의 중소도시 가운데 구도심 공공공간으로 한정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가운데 구도심의 낙후로 인해 기존의 공간적 특성이 변화한 도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인 도시 등을 선별하여 1차 현황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천시, 제천시, 남원시, 그리고 거창군 등 4개의 도시를 심층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공공공간이라 함은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있고(개방성), 공공에게 편의와 이익을 제공하며(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매개성, 역동성) 공간¹⁴⁾을 의미하며 이동, 만남, 집회, 여가와 놀이, 판매 등 다양한 이용목적에 따라 가로, 광장, 공원, 하천, 놀이터, 시장, 상업가로, 운동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공공간 가운데 현재 중소도시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공공공간, 즉 기반시설로서 가로, 광장, 공원 등과 공공시설 전면의 공간, 그리고 재래시장 등을 본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하였다.

② 내용적 범위

본 연구는 개별 사례를 통한 사실(facts) 분석과 실증적 자료 수집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국내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내용과 계획 및 운영체제, 그리고 사업추진성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전제로 하였다. 또한 원론적 방향 제시보다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을 고찰, 기존 계획체계 내에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개념과 역할 정립
-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조성 현황조사
-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조성 실태, 관련 계획 및 사업 심층조사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제언

2) 연구의 방법

① 문헌검토

- 도심지 활성화 전략으로서 공공공간 개선에 관한 국내외 이론 및 연구성과 분석, 마스터플랜의 필요성 검토

14) 이상민, 2007,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33

- 문헌, 인터넷 등의 검토를 통한 공공공간 관련 마스터플랜의 기능과 역할, 성과 및 수립방법 등에 대한 조사

- 국내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현황 및 선행 연구 검토

② 국내외 사례분석

- 국외 우수사례를 조사하고 현지답사 및 관련 전문가, 행정가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공한 요인을 검토하고 적용방안 모색

- 국내 중소도시의 공공공간 관련 계획과 사업 현황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4개 심층조사대상을 선정하여 면밀한 현황조사와 실태파악은 물론 주민, 공무원, 지역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과 내용, 활용방안 등에 대해 조사

③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서 공공공간 개선과 통합적 계획과 관련된 학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터플랜 수립 방법 및 제도적 개선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 행정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수립된 공공공간 관련 계획과 마스터플랜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향 모색

④ 외부전문가 활용

- 국내 중소도시관련 전문가를 활용하여 중소도시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공간구조적 특성과 유형 등에 대한 원고의뢰

4. 선행연구 현황과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연구는 주제별로 지역의 도심 활성화 관련 연구와 마스터플랜 관련 연구, 그리고 공공공간 관련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주제별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도심 활성화 관련 선행 연구

2000년 초기까지 도심기능 재생의 필요성과 재생수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도 후반부터는 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관련 연구가 다수 제안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도심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정책이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거시적 대안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재생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 도심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1] 지역 도심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도심환경 및 특성 고찰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부의 공간특성 고찰에 관한 연구’(안태환, 1981 ; 강병기, 1981 ; 이주희, 1985) • ‘도심쇠퇴 실태에 관한 연구’(이명훈, 2002 ; 강동진, 2001)
도심기능의 재생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 촉진에 관한 연구’(정종대, 2003 ; 이상대, 2004 ; 남진, 2006 ; 정재용, 2006) • ‘상업기능 활성화 연구’등
재생수법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단위구획정리수법 연구’(양윤재, 2002) • ‘복합용도개발 연구’(이천기, 2004) • ‘용적이전제도 및 개발권양도제 등의 제도연구’(김창석, 2004 ; 이영석, 2005), • ‘재생사업 참여주체 연구’(남진, 2004 ; 곽동윤, 2006)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방향과 과제’(배순석, 한국주택학회, 2006) •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송상열·장희순, 한국부동산학회, 2006)
중소도시 활성화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신정철·김의석·김형석, 국토연구원, 2004)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차미숙, 국토연구원, 2008)

② 마스터플랜 관련 선행 연구

마스터플랜 관련 연구는 경관계획 관련 마스터플랜 연구가 일부 등장하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와 대규모 도시계획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연구보다 프로젝트에 기반한 사업제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시정촌 마스터플랜을 비롯한 지역중심의 마스터플랜 수립 및 계획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지역 마스터플랜에 관한 연구(강식, 2007)가 있다.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마스터플랜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대학교 마스터플랜	• ‘캠퍼스 마스터플랜의 구성(構成)과 계획방법(計劃方法)에 관한 연구(研究)’(안경환, 2008) 외 다수
도시기본계획과 연관	• ‘계획적 도시개발·정비를 위한 도시마스터플랜제도 연구’(강식, 경기개발연구원, 2007)
경관계획과의 연관	• ‘도시경관계획의 작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김한배, 2002) • ‘춘천시 도시경관의 구조적 변천과 바람직한 경관계획 전략’(조현길, 2005)

③ 공공공간 관련 선행 연구

공공공간의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개별 공공공간의 개선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 도심재생을 목적으로 공공공간의 확보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를 위한 합리적인 프로세스 및 공공공간 간 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공간 간 연계 및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특정 공공공간(공원)에 한정하여 진행된 연구와 공공건축과의 연계방안을 다룬 연구가 일부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계획을 통합적 시각에서 다룬 선행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공공공간 관련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표 3] 공공공간 관련 선행연구

구 분	연 구
공공공간 확보 및 재생방안	•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서수정·고은정, 2008) •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공간 이용 대책’(장경철, 2008)
프로세스 및 통합화 방안 연구	•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이상민·차주영·임유경, 2008)] • ‘도시 공공공간디자인을 위한 체계적 방법에 관한 연구’(최성호, 2007)
공공공간 유형별 연구	• ‘공장이전적지의 근린공원 조성이 지역경제 및 주민복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홍배 외, 2004) • ‘공개공지 조성의 실태와 개선방안’(이용운, 2002) • ‘도시공간의 유희공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백나영, 2002) • ‘공장이전적지의 토지이용특성 규명에 관한 연구’(임창호, 2002) • ‘도시공원의 속성과 문제점’(최석주, 1996)
공공공간의 현황 및 개념	• ‘공공 여가공간의 개념과 특성 및 연구방향’(신용석, 2005) •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이상민·차주영·임유경, 2007)
기 타 (공공공간 통합계획 관련)	• ‘장소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조준배·임현성·서수정·권미주, 2008) •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체계에 관한 연구’(양석우 외, 2007)

2) 선행연구 종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는 각 주제별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지역 도심 활성화 관련 연구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적인 개선점과 통합의 필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계획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행 수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마스터플랜 관련 연구의 경우,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중소규모 도시 단위에서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도출이 요구되며, 이중 공공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공간 관련 연구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통합화하기 위한 실천대안으로써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의 수립을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2007년 설립 이후 공공공간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 정립 및 현황 조사 연구(2007)’를 통해 공공공간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 공공공간 관련 법규와 제도를 분석하여 공공공간 조성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2008)’연구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촉매기능으로서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선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하였다.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2008)’에서는 공공공간의 통합계획 및 관리 필요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관련 행정 주체 간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에서 제안된 공공공간의 개념 및 통합 필요성, 조직 및 정책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한 실행수단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구성과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표 4] 선행연구 종합

구분	지역 도심 활성화 관련	마스터플랜 관련	공공공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신정철·김의석·김형석, 국토연구원, 2004) •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송상열·장희순, 한국부동산학회, 2006) •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 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차미숙, 국토연구원,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도시개발·정비를 위한 도시마스터플랜제도 연구’(강식, 경기개발연구원,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서수정·고은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08) •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이상민·차주영·임유경, 2008)
내용	낙후된 지방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과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함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 시정촌 마스터플랜을 검토하여 국내 도시계획과 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제기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을 이용한 사업 및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적 개선점 제안 도심내 공공공간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제안
의의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 활성화의 대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하고 지역단위의 통합추진체계의 필요성 도출	지역규모에 맞는 적절한 도시마스터플랜의 필요성 제기와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vision)을 목표로 도심 내 다양한 분야의 마스터플랜을 제안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공공간 간 연계 및 통합 가능성 제기
한계	활성화의 대한 해결책이 제도 및 정책적인 대안에 한정되어 있어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계획 방안이나 활성화 수단에 대한 연구가 미흡	도시기본계획의 보완 수단으로 도시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있어 광범위한 지역범위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지역 중소규모 단위에서의 마스터플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특히 공공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의 전략 및 대안 도출이 요구됨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통합화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마스터플랜’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의 수립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요구됨

제2장 해외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사례와 시사점

1. 해외사례 조사개요
2. 영국 노팅엄시 : 공공공간 거점 프로젝트를 통한 도심재생
3. 덴마크 코펜하겐시 :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심 활성화
4. 독일 에쓰링엔시 : 부문별 공공공간 계획을 통한 도시경관의 통합적 관리
5. 일본 나가오카시 : 국가 도심재생정책과 연계된 공공사업 중심의 도심지 활성화
6. 시사점

1. 해외사례 조사개요

1) 해외사례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 및 조사내용

① 해외사례 조사 대상지 선정 기준

본 연구는 도심내 공공공간의 개선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여 도심지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위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공공공간의 종합적인 계획과 중요자산으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선정사례는 도심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중 공공공간 관련 계획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으며 공공공간의 계획·조성·관리 측면에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대상으로 1960년대부터 도심 공공공간을 보행자 위주로 전환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덴마크의 코펜하겐(Copenhagen)시, 도심내 노후 공공공간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로 개선하여 주변 상권을 살리고 쇠퇴한 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킨 영국의 노팅엄(Nottingham)시·독일의 에쓰링엔(Esslingen am Neckar)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공공사업을 통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일본의 나가오카(Nagaoka)시이다.

② 조사방법 및 내용





사례분석을 통해 공공공간 관련 계획이 수립되게 된 배경, 관련 계획체계, 조직 운영체계 및 운영 절차를 파악하고, 공공공간 관련 마스터플랜의 내용과 공공공간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살펴본 후 사업 성과 및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5] 사례분석의 내용

구 분	내 용
도시일반특성	위치, 인구, 면적, 역사적 특성, 도심지 특성 등
관련 계획체계	도시 계획 운영체계, 관련 계획 운영 프로세스, 관련 계획 간 연관성 등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배경, 마스터플랜 세부내용 등

2) 사례 도시 개요

[표 6] 해외사례 도시별 개요

구 분	노팅엄	코펜하겐	에쓰링엔	나가오카
위 치	영국 잉글랜드 중부	덴마크 셸란섬 동쪽	독일 남부	일본 중서부
면 적	74.61km ²	2673km ²	46.43km ²	840.88km ²
인 구	292,400명(2008)	1,145,804명(2008)	91,700(2007)	282,829명(2006)
지도				

※ 참고 : wikipedia

2. 영국 노팅엄시 : 공공공간 거점 프로젝트를 통한 도심재생

1) 노팅엄시의 일반현황과 특성

① 도시 일반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영국 잉글랜드 중부 노팅엄셔주(州), 트렌트강의 왼쪽 • 인구 : 292,400명(2008년) • 면적 : 74.61km² • 역사적 특성 : 중세시대 대피소로 쓰인 도시 빈민자 거주 동굴, Nottingham castle, 시인바이런·D.H로렌스와 관련된 유적 등 다채로운 역사적 유산을 보유 • 산업적 특성 : 교육도시(Nottingham University), 상권(6개의 백화점, 2개의 대형쇼핑몰, 1300개 이상의 상점) 발달, 과거 영국의 섬유와 패션의 중심지¹⁵⁾ • 도심지 특성¹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세력권의 상업·문화·사회·행정중심지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위기에서 일찍부터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 -영국의 east-middle land의 중핵도시로서 유통을 비롯한 비제조업 중심의 진흥에 의한 지역 활성화 정책과 하이테크 등 신규산업의 입지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중심시가지 개발 -영국 중에서도 지역 활성화 실적이 가장 뛰어난 도시 중 하나임
--	--

2) 도심 활성화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활용을 위한 계획

① 도심 쇠퇴로 인한 활성화 전략의 수립

□ 다양한 시대별 유산이 혼재된 도심경관

노팅엄시는 영국의 중세적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대표적 도시 중 하나이다. 12세기 왕으로부터 도시의 독립성을 인정받아 번영한 이래 로빈훗의 전설과 관련된 유적(12세기), 도시 빈민굴과 대피소로 활용된 도시 지하동굴(Nottingham cave, 13세기), 노팅엄성(Nottingham castle, 17세기) 등 시대별 문화유산이 축적되어 있는 도시이다. 18세기 이후부터 탄광산업과 직물산업이 발달하고 관련시설들이 도심내로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혼란스러운 건축외경과 도시경관, 밀도높은 도시환경이 야기되었으며, 이는 도심내 존치

15) <http://en.wikipedia.org/wiki/Nottingham>

16) 김광우, 2002, 「중심시가지 활성화 미영독 18개 도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p231

되고 있는 중세건물들의 보존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그림 2]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도심 경관



[그림 3] 도심내 다양한 문화유산의 산재

□ 도시 확장의 물리적 제한에 따른 도심 환경의 악화

노팅엄시는 18세기 이후 직물(lace)산업으로 크게 성장하여 짧은 시간동안 도심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기반산업이 도시에 집중된다. 하지만 중세시대에 축조된 성벽에 의해 도심 외곽이 견고하게 둘러싸여 있어 1930년대 까지도 성벽 바깥 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졌고 도시의 성장은 성벽 안쪽에 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급증하는 인구와 물자의 공급은 도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 범위를 넘어서게 된다¹⁷⁾.

더불어 1960년대 이후 기존 도시의 맥락과 무관한 대규모 건축물들이 나타나면서 통일된 경관이 무질서하게 변모하였고, 도심지로 급격하게 차량이 유입됨에 따라 보행을

17) Nottingham city council, 2009, Nottingham city centre urban Design Guide, p5

통한 도심 접근성이 저하되었으며, 직물산업의 침체와 동시에 도심지 동쪽지역과 남쪽지역이 급격히 쇠퇴하는 등 도시가 비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정돈되지 않는 도심환경을 야기하게 되었다¹⁸⁾.

따라서 노팅엄시가 겪는 도시 문제는 일반적으로 다른 대도시들이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확장해가면서 겪게 되는 도심공동화 현상과는 달리 한정된 도심내에 다양한 시대적 경관이 중첩되어 도심 전체가 혼란스럽게 개발된 원인 때문이다.



[그림 4] 중세 성곽에 의한 도심확장의 제한

② 재생 전략을 통한 도심지 통합관리

□ 재생을 목표로 한 비전(vision)의 설정과 계획의 운용

노팅엄시의 기반산업은 탄광·직물(lace) 산업 등에 치중되어 있어 국제 경쟁력 면에서 비교적 빨리 쇠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방정부의 위기의식도 타도시에 비해 강하였다. 따라서 일찍부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고 영국내 이스트 미들랜드(East-middle land)의 중핵도시로서 유통을 비롯한 비제조업을 진흥시키고자 지역활성화 및 하이테크 등 신규산업의 입지를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한다¹⁹⁾.

이러한 시책은 도심지를 경제·사회·문화생활의 거점이며, 수많은 방문객과 매력적인 쇼핑장소들이 넘쳐나는 활기차고 중요한 장소로 인식하고, 이를 위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생전략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²⁰⁾.

18) Nottingham city council, 2009, Nottingham city centre urban Design Guide, p7

19) 김광우, 전계서, p231

도심 재생의 실현이라는 비전(vision)을 바탕으로 지역계획(Local plan)에서는 도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하여 도심환경의 개선 방향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쇼핑·업무시설·여가 및 관광 산업·공공 편의시설·기타 주거 및 교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특히 도심지 전략(Strategy-City Centre)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²¹⁾.

지역계획(Local plan)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심 재생전략과 도심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목표를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구체화하기 위해 도심 마스터플랜(Nottingham City Centre Masterplan, 이하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이 지역계획(Local plan)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도심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은 도심지내 보행자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상업·문화·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는 도심환경을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²²⁾.

□ 공공공간 중심의 도심지 계획

상기와 같이 도심 활성화 전략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화하는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에서는 도심지내 공공공간의 계획 및 활용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유형, 대상, 적용범위에 따라 하위 계획인 Nottingham City Centre Urban Design Guide, Nottingham City Centre Streetscape Design Manual, Householder Design Guide 등에서 구체적인 지침 및 활용방안을 다루게 된다.

-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과 공공공간(Public realm)의 계획 및 전략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은 지역계획(Local Plan)을 바탕으로 도심 재생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정부(Nottingham City Council)가 주체가 되어 수립하며, 계획의 목표는 도심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물디자인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고, 역사적 경관을 보존함으로써 매력적인 공공공간을 형성하며 경제계획·교통시스템·도시설계 등의 다양한 계획을 공공공간 계획과 통합하는 것이다. 또한 중심시가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며, 개별 공간요소들을 법정계획인 지역계획(Local plan)이나 지역 교통계획(Local Transport Plan)등의 내용으로 구체화²³⁾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 Nottingham City Council, 2005, Nottingham City Centre Masterplan,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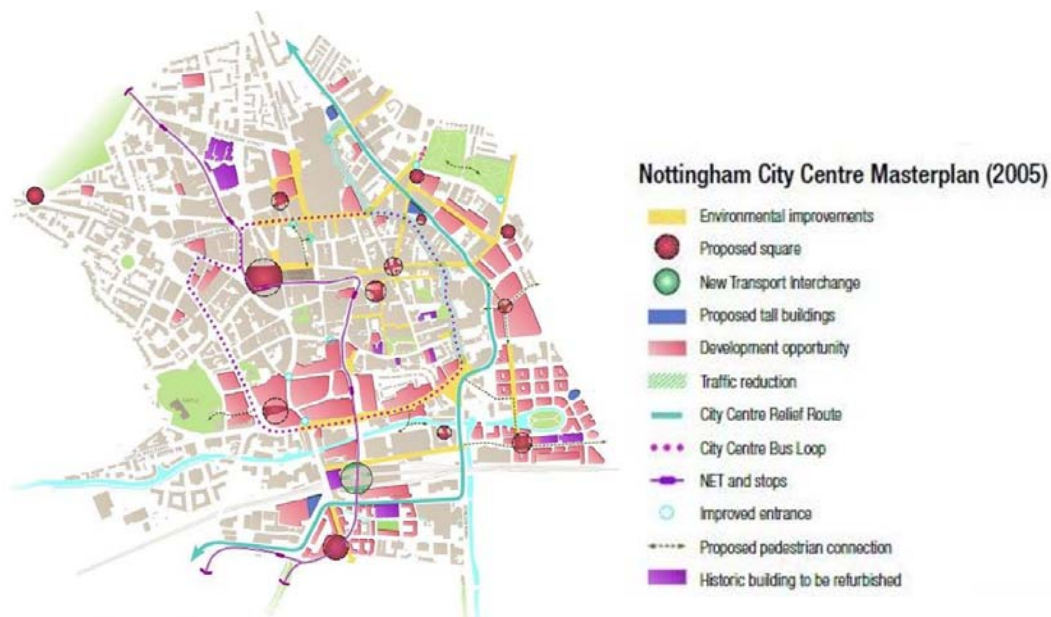
21) Nottingham City Council, 2005, Nottingham Local Plan, p11

22) Nottingham City Council, 2005, Nottingham Local Plan, p11

23) Nottingham City Council, 2005, Nottingham City Centre Masterplan, p6

계획의 기본방향은 2차 세계대전 후 파괴된 역사적 경관을 복원하고 건축물과 공공공간의 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공간계획 방안(strategic spatial framework)’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도심 쇠퇴를 가속화시킨 기존의 도시 개발계획과 차량 급증에 대한 대안으로 교통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중심시가지의 보행환경 개선과 공공공간의 보수 또는 신설을 통해 다양한 집회 및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 건립(11,000가구)과 호텔, 여가공간, 업무시설의 증가를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도시구조의 변화와 높은 수준의 공공공간 및 광장의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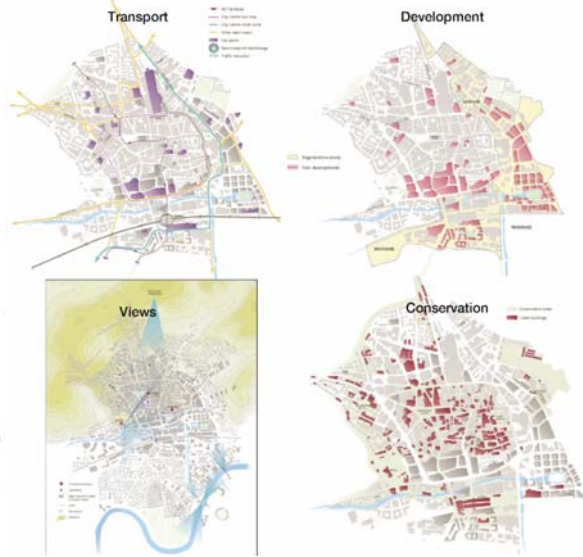


[그림 5] Masterplan overview map

구체적으로 공공공간(Public realm), 교통체계(Transport), 개발(Development), 전망(Views), 보존(Conservation) 등의 활성화 전략이 있으며 거점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구 도심 지역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활성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그림 6] Public realm



[그림 7] 공공공간 관련 계획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 2008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영역과 주요 활동(the public realm and major events), 상업개발(commercial trends and developments), 여가활동 개발(leisure trends and developments), 주거개발(residential trends and developments), 교통 및 접근성(transport and accessibility)에 주안점²⁴⁾을 두고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특히, 매력적인 가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공간 요소들을 도시환경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고 자동차 중심의 가로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가로체계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또 주요한 지점마다 12개의 새로운 광장을 계획하고 기존 광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공간이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과 상호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²⁵⁾.

- 도시 디자인 가이드(Nottingham City Centre Urban Design Guide)를 통한 공공공간의 계획 지침 제공

도시 디자인 가이드(Nottingham City Centre Urban Design Guide, 이하 도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는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의 공공공간 전략을 바탕으로 도심지에 대한 물리적 디자인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계획

24) Nottingham City Council, 2005, Nottingham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 p7

25) Nottingham City Council, 2005, Nottingham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 p10

을 실행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계획의 실행전략으로 활용된다.

특히, 개발자나 토지 소유주, 공무원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구체적인 계획 과정을 도식화하여 중심시가지 계획시 도심의 현황 및 개발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특히 노팅엄 시민과 개발업자들 간의 도시의 비전(vision)을 공유하고 건축가나 디자이너들에게 도시의 계획 방향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도심지 개발계획을 조율하고 계획의 적용시 체크리스트로 활용된다.

도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의 내용은 노팅엄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도시구조의 변화를 분석하여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의 방향을 명확하게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구조(Urban Form), 공공공간(Public realm), 용적(Massing), 활동(Activity), 지속성(Sustainability), 디자인(Design) 부분에 대한 현황분석과 이에 대응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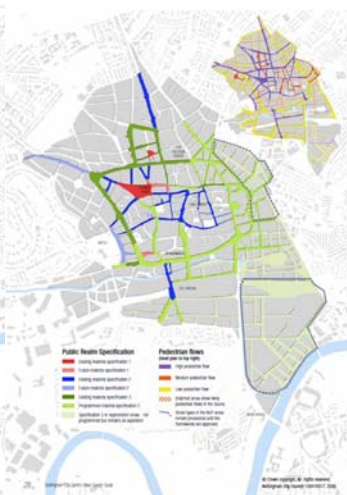
특히 공공공간(Public realm)에 대해서는 가로의 성격(Street character)과 연결방안(Street network), 가로 및 광장별 마감재료 계획(Public realm specification), 보행자 흐름에 대한 고려(Pedestrian flows), 골목길(Alleyways) 활성화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8] Street Specification(Strategy)



[그림 9] Street Network



[그림 10] Street Hierarchy(proposed)

또한, 다양한 삽화와 이미지를 통해 공공공간 계획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도시를 개발하는 단계에서 일반인을 포함한 도시계획 및 사업관련자들이 이해하기 용이한 디자인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공공공간의 계획 원칙(예)

- 기존 가로체계에 대한 고려하여 가로 간 연결성을 반영할 것(Permeability)
- 수선지역(Zone of repair)내에서는 모든 가로에서 보행자 우선원칙을 지킬 것(Pedestrian priority)
- Masterplan에 명시된 공공공간을 개발시 Streetscape Design Manual을 따를 것(Public realm improvements)
- 도심 내 건물은 가로의 성격을 반영할 것(Street character)
- 전통적인 Mall과 Arcades를 적극 활용하고 주요 공공공간에 접한 곳은 24시간 개방할 것(Mall and Arcades)
- 새롭게 개발되는 공공공간은 가로편의(카페, 전시, 공연, 벤치 등)를 수용할 것(Activity)
- 도심 내 모든 가로에서는 식재를 고려할 것(Trees)
- Signboard, street furniture, interpretation 등에 시에서 정한 signage system을 따를 것(Signage)

- 기타 특정 세부계획을 통한 공공공간의 성능 유지

이외 Nottingham City Centre Streetscape Design Manual, Householder Design Guide 등 도시의 가로와 공공공간의 세부 재료 및 디자인 기준을 제시하는 하위 계획 등을 운영하여 공공공간의 계획시 수준 높은 건축외관이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보행의 즐거움과 도시의 활력을 이끌 수 있는 가로환경의 구체적인 지침을 제안한다.

③ 거점 프로젝트로서 공공공간의 활용

□ 거점 프로젝트의 선정 및 단계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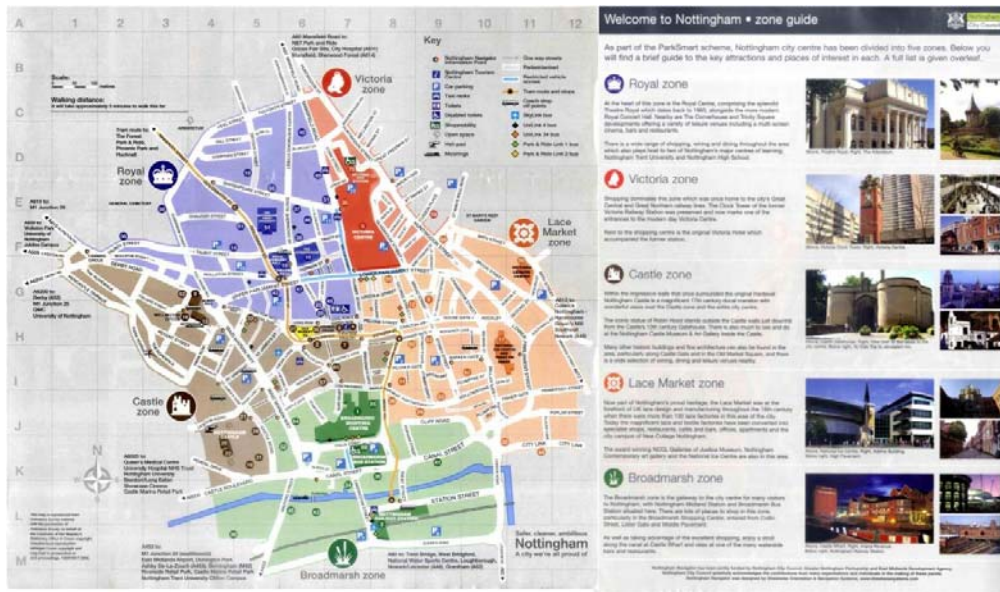
노팅엄시의 도심부를 크게 Royal zone, Victoria zone, Castle zone, Lace Market zone, Broadmarsh zone등으로 구분하여 영역별(zone) 특성 전략을 구상하고 각 영역(zone)들에 대한 거점 프로젝트들을 선정한다. 거점 프로젝트들은 중장기적 일정 속에서 우선순위를 통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천수단 및 비용지원에 관한 고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주요 프로젝트들은 도심내 침체된 지역의 재개발 계획²⁶⁾, 교통 시스템의 개편²⁷⁾, 다양한 공공시설의 건설, 대규모 상업시설의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공간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포함한다. 이중 구도심 내 가장 대표적인 공공공간 프로젝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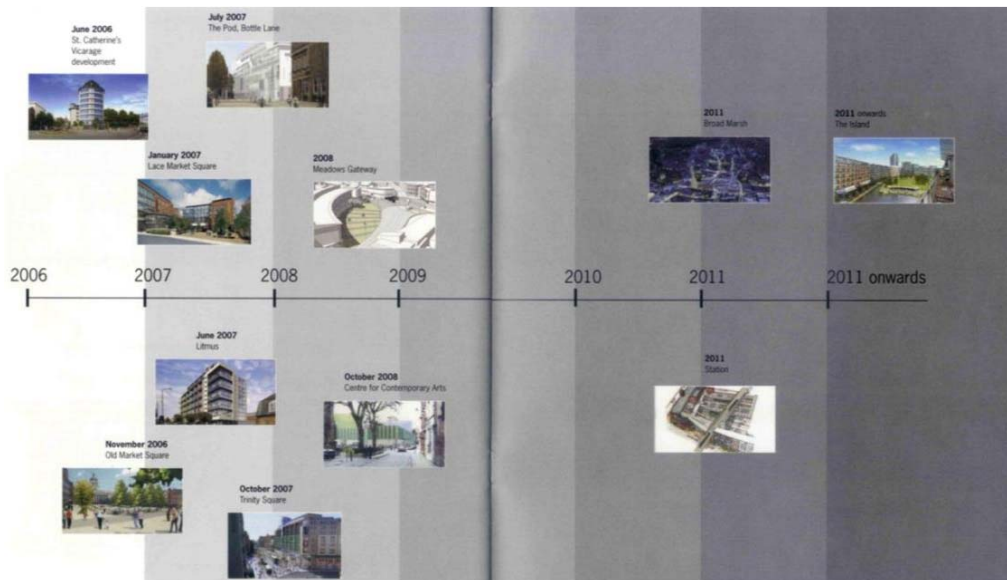
26) 운하지구(canal quarter)재개발, 레이스마켓(lace market)재개발 등

27) 수퍼트램 NET(Nottingham Express Transit)의 건설 등

The Old Market Square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1] 노팅엄시 개발 거점 구역



[그림 12] 거점 프로젝트의 선정과 단계별 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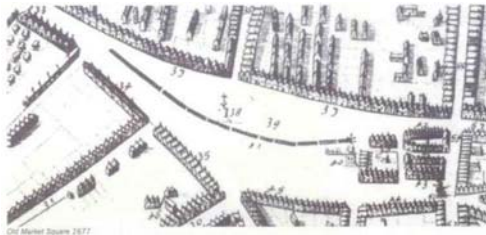
□ 주요 공공공간 프로젝트 - The Old Market Square



[그림 13] 도심 중심 공공공간으로서 The Old Market Square

The Old Market Square는 영국 내 가장 오래된 재래시장 (market square)으로서 도심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공공공간이다. 중세시대 시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된 적 있는 의미있는 장소이지만 빈민들의 임시 주

거지역으로 흉물스러운 외관과 환경으로 변모해(1929년) 최근까지 방치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그림 14] 과거 시장으로서의 광장의 역할
(1677년)



[그림 15]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사라진 과거의 모습



보행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고 광장을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국제 설계경기를 통해 공모한다. 이 결과 보행동선을 가로막는 광장 중심부의 선긋가든 (sunken garden), 계단, 벽 등을 없애고 넓은 계단식 공간과 수변공간을 설치하여 광장을 대규모 문화행사 및 집회공간으로 활용한 설계안이 채택되었다. 이후 설계안을 바탕으로 광장 외곽으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객석이 설치되었고, 충분한 조명시설을 통해 밤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현재 11,500㎡크기의 광장에 4000그루의 다채로운 개화식물과 800그루의 관목식물을 식재하였으며, 4,400㎡의 수공간과 주변 4개의 테라스를 배치하여 관객석이나 무대로 쓰여지고 있다.

The Old Market Square는 광장을 물리적으로 개선하여 보행자의 용이한 접근과 집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화점, 호텔, 상점, 음식점, 은행 등 각종 공공시설 및 상업공간 등을 광장에 인접 배치시켜 다양한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여 경제적 관점에서 도심 재생이라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비용의 지원은 the 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Greater Nottingham Partnership, the Government Office for the East Midlands and the European Commission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계획안의 실행을 통해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해마다 시의 재정이 1천2백만 파운드 가량 상승하고 있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림 16] The Old Market Square 계획안(건축가 Gustafson Porter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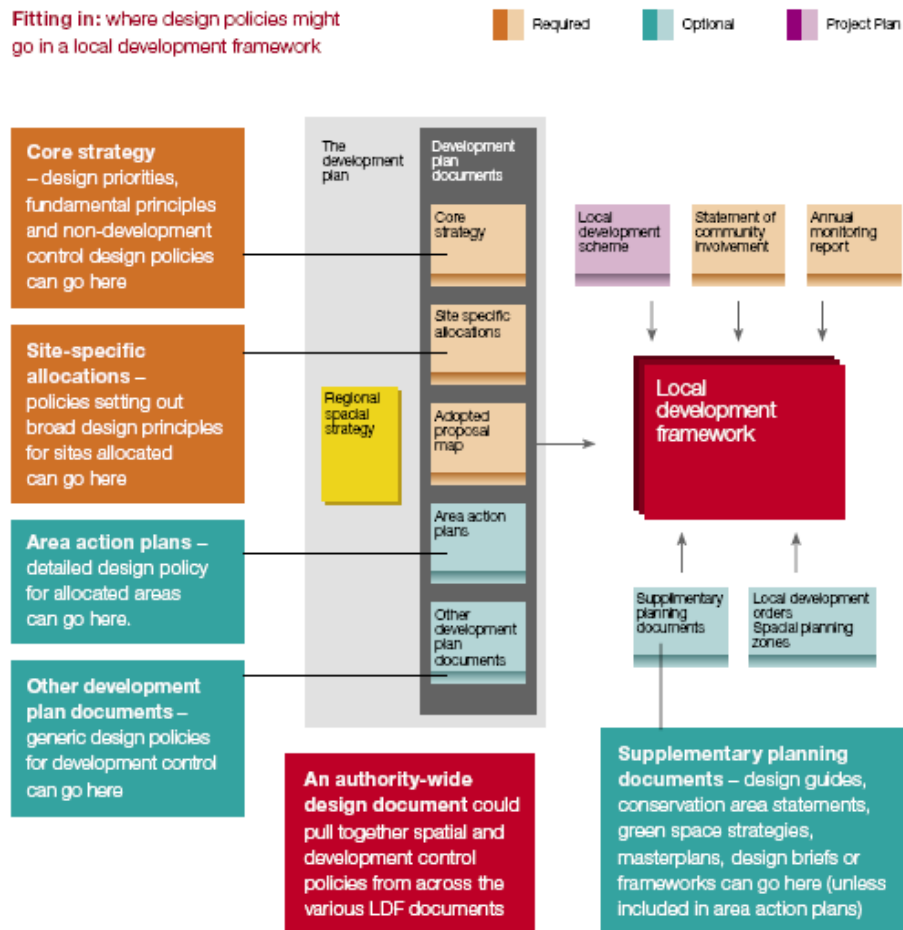
[그림 17] 현재 노팅엄시 The Old Market Square 전경

3) 계획의 운영과 관리

① 계획체계

□ 영국의 일반적인 도시계획체계

영국의 도시계획 체계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계획, 선택에 의한 계획, 사업에 기반한 계획 등 필요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중 지역개발체계(Local development framework)에 관한 정책 및 법정계획과 다양한 보완도서(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s)를 통해 대부분의 지역계획들은 구체화된다.



[그림 18] 영국의 LDF 계획체계 및 구성(CABE, 2005)

이러한 영국의 도시계획체계를 바탕으로 노팅엄시는 LDF에 해당하는 지역계획(Nottingham Local Plan), 지역개발계획(Development plan)이나 지역교통계획(Local

Transport Plan)이 있으며 보완도서(Supplementary document)에 해당하는 도심 마스터 플랜(City Centre Masterplan), 디자인 지침서(design briefs)에 해당하는 도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 Nottingham city Centre streetscape Design Manual, Householder Design Guide 등이 활용되고 있다.

노팅엄 지역계획(Nottingham Local Plan²⁸⁾)은 법정계획으로 노팅엄시 개발방향과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기준을 제공하며, 기타 계획들은 지역계획(Local Plan)에 대한 보완 도서(supplementary document)로서 정책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상하위 계획들이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는다.



[그림 19] 도시공간관리체계와 노팅엄시 공공공간 관련 계획

② 참여주체

도심 공공공간의 계획 및 실행을 주도하는 주체는 노팅엄시청(Nottingham City council)이지만 공공공간의 계획에서 실질적인 디자인 조언 및 설계공모 지침을 제시하고, 시민 워크숍 등의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Design Nottingham²⁹⁾이라는 민관 협력조

28) 계획의 성격상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됨

직이 담당한다. Design Nottingham³⁰⁾은 CABE(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³¹⁾들이 함께 모여 공공의 목표를 공유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범조직으로 시작되었다. 설립의 목표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여 노팅엄 도시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도심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노팅엄시의 공공공간 사업에 이러한 민관협력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도심지역의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서 상점 소유자, 판매자, 개발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얹혀있어 도심지 공공공간을 개발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공의 목적을 향한 일치된 의견 합의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지의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진행시 Design Nottingham과 같은 민관 공동의 조직은 공공의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주체이며, 관계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Design Nottingham에서는 공공공간의 디자인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축가와 개발자,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상담회의(sounding board meetings)를 개최하여 계획의 평가 및 개발에 관한 지침을 협의한다. 이 외에도 세미나, 워크샵, 단체토론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도시/ 건축 디자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며, 더불어 격년마다 도시 디자인 수상제도(The Lord Mayor's Awards for Urban Design)를 마련하여 좋은 디자인을 발굴/ 지원하고 있다.

29) <http://www.design-nottingham.org/>


30) 김광우, 전게서, Design Nottingham 이전에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관여한 공동조직으로 노팅엄시의 주도하에 설립된 TCM(Town Centre Management)가 있었으며 전임관리자를 중심으로, 민간기업, 시청, 경찰,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가 계획에 참여하는 총 15개 기관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분기마다 종합계획을 작성, 실무의 지원, 재정 보조 등의 기능을 수행함, p243

31) Design Nottingham 구성원 : 건축가(architects), CABE, 상업시설 소유자(Commercial Property Agents), 지역의원(Councillors), 개발자(Developers), 부동산 업자(Land Agents), 조경전문가(Landscape architects), 지역 기업(Local business), 노팅엄 시의회(Nottingham city council), 기획컨설턴트(Planning Consultancies), 부동산 컨설턴트(Property Consultants), 재개발대리인(Regeneration Agencies), 지역 정부기관(Regional Government Agencies), <http://www.design-nottingham.org/about-us/>

3. 덴마크 코펜하겐시 :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 조성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도심 활성화

1) 코펜하겐시의 일반현황과 특성

① 도시 일반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코펜하겐은 셸란섬 (Sjælland)의 동쪽 해안에 위치하며 일부분 아마게르 섬에 위치 • 인구 : 1,145,804(명)(2008년 기준) • 면적 : 2,673km² • 역사적 특성³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96년:크리스티안 4세는 재정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확보하고, 이 도시를 북유럽에서 군사적·종교적·문화적·경제적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결정. 이때에 진행된 사업이 오늘날까지 코펜하겐의 복지정책의 기초가 되었음 • 도시확장:1700년경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중세의 낙후한 모습들이 점차 사라져감 • 산업적 특성 : 조선소, 철공장, 제조업(도자기·낙농제품·화학·섬유·가구·피아노) • 도심지특성³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가 풍부한 시내, 유서 깊은 궁전·교회 등의 건축물 -미술관·박물관이 많은 문화·예술의 중심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학회·연구기관의 본부 -중세시대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리 구조와 human scale을 가진 건축물 -방대하게 조성된 보행자 거리와 광장
--	--

2)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공공공간 계획과 조성

① 공공공간의 중요성 자각

□ 전통 도시구조의 현대 도시화로 인한 도심환경의 변화

180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도시인구와 세 차례에 걸친 대화재(1728년, 1795년, 1807년)는 도시외경을 변화시켰으며 특히, 화재 이후 17세기 중엽 축조된 건물들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코펜하겐시의 외관과 구조가 완성되어졌다³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1948년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손가락 계획³⁵⁾’이 현재 코펜하겐 광역시의 주요 윤곽을 만들었으며, 이 계획으로 인하여 도

32) 이석우·이영해, 2005, 세계의 도시 82 [중세의 미와 현대감각의 조우, 코펜하겐], 국토 .284권, 국토연구원

33) <http://makephopecity.com> [디자인과 건축기행] 사람을 중심으로 계획된 코펜하겐의 공공공간

34) 이석우·이영해, 2005, 세계의 도시 82 [중세의 미와 현대감각의 조우, 코펜하겐], 국토 .284권, 국토연구원 p80

심내 인구밀도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다른 유럽 도시들 보다는 전후(post-war)의 피해가 적었고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지 않아 양호한 도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기존의 기반시설들이 노후화되고 산업화로 인해 도심지를 중심으로 획일적인 개발이 성행하면서 오래되고 낡은 건물을 보수할 때 소요되는 과다한 사회적 비용 등이 발생되었고, 기존 도시환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기반시설이 양산되게 된다.

특히, 과거의 역사경관이 고스란히 유지되어 온 도시환경과 보행도로는 교통체계가 차량 중심으로 바뀔에 따라 차츰 자동차 위주의 도시체계로 변화되어 갔으며 기존의 광장 및 공공공간은 주차장으로 전용되어 보행환경이 질적으로 저하되게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의 특정 부분(현재 Strøget 가로)을 차 없는 거리로 남기고자 하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도로나 주차장이었던 교통지역을 순차적으로 보행지역화하려는 도시개발정책이 마련되었다.

□ 단계별 공공공간의 개선을 통한 유연한 도심환경 개선 전략

1960년대 이후, 코펜하겐시 정부(the City of Copenhagen Council)는 코펜하겐 광역도시의 기본이 되는 ‘손가락 계획’(1947년)에서 언급하고 있는 ‘중심가에 공간 만들기’라는 공동의 합의를 바탕으로 도심공간을 개선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해왔으며, 이런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는 크게 3번에 걸쳐 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 1936년 Strøget 보행거리 조성을 계기로 시작된 보행가로 계획이 1세대이며, 도심 거주민의 외부활동을 지원하는 광장 및 공원 계획이 2세대, 세계도시로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공공간의 활용이 3세대라고 할 수 있다.

35) 이석우 외, 전거서, 코펜하겐 대도시권의 계획개념으로서 세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는데, 각각 1947년, 1960년, 1973년에 수립되었다. 앞의 두계획은 법적 근거없이 작성된 것이지만 대도시권의 지역계획과 도시개발에 직접영향을 미쳤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최단거리 도시통과 가능, ② 구역별 재창조, ③ 효과적인 교통망 확보, ④ 중심가에 공간 만들기 이다, pp.80~83

도심공간의 3세대 (참조: 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Plan.pdf)

1세대(1962~1973)

1963년 'STRØGET'이라 알려진 2km 길이의 세계 최초의 보행자 전용 가로가 지어졌는데, 그 후 많은 다른 가로들과 광장들이 보행자 전용으로 바뀌었으며 오늘날 상당한 부분의 도심이 차가 없는 곳이 되었음

도심의 3개 주요 간선도로를 보행도로로 바꾸었으며 이 과정에서 매년 2~3%씩 주차장을 줄여나가는 대신 대중교통체계를 점차 발전시키고 자전거 도로망을 확대해나감



2세대(1973~1996)

독특하고 섬세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스타일을 반영하는 아름답게 잘 디자인된 광장과 만남의 장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도심뿐 아니라 외곽지역에서도 새로운 공공공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다채로운 도시 풍경을 조성함
보행도로의 개선보다는 광장과 설수 있는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이곳에서 각종 상점과 예술시설,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



3세대

인구구조와 업무패턴의 변화를 반영하는 제 3세대 도심공간의 창출을 시도할 때로서 전에 노령자비율이 커지고 있는 코펜하겐은 이제 갈수록 다양한 세대와 다문화 속 공동체로 커가고 있으며, 많은 이주자와 아이들이 있는 젊은 시민들은 도시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또한 늘어나는 재택근무로 인해 외곽 지역에 보다 많은 활기가 넘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고, 다양성과 현대적인 개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공공간을 만들어 낼 필요가 있음



도심 공공공간의 단계적인 개발은 사회·문화·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점진적인 개선 과정은 정책 집행 시 개발방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해주고, 정책 결정시 작은 변화에 동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가며 진행할 수 있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이러한 도심공간의 지속적인 확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이라는 코펜하겐시의 중요한 도시 목표를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공공공간 통합계획은 코펜하겐시 도시전체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시 당국(the City of Copenhagen Council)은 지역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공공공간을 개선하고자 할 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결국 개발 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개발방향을 서로 공유하여 지역의 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 도시의 경쟁력 확보 수단으로서 공공공간의 가치 증진

코펜하겐시는 다양하고 매력적인 지역 도심공간의 특성을 살리고 여가시설, 교외, 공원, 각종 공공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거주하기 좋은 쾌적한 도시로서의 면모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에 힘써온 유럽 도시 가운데 지난 30여년에 걸친 공공공간 개선 노력을 통해 가장 성공적인 도시로 꼽히고 있으며 1962년부터 개설한 보행 자전거도로, 다수의 광장, 도로 재정비사업은 코펜하겐시의 공공공간의 수준을 월등히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으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시 당국(the City of Copenhagen Council)은 구도심에 집중했던 공공공간 개선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코펜하겐시의 대도심과 도심 외곽지역간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외곽 주거지역의 공공공간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심내 공공공간의 확보에만 치중되었던 기존의 성과들은 역동적인 도시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을 반영한 비즈니스 중심의 사업도시 및 관광도시로서 그 명성을 한 단계 더 발전³⁶⁾시키게 된다.

이는 곧 공공공간의 개선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도시의 차별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공간의 역할이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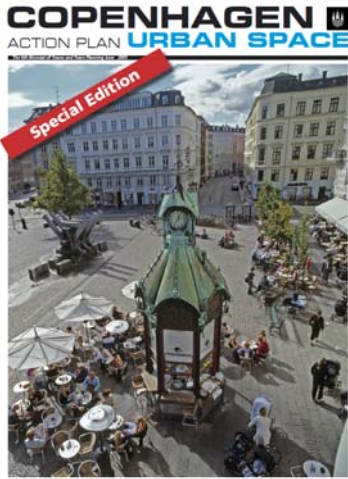
② 도심 공공공간 종합계획(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Plan, 이하 CUSAP) 수립

공공공간 종합계획(CUSAP)은 코펜하겐시를 유럽의 전통 항구도시로서 독특한 도시성을 살리고 도시민의 다양한 생활양식을 반영한 질 높은 주거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되었다.

□ 비전(vision)

코펜하겐 공공공간 종합계획(CUSAP)은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코펜하겐 시당국³⁷⁾(the City of Copenhagen Council)에서 수립하며 도시개발계획, 근린생활권 재생계

36) 코펜하겐시는 파이낸셜 타임스(FT)에서 선정한 『가장 살기좋은 도시』에서 2008년도 1위, 2009년도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 사회과학원과 미국 버크넬대학에서 세계 1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생활환경, 기업환경, 사회환경, 부문별 산업경쟁력 등을 75개 지표로 계량화하여 선정한 『세계 도시 경쟁력 보고서(2005~2006)』에서의 도시 경쟁력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함



[그림 20] CUSAP

획, 교통 및 시설계획, 주차계획, 수변공간 개발계획 및 공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의 비전(vision)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코펜하겐시를 개성있는 유럽의 대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vision)을 실현하기 위해 코펜하겐시의 도심생활 권역을 차츰 확장하고 도시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독특한 도시공간을 형성하여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기능적·경제적·환경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다양한 공공공간을 개발하게 된다.

□ 목표(Goals)

3대 목표는 i) 계획 간의 통합성(Strategy - more coherency), ii) 경제적이고 수준 높은 공간의 질 추구(Quality - better value for money), iii) 절차에 있어서 시민·민간전문가·이용자계층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것(Process - Improved decision making)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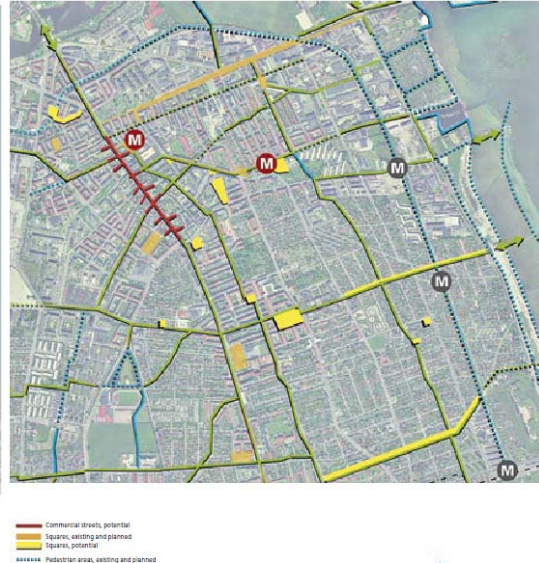
첫 번째 목표는 도시공간 개발에 대한 원칙으로서 계획 간³⁷⁾, 요소 간 통합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공공간을 새롭게 계획하고자 할 때 다른 도시개발 전략과 추진 정책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기존의 도시개발 의도들을 보강해야 하며, 도시를 개발할 때 기존 도심지역과 새로운 지역 모두 공공공간의 계획방향이 도시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해 수립된 타계획 및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접근(The city-wide approach)하여 밀접한 관계로 파악하고 실효성을 증대시켜야 한다(Synergy). 또한 도심지 현황관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 전역 차원에서의 마스터플

37) the City of Copenhagen Technical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38) City development plan, Neighbourhood renewal plans, Traffic and infra-structure plans, city parking strategy, The blue plan(harbour development), The park policy, Green street spaces policy, 등이 있으며, 공원정책과 녹지, 수변공간 계획을 통한 코펜하겐의 녹지와 수변공간의 개선을 유도하고, 교통계획에서 지역재생 전략으로 적용된 Amager, Vesterbro, Østerbro지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이며, 주차 공간에서 있어서 Østerbro, Nørrebro, Vesterbro, Islands Brygge, Amager등과 같은 곳에 새로운 주차공간과 새로운 휴양공간들을 만들기 위해 도심내 주차공간 계획 등이 이에 대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랜(masterplan, A plan for Copenhagen—the metropolis)과 근린차원에서의 마스터플랜(masterplan, A plan for the local neighbourhoods)을 병행하여 계획한다.



[그림 21] A plan for Copenhagen – the metropolis [그림 22] A plan for the local neighbourhoods
도시적 차원에서 이러한 통합계획을 위해 고려되어야 4가지 원칙과 유형을 상업가로 (commercial streets), 연계(connections), 광장(squares), 보행가로(pedestrian streets)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각 도심 지역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4가지 원칙 ① Commercial streets, ② Connections, ③ Squares, ④ Pedestrian streets

1. 쇼핑 거리 (Shopping streets): 보행자에게 편하고 접근이 쉬우며 시간을 보내기에 매력적인 쇼핑 거리
예) 거리에 장애가 되는 가로 가구 제거, 거리에서 햇볕이 더 잘 드는 쪽으로 더 포장된 보도를 확장, 전략적 지점에 쉼터를 제공, 조명 개선, 나무 심기



Amager Boulevard



Teglgårdsstræde



2. 연결(Connections): 쇼핑거리, 주거지역, 주요 휴양지역, 도서관, 스포츠시설, 학교, 기관 등 사이를 매력적이고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보행자 가도로 연결
예) 더 넓은 보도 포장, 도로 교차로에 건널목 개선, 장애자들의 접근성 개선, 나무 심기, 조명 개선, 간판 개선

3.광장(Squares): 놀이와 운동을 권장하며 볼 것과 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아름답고 기능적인 광장과 주거지역의 공원을 제공
예) 길 모퉁이에 새로운 포장을 하고 충분한 버스공간 제공, 길 교차로에 새로운 장소 창출, 수목과 화분등으로 경계선 규정, 꽃과 나무로 녹지 조성



Nybergsgade

4. 보행자 가로와 산책로: 주로 도심에 있는 연장된 보행자 가로의 네트워크와 수변공간을 따른 산책로
예) 보행자 및 차도 공용지역, 새로운 포장, 사인과 볼라드(bollard)로 경계선 규정



Dybbølsgrøft

두 번째 목표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도심환경의 질적 개선 방안이다(Quality - better value for money). 특히 흥미로운 도심공간을 계획하고자 할 때, 기존의 도시구조를 활용하여 간단하고 경제적인 계획을 유도(Simple and Cheap)함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공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일한 경제적 가치로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Quick & Simple³⁹⁾"관점이 고려된다. 공공공간의 활성화는 삶의 질과 안전, 치안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이는 기능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적이고 예술적인 행위⁴⁰⁾들을 지원해야만 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이 ‘다기능성’, ‘지속가능성’, ‘편리성’, ‘보편성’ 개념을 통해 유연하게 조성되어야 하며, 이는 주어진 재정 범위를 고려하여 기존의 도심 공공공간과 코펜하겐시만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⁴¹⁾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목표는 시민·민간전문가·이용자계층 사이의 원활한 소통으로서 협의에 의한 프로세스(The Process - better decision making)를 들고 있다.

39) "Quick & Simple" 프로젝트들은 종종 역사적인 도심에 있는 크고 독립적인 프로젝트들을 우선하기도 하지만, 보다 작고 많은 프로젝트들을 통해 외곽지역을 부흥시키는 것을 장려함.

40) 예를 들어, 프로젝트들은 모든 연령층을 위한 놀이시설, 운동시설 그리고 스포츠시설들을 제공해야하고, 다양한 만남의 공간을 제공해야 함.

41) 이러한 예로, 삭막한 아스팔트를 휴양과 오락공간으로 전환하기, 좁고 붐비는 보도를 보다 접근하기 편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가진 보행자가도로로 전환하기, 도시의 다른 지역들을 서로 나무로 연결하기, 도시정체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녹지 연결하기, 지역을 가꾸는 꽃심기, 행사와 전시를 위한 도심공간의 활용 등이 있음

협의 프로세스의 구축을 위해서 정치인들과의 대화를 확대⁴²⁾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행정가와 시민의 참여⁴³⁾를 유도하며,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과정(Programme phase, Outline project phase, Project proposal phase)을 두어 관련 부서 간/ 주체 간



[그림 23] 시민 워크숍 전경

협의를 유도하는 Project Forum⁴⁴⁾ 및 민간 파트너십을 구성하고, 비전문가들이 도시계획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지도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방법의 사업 진행 프로세스 개발을

통해 보다 다양한 주체들의 공감대를 유도해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주요 프로젝트

현재 공공공간 계획의 3단계 중 제 3세대 계획개념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으로, 구도심 중심의 공공공간 확보 전략에서 나아가 도심근교 및 수변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보 및 대중교통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보행지역화 계획

보행지역화 계획은 Strøget(1962년)을 시작으로 Filolstræde(1968년), Store Kannikestæde(1973년), Rosengaarden(1973년), Pilestræde(1973년)으로 점차 확장해 나간다. 이러한 보행거리와 더불어 거리의 결절점에 주차장으로 쓰여지던 Gammeltorv-Nytorv(1962년, 1973년), Amagertorv(1992년)와 같은 대규모 광장들이 공원 및 집회의 장소로 탈바꿈하였고, 이용이 되지 않아 방치된 Gråbrødretorv(196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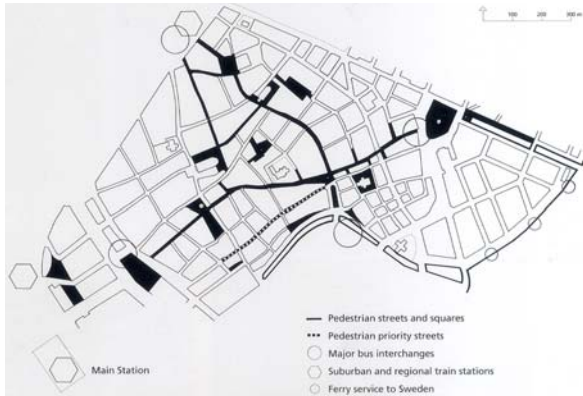
42) 정치인들과의 대화가 프로젝트 개발의 아주 초기 단계 근본적인 개발 원칙이 토의될 때 부터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43) 전반적인 프로젝트 목표와 필요사항들이 정해질 때부터 프로그램 단계에서 다루어지며 보다 이른단계의 참여가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 오고 과정에서 더 큰 만족을 줌.

44) 보다 종합적인 개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각 다른 부서들 간의 가까운 협력들이 권장되어야 하며, The Technical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의 각 다른 부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Projectforum" 은 모든 도심 공간 프로젝트들을 토의함.

Kultorvet(1973년) 광장들이 점차로 휴식과 커뮤니티를 위한 광장으로 바뀌어졌다.

구도심 내로 한정되었던 보행 가로계획은 수변영역의 운하부분인 Nyhavn(1980년),



[그림 24] 구도심 내 보행지역화 구역

Gammel Strand(1991년), Ved Stranden(1995년), Højbro Plads(1986, 1996년)으로 연계되어 수변주변은 보행자가 쉴 수 있는 공간과 보행의 흐름이 가능한 가로 공간으로 활성화되었고, 차량의 움직임으로 혼잡했던 도심 서쪽 지역인 시청 주변 Axeltorv(1988년, 1991년), Rådhuspladsen(1996년)의 개선을 통해 차량이 없는 보행권역을 완성하게 된다.

이로써 코펜하겐시의 구도심 권역은 지상에서 단차 없이 동일한 높이로 형성된 보행자를 위한 도시(One-story city)로 완성되었으며, 이는 모두 자동차 중심의 교통계획을 통제/ 조절하여 공공가로 및 광장만으로 이룩한 성과이다.

Strøget 보행거리의 변화		Gammeltorv square and Nytorv 광장의 변화
		
[그림 25] 쇼핑거리로서 STRØGET(1880)	[그림 26] 활력이 사라진 차량 중심의 STRØGET(1960)	[그림 29] 주차장으로 사용
		
[그림 27] 보행자 중심의 거리로 탈바꿈(1968)	[그림 28] 도심의 활력이 넘치는 보행가로(2005)	[그림 30] 집회의 장소로의 변화

- 수변지역의 Public Space 조성 계획⁴⁵⁾

구도심의 보행거리 조성이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코펜하겐시의 관심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변공간으로 집중된다. 코펜하겐시는 수변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한 도시의 특성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생동감 넘치는 도심환경을 접할 수 있도록 수변공간과 연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수변으로의 적극적인 접근성을 확보한다.

특히, 수변에 면해있는 지형 특성 때문에 도심 내에서의 물놀이, 수영, 수변 산책로, 운동시설, 문화·공연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수변에 접해있는 영역별 특성에 따라 문화 프로그램을 특화하여 극장항구, 스포츠항구, 역사적인 군사항구 영역으로 수변 공공공간을 개발하게 된다. 이를 위해 공연, 영화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계단, 관중 시설 등이 설치되고 박물관 및 역사 지역에서는 배, 선착장(Platform) 등이 활용되고 있다.

한편으로 상업항구의 이전이나 시설의 사용이 중단되어 폐쇄된 수변공간들은 다양한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여 향후 도심 개발의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수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역을 설정하여 다양한 문화 지원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그림 31] Kalvebod Brygge 항구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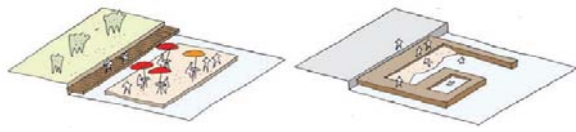


[그림 32] Christian 운하, 코펜하겐

45) 수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계획은 Blue plan에서 다루어지고 있음



[그림 33] 수변지역의 Bathing 시설



[그림 34] Bathing 시설 조성 Ideas



[그림 35] Amager 해변 Bathing 공간

- 주차시설을 활용한 공공공간의 조성

공공공간 계획이 보행자를 위한 공간의 확보에서 시작한 것과 같이 차량교통의 제한과 억제, 코펜하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공공공간의 확보를 위한 보행지역화 초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외부공간을 단순히 광장이나 공원으로 전환하는 데에 집중하였다면, 현재는 도심 내로 유입되는 자동차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면서도 공공공간의 비중을 늘리는 대책으로 주차시설을 지하에 위치시키고 상부를 공공공간으로 조성하는 아이디어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Leifsgade(2008년 3월 공사 시작), Nørre All(2008년 4월 공사 시작), During Elmen(2008년 6월 공사 시작)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세 지역 중에 Leifsgade의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고 향후 예정된(2010년) 공공공간 조성 공사를 위해서 코펜하겐시와 조경 건축가들이 놀이터(playground), 식재, 벤치(bench), 자전거 주차 공간(parking lot) 등의 공공시설들을 포함하는 도심 공공공간(urban public space) 디자인을 준비 중에 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차를 빈 곳으로 주차시키고 외부로 노출되는 자동차 엘리베이터 입구는 최소한으로 줄여 이 지상 공간을 녹지

와 나무, 각각의 소규모 공원들로서 복구하여 거주자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휴식공간이 있는 공공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며, 문화시설이나 이벤트를 위한 장소로 쓰이게 된다.



[그림 36] 자동화 지하 주차 시설 구조



[그림 37] 주차 시설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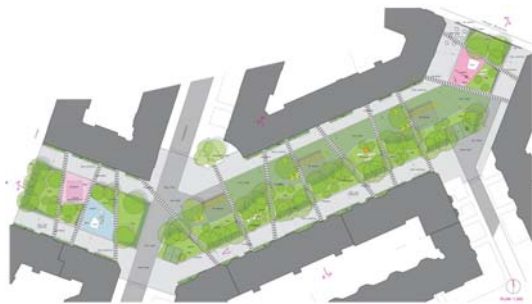


[그림 38] 공공공간 활용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 공유

코펜하겐시는 건축 예정지에서 거주자들이 수시로 만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민이 희망하는 프로그램과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실제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사업 진행에 상당수 반영되고 있다.



[그림 39] During Elmene 공공공간 전경



[그림 40] During Elmene 배치도

③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공간의 현황 관리⁴⁶⁾

□ 장기간에 걸친 공공공간 현황 관리

코펜하겐 공공공간 연구소(School of Architecture in Copenhagen : Centre for Public Space Research)는 도심 공공공간 사업이 추진되게 된 Strøget 보행가로를 시작으로 코펜하겐시의 공공공간의 변화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공간의 이용실태 및 변화 양상을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공공공간의 문제점과 가능성에 관한 사항, 공공공간의 이용행태 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구도심내 공공공간의 형성 시기, 현황 사진, 보행영역의 증가 추이, 주요 광장의 위치 및 실태, 계절별 기후 현황, 거주자 분포현황 등의 시기별, 지역별 현황을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Preface	2.1 Walking in the city Pedestrian traffic on a summer weekday – and on Saturdays and Sundays in the summer Pedestrian traffic on a winter weekday Pedestrian traffic – street by street – on a summer weekday
INTRODUCTION Study area 11 other cities for comparison	2.2 Spending time in the city Sitting in the city Refreshments in the city: The outdoor cafes What goes on were? Stationary activities on a summer weekday Stationary activities on a summer weekday by area
Part 1. PUBLIC SPACES – Problems and possibilities 1962-1996 – the long haul towards a people-oriented city center The first pedestrian streets Developing the pedestrian network Major city squares Other city squares Reaching out to the waterfront Developing the center towards the west Development of car-free streets & squares 1962-1996 City squares Friendly little streets Parks and squares just outside the city center Climate in the city center The scale of the city center: Small units and many doors Integration: Copenhagen by night Residents in the city center Students in the city center Traffic and parking Bicycles in Copenhagen Squares in other parts of the city	2.3 Activities and events in the city Public spaces as cultural forum The city as informal arena The city as an arena for festivals and events
Part 2. PUBLIC LIFE – Usage studies 1968-95 Survey of usage patterns: Introduction and methods A tale of two cities: Summer Copenhagen and Winter Copenhagen	Part 3. INTERVIEWS – Data, viewpoints and opinions Interview study: Introduction and methods Summary of main findings and policy conclusions
	Part 4. PUBLIC SPACE – PUBLIC LIFE 1996 – Summing up Changing street life in a changing society Public spaces and public life in the years to come Public spaces – public life: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s
	APPENDIX – Streets and squares of Copenhagen1996 Project team References

[그림 41] 분석 내용(public space–public life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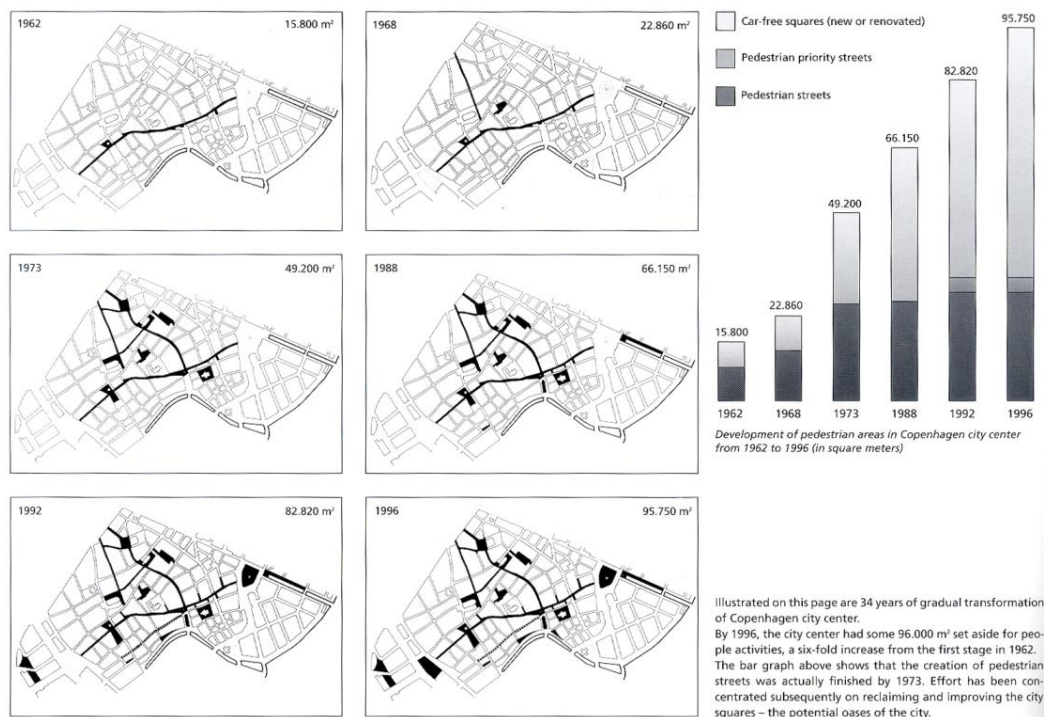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행의 영역은 15,800m²(1962년)에서 95,750m²(1996년)로 6배 이상, 외부활동을 위한 공공공간은 20,500m²(보행면적), 12.4m²/activity(1968년)에서

46) Jan gelh & Lars gemzoe, public space–public life, Copenhagen

71,000m²(보행면적), 13.9m²/activity(1995년)로, 외부 좌석 갯수는 4361석(bench seating 1392석, cafe seats 2969석, 1986년)에서 6133석(bench seating 1339석, cafe seats 4794석, 1995년)로 각각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기별, 장소별 보행량의 증가 추이, 운영프로그램, 이용실태 등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분석결과는 공공공간의 계획이 우수한 다른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 국제적인 수준과의 차이를 검증할 수 있어 타 도시의 도시관리 수법이나 계획의 장점을 수용하고 코펜하겐시 만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모색하고 있다.

DEVELOPMENT OF CAR-FREE STREETS AND SQUARES 1962-1996



[그림 42] 보행지역화에 의한 보행환경 분석

□ 공공공간의 실태와 사용자 분석을 통한 공공공간 사업으로의 적용

도심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현황파악과 분석을 통해 공공공간의 계획 및 운영 방향⁴⁷⁾이 결정되어지고 이는 도심 공공공간 종합계획(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47) 1. Changing street life in a changing society, 2. Public spaces and public life in the years to come, 3. Public spaces – public life ; reflections and recommendations

Plan)에서의 마스터플랜(Masterplan)과 중장기적인 단계별 추진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공공공간 관련 사업의 진행시 설계의 객관적 지표와 목적을 뒷받침하며,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현황 분석결과와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일관성 있게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도시의 통합적인 공공공간 관리에 도움을 준다. 사업완료 후 이루어지는 사용자 평가를 통한 효과의 검증은 시민의 만족도와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한다.

코펜하겐 공공공간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이러한 공공공간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현황분석이 통합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계획의 기반이 됨으로써 공공공간 관련 사업이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계획의 운영과 관리


① 계획체계 및 계획 간 정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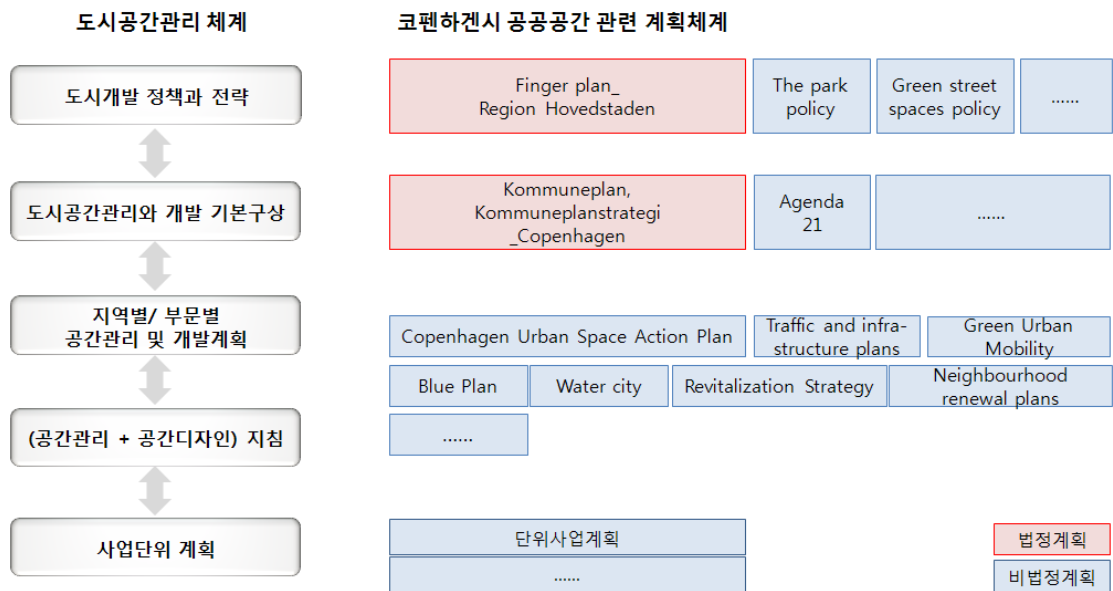
코펜하겐시의 도시 관련계획은 우리나라의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Kommuneplan 으로부터 사업 단위의 하위 전략계획으로 이어지며 Kommuneplan에서는 코펜하겐시에 대한 도시적 관점(vision), 계획참여자, 계획프로세스, 거점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 원칙⁴⁸⁾을 제공한다.

[표 7] 코펜하겐시 공공공간 관련 도시계획체계

분류	주 체	계 획	시 기	비 고	
법 정 계 획	정부	National Directives	국토기본계획	4년마다	
	3개 county 2개 광역시	Regional Plans	광역기본계획	4년마다	<div>향후 12년을 계획, Finger plan_ Region Hovedstaden</div> <div></div>

48) Seizure of land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Location of areas for different addressing urban issues, The local retail structure, Location of traffic, Location of technical facilities, Location of firms with special, Location requirements, Location of individual plants(EIA facilities subject), Ensuring noise stressful areas, Location of land for recreational purposes, Location of nature conservation interests, Ensuring cultural conservation values, Usage of rivers, lakes and coastal waters, Land usage of coastal proximity zone, Realization of the nationwide directives including fictitious 2007th

	48개구	Municipal Plans	도시기본계획	4년마다	Kommuneplan, Kommuneplanstrategi _Copenhagen	
비 법 정 계 획	코 펜 하 겐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City of Copenhagen Development Plan(도심발전계획) - 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Plan(도심 공공공간 통합 관리 계획) - Agenda 21(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실행계획) - Blue Plan(수변공간 개발계획) - Green Urban Mobility(도심지역의 교통 계획) - CITY OF CYCLISTS (자전거 도로 계획) - Water city((코펜하겐 항만 및 운하지역 개발 계획) - Neighbourhood renewal plans(근린재생계획) - Traffic and infra-structure plans(교통계획) - City parking strategy(도심주차전략계획) - The park policy(주차정책) - Green street spaces policy(녹색보행공간정책) - Revitalization Strategy(재생계획) 				



[그림 43] 도시공간관리체계와 코펜하겐시 공공공간 관련 계획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위 계획 간의 연계는 상위계획인 Kommuneplan으로부터 비전(vision⁴⁹))을 공유하고 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49) Kommuneplan에서는 비전(vision)을 The dynamic city – think new, The sustainable city – think green, The city of all – think of diversity, City down to the water – think blue의 4가지로 정하고 있음

다양한 지역별/ 부문별 공간관리 및 개발계획이 존재하는 가운데, 도심전반에 관한 발전전략 및 개발방향은 코펜하겐 시청(the City of Copenhagen Council)내 Finance administration의 Urban development department에서 총괄하며 이러한 종합전략을 바탕으로 각각의 부문별 계획 중 공공공간 관련 계획이 The Technical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의 각각의 전문부서에서 처리된다. 이는 상·하위계획을 담당하는 조직의 역할과 위상정립을 통해 계획 간 비전(vision)과 내용을 공유하기 용이하며 공공공간 관련 계획이 동일 부서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타 계획 및 사업 내용을 연계하고 사업의 중복성을 피할 수 있어 공공공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표 8] 코펜하겐시 공공공간 계획 관련 주관부서

계 획	주 관 부 서	
The city of Copenhagen Development Plan(도심발전계획)	Finance administration	Urban development department
Blue Plan(수변공간 개발계획)		
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Plan (도심 공공공간 통합 관리 계획)	The Technical and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Building and Construction Department
Agenda 21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실행계획)		Environmental department
Green Urban Mobility (도심지역의 교통 계획)		Parks and nature department
CITY OF CYCLISTS (자전거 도로 계획)		Traffic Department
Green street spaces policy (녹색보행공간정책)		Roads and Parks Department
Local Plan(지역계획)		Planning & Architecture
Revitalization Strategy(재생계획)		Urban Renewal
Water city (코펜하겐 항만 및 운하지역 개발 계획)	The City of Copenhagen and The Port of Copenhagen A/S	

② 조직운영체계

코펜하겐 도시당국은 Kommuneplan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개발의 비전⁵⁰⁾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다른 분야의 참여자들과 협조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참여주체(Seven partnerships⁵¹⁾)가 존재한다. 이러한 협력적 도시설계 바탕위에서 공공공간 종합계획(CUSAP)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 정치인, 투자자와 공무원 등을 위한 3번의 위

50) Think Green, Think Diverse, Think Blue, Think New

51) 1.The city's new low-energy fields and energy supply, 2.The city's campus low-energy fields and energy supply, 3.Houseboats in Copenhagen's port, 4.Local stock market for creative business in Copenhagen, 5.Sustainability in the development of Nordhavn, 6.The Future of family housing, 7.Streets of Copenhag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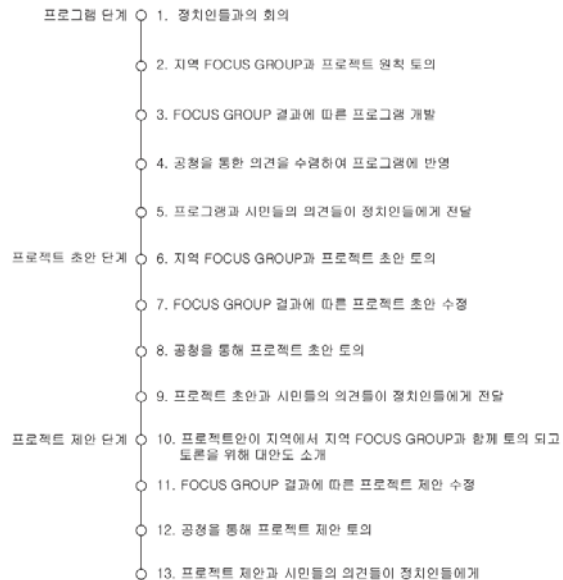
크숍을 열었으며, 워크숍의 목적은 시민들과의 대화를 고무하고 정치적 결정이 만들어질 기반을 제공하며 자금조달이 가능한 공공공간을 더 창출해내어 공공공간의 문제들을 도시 전체적인 시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다.

공공공간 종합계획(CUSAP)의 세 번째 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는 디자인 과정에 관한 원칙(The process - better decision making)은 공공공간의 계획은 근본적으로 다양한 참여주체의 협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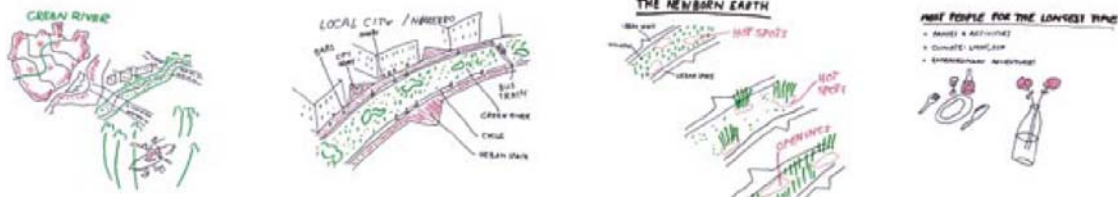
이를 위해 시민의 협의와 의견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⁵²⁾이 고려되고 있으며, 몇몇의 프로젝트는 워크숍 개최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가 스케치와 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하여 진행된 바 있다.



[그림 44] 워크숍 풍경



[그림 45] Action Plan 전개 과정



[그림 46]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초기 아이디어

52) p42 참고

4. 독일 에쓰링엔시 : 부문별 공공공간 계획을 통한 도시경관의 통합적 관리

1) 에쓰링엔시의 일반현황과 특성

① 에쓰링엔시 일반현황



- 위치 :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하며 주도인 Stuttgart시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네카(Neckar)강변에 위치. 총면적 중 숲이 1200 ha, 수공간이 110 ha를 차지함
- 인구 : 91,700 명(2007년 기준)⁵³⁾
- 면적 : 46.4 km²(2008년 기준)⁵⁴⁾
- 역사적 특성⁵⁵⁾ : 공식적인 지명으로 기록된 것은 B.C. 777년. 네카강변 구릉지에 입지해 포도주 생산과 상업교역지로서 성장해 왔으며 제국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 현재도 약90ha의 와인재배농장이 있음. 19세기 이후 식품, 의류, 제철 등 여러 산업이 발달하였음. 13세기 이후 뷔르템베르크주와 지속적인 전쟁이 있었으나 자유시로서의 위상을 잃지 않고 독립을 유지하였으며 현재는 바덴뷔르템베르트주 주의회가 입지해 있음
- 산업적 특성⁵⁶⁾ : 주요 산업은 업무,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제조업, 미디어와 출판업, 기계역학 관련 산업 등으로 총 56,000 개의 일자리가 있음
- 행정적 특성⁵⁷⁾ :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중소도시 중 가장 큰 중도시중의 하나로 행정상으로는 주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권에 속하며 에쓰링엔 시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에쓰링엔군의 중심지임. 25개의 관할지역으로 구성

② 도심지 개요

에쓰링엔시의 도심지역은 중세시대 형성된 성곽내부의 시가지와 19세기에 서쪽과 동쪽으로 확장된 일부 지역을 포함한다. 전체 면적은 약 1km²이며 남북으로 약 0.7km, 동서로 약 1.3km 길이에 달한다. 도심지역 남쪽으로는 네카강에 면하고 북쪽에는 와인이 재배되는 낮은 구릉이 도심지를 둘러싸고 있으며 구릉의 가장 높은 곳에는 중세시대에 조성된 성의 일부가 남아 있어 역사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53) <http://www.esslingen.de/servlet/PB/menu/1333030/index.html>

54) <http://www.esslingen.de/servlet/PB/menu/1332631/index.html>

55) http://de.wikipedia.org/wiki/Esslingen_am_Neckar

56) http://de.wikipedia.org/wiki/Esslingen_am_Neckar

57) http://de.wikipedia.org/wiki/Esslingen_am_Neckar

도심지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중세시대 형성된 성곽내부 지역으로 밀도가 높고 다양한 용도가 집적되어 있다. 성곽내부 중심시가지는 좁고 구불구불한 가로와 광장이 특징적이며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네카강의 지류와 공원이 시민들의 여가공간으로 도시의 경관적인 구심점을 이룬다. 또한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별 특성을 대표한 건축물이 존치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4~5층 규모로 조화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가로에 면한 건축물의 저층부는 대부분이 상점이나 업무시설로 사용되며 상층부는 주거로 쓰인다.

19세기에 확장된 중심시가지의 서쪽과 동쪽 지역은 성곽내부 지역과는 달리 격자형으로 형성된 가로망과 4~5층 규모의 근대건축물로 조성된 가로경관이 특징적이다. 주요 용도는 주거로 전후에 많은 연립주택이 지어졌으며 소수의 고층아파트도 있다. 각 근린지구별로는 중심광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광장에 면한 일부 건축물의 저층부는 상점이나 업무시설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지역은 1970년대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성곽이 있던 자리에 조성된 주요 간선도로에 의해 중심시가지지역과 단절되어 있으며, 현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도의 도시계획적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



[그림 47] 에쓰링엔시의 중심시가지 전경

③ 도시경관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도심 활성화 정책

에쓰링엔시는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근대화 이후에도 산업의 발달로 꾸준한 성장을 해왔다. 그러나 유럽의 여러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교통이 발달하고 도시가 확장되면서 도시 외곽지역에 형성된 쇼핑몰과 여가공간으로 인해 도심지역의 상권은 쇠퇴하고 도심지역의 광장과 가로는 주차장으로 바뀌어갔다. 열악해져가는 도심지역의 환경과 도심상권의 쇠퇴로 에쓰링엔시는 도심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다.

도심지역의 쇠퇴를 막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에쓰링엔시가 주목한 것은 역사적인 경관과 기존의 도심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성’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로 인해 질 높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심지역의 매력을 도시의 경쟁력으로 보고 도심지역을 ‘도시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특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더불어 도시경관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의 아이덴티티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공공공간은 도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 그리고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요소로서 시에서 조성하고 관리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었다. 에쓰링엔시가 공공공간의 질적인 향상을 이루기 위해 가장 노력한 부분은 개별 공간의 디자인을 제고하고 다양한 공공공간을 연계시켜 ‘도시적(urban)’인 삶의 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공공공간의 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에쓰링엔시는 여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병행되었으며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상인조합, 민간개발업자와의 협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 통합관리 수단으로서 경관 형성 요소별 공공공간계획

에쓰링엔시의 도심지 공공공간과 관련한 계획으로는 도심지 공간구조적 개발전략에 대한 계획과 가로, 광장 등 공간별 디자인지침과 가로시설물, 야간경관 등 특정부문에 대한 디자인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공공공간의 경관 형성과 관련된 건축물 디자인지침이 있다.

도심지 공간구조적 개발전략 계획인 ‘에쓰링엔시 도심지 공공공간 개발전략 - 공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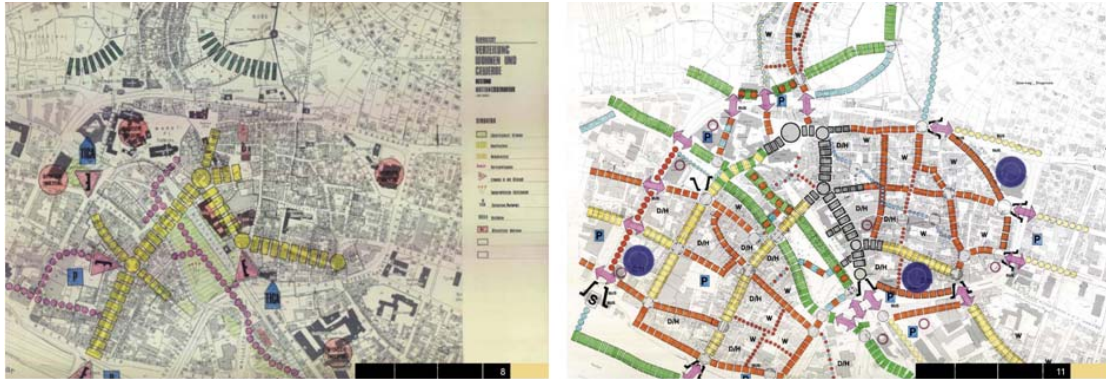
공간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 르네상스'는 도심지역 공간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으로서 비전(vision)과 공공공간의 네트워크와 디자인에 대한 기본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에쓰링엔시 도심지 공공공간 개발전략'계획이 도심지 공공공간 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면 '에쓰링엔시 도심지 가로 및 광장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에쓰링엔시 역사시가지 공공시설물 디자인카다로그', 그리고 '에쓰링엔시 도심지 야간경관계획'은 단위공간을 설계하고 개별사업을 실행할 때 참고해야 할 구체적인 지침계획이라 할 수 있다. 세 계획 모두 동일한 도시경관적 분석의 틀 위에서 계획되었으며 각기 다른 공간과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되었지만, 에쓰링엔시만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공통의 목적 아래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계획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개별사업을 시행할 때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제공한다.

① 에쓰링엔시 도심지 공공공간 개발전략 - 공공공간 네트워크를 통한 도시르네상스⁵⁸⁾

공공공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소통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도시 안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에쓰링엔시 도심지 공공공간 개발전략'은 이와 같은 공공공간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도심지내 모든 공공공간을 커뮤니티의 장으로 연계함으로써 에쓰링엔시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해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쓰링엔시 도심지 공공공간 개발전략' 계획은 도심지내 공간구조를 분석하고 도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3개의 거점지역과 특화용도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도심지역에 대한 기본구상을 담고 있다. 또한 도심지내 주요 공공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상호 연계시키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3개 거점지역의 특화용도를 네트워크 시키고자 하였다.

58) Stadtbauatelier, Stadt Esslingen am Neckar, 2002, "Modell Esslinger Innenstadt - Öffentliche Räume, Urbane Renaissance durch Vernetzung"



[그림 48] 1980년대 선적인 공공공간 개발 전략에서 중심시가지의 공공공간 전체를 네트워크화하는 전략(2000년대)으로의 변화과정(Stadtbauatelier, 2002)



[그림 49] 상업, 교육, 문화권을 각각 설정하여 중심시가지의 용도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구상(Stadtbauatelier, 2002)

② 에쓰링엔시 도심지 가로 및 광장 디자인가이드라인⁵⁹⁾

‘에쓰링엔시 도심지 가로 및 광장 디자인가이드라인’ 계획은 공공공간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역사적 경관을 보존하고 다른 도시와 차별적인 에쓰링엔시만의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이 계획은 상호 배타적이거나 조화롭지 않은 개별 사업을 조율하는 기준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는 공공공간 조성사업에 일관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개별 공간의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통일된 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에쓰링엔시 공공공간에 나타나는 공통의 요소를 도출하여 공공공간을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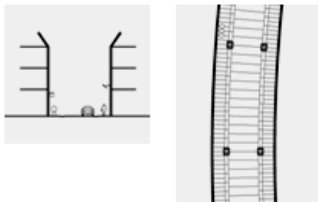
59) Stadtbauatelier, Stadt Esslingen am Neckar, 2004, Leitplanung Straßen und Plätze fuer die Innenstadt Esslingen am Neckar

‘에스링엔시 도심지 가로 및 광장 디자인가이드라인’은 2001년 수립된 ‘중심시까지 가로 디자인가이드라인’과 2004년 수립된 ‘중심시까지 광장 및 도심지 입구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종합판으로 현황분석, 기본구상, 공간유형별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현황분석 부분에서는 역사, 용도, 교통에 따른 도시구조의 특성과 주요 공공공간을 가로, 광장, 도심 진입지역, 공원, 수변공간 등으로 분류하여 각 공간단위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구상 부분에서는 도심지 공공공간의 비전(vision)을 설정, 각각의 공공공간에 대한 공간위계를 정립하고 공공공간의 공통된 디자인 요소를 제시하였다. 마지막 디자인가이드라인 부분에서는 공간특성에 따른 공간단위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하고 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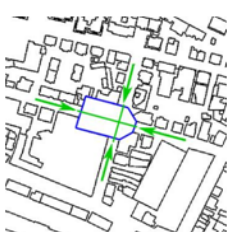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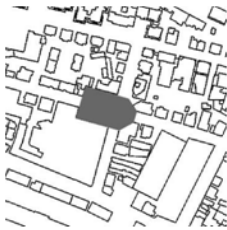
58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 가로유형별 디자인가이드라인 예시 : TYPE 1A - 중세시대형 주거가로



- 기본방향
 - 조용하고 좁고 편안한
 - 중세시대에 형성된 가로와 골목
- 공간특성
 - 공간비율 1:3 ~ 1:1.2 (세로형 가로)
 - 가로벽으로 조성된 코리더의 특성: 굽은 가로형태
- 용도
 - 대부분 주거용도
 - 작은 생활상점
- 교통/가로평면
 - 자동차 속도 제한 (7km/h)
 - 보차분리 없음. 도랑을 경계로 길가는 보행자만, 가운데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공통 이용
- 디자인요소
 - 바닥구성 및 페이빙 : 보도와 차도를 도랑으로 구분. 3m이하의 도로는 1개의 도랑만 설치. 페이빙 재료는 밝은 회색의 화강암. 표면은 거칠게 마감할 것.
 - 식재 : 이동가능한 화분 이용. 건축물 전면을 따라 화분 배치
 - 조명 : 건축물 외벽에 설치할 것.
- 해당 가로 예 : Webergasse, Heugasse 등

※ 광장 및 도시입구 디자인가이드라인 예시 : 독일통일 기념광장(Platz der Deutschen Einheit)



- 역사적 배경
 - 19세기에 조성
 - 조성 시 광장중앙에 분수가 있었음
- 기본방향
 - 도심지 서쪽지구의 중심광장
 - 구심력이 강한, 대칭적인
 - 특징적인, 활기있는
 - 근대적 (19세기적 특성)
- 공간특성
 - 교통교차로 중심에 위치, 평평함
 - 대칭적 공간구조
 - 명확한 건축벽
 - 주요 경관요소 : 근대건축물 파사드, 수목, 녹지공간
 - 주요기능 : 생산과 업무, 영화관, 음식점, fun-center
- 용도 / 기능
 - 서쪽지구의 주요 인지요소
 - 교통 결절지
 - 머무는 공간, 쉬는 공간, 쇼핑, 문화, 페스티벌
- 교통
 - 보행자 우선
 - 차도는 광장의 중심을 통과
 - 주차 금지
- 연계성 / 입구성 / 시퀀스
 - 교차로에 면한 4방향의 공간과 연계, Martin로와 도심지와 연계, kollwitz로와 중앙역과 연계
- 광장공간 차원에서 주요 인지요소: 건축벽, 수목, stand 형 조명
- 도시경관 차원에서 주요 인지요소: Dickareal의 골목
- 디자인 요소
 - 바닥구성 및 페이빙 : 밝은 회색, 차도는 아스팔트, 보행공간은 자연석 또는 인공석
 - 조명
 - .기본조명 : stand 형 조명
 - .부분조명 : 드러나지 않게, 첨탑과 Dickareal 처마 강조
 - .특수조명 : 페스티벌을 대비
 - 수목 : 녹지공간에 집중, 가로수
 - 가로시설물 : 조명, 볼라드, 벤치, 이동식 가로시설물 (레스토랑의 외부가구)
- 디자인 원칙
 - 서쪽지구의 중심광장 및 교통결절지로서의 특성 강조
 - 도심과 중앙역으로의 연계성 강화
 - 만남의 장소로서 질 높은 디자인
 - 드러나지 않는 가로시설물 설치
 - 도시적 분위기 연출
 - 야간조명도 야간의 활동을 고려하고 만남의 장소로서, 시민들의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 도시적 분위기 연출
 - 도시차원에서의 인지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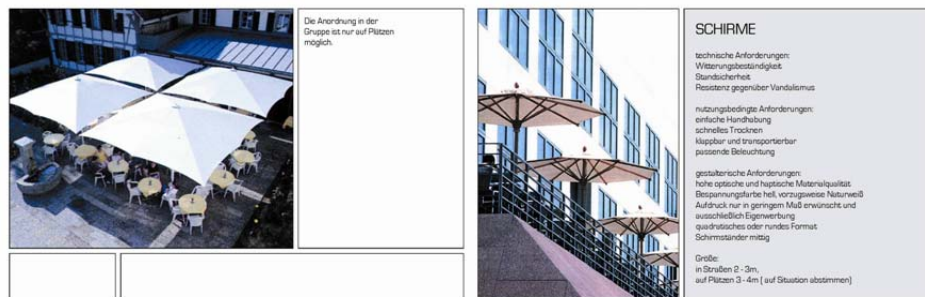
③ 에쓰링엔시 역사시가지 공공시설물 디자인카다로그⁶⁰⁾

‘에쓰링엔시 역사시가지 공공시설물 디자인카다로그’는 통일성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에 의해 도심지 내 공공공간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의 형태, 재료, 색채디자인에 대한 기본방향과 설치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공공시설물은 관리주체에 따라 공공에 의해 설치되는 공공시설물(벤치, 휴지통, 볼러드, 자전거 주차대, 수목, 어린이 놀이기구, 싸인시설 등)과 민간에 의해 설치되는 가로시설물(차양, 식탁, 의자, 화분, 가판대 등)로 구분하여 도시경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시설물을 선정한 후 기술과 활용 측면에서 개별시설물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과 각각 시설물의 형태, 재료와 색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주요 상업가도에 대해서는 공간별 특성을 분석하여 민간에 의한 가로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는 범위와 위치를 계획한다.



[그림 52] 공공에서 설치하는 휴지통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그림 53] 민간에서 설치하는 파라솔에 대한 디자인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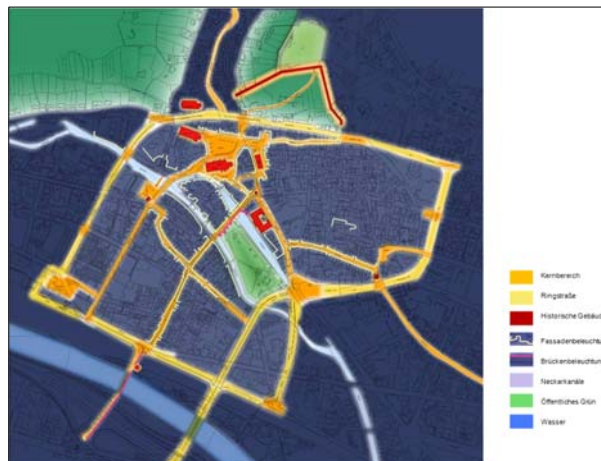
60) Stadtbauatelier, Stadt Esslingen am Neckar, 2004, Möblierung historische Innenstadt Esslingen am Neckar

‘에쓰링엔시 역사시가지 공공시설물 디자인카다로그’는 상업가로의 상점 주인들에게 배포되어 상인조합과 시의 협정 근거로 활용되며, 현재 의회의 승인을 거쳐 민간의 가로 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에 특별시설물설치구간(민간의 공공공간 임대구간)의 지정과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여 2008년 5월 조례로 제정/ 활용되고 있다.

④ 에쓰링엔시 도심지 야간경관계획⁶¹⁾

‘에쓰링엔시 도심지 야간경관계획’은 에쓰링엔시의 야간경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도심지 전체의 야간경관상(image)을 설정하고 각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은 ‘에쓰링엔시 도심지 가로 및 광장 디자인가이드라인’을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기본방향과 도시경관 형성요소를 공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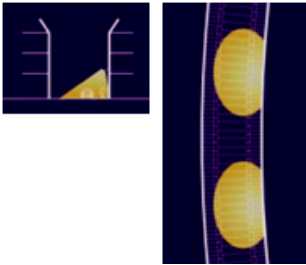
야간경관계획은 현황분석, 야간경관 형성의 기본방향, 디자인가이드라인, 그리고 실천전략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구조와 특성, 야간의 용도, 교통, 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토대로 도심지역 야간경관 형성을 위한 기본구상을 제시하고 공간 유형별 조명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주요 사업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 54] 중심시가지 야간경관 디자인 기본구상

61) Stadtbauatelier, Stadt Esslingen am Neckar, 2003, Lichtleitplanung fuer die Innenstadt Esslingen am Neckar

※ 가로유형별 야간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 예시 : TYPE 2A - 중세시대형 주거가로



분석

- 공간특성
 - 공간 단면 비율 1:3 ~ 1:1.2(세로형 가로)
 - 가로벽에 의한 굽은 코리더 형성
- 용도
 - 대부분 주거용도
 - 일부 상점과 소규모 상가 조성
- 파사드 특성
 - 3-4층 높이의 건축물로 1층 기반부와 상부로 구성
 - 중세시대 건축물의 색감이 남아있음
 - 일부 건축물의 1층에 상점 쇼윈도 형성
- 해당 가로 : Milchstrasse, Landoltingasse 등

설계지침

- 기본방향
 - 조용하고 좁고 편안한 분위기
 - 중세시대 형성된 가로로 좁은 골목 형성
- 조명설계 및 시설설치 지침
 - 가로등 타입 : 기본조명은 건축물벽에 설치하는 조명시설, 주요 사거리 강조를 위한 국부조명은 스탠드형 가로등, 바닥조명 등 사용 가능
 - 광원 설치 높이 : 3-4m
 - 빛색 : 높은 연색성 또는 따뜻한 노란색이 도는 조명
 - 광원 : 색채 보정한 나트륨등 또는 할로겐 백열등
 - 휘도 : 약 1.5-1.0 cd/qm
- 기타 지침
 - 낮의 공간 특성이 밤에도 드러나야 함
 - 건축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도시설계상 중요한 건축물의 파사드는 강조할 것
 - 쇼윈도의 조명을 고려하여 전체 가로의 휘도 등을 계획할 것
 - 시간대 별 조명을 계획하여 전력을 절약하고 특별행사를 고려하여 특수조명이 가능하도록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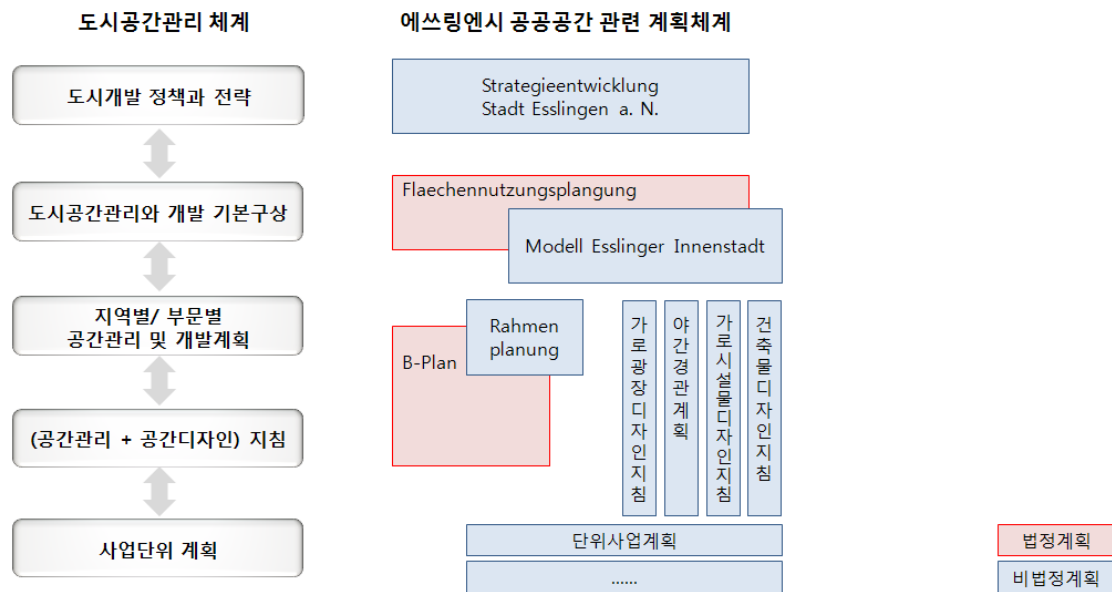
3) 계획의 운영과 관리

① 선계획-후실행 원칙에 의한 공간관리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 계획운영체제

독일의 공간계획체계는 계획적 관리를 기본 원칙으로, 건설법전에 기초해 토지이용 계획(Flaechennutzungsplan)과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의 이원적인 공간계획체계로 운영되며 그 밖의 계획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권한으로 수립되고 실행된다.

앞서 설명한 에쓰링엔시의 공공공간 관련 정책과 계획들은 에쓰링엔시의 자체적인 정책결정에 의해 수립된 행정계획이지만, 시의회의 승인절차를 통해 시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실행해 나가야 할 공통의 목표인 동시에 협약으로 작동한다. 행정계획의 특성상 규제의 강제성은 없지만 관련 행정부서에서 계획을 공유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모든 단위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예를 들어 도심지내 가로를 정비할 때 가로를 설계하는 계획

가와 관련부서는 관련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그림 55] 도시공간관리체계와 에스링엔시 공공공간 관련 계획

에스링엔시에서 도심지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0년 초 역전 상점가로(Bahnhofstrasse)이 새로 단장되면서 가로변 상가들의 매출이 늘기 시작하고 통과교통으로 정체되던 가로는 도시의 새로운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에스링엔시는 공공공간의 질적인 향상이 도심지 활성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도심지 공공공간의 질을 높이는 것이 도시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vision)과 전략, 그리고 도시의 경관을 향상시키면서 단위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이 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다. 이에 대응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약 3년에 걸쳐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실행 중에 있다.

②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에 의한 계획간 정합성 확보

에스링엔시의 공간관리는 건설시장을 수장으로 기술시청(Technisches Rathaus)에서 관할한다. 기술시청은 건축법 및 건축관리과(Baurechts- und Bauverwaltungsamt), 도

시계획 및 도시측량과(Stadtplanungs- und Stadtmessungsamt), 토목과(Tiefbauamt), 녹지과(Gruenflaechenamt) 등 5개 과로 구성된다. 이들 부서 중 공공공간 관련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도시계획 및 도시측량과이며 단위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진된다. 가로나 광장의 경우 설계는 도시계획팀에서 담당하고 시공과 감리는 토목과에서 담당한다. 공원이나 녹지, 일부 광장은 녹지과에서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에쓰링엔시에도 공공공간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으며 여러 부서에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전반의 계획과 맞물린 비전의 제시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과에서 수립하여 타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수립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공공공간 관련 계획은 기술시청 내 관련 부서에 배포되어 담당자들로 하여금 시의 공공공간 관련 정책과 계획방향을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때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단위 사업이 실행될 경우, 개별 공간의 설계 개념은 도시계획과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필요한 사전협의를 담당부서의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자율적으로 실행되며 일반적으로 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참석한 회의형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부서 간 협의방식은 계획이나 사업이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더해 에쓰링엔시의 경우 건설시장은 예산이 집행되는 계획과 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통해 관할하는 5개 과의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다. 모든 계획의 수립과 사업은 건설시장의 허가 하에 추진되며 특히 공공공간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추진되기 때문에 계획 간 정합성이 확보되고 각 부서에서 일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예는 거의 없다.

③ 전문행정인력에 의한 공간관리 행정체제

에쓰링엔시 기술시청에 근무하는 담당공무원의 대부분은 건축·도시·토목·조경 등을 전공하고 다년간의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문가가 많다. 또한 공개전형에 의해 해당부서에 맞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한 부서 내에서 담당지역이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다른 부서로의 이동은 거의 없다. 따라서 오랜 기간 근무한 공무원은 지역의 상황을 대부분 알고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오랜 세월을 거쳐 점진적으로 지역공간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과 사업추진으로 일관성 있는 도시의 경관이 형성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문행정인력은 공간관련 정책수립과 계획 및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코디네이터로 기능하며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때도 지역상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행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④ 시민 참여에 의한 공공공간 효과 극대화

도심지의 공공공간을 향상시키는 일은 장기적인 실행을 전제한다. 시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의 모든 공공공간이 잘 연계된 비전(vision)이 실제로 구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번 조성된 공공공간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므로 공동의 자산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노후한 가로외의 개선이나 시설물 교체, 청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관리업무는 에쓰링엔시의 경우 시청 소속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공간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만으로 진정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공간은 개인소유의 필지와 직접적으로 면해 있으며 주변 건축물에 의해 주요 경관이 결정된다. 따라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장기적인 공공공간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실마리다.

이를 위해 에쓰링엔시에서는 우선적으로 시에서 수립한 정책과 계획을 대부분 홍보자료로 제작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수립과 사업 시행에 시민의 참여를 촉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일례로 가로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때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상인조합과 협의하고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본 방향이 정해지면 시민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립하거나 계획에 직접 참여시키기도 한다. 시민참여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소속감을 증대시켜 사업 후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시민참여는 또한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며,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지만 철저한 준비와 코디네이션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시의 정책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5. 일본 나가오카시 : 국가 도심재생정책과 연계된 공공사업 중심의 도심활성화

1) 나가오카시의 일반현황과 특성

① 나가오카시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일본 중서부 니가타(新潟)현의 중앙에 위치하며, 다이가시나노(大河信濃)강을 따라 펼쳐진 광대한 니가타평야의 남단에 자리잡은 추우에츠(中越)지방의 중심도시임 • 인구 : 약 282,000명(합병전 192,000명)⁶²⁾ • 면적 : 841km²(합병전 262km²)⁶³⁾ • 역사적 특성⁶⁴⁾ : 나가오카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성하촌으로 1906년 시의 명칭이 처음 시행되었음, 무진전쟁과 나가오카공습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가지가 소실되는 위기를 겪었으나 회복, 70~80년대에는 철도와 고속교통의 개설로 도시화와 시가지 확대가 빠르게 진행됨, 2004년 추우에츠 대지진으로 다시 시가지 피해를 입음 • 산업적 특성⁶⁵⁾ : 전통적으로 쌀위주의 농업과 정밀기계공업 등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광역적인 상업거점을 이룸 • 행정적 특성⁶⁶⁾ : 2005년 인근 5개 정촌, 2006년에 인근 4개 시정촌과 두 차례에 걸쳐 합병, 총10개 지역으로 나뉨
--	---

② 도심지 개요

나가오카시의 중심시가지는 에도시대 초기 축성된 나가오카성(현재의 JR 나가오카역 자리)을 중심으로 형성된 죠오카마치(城下町)가 나가오카시의 도심지로 발전한 것으로, 북월무진전쟁에 의해 소실된 나가오카성 자리에 나가오카역이 개설되고 주변에 상업 및 업무기능이 점차 집적되면서 나가오카의 중심시가지로서 근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1945년 나가오카공습으로 시가지의 약 80%가 소실되었으며 이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구축된 가로와 가구가 현재 중심시가지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62) 나가오카시, 2009, '나가오카 광역시민의 '경사스런 자리'가 될 새로운 나가오카의 얼굴만들기 - 중심시가지 지구도시재생정비계획'

63) 위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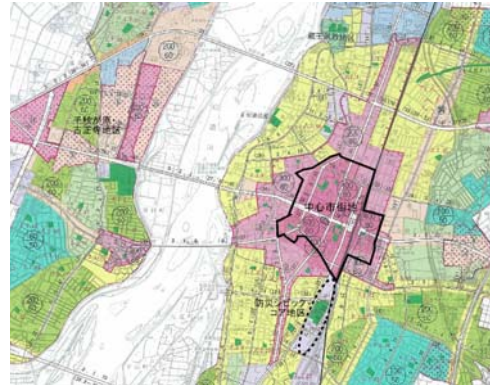
64) 위와 같음

65) 나가오카시, 2008,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66) 나가오카시, 2009, '나가오카 광역시민의 '경사스런 자리'가 될 새로운 나가오카의 얼굴만들기 - 중심시가지 지구도시재생정비계획'



[그림 56]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



[그림 57]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구역

나가오카시는 JR나가오카역에서 서쪽으로 뻗은 오오테로를 중심으로 격자형의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오오테로의 아케이드를 비롯해 눈을 피하기 위한 처마가 늘어선 상점가로들과 노점시장인 「5·10 시장」이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다. 1997년에는 오오테로에 지하주차장과 상점가의 아케이드, 심볼로드의 정비가 완료되었다.

그 밖에 과거에 수운이 활발했던 가키천, 평화의 숲 공원, 후쿠시마(福島)강의 벚나무 가로수 등 주로 도심지를 통과하는 하천을 중심으로 산책로와 공원 등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나가오카 중심시가지는 JR나가오카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 노선이 집결하고 있어 접근하기 용이한 교통의 결절점이다. 한편, 중심시가지에는 전쟁시 화재로 사라진 나가오카성의 성터, 전재(戰災)자료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기념관 등의 역사적 흔적이 많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나가오카축제(마츠리), 쌀 백가마니축제, 정롱 띄우기 행사 등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벤트의 개최로 지역의 특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림 58] 중심상업가로인 오오테로



[그림 59] 평화의 숲공원

③ 도심 활성화 정책

□ 배경

50, 60년대 연이은 대형점포의 개점과 80년대 중반 죠오에츠(上越) 신칸센 개통을 전후로 나가오카시의 중심시가지는 상업, 업무, 문화, 오락, 숙박 등의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가 집적되는 중심지로 변성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모터리제이션(motorization)이 진전됨에 따라 대형상점이 교외로 빠져나가고 교외지역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시가지 확대로 인구나 도시기능의 교외화가 진행되면서 중심시가지의 쇠퇴가 서서히 진행되었고 도심 활력의 저하가 큰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가오카시는 1999년 3월에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 활성화기 본계획(구 기본계획)」을 책정(계획구역 104ha)하고, 민관 각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실험이 이루어진다. 특히, Challenge Shop운영, 나가오카 시민센터 개설, 시내공방 개설, 쇼핑버스권 발행과 같은 노력이 2000년 이후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교외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인해 큰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시도

이와 같은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에 의해 종전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사업이 의도한 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가운데, 나가오카시는 2001년부터 종전의 기본계획의 틀을 뛰어넘는 다각적인 사업을 시도한다. 시민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꾸준히 전개하는 한편 중심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외곽으로 이전된 공공서비스 기능을 일부 중심시가지로 회귀시켰다.

• 도심시민센터의 개설

나가오카시는 2001년 10월 도심의 시민활동 거점을 형성하기 위한 실험적인 시설인 「나가오카 시민센터」를 개설하였다. 나가오카 시민센터는 중심상점가로인 오오테로변에 비어 있던 7층 건물을싼 값에 임대하여 ‘시민이 만들어간다’는 계획 의도를 갖고 시민들의 요구를 담아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소프트 선행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초에는 주로 시청창구서비스, 어린이 광장과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공간 등을 정비하는 활동에 치중하였으나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습코너’, ‘시내보육원’과

‘장애인플라자’를 확충해 나가면서 도시민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하는 「자유학습코너」를 마련하는 등, ‘시민이 자랄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의도에 맞게 도심의 중핵시설로 성장하고 있다. 「나가오카 시민센터」는 개설한 이래 260만 명이 이용하였으며 선도적인 사례로 현재까지 총 443단체에서 10,439명이 다녀갔다.

[표 9] 나가오카 시민센터의 시설내용(2008년 4월 현재)

층	층별 시설 내용
5층	도심불꽃놀이뮤지엄, 도심정비과, 국제교류과, 츄우에츠 방재안전추진기구, 부흥지원네트워크·퍼닉스
4층	어린이광장, 도심보육원, 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무국, 차일드시트 재이용품 전시코너
3층	워크 플라자 나가오카, 소비생활센터, 시민상담코너, 학습코너, 회의실
2층	남녀평등추진센터-월 나가오카, 월 나가오카 상담실, 시민활동센터, 인쇄코너, 시민면담코너, 시민활동단체 교류살롱, 정보자료코너, 도서코너, 회의실
1층	국제교류센터 지구광장, 나가오카시 국제교류협회, 시민서비스센터, 도시정보코너(도시의 정거장), 장애인 플라자, 원예상담코너, 생애학습 출장상담실, 시민갤러리, TV상담코너, 시민로비, 시민센터 사무실
지하	이벤트 광장

- 시청기능의 도심으로의 회귀

나가오카시는 나가오카시민센터 내에 개설한 「시민서비스센터」를 시초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쉬운 장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빠르게 변화하는 중심시가지의 상황을 담당자가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함과 동시에 도심에 애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의 비어있는 건축물을 임대하여 시청 기능의 일부를 중심시가지로 이전하였다. 현재까지 중심시가지로 이전하거나 개설된 기능은 조나이츠(城内町)분실 내 도시정비부 각과(2006), 나가오카시민센터 내 시민서비스센터(2001)와 시내정비과(2003), 오오테도오리 분실 내 상공부(2004)와 나가오카관광컨벤션협회(2004, 오오테도오리 서분실 내에는 기획부(2005), 감사위원사무국(2005), 중심시가지 활성화추진실(2007) 등이다⁶⁷⁾.

- 시내거주 촉진을 위한 방안

나가오카시는 중심시가지의 거주환경을 제고하고 시내거주를 촉진하기 위해 1999년 ‘나가오카시 주택정책마스터플랜’을 책정하였다. 2004년 현내에서 최초로 ‘나가오카시 고

67) 나가오카시, 2009, ‘나가오카 광역시민의 ’경사스런 자리‘가 될 새로운 나가오카의 얼굴만들기 - 중심시가지 지구도시재생정비계획’

령자우량임대주택(50호)’을 정비하고 2007년에는 추에츠 지진에 의한 이재민 공영주택-일 반공영주택 74호를 정비하였다. 현재 마치츠클리 교부금에 의한 오오테로 중앙서지구 제1 중 시가지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⁶⁸⁾.

- 「나가오카 타운매니지먼트 기획운영회의」의 설립

중심시가지의 문제를 폭넓은 관점에서 논의하고, 광역도시권의 중심이자 중심시가지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나가오카시가 추진하는 「중심시가지 구조개혁사업」에 발맞추어 2003년 4월 관련 주체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발족하였다. 이중 「도심·고방」은 중심시가지내의 빈 점포를 거점시설로 활용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나가오카 타운매니지먼트 기획운영회의」는 시설관리·기획·운영 등을 맡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도심콘서트 등의 이벤트 및 심포지엄, 강연회의 기획과 운영, 정보지 및 각종 홍보물 발행 등이며, 2007년 11월에는 「NPO법인 도심고방」으로 법인화하였다.

-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구조개혁회의」설치

2002년 6월 중순, 개발이 지연되고 있던 시나노가와 하천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이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연면적 26,000m²의 대형점포, 시네마콤플렉스 등을 개발하고자 한다. 나가오카시는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이것에 대처하는 위원회를 5회 개최하여 이 안을 기본적으로 승인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으나, 산업계 및 의회 등으로부터 도시계획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반대의견 부딪치게 되어 정부부처(국토교통성)까지 관여하게 된다. 결국 10월 중순에 나가오카시는 신청자에 대하여 이용계획을 변경하게 하고 시는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의 변경에 착수하여 앞으로의 중심시가지 관리 방침을 5가지로 정하게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로 중심시가지 활성화대책을 선정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2003년도부터 도심지에 위치한 시민센터 내에 도시계획부국 산하 ‘도심활성화’가 신설된다. 이와 함께, 전문가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 구조개혁회의’가 설립되어 시장에게 중심시가지활성화 방안을 제출하였으며, 이 회의는 현재도 개최되고 있어 중심시가지의 각종 사업에 대한 조언 등을 하고 있다⁶⁹⁾.

68) 나가오카시, 2009, 2001~2008년까지 총 36동 1471호를 정비하였으며 2009년 3동 158호를 정비할 예정임

69) 나가오카시, 2009, 도시재생정비계획의 진척관리, 사업추진 어드바이스, 사후평가의 모체로써 2006년 9월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 구조개혁회의」 재설치하였다. 2006년도에는 4회, 2007년도에는 2회 개최, 2008년도에는 2회 개최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3회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

2003년에 열린 중심시가지 구조개혁회의는 총 7차례 회의를 거쳐 상업뿐만이 아닌 업무, 주거를 대상으로 실현 방안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2004년 3월에 제언으로 정리한다. 이 제언을 바탕으로 지역정책은 교외화에 의한 다극분산으로부터 중심시가지로의 재집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있어서 필요한 기능을 중심시가지에 집중시켜 나가오카 광역권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제언의 기본이념은 ‘나가오카 광역시민의 경사스러운 자리가 될 새로운 나가오카의 얼굴 만들기’로, 시정촌의 합병을 앞둔 가운데 나가오카 광역의 중심으로서 중심시가지를 재구축하기 위한 중심시가지가 가진 강점을 인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시내형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창출하고, 그 개념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 시민의 생활과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공공의 장소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민간시설의 입지촉진과 중심시가지 전체로의 파급을 통해 시내회복의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중심시가지 구조개혁회의의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나가오카광역권 거점의 역할을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심시가지를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② 중심시가지에 걸맞은 시설의 시내회복의 촉진을 도모한다. 그러기 위해 ③ 하드선행이 아닌, 소프트시책을 전략적으로 전개하여 타운메니지먼트를 추진하고 ④ 그 효과와 요구를 파악하면서 필요한 시책과 시설정비로 연결시키며, ⑤ 도심내 공공서비스를 전개하는 장소로 중심시가지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선도적인 사업을 실시한다.

- 도시재생정비계획에 의거한 사업 추진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의 구조개혁에 관한 제언」에 따라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및 「나가오카 방재 시빅 코어지구(주차장지구)」에서 도시재생정비계획을 책정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마치즈쿠리교부금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은 구 계획구역에서 주차장지구를 제외한 92.5ha를 정비구역으로 정하고, ‘교외로 분산된 도시기능의 도심 회귀를 촉진하고 대지진로 입은 재난 복구경험을 바탕으로 방재성과 편의성이 높은 중심시가지의 창조’를 목표로 후생회관지구의 재정비나 시가지재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생회관지구에 헤세이 공회당, 지붕 있는 광장, 시청사가 일체가 된 ‘시민협동형 시티홀’을 정비하고, 오오테로 중앙서지구와 동지구에 ‘시가지재개발사업’, 나가오카역 오오테구치

역전 광장의 정비 등을 통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시민과의 협동을 통한 마치즈쿠리 및 콤팩트 시티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시설의 도심 회귀’라는 독창적인 시도를 높이 평가받아서 2007년 국토교통성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 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인정을 통한 사업추진 동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가오카시는 2000년 대 초반부터 중심시가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시민협동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심시가지활성화 구조개혁회의’ 등을 통해 추진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한된 예산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과 ‘나가오카 방재 civic core지구정비 계획’ 등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 국토교통성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06년 「중심시가지활성화법」이 개정되면서 나가오카시는 이제까지 논의되었던 모든 활성화 사업들을 종합하여 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을 수립, 2008년 내각대신의 인정을 받고 경제산업성의 지원을 받는 등 중심시가지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공공사업 중심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과 중앙정부의 지원

① 도심형 공공서비스와 시민협동형 마을만들기 전개에 의한 중심시가지활성화

새로운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은 나가오카광역권은 물론 추우에츠지역 전체의 중심으로서 거점의 역할을 고려하고 있다. 기본이념은 광역단위의 시민이 교류하고 배우며 문화생활과 쇼핑을 영위하는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공공’의 장을 만드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기와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나가오카의 ‘얼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의 기본방침은 크게 도심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도사업의 전개와 시민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두 방향으로 구분되며 도심형 공공서비스와 시민협동에 의한 마치즈쿠리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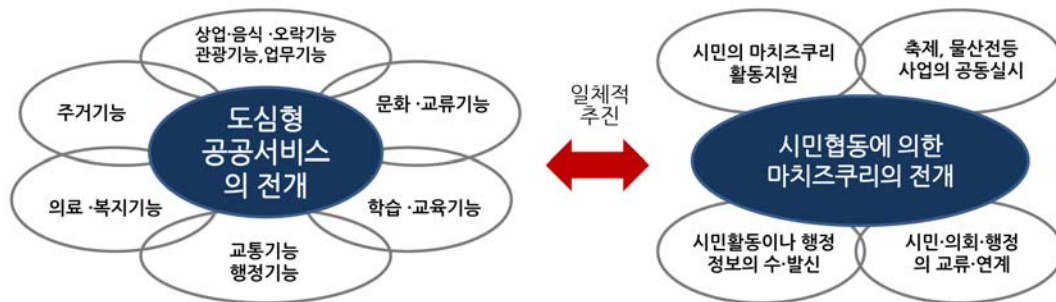
□ 시청기능의 도심회귀를 선도하는 ‘도심형 공공서비스’의 전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심시가지에 사람들

이 모일 수 있도록 도시지원기능을 집적시키고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심에서 행정기능, 교육기능, 문화교류기능, 주거기능, 상업·업무기능 등 다양한 「도심형 공공서비스」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이나 활동에 필요한 공공의 장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가오카시에서는 중심시가지 밖으로 이전된 공공시설이 도심지의 활력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착안해 지방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시청사 본청을 다시 중심시가지에 복귀시키고 도심캠퍼스, 육아지원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시민협동’형 마치즈쿠리 사업 전개

나가오카시는 ‘시민이 키우는 시설’을 목표로 만들어진 나가오카 시민센터를 통해 시민협동형 마을만들기 시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미래의 마을만들기는 시민과 행정 이 함께 도시의 비전(vision)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협조해야 한다는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역사적으로 민관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한 전통을 바탕으로 누구나 찾기 쉬운 중심시가지에 시민과 행정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민협동의 마치즈쿠리 거점」으로서 「시민협동형 시티홀」을 정비하는 한편 「시민력」과 「지역력」을 살린 나가오카다운 마치즈쿠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그림 60]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의 기본방침

② 선도적 공공사업을 통한 중심시가지 활성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가오카 시민센터의 개설, 시청기능의 도심 회귀에 의한 사업의 성과와 중심시가지구조개혁회의의 논의, 시민 스스로의 나가오카 타운매니지먼트 기

획운영회의의 활동 등을 통해서 나가오카시는 시민, 사업자, 행정주체 간에 중심시가지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61]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에 의한 사업

이를 바탕으로 중심시가지활성화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으로 시민들의 힘을 집결하여 ‘시민협동형 시티홀’ 이외에 도심형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의 정비와 도시 기능 개선을 위한 시가지재개발사업 등 선도적인 공공사업을 기획·추진 중에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시민협동형 시티홀’의 정비(2011년 가을 완공 예정)

후생회관지구에 정비하는 ‘시민협동형 시티홀’은 아레나(arena)를 비롯한 각종 홀을 중심으로 한 공회당, 도심 시청사, 그리고 지붕 있는 광장의 세 가지 시설이 융합된 ‘시민협동의 장’이다.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의 장벽을 없애고 협력하고자 하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시청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입지하고 시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시장, 시의회 의원, 시청 직원이 있어서 일상적으로 마치즈쿠리에 대해 논의하고 마치즈쿠리를 실천하는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공회당 및 지붕 있는 광장천하는 각종 표창식, 격려회 등과 같은 공적인 행사는 물론이고, 시내 각 지역의 축제나 특산물전, 대규모 스포츠 대회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새로운 나가오카시의 일체감을 조성한다. 특

히 눈이 많은 지역에 적합한 개방적인 야외공간인 지붕 있는 광장을 운영하여 이용자인 시민의 자유로운 활동을 살릴 수 있도록 배려한다. 이러한 기능을 갖춘 ‘시민협동형 시티홀’은 나가오카시가 추진하는 협동의 마치즈쿠리를 상징하는 시설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



[그림 62] 시민협동형 시티홀 지붕있는 광장의 투시도

□ 도심 육아 지원거점으로서 오오테로 중앙 서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2010년 6월 완공 예정)

지구의 뛰어난 입지특성을 살려 고층부에는 63세대의 도시형 주택을 저층부에는 점포를 입지시켜 나가오카시의 보육과 상담기능을 담당할 지원시설을 설치한다. 이 시설은 높이 63m에 달하여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상징적인 건물형태가 되도록 외관에도 신경을 썼다. 도심 육아 지원거점으로서 주요 용도로 보육기능(도심 보육원), 동아리 지원 기능, 정보제공 기능, 교류·놀이터 기능, 상담 기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림 63] 오오테로 중앙 서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 지역의 현재와 정비 후 모습

□ 도심 교류거점으로서 오오테로 중앙 동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2011년 완공 예정)

오오테로 중앙 동지구는 공동주택(14세대), 업무시설과 상가, 그리고 추우에츠지진의 기억이나 기록을 전승하는 ‘나가오카 아카이브즈 센터(가칭)’과 시청사 본청 기능의 일부를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중심시가지에서의 새로운 학습과 교류의 장이 될 ‘도심캠퍼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캠퍼스는 추우에츠 시민안전대학 개최, 고등교육 기관과 연계한 각종 강좌, 시민강사에 의한 강좌, 학생들의 교류, 초등학생 로봇 경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 학습과 교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그림 64] 오오테로 중앙 동지구 시가지재개발사업 지역의 현재와 정비 후 모습

□ 선도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다각적인 사업의 전개

시민협동형 시티홀이나 시가지재개발사업의 추진 이외에도 나가오카시에서는 중점사업의 효과를 한층 높이고 더욱 다각적으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소프트 정책을 통해 선도적인 공공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 시티홀의 기능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 후생회관지구 주차장 활용사업 : 시청사에 정비하는 주차장은 도심을 둘러보는 시청 이용자 및 주말 방문객에 대해서 개방하는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 도심홀 대체활용 실험사업 : 후생회관지구 공사기간 중에 중심시가지의 빈 건물을 빌려서 후생회관을 대체하는 시설을 개설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고 도심의 활력을 유지시킴과 동시에 공회당이 정비된 후에도 효과적인 시설 운영으로 연결되도록 함
- 지붕 있는 광장 운영방법 검토사업 : 지붕있는 광장의 운영주체나 운영방법을 민간의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함
- 본청사 회의실 활용사업 : 시청 본청사 회의실을 야간이나 휴일에 시민활동을 위해 개방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함
- 방문객의 편의 향상과 회유성 창출을 위한 노력
- JR나가오카역 오오테출구 역 앞 광장 재정비사업 : JR나가오카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보행자 데크를 설치하고, 대중교통기관의 결절점인 역 주변의 편의를 제고
- JR나가오카역 오오테출구 지하 자전거주차장 정비사업
- 배리어 프리 보행자공간 네트워크 정비사업
- 나가마치(長町) 일번지지구 가로환경정비사업
- 주차장 정보 발신시스템 정비사업
- 시민의 힘에 의한 활성화 추진 노력
- 육아 페스티벌 및 시민활동축제의 개최 등 중심시가지에서 시민이 주체가 된 다양한 행사를 개최
- 나가오카 시민센터, 나가오카 전재자료관 등과 같은 중심시가지내의 공공공익시설을 시민 자원봉사자 등의 시민력을 살려서 운영
- 도심거주 개선을 위한 노력
-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 임대료 감액보조사업 : 중심시가지에서 고령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정주인구의 증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심시가지에 입지하는 고령자를 위한 우량임대주택의 임대료에 대한 감액보조를 실시
- 주택정책 마스터플랜 책정사업 : 중심시가지의 도심거주정책을 포함한 나가오카시 전체의 주택정책 지침이 되는 주택정책 마스터플랜을 책정
- 상업·업무기능의 입지 촉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노력
- 정보발산·교류·활기 창출거점 설치 운영사업
- 상업·상점가 활성화 어드바이저 활용사업
- 신규개점자 육성지원사업, 중심시가지 사업소 집적 촉진사업
- 중심상점가 합동이벤트 개최사업
- 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
- 교통대책사업 : 다양한 이용자의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가지 순환버스 등의 운영을 지원
- 셔틀버스 운행 사회실험사업 : 중심시가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빅코어지구와 나가오카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의 사회실험을 실시
- 교통원활화대책 조사사업 : 중심시가지로의 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교통원활화대책을 강구
- 논스텝 버스 도입 : 버스의 배리어 프리화를 촉진
- 버스위치시스템 확충 : 노선버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버스위치시스템 도입노선을 확대

3) 계획의 운영과 관리

① 계획간 연계를 통한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

나가오카시는 콤팩트한 마치즈쿠리를 실현하고 중심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나가오카시내에 939ha에 달하는 준공업지역 전역에 대해 대규모 집객시설(연면적 10,000㎡를

넘는 점포, 영화관, 관람장, 전시장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특별용도지구(대규모 집객시설 제한지구)를 지정하고, 「나가오카시 대규모 집객시설 제한지구내 건축물의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08년 11월 4일부로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조례를 시행하였다. 또한 1989년에 지구계획 제도를 도입한 이후, 새로 시가화구역에 편입하는 지구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규제/유도해왔으며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 상업업무계의 토지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 연면적 3,000㎡를 넘는 대규모 상업시설의 입지는 용도지역 또는 지구계획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나가오카시는 시 외곽에 대형 쇼핑몰이 형성되는 것을 도시계획을 통해 신중하게 관리함으로써 중심시가지의 활성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의 기본방침과 실천전략은 도시를 관리하는 도시계획체계 내의 관련 계획에 반영되고 있으며, 중심시가지활성화 기본계획을 시의 장기적인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과 관련된 계획은 「나가오카시 총합계획」, 「도시계획마스터플랜」, 「나가오카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나가오카시 주택정책 마스터플랜」,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 「나가오카 방재 시빅코어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 등으로 주요 계획에서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나가오카시 총합계획

2007년 3월에 수립한 「나가오카시 총합계획 기본구상」(2006년~2015년)에서는 나가오카시가 추구하는 장래의 도시의 모습(기본이념)의 하나로 「활기와 활력이 넘치고, 매력적인 문화와 산업을 창조하는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구상의 실현을 위한 「전기(前期) 기본계획」(2006년~2010년)에서 「나가오카의 얼굴이 될 중심시가지의 재생」 및 「중심상점가의 재생」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JR나가오카역 주변의 중심시가지에서 개정된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의거한 새로운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을 책정하고 각종 정책을 실시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나가오카시 도시 마스터플랜

현 마스터플랜(1999년 책정)에 이은 시정촌 합병 이후의 새로운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는데, 이 계획의 대상구역인 중심시가지 및 도심지구의 위상을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이 계획에서 제시한 시가지정비사업 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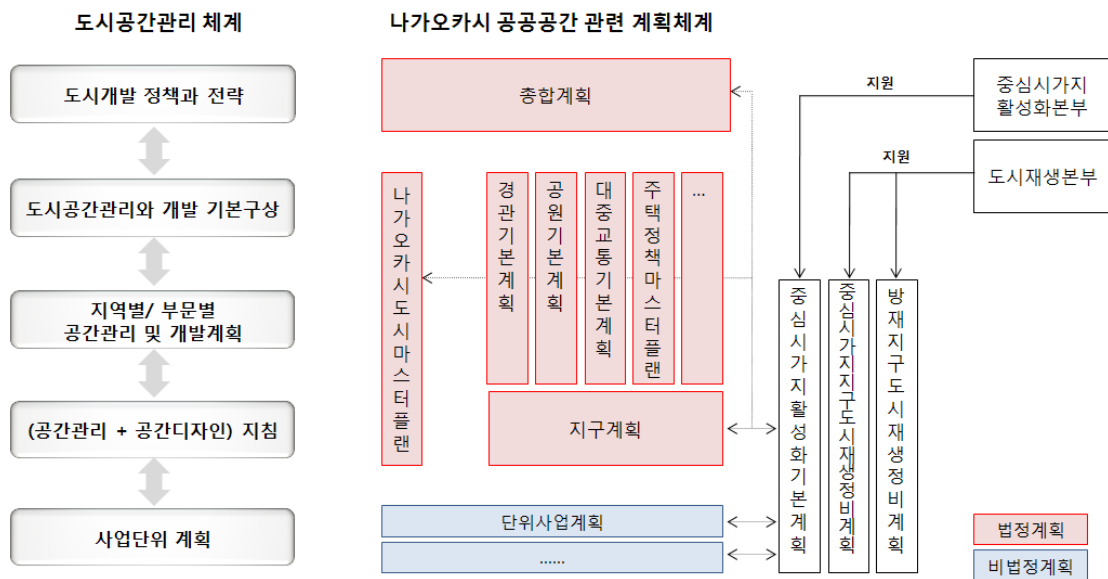
기재할 예정이다.

□ 나가오카시 대중교통 기본계획

노선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의 비전(vision)에 관한 계획으로 본 계획에서 제안한 버스 위치 정보시스템, 파크 앤 라이드 등, 노선버스에 의한 시내 각지로부터 중심시가지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보완 중에 있다.

□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2006년)

앞서 서술한 다양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나가오카시 고유의 콤팩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거 수립·책정된 계획으로 중심시가지활성화 정책 사업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본 계획에 기초하여 마치즈쿠리 교부금을 활용한 각종 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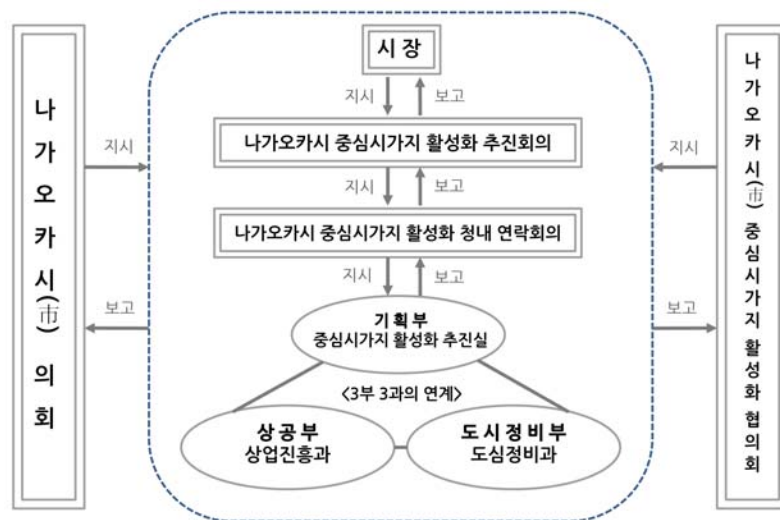
[그림 65] 나가오카시 도시계획체계와 중앙부처의 도시재생지원 체계

②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추진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주체간 협의체계 구축

개정된 ‘중심시가지활성화법’에 근거한 ‘인정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나가오카시는 2007년 기획부에 ‘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실’을 설치하였다. 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실은 시청내의 도시정비부, 상공부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11월에 내각 총리대신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인정받은 계획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는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각 시정촌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은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중앙정부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청하고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실행하며 완료 후 중앙부처에 다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실에서 전담한다. 기본적으로 중심시가지활성화 사업은 기획부의 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실과 상공부의 상업진흥과, 도시정비부의 도심정비과, 3개 부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시청 내에서는 청내 연합회의, 중심시가지활성화추진회의, 시장에 이른 횡적인 검토가 이루어진다. 그 밖에 2007년 시민협동형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상점주인, NPO, 시민 등이 주축이 되어 설치된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된다.



[그림 66]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성화 추진체제도

③ 적극적인 시민참여에 의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

나가오카시는 2000년 초반부터 시민협동형 마을만들기 사업과 시민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는 시민의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을 배우게 된다. 관련 담당자들은 한결같이 ‘시민과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시의 사업을 알리고 참여시키는 과정을 통해 동일한 비전(vision)을 공유하게 될 뿐 아니라 시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심을 높임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간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효율적이다.

6. 사례분석을 통해서 본 시사점

1) 도시의 경쟁 요소로서 공공공간의 역할의 변화와 중요성 증대

□ 지역민을 위한 도심환경의 개선

- 다양한 공공공간의 개선을 통해 도시민들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질 높은 도심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인구의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함



[그림 67] 보행 가로 조성



[그림 68] 자전거 도로 조성



[그림 69] 보행 쉼터/ 광장 조성

□ 노후/ 침체된 도심의 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역할

- 공공공간은 기존 도심 활력이 사라져 적절한 활성화 수단을 찾지 못하는 중소도시에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 전반의 공공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일조함



[그림 70] 도심 활성화 거점으로 광장 계획(the Old Market place, Notting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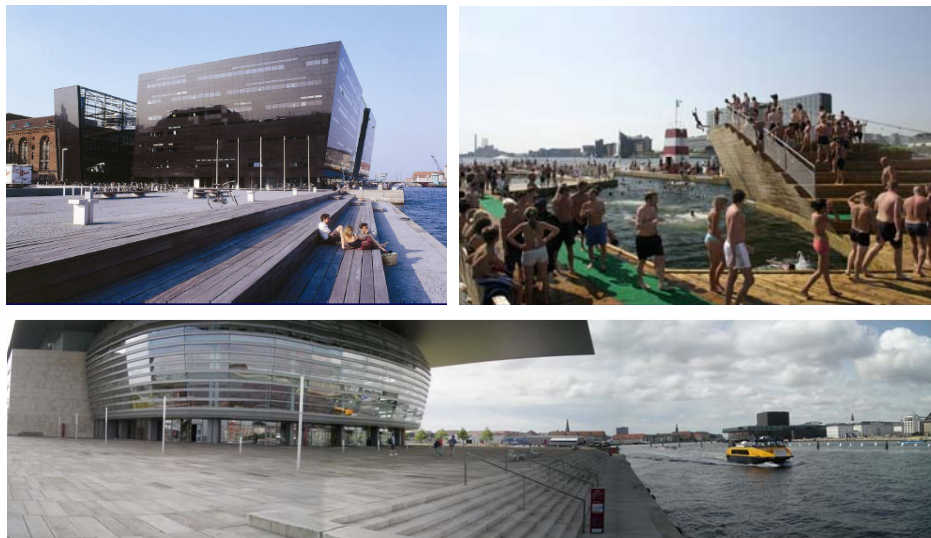
* 광장 개선사업을 통해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해마다 시의 재정이 1천2백만 파운드 가량 상승



[그림 71]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지구 도시재생정비계획과 공공공간의 활용

□ 지역 경쟁력 요소로의 발전

- 도심내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개발 및 발전은 현대 도시생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수준 높은 도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도시로의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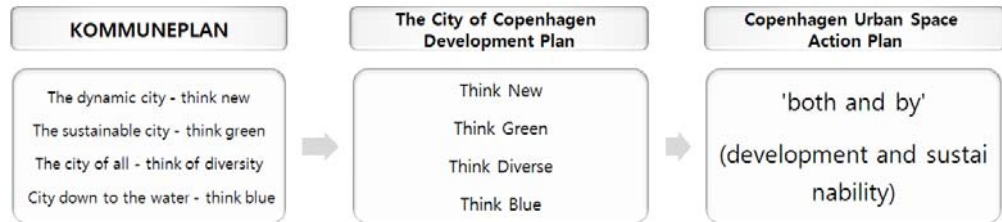


[그림 72] 다양한 수변 공공공간 개발을 통한 도시이미지의 향상(코펜하겐 수변 계획)

2) 비전(Vision)을 공유하는 유연성 있는 계획체계 및 계획 간 역할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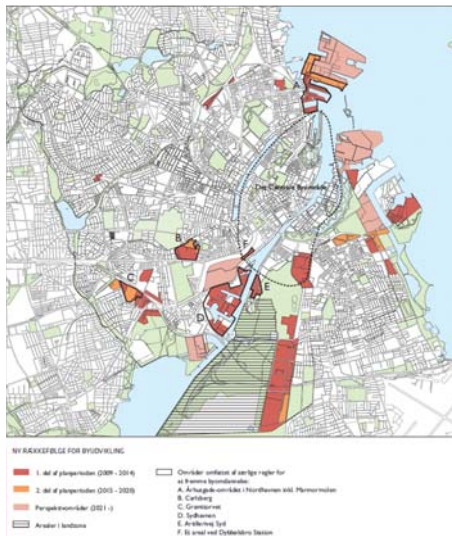
□ 명확한 목표의 설정을 통해 도시의 비전(vision)을 공유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

- 도심 공공공간의 계획 및 사업은 도심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비전(vision)의 공유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의 일관성이 유지됨으로써 가능하며 이를 위해 계획 간 정합성이 확보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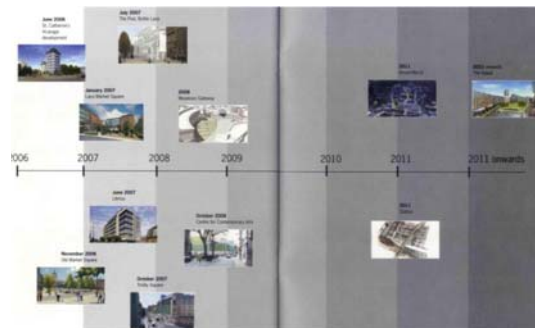


[그림 73] 공공공간 관련 계획 비전(vision)의 공유(코펜하겐)

- 비전(vision)의 공유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단계별 추진 전략을 설정할 수 있어 일회적인 사업 진행에서 벗어나 도심 공공공간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행력을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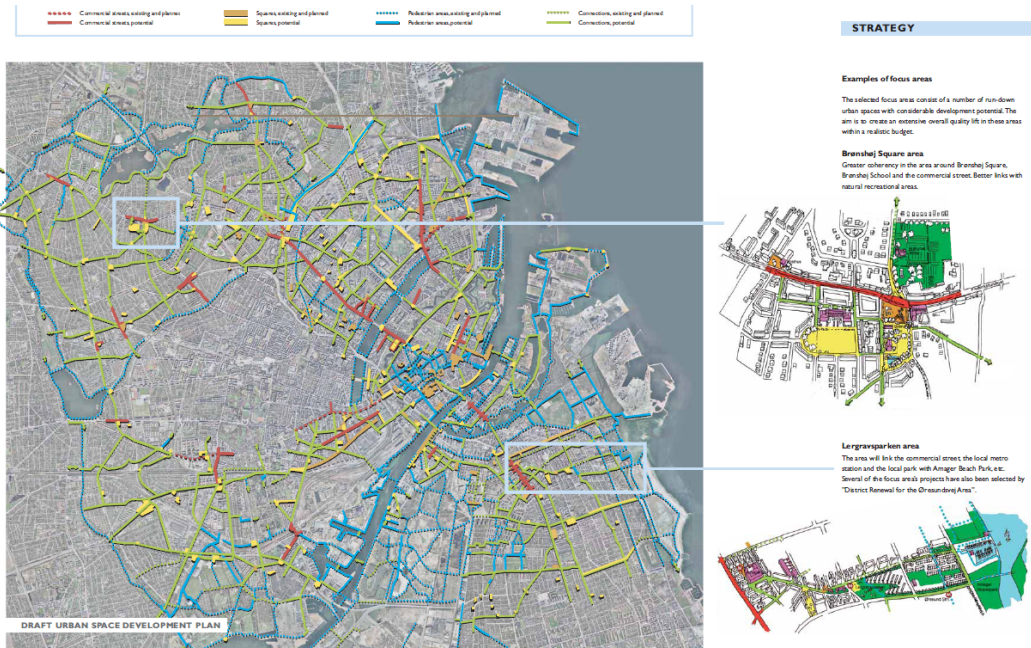
[그림 74] 시기별 공공개발 영역의 구분
(코펜하겐 Kommuneplan)



[그림 75] 거점 프로젝트의 단계별 실행계획
(노팅엄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

□ 도심 공공공간의 종합적 지원을 고려한 전략 Masterplan의 수립

- 공공공간의 계획은 도심내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한 전략 Masterplan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갱신 및 수정되며, 각각의 사업별 계획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단위 사업별 계획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과 방향이 도시적인 맥락과 일관성있게 유지됨



[그림 76] 공공공간 개발 계획과 특정 계획(Copenhagen Urban Space Action Plan)



[그림 77] 도심 마스터플랜
(City Centre Masterplan, Nottingham)



[그림 78] Public realm(Nottingham)

□ 도심의 여건과 상황에 따른 계획의 역할 및 계획 간 합리적인 연동체계를 구축

- 공공공간의 관련 계획의 주요 역할은 공공공간의 개발 및 계획의 절차와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으로서의 역할, 거점지역의 공간적인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는 역할, 특정 지역/ 부문의 공간계획 및 사업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로서의 역할의 3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도시별 계획체계에 따라 유연하게 구분/ 적용되고 있음



[그림 79] 공공공간 관련 계획 간 연동체계(Nottingham)

□ 지역 여건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의 계획

- 지역의 여건 및 현황분석을 통해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의 장점을 증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며 특히, 지역의 문화유산, 물리적 공간 특성, 산업/ 경제적 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고 지원하기 위한 공공공간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함



[그림 80] 도심 수변 공공공간 활용 (코펜하겐)



[그림 81] 옛 직물공장 전면 광장화 (Lace Market Square, Nottingh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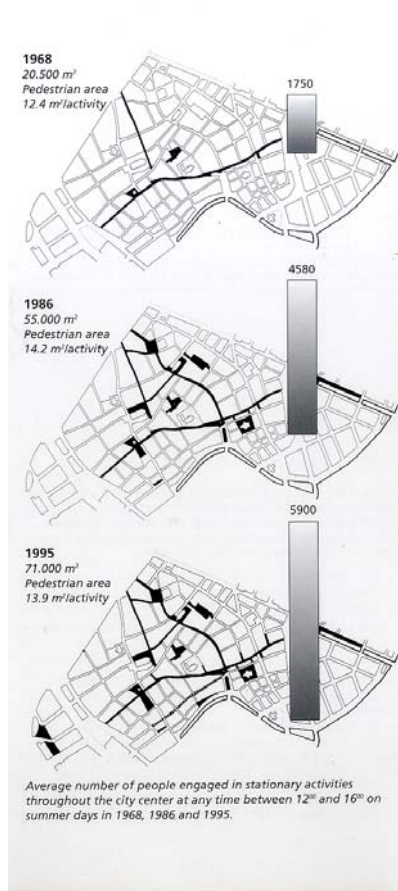


[그림 82] 기존시설의 재활용(에쓰링엔)

3) 기존 도심의 면밀한 현황분석 및 지속적인 리뷰(review)와 모니터링(Monitoring) 병행

□ 도심 내 공간 실태 및 현황분석의 실시와 잠재력 도출

- 계획을 수립하기 오래 전부터 도심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도심의 문제점과 향후 잠재력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계획하고 개발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담보됨



[그림 83]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도심 공공공간의 현황 분석(코펜하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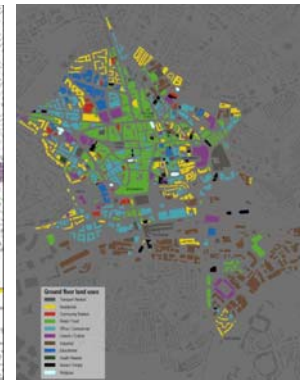
[그림 84] 건축물 높이



[그림 85] 천공률



[그림 86] 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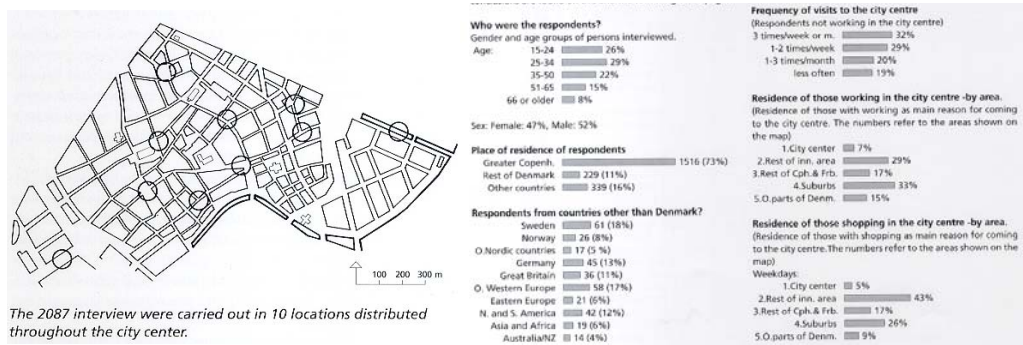


[그림 87] 지상층 용도

도심 현황의 분석
(Nottingham City Centre Design Guide)

□ 리뷰(review)제도와 모니터링(monitring) 제도를 통한 사업효과 검토

- 사업완료 이후 일정기간 마다 이용률 및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함으로써 기존계획의 방향성을 검증하고 차후 프로젝트 실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임



[그림 88] 주요 지점별 인터뷰 및 이용률 조사(코펜하겐)

□ 지역의 전문가/ 대학과 연계한 지속적인 현황분석의 축적과 계획의 개발

-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전문연구기관(전문가, 대학 등)과 연계하여 현황분석에 대한 결과물을 꾸준히 축적하고 이를 통해 향후 추진방향을 계획할 수 있어 계획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과 지속적인 보완이 가능함



[그림 89] 에쓰링엔시 공공공간 계획 전문가 Michael Trieb(현 ISA 도시설계사무소 소장, 전 stuttgart대학교 도시설계학교 교수)



[그림 90] 코펜하겐 공공공간 분석 및 계획 전문가 Jan Gelh(Center for Public Space Research, Royal Danish Academy of Arts School of Architecture)

4) 다양한 주체의 참여 유도

□ 민관 협력조직을 통한 계획의 진행

- 도심 내 공공공간 사업은 관련된 주체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이들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고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관주도의 방식이 아닌 민관 협력 시스템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공동 협력조직에 의한 사업의 진행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Design Nottingham includes:

- Architects
- CABE
- Commercial Property Agents
- Councillors
- Developers
- House Builders
- Land Agents
- Landscape Architects
- Local Businesses
- Nottingham City Council
- Planning Consultancies
- Property Consultants
- Regeneration Agencies
- Regional Government Ag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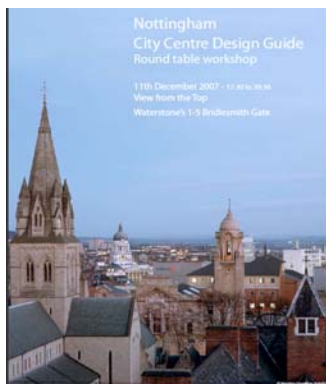
役職	氏名	所屬等
座長	田村 巖	長岡商工会議所会頭
副座長	中出 文平	長岡技術科学大学環境・建設系教授
委員	猪俣 雄大	たつまき堂店主
同	五井 正彦	社団法人長岡青年会議所まちづくり委員長
同	小川 峰夫	特定非営利活動法人まちなか考房代表理事
同	北村 公	栃尾観光協会副会長
同	佐藤 愛子	(有)サトウ商店
同	安藤 栄治	大手通商店街振興組合理事長
同	高野 裕	税理士・中小企業診断士・行政書士
同	樋口 秀	長岡技術科学大学環境・建設系准教授
同	平井 邦彦	長岡造形大学造形学部建築・環境デザイン学科教授
同	平石 京	長岡老いを考える会
同	藤井 英雄	税理士・行政書士
同	藁谷 浩介	日本政策投資銀行地域振興部地域振興班参事役
アドバイザー	北沢 猛	東京大学大学院新領域創成科学研究科教授

[그림 91] 노팅엄시 디자인 참여 주체
(Design Nottingham)

[그림 92] 나가오카시 중심시가지활화협의회 참여 주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

□ 주민의 참여를 통한 수요자의 의견 및 요구 반영

-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공간과 프로그램의 설계를 원칙으로 하는 참여자 중심의 프로세스로 진행됨으로써 이용주체인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



Nottingham City Design Guide Round Table Workshop

AGENDA

17.30 – 17.45	Registration - Refreshments
17.45 – 18.00	Introduction by David Rudlin from URBED
18.00 – 18.30	Group discussions - Analysis of the City Centre today and issues
18.30 – 18.45	Presentation - Vision and emerging guidance
18.45 – 19.15	Refreshments
19.15 – 20.15	Group design work - Getting Nottingham where it needs to be
20.15 – 20.30	Feedback - Visions, plans and priorities

[그림 93] 노팅엄시 주민 참여 워크숍 프로그램

5) 지방자치단체 담당 조직간 협력적 시스템 구성 및 전문성 확보

□ 담당 부서간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을 통한 사업의 중복성 방지

- 공공공간을 담당하는 총괄부서를 통해 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거나 각 공공공간 사업 부서들 간의 협의와 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중복성을 피하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제도화

□ 전문인력으로서 공무원 양성 및 역할 부여

-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장기간 관련 부서에서 기술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여, 공무원들이 전문 소양을 바탕으로 지역의 여건 및 사업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역 수요에 맞도록 공공공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제3장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계획 현황 및 심층조사

1. 국내 중소도시의 도심지 공공공간의 특성과 관리체계
2. 국내사례 조사개요
3. 순천시
4. 제천시
5. 남원시
6. 거창군
7. 소결

1.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의 특성과 관리체계

1) 중소도시 공간구조와 도심지의 역할

① 중소도시 공간구조의 변화과정과 특성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따라서 도시화가 일정 수준까지 진행되기 전에는 중소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지 않았으며, 중소도시의 공간구조상 도시화률이 80%를 넘은 1990년대부터 지방의 자율적이고 개성 있는 발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분산형 국토정책의 형성과 광역적인 도시관리체계의 구축이 우리나라 정주체계의 과제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중소도시의 특성에 따른 도시기능 전문화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환경수준을 제고하고 도로, 주택 등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교육·의료 등 생활환경수준을 고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수단이 중소도시 공간구조체계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결과 단일 중심지로서의 중소都市는 다핵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왔고 도시간의 경쟁도 심화되었다.

현재(2005년 기준)는 소규모도시(인구 10만 미만)의 약 95%와 중규모도시(인구

10~50만 미만)의 약 45%에서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소도시 70%에서 정체 또는 쇠퇴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도시규모별 인구감소 현황(2001~2005년)

규모 구분	총 개소	인구감소 시·군	%
소규모(10만 미만)	90	85	94.4
중규모(10만 이상~50만 미만)	58	26	44.8
대규모(50만 이상)	19	5	26.3
총 계	167	116	68.2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이러한 급격한 인구변화 현상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한 도시의 외연적인 확산이 기존의 중심시가지(CBD)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공간구조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심기능의 유지가 어려워 큰 중심지의 도심기능 의존비율이 늘어나게 되어 일상생활권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도시생활권은 현재보다 더욱 광역화되거나 광역중심도시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듯 인구의 확산과 감소에 따라 사회·교육·문화·복지시설 등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생활권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요구됨과 동시에 대도시권의 경우 인구나 산업경제중심이 중심도시에서 벗어나 주변도시로 이동하여 산업경제활동이 광역적으로 연관을 갖고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주로 신도시·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기존의 중심시가지는 쇠퇴의 과정을 나타나게 되는데,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중심시가지의 역할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중심시가지를 중심으로 인구나 고용감소, 공장, 상점, 사무실 등의 감소, 물리적 환경의 노후화와 서비스 투자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사회·공간적 불균형 발생 등 도시문제와 사회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의 과도한 지정이나 일반주거지 내 상업기능의 혼재로 인해 물리적인 환경이 악화되고 있고, 도시화율의 급격한 증가과정에서 기존 중심시가지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다. 그리고 점적으로 개발된 고층업무시설이나 상업시설, 주상복합건물을 제외하고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화되고 있다.

②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도심지) 역할

중심시가지는 일반적으로 구매·업무·생산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있는 지역으로 정의되는데, 중심시가지의 범위 설정이 어려우므로 현실적으로는 관례상 기존도시의 중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업용도로 지정된 일대를 의미한다. 즉 중심시가지란, 상업·업무 등 도시 활동의 중심적인 기능이 집적하고, 긴 역사성을 지닌 문화·전통기능이 입지한 「도시얼굴」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 중심시가지의 업무 및 구매활동이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다핵적인 공간구조를 지닌 대도시보다는 인구 규모 20~30만명 정도의 단핵중심의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도시공간차원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주거와 일자리의 집중적인 배치가 이루어진 공간으로 도시의 활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경제·물리적인 측면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중심시가지의 인구와 일자리의 감소가 도시공간구조 차원에서 영향을 미쳐 도시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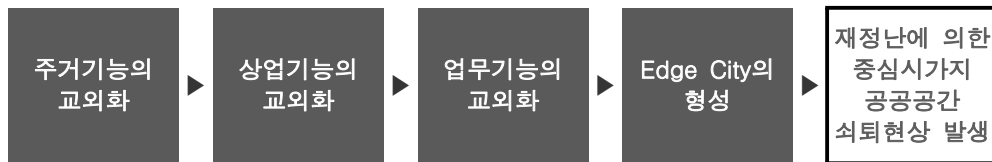
③ 중소도시 중심시가지 쇠퇴양상

베르그(Berg et al, 1982)는 도시를 중심시가지(Core, CBD와 inner area)와 주변부(Ring, outer area와 suburban)로 나누고, 인구 및 고용자수를 근거로 도시발전단계를 도시화·교외화·반도시화·재도시화 4단계로 구분하여 도시의 성장과 쇠퇴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도시화와 교외화는 도시의 전체적 성장단계이고 반도시화와 재도시화는 전체적으로 쇠퇴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외화는 중심시가지에서 교외로의 인구이동률이 자연증가율을 능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심시가지의 인구는 감소하고 쇠퇴의 과정으로 진입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중심시가지 쇠퇴는 교외화에서 반도시화 단계까지에서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며, 도시화와 재도시화 단계는 중심시가지 성장이 이루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다.

[표 11] 중심시가지 발전단계별 특성

도시발전단계	인구·고용자수 변화특성			비고
	중심시가지	주변부	도시전체	
도시화	+	-	+	중심시가지 쇠퇴단계
	+	+	+	
교외화	-	+	+	
반도시화	-	+	-	
	-	-	-	
재도시화	+	-	-	

위에서 설명한 베르그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중심시가지 쇠퇴과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즉 도시기능의 외곽이전 현상이 중심시가지 공공공간의 쇠퇴를 야기하고 특히, 활동인구의 저하로 인한 상권 판매지수의 저감과 나대지 등의 발생으로 인해 더 이상 공공공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2)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의 유형

일반적으로 공공공간은 “공공에게 개방되어 열려 있고(개방성), 공공에게 편익과 이익을 제공하며(공공성),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케이션을 촉발시키는(매개성, 역동성) 공간”(이상민, 2007, pp.33)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개방성·공공성·역동성 기준으로 도시민의 이용을 고려할 때, 개방성과 공공성이 공공공간의 중요한 성격과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지방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물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공공공간을 구분하고자 한다.

첫째, 명확한 공공소유로 도로·광장·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해당된다. 이는 소유의 개념과 이용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지는 공간이며, 공공에 의해 구분된 특정 관리주체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공간이다.

둘째, 도시기반시설 이외에 일반적으로 시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공시설로서 문화회관·학교·근대역사건축물 등과 연계되거나 포함된 공간이 존재한다. 이 공간은 공공의 소유이며, 사적공간과 도시기반시설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시민에게 개방된 공간이 된다. 특히,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에 있어서는 공공시설의 역할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문화공간으로서 역할과 개방된 오픈 스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한다.

셋째, 공적 소유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사적인 소유인 절충적 성격을 지닌 공공공간이 존재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소도시 중심시가지는 재래시장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사적이익을 위해 조성된 민간 소유의 공간이지만 이용성 측면에서 개방된 공간으로 시민의 이용도가 매우 높으며, 시민들에게 중요한 커뮤니티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중심시가지 외부에 거주하는 농촌주민의 경우, 재래시장의 이용을 위해 중심시가지를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주거기능의 대부분인 지방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에서 대도시에 비해 재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완전히 사적소유이지만 민간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 또는 시설이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개인 소유의 주거나 상업시설에 속하는 공개공지로, 대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중소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설이 많지 않아 중요한 공공공간으로 인식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노후된 건축물의 재건축시 점차 필지규모와 건물규모가 커지면서 중소도시에서도 공개공지와 같이 민간소유지만 공공에게 개방되는 공간들이 예전에 비해 점점 증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소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4가지 유형들 가운데 공공시설과 관련된 공간, 재래시장과 같이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관리/ 소유하는 공간, 민간소유의 공간 등은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공공공간에 비해 절충적인 성격을 띤 공공공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개방성과 공공성이라는 공공공간의 개념적 정의와 중소도시 도심지의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심지에서는 찾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공공공간은 도시기반시설로서 공공공간과 함께, 공공시설과 관련된 공공공간, 재래시장과 같은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관리·소유하는 공간이라 말할 수 있다.

[표 12] 우리나라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의 유형

구분	도시기본시설로서의 공공공간	절충적 공공공간		
		공공소유	민간소유+공공소유	민간소유
정의	· 공공에 의해 관리되는 기반시설	· 공공에 의해 관리되는 공공시설	· 민간과 공공의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는 개방된 시설	· 민간에 의해 관리되는 개방된 시설
종류	· 도로·하천·공원·광장 등	· 문화회관, 학교, 근대 역사건축물 등	· 재래시장, 산업기능 등	· 주거 및 상업시설 등
중소도시 특징	· 대도시에 비해 시설의 노후도 및 이용도가 낮음	· 대도시에 비해 이용에 대한 역할은 높으나 관리가 미흡	· 대도시에 비해 공개공지의 비중은 적으나 재래시장의 역할은 높음	

3)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관리체계

①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

국내 도시관련 계획체계 가운데 지방 중소도시와 관련된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기반시설 정비에 관련된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도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계획체계 내에서 도심지 공공공간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계획안 내에 일부 내용이 산발적으로 다루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 중 도심지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법정계획은 근래 시행되고 있는 경관계획, 도시디자인계획, 공공디자인계획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안들은 법정계획으로서 각각 다른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법에 따라 시행주체, 관리대상, 내용 등이 모두 달라 통합적인 접근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 계획체계를 크게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으로 나누었을 때, 법정계획의 경우 도시차원에서 수립되는 계획과 사업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구분된다. 도시 차원의 계획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체계인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20년을 기본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제시하고 각 시도가 계획안을 작성한 후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수립지침에 따르면 시장 혹은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도시에서 공청회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

는 경우가 많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20년을 단위로 실시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이자 도시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심지에 대한 계획 내용은 미흡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도시의 장기적인 비전(vision)과 목표를 제시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 이외에 도심지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경관계획을 들 수 있다. 부문별 계획에 해당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경관계획은 최근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립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로 운영되고 있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없다.

사업계획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이 있지만 이는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서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규모의 지방중소도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지역균형발전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의 경우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지역의 개발지수가 20%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도시 도심지는 제외된다. 또한 생활환경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국내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주목표로 하고 있어 중소도시 도심지는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기초로 판단해 볼 때, 국내 중소도시의 도심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계획은 시장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소도시의 도심지 공공공간 가운데 법정계획 혹은 사업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은 재래시장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시장정비사업계획의 목표는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획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장보기 환경의 개선을 위한 청결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는 공간의 질적인 향상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다. 또한 이때 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의 확보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각 시도가 경쟁적으로 제정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도시공간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도시디자인을 심의할 디자인 심의위원회 구성에 치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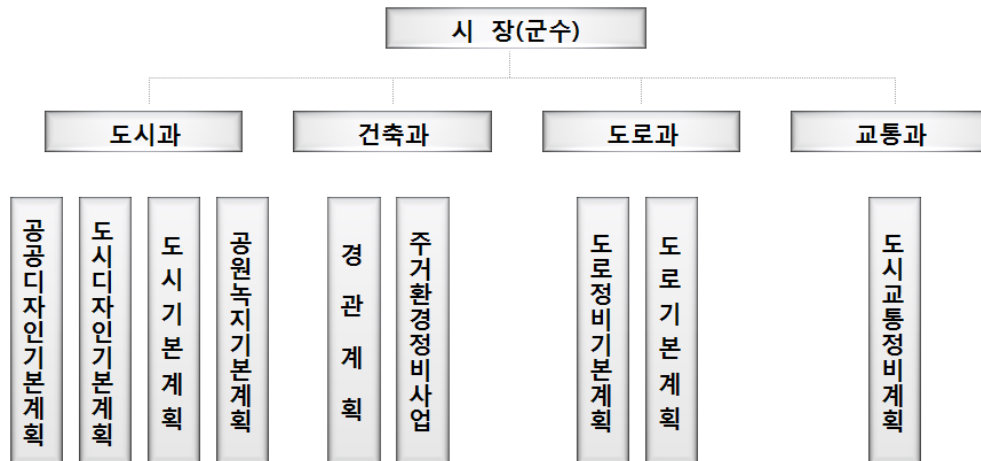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계획들이 부분적으로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각각 계획의 목적과 시행주체, 근거법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수립·실행되고 있었고, 각 주체들 간의 협의나 공조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 활성화에 있어서 공공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의지만 있다면 공공공간에 대해 일관된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표 13]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

구분	계획명	근거법	수립주체	수립대상
법정 계획	도시 차원	도시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장, 군수
		도로정비기본계획	도로법	도로관리청
		도시교통정비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장, 군수
		도로기본계획	농어촌도로정비법	군수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인구10만 이상 · 도시교통정비지역
		경관계획	경관법	· 도시계획수립대상 ·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은 필수
	사업 단위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 · 개발사업 시행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개발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구역
		생활환경정비사업계획	농어촌정비법	
		시장정비사업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자 치단체 조례에 의한 계획	경관계획	경관조례, 도시디자인조례, 공공디자인조례 등	
		도시디자인기본계획		
		공공디자인기본계획		
비법 정 계획	기타 행정 계획	지방자치단체 발전계획	행정계획	

②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관리체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도심지 공공공간은 공간의 종류, 성격 그리고 운영주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도시의 공공공간이 그 성격과 운영에 따라 각기 다른 기능과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공공간에 대한 담당주체 역시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이 가운데 도로, 공원 및 녹지, 하천 등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공간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담당부서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각 시설별로 계획에서 조성·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에 대한 담당부서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4]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체계별 담당부서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관례적으로는 도시과가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계획 및 사업을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경관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그리고 간판 등 도시시설물의 관리를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시설물 디자인과 관련한 내용으로 건축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 관련부서들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부서들 사이에 협의와 분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음에서는 대도시이긴 하지만 공공공간에 대해 선도적으로 가장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서울시의 경우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국에서 주관하지만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교통시설은 도로교통본부, 공원과 녹지 등은 푸른도시국, 그리고 하천과 관련된 방재시설은 물관리국과 한강사업본부에서 각 시설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설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그림 95] 도시계획시설별 담당부서(예:서울시)
(이상민 외,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또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계획수립이나 시설 관리 외에도 공공공간과 관련된 사업의 진행이나 관련 업무들은 아래 표와 같이 여러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소도시의 경우 서울시보다는 조금 단순한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공간 업무가 관련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표 14] 서울시 공공공간 관련 조직 및 업무현황(이상민 외, 도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관련부서		주요업무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푸른도시국	푸른도시정책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자연공원 구역관리 용산 민족공원조성 및 난지도 골프장 공원화 관련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계획 수립* 대형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 신월정수장 공원 및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등 신규 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위원회 운영
	조경과	도시녹화조경계획 수립 옥상, 학교 공원화 그린웨이 조성 및 친수공간 조성* 가로수 관리
	자연생태과	자연생태보전 및 복원기본계획 수립 녹지축과 자연형 하천 복원*
도로교통본부	도로계획담당관	도로정비계획에 관한 업무*
	도로관리담당관	보도, 차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서울르네상스)
	가로환경개선담당관	노점시범가로 조성 및 확대추진 청계천주변가로 정비
	교통운영담당관	보행환경개선사업* 생활권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관련
물관리국	물관리정책과	물순환형 도시조성 물환경 종합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물재생시설과	탄천복개공원화*
	하천관리과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하천마스터 플랜 수립* 하천관리 시스템 및 점검계획 수립
한강사업본부	녹지과	한강르네상스 21 및 시정발전 4개년 계획 관련 업무 총괄* 한강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생태계획과	U-한강 구축관련 사항 한강 생태복원 관련 사항
	특화사업과	한강 뚝섬권역 특화사업* 여의도 한강권역 특화사업* 한강 난지권역 특화사업*

* 부분은 공공공간의 계획과 조성 관련 업무임

2. 국내사례 조사 개요

1) 국내 현황조사 및 심층조사 대상지 선정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중소도시 4곳을 선정하여 실제 현장조사 및 담당 행정공무원 면담조사 등 심층조사를 통해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인구가 5~30만인 우리나라의 중소도시 총 88개를 인구 규모별로 20~30만 도시(15개), 10~20만 도시(29개), 5~10만 도시(44개)로 구분하고, 이 도시들 가운데 서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기도와 특수한 상황인 제주도에 위치한 도시들을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어느 정도 도시 내 도심지를 형성하고 일정 인구가 분포하여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소도시의 중심지 크기⁷⁰⁾, 중심지 인구밀도⁷¹⁾, 도시의 도시화율⁷²⁾ 등을 차례로 살펴보았다. 또한 전체적인 지역배분과 전체 도시규모, 인구규모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적으로 12개의 중소도시를 선정하였다.

[표 15] 인구규모별 선정 지방자치단체(안)

인 구 규 모	지 자 체 명
20~30만	순천시, 충주시
10~20만	통영시, 제천시, 안동시, 정읍시
5~10만	거창군, 문경시, 남원시, 완도군, 음성군, 보성군

70) 도시 내 중심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중심지의 크기를 도시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의 크기가 전체 도시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여 이 비율이 비교적 작은 도시들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비율이 클수록 전체 도시가 중심지이므로 명확성중심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심지 면적 비율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면적 / 전체도시면적)

71) 중심지 내 어느 정도 거주인구가 분포하고 있어야 하므로 중심지의 인구밀도(도시지역의 인구밀도)를 조사하여 비교적 인구밀도가 큰 도시들을 분석하였다. (도시지역 인구밀도 = 1/1인당 도시지역 면적)

72) 중소도시의 성격이 농어촌이 아닌 어느 정도 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도시전체가 너무 도시화된 곳은 피하여야 하므로 전체 도시의 도시화율을 조사하여 도시화율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도시들을 제외하였다. (도시화율 = 도시지역인구/전체인구 × 100)

① 12개 중소도시 공공공간 관련 계획 현황

선정된 12개 중소도시에 대하여 공공공간 관련 계획을 살펴보았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계획체계 가운데 공공공간 관련된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먼저 도시차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사업단위 차원에서 기존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촉진지구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2개 중소도시 가운데 군을 제외한 8개 도시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거창군, 음성군, 완도군, 보성군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나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업단위 차원에서 계획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시가지의 주거지 정비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12개 중소도시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거창군은 행정계획인 ‘거창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음성군은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보성군은 ‘보성군 종합개발계획’을 살펴보았다.

검토한 계획 내용 가운데 공공공간과 관련된 부분은 주로 교통, 경관, 공원·녹지, 도심·주거환경에 대한 부문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교통은 주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정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경관은 주로 도시 전체의 경관형성 방향을 제시하면서 몇몇 도시의 경우에는 도심지 경관형성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원·녹지는 대부분이 도시 전체 차원에서 공원이나 녹지체계를 구상하거나, 간혹 도시 내 공원이나 녹지 조성 사업을 제시하기도 했다. 도심·주거 환경 관련해서는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도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⁷³⁾.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공공간에 관한 내용은 부문별로 별도로 분리되어 개별 계획으로 다루지고 있으며,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도심지에 대한 특정계획을 도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73) 각 도시별 구체적 계획 내용은 부록 참조

② 12개 중소도시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

현재 중소도시의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먼저 중소도시 공공공간 관련 사업 유형을 다음 표와 같이 구분하였다. d형의 분류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공간과 관련된 항목들을 중심으로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 16] 중소도시 공공공간 관련 정비사업 유형

유형	세항목	집행형태
공공시설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학교, 체육관 등 생활복지와 관련된 공공건축물 · 광장조성 · 공영주차장 조성 · 공원조성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복지회관 조성 · 전통광장, 생태형광장, 반송광장 · 내 집안 주차장 갖기, 학교지하주차장 설치 · 소공원(쌈지공원), 농촌공원 · 게이트볼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배구장 등 조성 · 상징조형물 설치
가로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도로 정비 · 걷고싶은 거리 · 어린이안전 보행거리조성(통학로 정비) · 주택가 담장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거리, 상징거리, 차없는 거리, 골목길 정비 등 · 생울타리 조성, 전통담장 정비 · 가로수 거리조성, 꽃길가꾸기 보도확장사업
지역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래시장정비 	

* 국토연구원,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연구, 2007, p.31 참조

선정된 12개의 중소도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을 상기 유형 구분에 따라 조사한 결과, 도시 규모별로 약간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20~30만 도시는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주로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순천시의 경우에는 이외 가로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도 다수 진행되고 있었다. 인구 10~20만 도시도 공공공간과 관련해서는 공공시설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안동시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건수도 많았지만 공공시설 정비사업의 비중이 컸다. 인구 5~10만 도시는 전체 사업 건수는 도시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개별적인 공공시설 정비나 가로환경 개선보다는 ○○단지조성 등과 같이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지 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패키지 사업 유형 안에는 공공시설이나 가로환경 등 공공공간 관련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공공공간과 관련된 계획 및 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중소도시 도심지 공공공간 심층조사 대상지를 관련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 관련 사업들이 다수 진행 중인 순천시(20~30만), 제천시(10~20만), 남원시(5~10만), 거창군(5~10만) 등 4개 도시를 선정하였다. 덧붙여 인구 5~10만 도시의 경우 행정 체계의 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군과 시를 각각 1개씩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1) 거창군(5~1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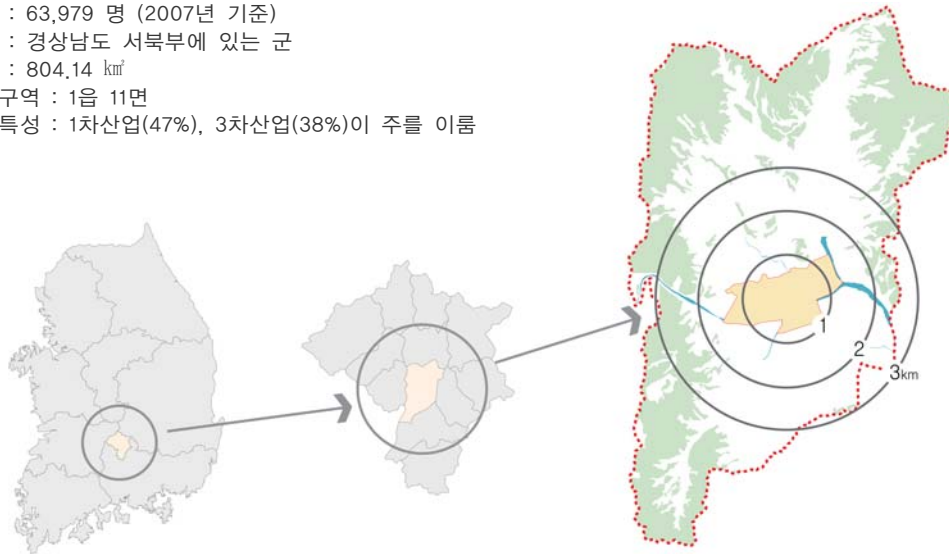
① 일반현황

□ 거창의 역사

거창은 거열, 거타, 아립 등으로 불리우다 신라 경덕왕 16년 거창군으로 칭하고 가소를 함읍현으로, 남내를 여선현으로 개명하여 거창군에 편입시킴으로써 처음 거창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이후 조선조 고종32년 거창부를 거창군으로 개칭하였고, 1937년 거창읍으로 승격되었다. 1973년 함양군 안의면의 진목리와 춘전리를 남상면으로 편입시켜 현재 1읍11면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거창군 도심지 개요

- 인구 : 63,979 명 (2007년 기준)
- 위치 : 경상남도 서북부에 있는 군
- 면적 : 804.14 km²
- 행정구역 : 1읍 11면
- 산업특성 : 1차산업(47%), 3차산업(38%)이 주를 이룸



거창군내 생활권은 진주·대구·합천 등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심하여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며, 읍 지역의 발전이 다소 정체되어 있는 반면 주변 면단위 생활권은 편의시설을 비롯한 다수의 기반시설이 크게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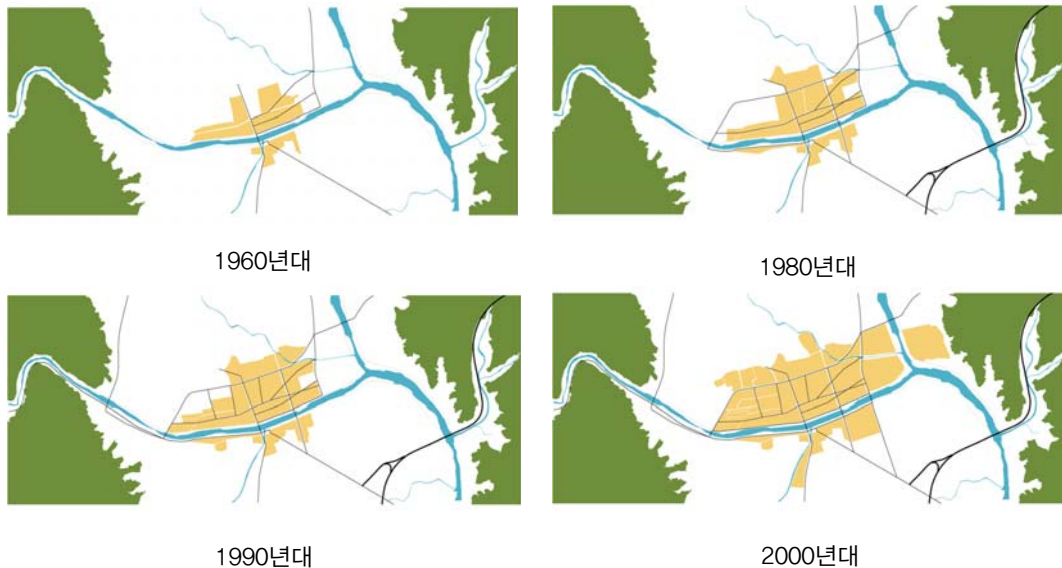
거창읍은 지역의 문화·교통·교육·상업의 중심지이지만 여타 지방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거창읍의 거주 인구는 전체 거창군 인구의 57%인 2만명 정도로 이 수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거창읍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로는 도심지 교통난을 들 수 있으며 지역민들은 부족한 주

차장을 확보하여 비좁은 도로에 대해 시급한 정비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② 거창군 도시구조 및 공공공간 현황

□ 도심지 변천과정 및 도시구조적 특성

도심지는 196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변에 면한 남북 지역, 특히 수변 북측으로 확장되어간다. 이는 도심지(읍 지역)로 집중된 유입인구를 수용하고자 도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뉴타운⁷⁴⁾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토지이용도를 통해 도심지역의 상당부분이 주거용도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도심 주거지역에서 문화 및 체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공공공간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심 내 유효한 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대규모 운동시설(거창 스포츠파크), 공원(죽전 도시숲 조성사업) 등의 형태로 도심 경계 밖으로 입지하고 있어 도심이 확장되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74) 상동지구, 거창읍 서북쪽(상림리, 가지리 일원) 논밭 8만6000평에 조성, 1999년 12월 공사에 들어가 2002년 8월 준공됐다. 351억원이 투입돼 주거지, 근린생활용지, 준주거용지 등으로 개발됐다. 주거지는 공동주택 811가구, 단독택지 412가구 등 1223가구. 공동주택은 모두 입주했고, 단독택지도 30% 정도 입주했다. 4차로를 끼고 있는 준주거지역은 30여 필지 중 20여 곳에 점포가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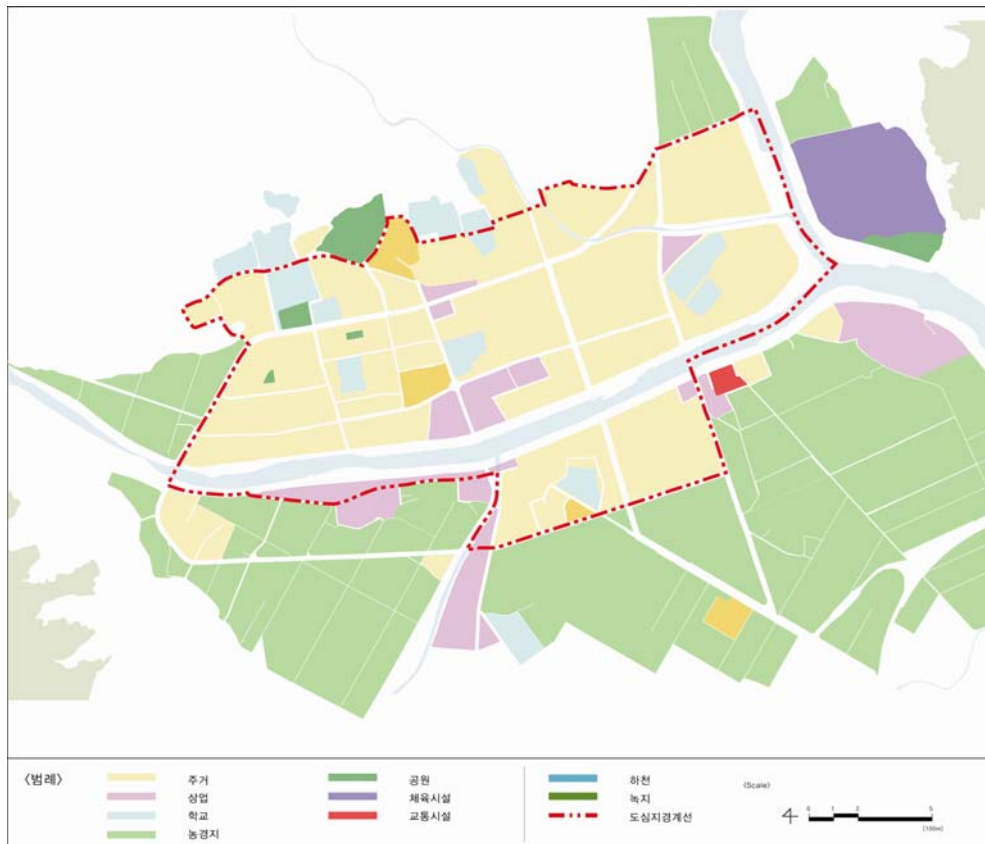


[그림 96]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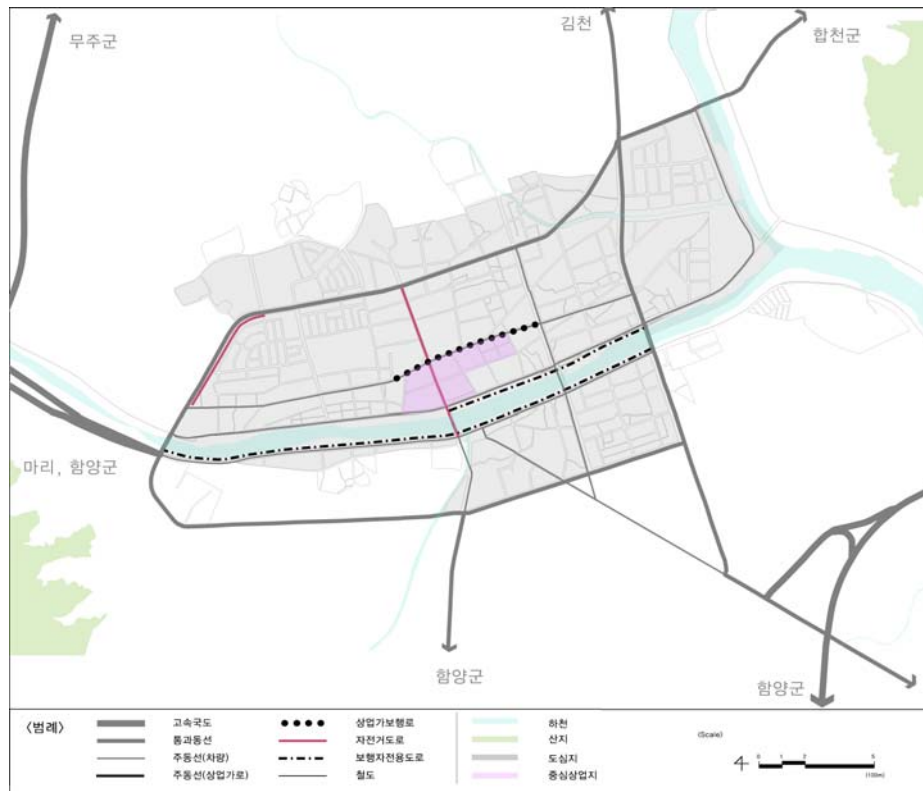
[그림 97] 거창 스포츠파크

상업영역은 거창재래시장, 거창로터리~거창교 거리, 거창로터리~거창재래시장 상업 거리에 밀집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위치의 변동없이 위천변과 인접하여 도심의 중심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토지이용도를 통해 최근 차량 중심으로 전환된 도심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관련 상업구역이 위천 남쪽 수변지역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도심내 녹지의 비율이 현저히 낮고, 학교시설을 제외하면 가용 가능한 공공공간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8] 도심지 토지이용도(거창군)

차량동선은 88고속도로와 연결된 외부 통과동선을 도심 외곽으로 두고 위천 주변으로 차량 내부 순환로가 보조동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재래시장 및 관공서 주변을 중심으로 내부의 주요 교통동선과 주요 보행동선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민의 이동과 활동이 가장 활발한 영역이다. 하지만 보행편의를 고려한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의 개설은 수변지역과 뉴타운 지역인 상동지구 내 왕복 4차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상업구역내 보행 편의를 위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림 99] 도심지 가로체계도(거창군)

□ 주요 공공공간 현황

시민들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공공공간은 재래시장으로 도심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는 비교적 균등 분포되어 있어 커뮤니티 단위에서 활용도가 높았다. 도심내에 현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거의 없으나, 뉴타운⁷⁵⁾ 주거민을 위한 어린이 공원

75) 상동지구는 전체의 46%가 공원, 녹지, 도로, 학교, 읍사무소 등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구시가지 보다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음

및 테마 공원이 일부 설치되어 있고, 도심지와 인접한 영역에 공원화 사업을 통한 생활공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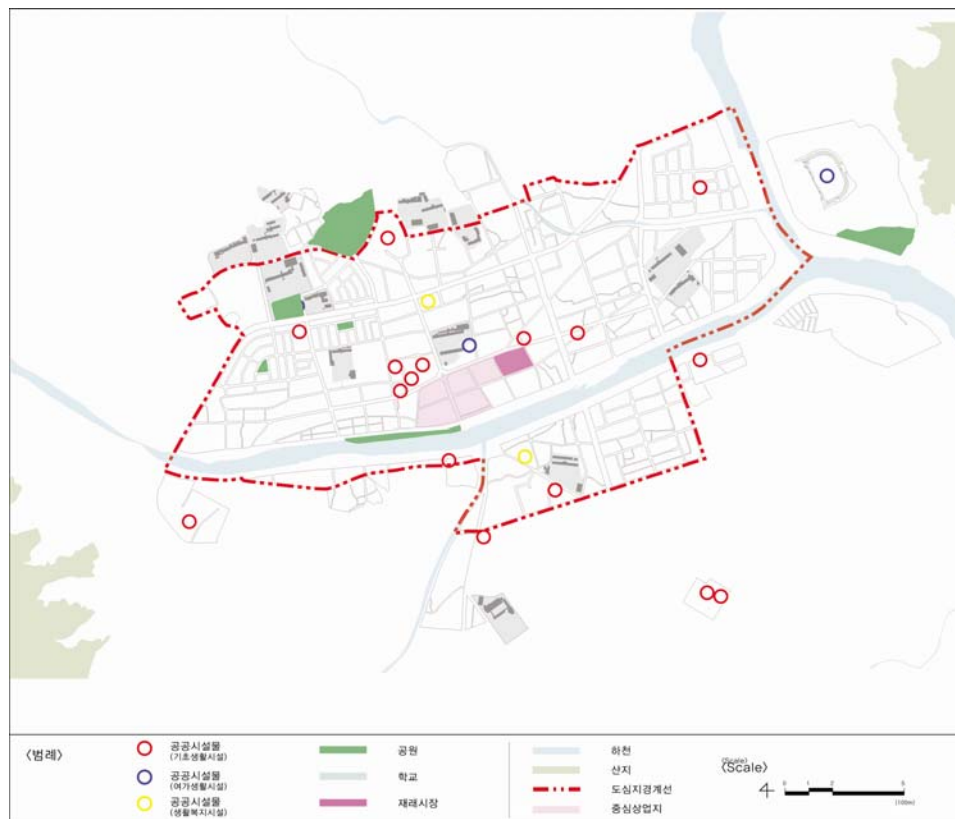


[그림 100] 상동지구내 책 읽는 공원



[그림 101] 상동지구내 어린이 공원

공공건축물은 관공서를 비롯한 기초생활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새롭게 건립되고 있는 공공건축물들이 차츰 도심지 밖으로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02]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거창군)

거창읍사무소, 책읽는공원,
아름초등학교, 자전거전용로
- 공지 연계 가능성

거창군청, 거창경찰서, 거창우체국
공공시설 집중, 상업가로 연결
- 공지 이용 가능성

종합운동장, 공원 : 종합
운동장과 공원의 연계

위천변 산책로, 자전거도로
- 접근성 향상 필요

〈범례〉

- 향후 활용가능한 공공공간
- 공원
- 학교
- 재래시장
- 하천
- 산지
- 도시지경계선
- 중심상업지

(Scale)

4 0 1 2 3
[100m]

112 중소도시의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연구



[그림 104] 도로에 의한 위천변과의 접근성 저하



[그림 105] 수변 보행로의 단절

③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 수립현황

□ 공공공간 관련 계획현황

공공공간 관련 계획 중 상위계획으로 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도시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군내 공공사업의 방향과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하위 관리계획으로 년차별 사업내용을 소개하는 업무계획,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정리한 종합계획 등이 있다. 하지만 군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공공공간 계획의 목표⁷⁶⁾는 주로 거창군 전반의 녹지보존 계획에 치중되어 있고 공공공간 개발 비전(vision)은 없으며, 개발전략이 하위 도시관리계획과 연동되지 않는다. 또한 도심지에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없어 계획의 방향이 불명확하고 단위사업별로 진행되는 계획들 간 연관성이 떨어진다.

군기본계획의 세부내용 중 공공공간과 관련한 사항은 주로 공공건축물을 비롯한 기반시설의 확충에 관한 내용이 많다. 또한 녹지공간과 관련한 계획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녹지보존의 성격이 강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을 도심환경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의 활용하는 방안은 드물다. 따라서 거창군과 같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공공건축물의 건립과 시설물 확충을 지역의 관점에서 각 시설이 연계될 수 있는 계획적 접근이 초기단계에서부터 필요하다.

76) 주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마인드 강화를 위한 방안 강구, 폐석장으로 인한 산림파괴의 복구 및 폐석 활용방안 모색, 마을단위별 쓰레기 처리장 및 하수정화시설의 설치로 환경오염 방지 추구, 관광산업과 같은 무공해 산업과 연관되는 환경 유지 및 개발 추구

[표 19] 공공공간 관련 계획 현황(거창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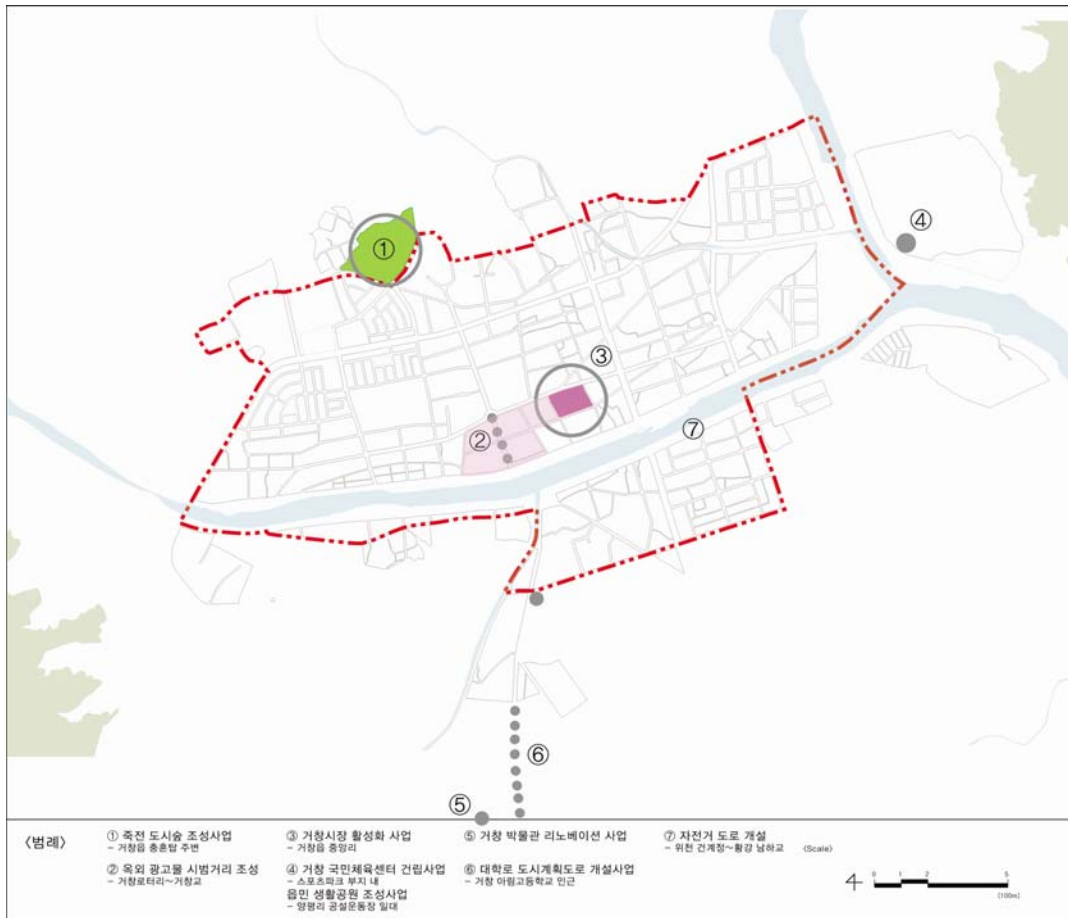
구 분	세 부 내 용
도시기본계획	군기본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제1종-신시가지의개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도시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업무계획(도시건축과) · 거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 거창비전2 009 · 거창군 종합계획 · 2009 업무계획 · 2009년 건설과 주요업무

□ 공공공간 관련 사업 추진현황

거창의 군기본계획에는 공공시설 개선사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계획의 내용이 주요 산업기반인 농업과 농촌 기반의 정주생활 개선에 치중되고 있어 도심 내 사업보다는 도심지 외곽으로 사업이 더욱 많다. 도심내 사업의 경우 시장개선과 거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대규모 국민체육센터와 읍면생활공원 사업 등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업 간 연계가 고려되지 않아 개별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대상지들이 도심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의 접근 편의성이 반영되지 않아 도시 생활 공공공간으로서 이용률이 낮다. 특히 공공시설 개선사업에서 있어 차량도로와 보행공간의 개선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부서 간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사업이 부서 간 별도로 진행되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의 중복성을 야기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어렵게 한다.



[그림 106] 재래시장 개선 사업



[그림 107]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거창군)

[표 20]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거창군)

주관과	사 업 명	비 고
주민생활지원과	아람 노인요양원 건립사업 : 거창읍 송정리 산 42-12	기반시설 조성사업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 : 거창읍 가지리 255-2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건축과	건축 디자인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 개선사업
	주상면 행정복합타운 신축 : 거창군 주상면 718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 전수회관 신축 : 거창읍 장팔리 9-1	기반시설 조성사업
	교통운영 개선 및 도로시설물 전산화 : 거창읍, 가조면 도시지역	공공시설 개선사업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 로터리 ~ 거창교	공공시설 개선사업
	사과 테마파크 조성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국제연극 문화타운 조성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주관과	사 업 명	비 고
	강남 시가지 정비사업 : 서흥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 및 통합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자전거도로 개설 : 위천천 건계정 ~ 남하교 구간	공공시설 개선사업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산림환경과	읍민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죽전 도시숲 조성사업 : 거창읍 충혼탑 주변	공공시설 개선사업
	관내 숲 가꾸기	공공시설 개선사업
	생태공원 조성사업 : 거창읍 양평리 일원	공공시설 개선사업
건설과	대학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 거창 아림고등학교 인근	기반시설 조성사업
경제과	거창시장 활성화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문화관광과	복합 문화단지 조성사업 : 거창읍 장팔리 문화시설지구 내	공공시설 개선사업
	거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 스포츠파크 부지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
	거창 박물관 리노베이션 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④ 계획의 운영과 관리

□ 계획체계 및 계획간 정합성

군기본계획은 군 내 가장 많은 녹지공간인 산지를 공공공간 주요대상으로 하여 이를 보존/ 개발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제시되지 않는다. 특히 도시 개발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 비전(vision)이나 관리방향이 계획들 간의 관계를 고려하기 보다는 각각의 계획에 대한 실천방안의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창군 사업 간의 연계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심지 공공공간과 관련 계획인 ‘군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진행 중인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등은 각각의 계획들이 상위계획 없이 독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계획수립은 담당과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사업수행시 실질적인 업무 간 협조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인 공조가 이루어질 뿐 지속적인 협의체계 구축이나 계획 간 중복사업의 조정 등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운영

현재 거창군에서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사업을 이루어지고 있는 부서는 도시건축과로 이곳에서는 도시과와 건축과의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여 거창군의 공간환경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공공공간과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공간 관련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업무협약이나 협의체계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부서 내에서도 공식적인 마스터 플랜이나 개발방향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타 부서에서 도시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2) 남원시(5~10만)

①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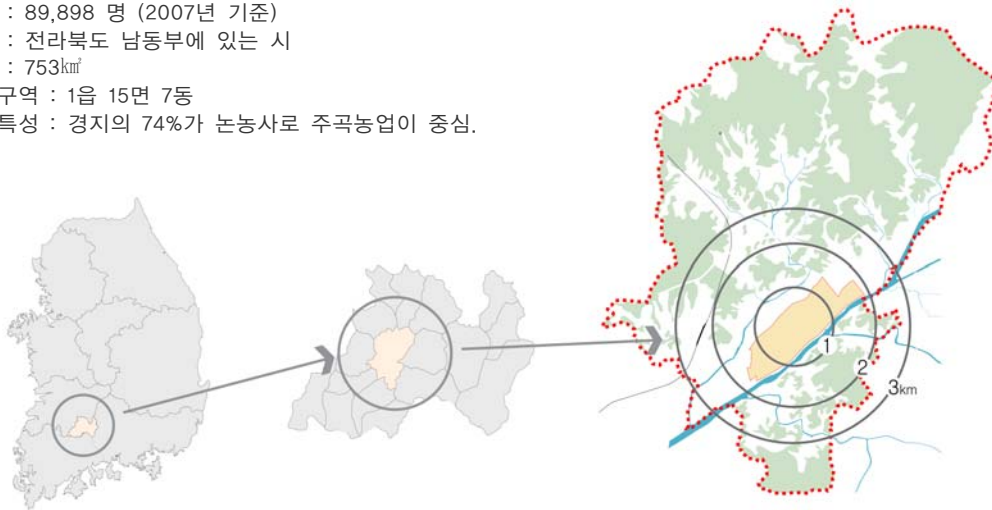
□ 남원시 도심지의 역사

남원의 지명은 신라 경덕왕 16년에 남원이라 칭했다는 기록이에서 유래하며 이후로 지방의 주요한 거점지역으로서 남원도호부, 남원진영, 남원군 등으로 개편되었다. 1931년에 이르러 남원면이 남원읍으로 승격되고 1981년 7월 남원읍에서 남원시로 승격되면서 남원군(16개 면)과 남원시(9개 동)로 분리되었다가 1995년 다시 남원시와 남원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의 남원시가 발족하였다.

남원 도심지에 대한 도시계획이 최초로 결정된 것은 1963년으로, 지금의 시가지 모습은 1981년 마련된 도시기본계획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남원시의 도심공간은 1980년대 도심으로 철도와 국도가 관통하면서 공간이 단절되고 도심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이러한 이원적인 도시구조는 1990년대 들어와서 남원시와 남원군이 도농통합되면서 일원적인 도시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 도심지 개요

인구 : 89,898 명 (2007년 기준)
위치 : 전라북도 남동부에 있는 시
면적 : 753km²
행정구역 : 1읍 15면 7동
산업특성 : 경지의 74%가 논농사로 주곡농업이 중심.



남원 도심지의 범위는 현재의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8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아파트가 건설되고 1990년대에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동측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도심의 인구밀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현재 도심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의 수는 남원시 전체의 54%로 이들 가운데 아파트 거주 비율은 47%에 이른다. 아파트를 제외한 거주지의 정주환경은 매우 노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며 도심지의 협소한 도로 폭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교통이 혼잡하고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 또한 도농통합이 실시되면서 도시는 외형적으로 확장하였으나 교육·문화 등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도심기능이 미약하여 대부분 인근 대도시에 도시기반기능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 도심지 역시 교통혼잡, 노후 생활환경, 열악한 도심경관 등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도심지가 안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점에 당면하고 있다.

② 남원시 도시구조 및 공공공간 현황

□ 중심시가지 변천과정 및 도시구조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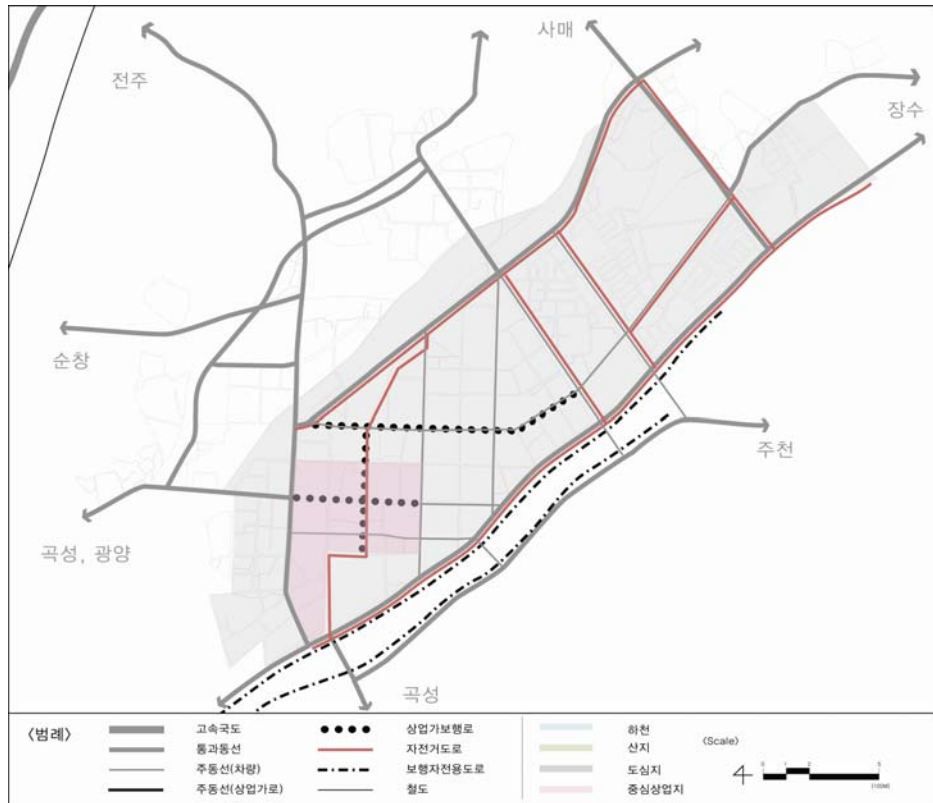
기존의 도시구조가 1990년대 도농복합형 도시로 전환되고 도심 인구의 증가를 대비한 택지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도심지는 요철을 따라 북동쪽으로 확장되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는 신도심이 건설되고 남원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기반시설이 이동하게 되었으며 도심지의 규모가 2배 이상 확장되었다. 이를 통해 광한루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구도심과 신도심의 2분화 된 도심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광한루를 포함한 남원 읍성의 정방형 격자 가로체계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수변과 평행한 차량 도로의 신설과 철길 부설로 인하여 도심지를 관통하는 사선 방향의 가로가 혼합된 가로체계⁷⁷⁾로 변화된다. 현재 도심부 외곽으로는 88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차량의

통과동선이 도심 순환동선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요천변 차량도로와 연결되어 도심을 둘러싸는 차량 순환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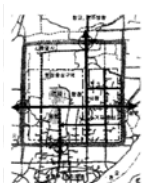
도심 내 주요 차량동선은 구도심을 가로지르는 격자형 가로부분으로 확장된 신도심 부분에서 요천과 평행한 가로체계로 연결된다. 주요 보행동선이 형성되는 영역은 광한루 상부의 상업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요천변을 따라 긴 축의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108] 도심지 가로체계도(남원시)

77) 양선아, 남원의 토지이용 및 가로변천 연구, 전북대학교, 석론, 2003, p62

1935년에 개통된 철도가 축천을 따라 남원읍성 부지를 사선(서문-북문)으로 통과함으로써 고유한 격자형 가로구조 질서가 깨뜨리게 되었고 해방이후 도시계획에 의해 형성된 신시가지 가로구조는 기존의 수직/수평이 아닌 요천과 평행한 철도에 반응하여 사선으로 형성되었다.



1699



1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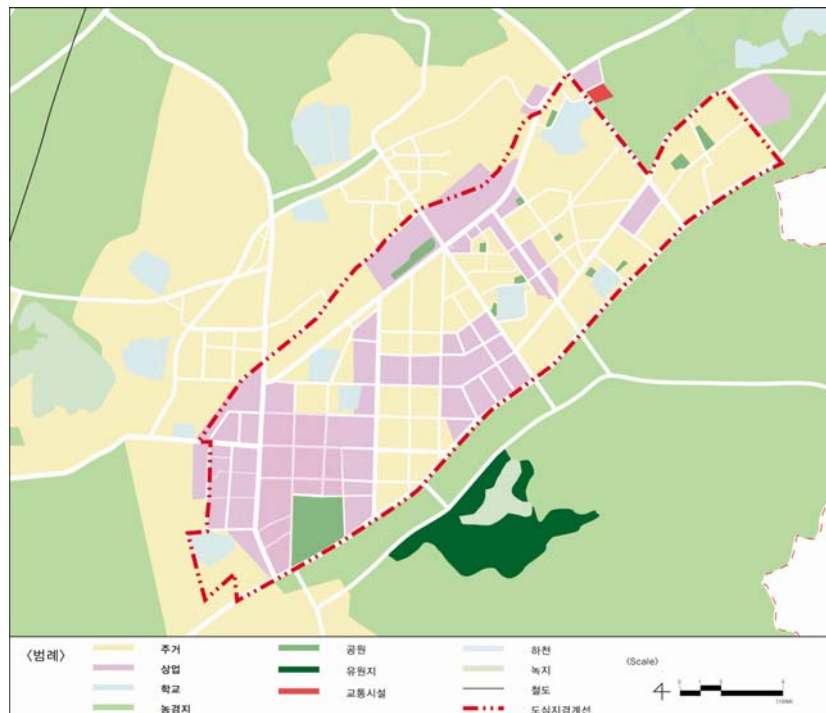
1938



2002

남원읍성이 있던 구도심의 영역의 대부분이 상업구역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이용률이나 유동량이 가장 활발한 도심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외 구(舊)남원시청과 구(舊)남원역이 있던 지역 또한 상업중심지역의 특성이 잘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신도심이 개발되면서 구도심에 있던 남원시청이 이전하게 되고, 철로변경에 의해 남원역 또한 도심지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적지가 발생하게 되고 구도심 지역의 도심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도심 내 공공공간 또한 요천변 수변공간을 제외하면 공원이 크게 부족하고, 보행 가로환경이 부실하다. 또한 구도심 영역이 광한루를 포함하고 있어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내부로의 출입은 관광객을 위주로 통제되고 있어 생활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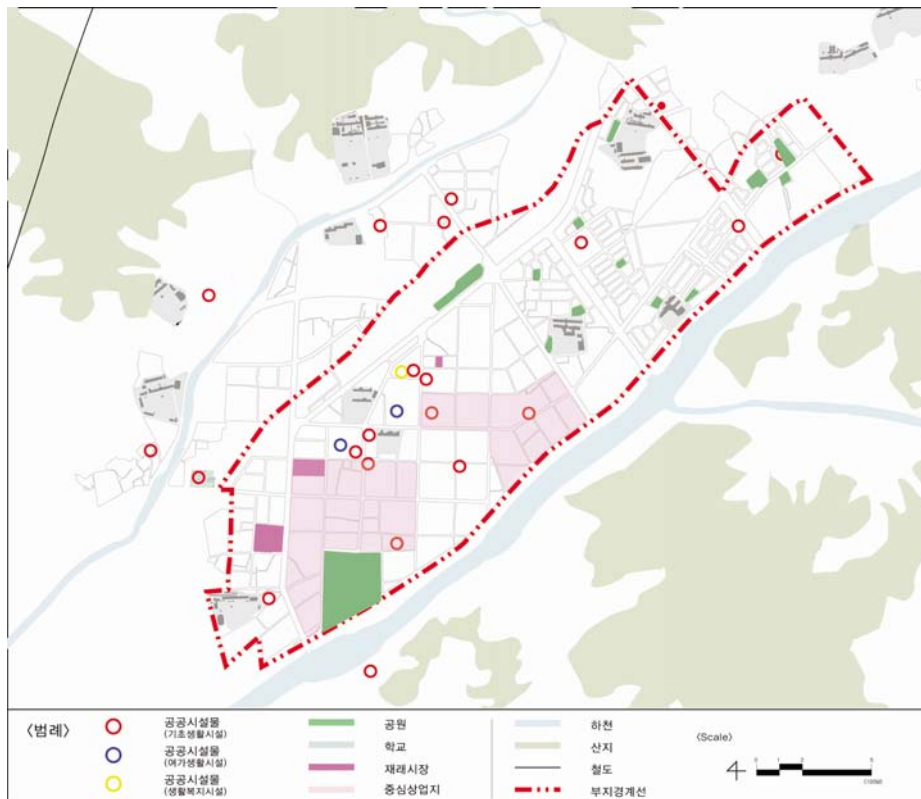
북측으로 새롭게 건설된 신도심의 경우 주거중심의 용도지역으로 계획되어 학교, 공공시설, 소규모 공원 등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고 있고 적절한 공공용지가 확보되어 있어 공공공간의 활용에 있어 구도심 지역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9] 도심지 토지이용도(남원시)

□ 주요 공공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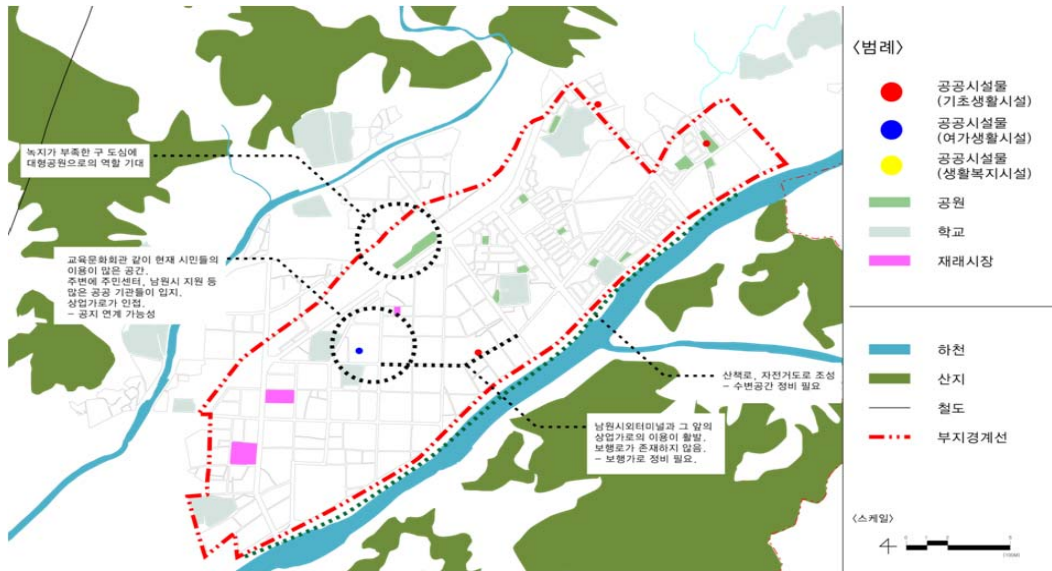
도심내 녹지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일부의 생활녹지들은 2000년대 이후 개발된 신도심쪽으로 주로 치우쳐 있어 시민의 이용이 활발한 재래시장과 다수의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구도심 상업부에서 실질적인 공공공간의 여유가 없음을 토지이용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도심 지역에서는 중심 상업가로 구역을 중심으로 밀집된 지역 공공시설물들과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어 보행로 개선, 유희시설 활용, 청사 이전에 따른 공지활용을 통해 부족한 공공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며, 실제로 구(舊)남원역 이전지는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림 110]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남원시)

또한 전면 공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요천변 보행가로, 중심상업가로, 재래시장 권역과의 보행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공간을 연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행로의 확장과 가로공간 환경이 개선되어야

야 하며 도심 내부의 차량순환체계의 개편 전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림 111]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남원시)



[그림 112] 구남원역 도심속 허브꽃단지 조성



[그림 113] 영어체험 학습센터 전면 부지

③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 수립현황

□ 공공공간 관련 계획현황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신도심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조례가 있으며, 공공디자인의 개선을 위해 남원시 공공디자인 기준이 자치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공공시설을 행정계, 공원계, 교육계, 사회복지계, 보건계, 유통계로 구분하고 생활권에 따라 권역별로 공공시설을 배치하고 있다. 가로망, 교통, 주차시

설의 경우 기반시설로 분류하고 향후 도시기능을 예측하여 신축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는 공공시설, 보행집결지, 오픈스페이스 등과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일부 도심 자전거도로 설치와 관련된 세부 도로 정비계획 등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채 설치기준 및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의 유형 분류에만 치중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도로의 설치에 있어서 다른 오픈스페이스나 공원 등 공공공간의 연계가 함께 고려되지 않고 도로설치의 범위 역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공간의 연계는 불가능하다.

경관계획은 계획방향⁷⁸⁾이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에 의한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과 내용이 연동되지 않고 단일 공공시설물의 계획에만 치중되고 있어 계획 간 역할 정립과 정합성이 요구된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도시의 범위에서 구현할 수 있는 세부 계획이 없어 도심지에서의 다양한 공공공간별 세부계획들을 통합하여 검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표 21] 공공공간 관련 계획 현황(남원시)

구 분		세 부 내 용
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남원도시기본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제1종-신시가지의 개발
		제1종-기존시가지의 정비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도시관리계획	
자치법규	도시계획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남원시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2008. 12. 30 조례 제 804호)

□ 공공공간 관련 사업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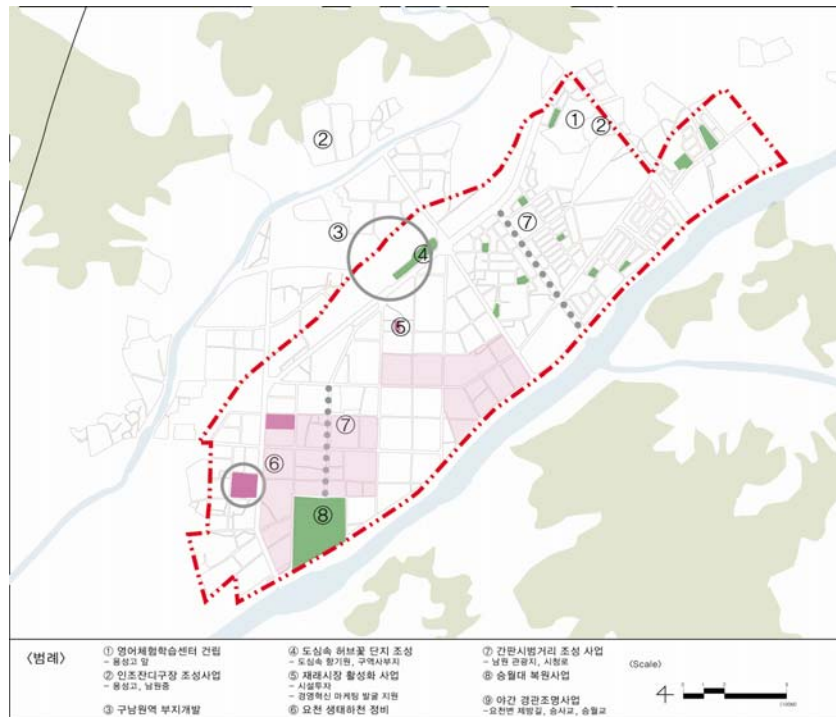
도심 내 공공공간 관련 사업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가로조성 관련사업, 수변지역 활용, 이전적지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이 있다.

이 중, 가로조성 관련사업의 경우 간판 정비 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도로가로망 확

78)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계획 부록 참고

충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각기 다른 부서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 간 연계나 협력은 힘든 상황이다. 특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의 경우 상업지역의 가로환경 조성 계획 등과 연계되면 그 성과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추진되어 단일 주차장 개선이나 시설물 교체 등에 국한됨으로써 종합적인 공공공간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가 힘들다.

이는 공공공간 관련 사업이 중앙부처에 지원하는 예산에 의존적이며 재정지원이 단일 사업에 국한되어 통합적인 사업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개별 사업의 진행시 참고할만한 상위 도심 마스터플랜이나 도심지 발전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공 관련사업의 통합관리의 한계로 작용한다. 차량의 도심지 유입에 따라 주차장 시설의 확보가 주요사업으로 진행되는 한편 녹색성장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자전거 조성계획, 보행로 사업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실은 도시의 발전 방향이 일관적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이는 개별 사업의 착수 이전에 도심지내 차량유입과 가로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계획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림 114]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남원시)

[표 22]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남원시)

운 영 과	사 업 명	사업성격
문화체육과	승월대 복원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실내 체육관 건립사업 : 남원시 월락동 춘향골 체육공원 내	기반시설 조성사업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 용성고, 남원중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설과	도로가로망 확충사업 : 공무원교육원 진입로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도시과	야간 경관조명사업 : 요천변 제방길, 승사고, 승월교	공공시설 개선사업
	자전거 명품도시 조성	
	요천생태 하천정비 사업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	
	도심속 허브꽃 단지조성 : 도심속 향기원, 구역사부지	
	구 남원역 부지개발 : 남원시 동충동 197-1	
건축과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 남원 관광지, 시청로	공공시설 개선사업
	전북 공무원 교육원 건립사업 : 남원시 산곡동	
주민복지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 남원시 일원(구역사, 구시청사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
경제과	전통시장 시설 지원사업 : 주차장조성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 인월시장 주차장조성, 운봉시장 환경개선사업	
	영어체험학습센터 건립 : 용성고 앞	



[그림 115] 간판 정비사업



[그림 116]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④ 계획의 운영과 관리

□ 계획체계 및 계획 간 정합성

도심 공공공간 관련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으며 남원시 자체 조례로 도시계획조례와 공공디자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남원시의 신도심

개발을 지침으로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구도심을 포함한 도심지와 관련된 내용은 다루고 있지 않다.

공공디자인기준의 경우 공공디자인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시설물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남원시의 모든 공공시설물들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제작·관리되며 새로운 시설물이 추가될 경우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이전의 디자인 지침에 포함하도록 한다. 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남원시의 비전(vision),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운영조례 세 계획 모두 개별적으로 계획·실행되고 있어 계획 간 관련되는 내용이 부족하고 도심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운영

현재 남원시에서는 공공공간과 관련하여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는 없으며 담당 업무는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2008년 공공시설물표준안을 작성하면서 적극적인 공조와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 사이에 내부적인 협의체계는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협의체가 구축되어 운영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수적인 요건이었지만, 그것만큼 표준매뉴얼이라고 계획이 의사전달 매개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각기 다른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 사이에 공통의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공공업무의 특성상 신속히 결정해야 사업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부서 간 협의시 표준매뉴얼이라는 공통의 계획이 존재하여 의사소통의 도구로 작동하였기 때문에 각기 다른 업무들 사이에도 협의사항에 대한 결정을 신속히 끌어낼 수가 있었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과 개별 부서들 간에 협의를 위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매우 유용함을 증명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표준매뉴얼은 공공시설물 관리에 그치고 있어 도심 활성화와 도시디자인의 부분적인 역할 밖에는 담당할 수 없다. 매뉴얼과 같은 부분적인 관리체계들은 그것이 반드시 도시 전체적인 모습과 비전(vision)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래에서 운영되어야만 전체적인 조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3) 제천시(10~20만)

① 일반현황

□ 제천 도심지의 역사

제천시는 조선 태종13년 지방조직을 전국 8도로 개편할 때 제주를 제천이라 개명하여 제천이라는 지명을 얻게 되었으며 이후 고종 32년 제천군, 청평군, 두개의 군으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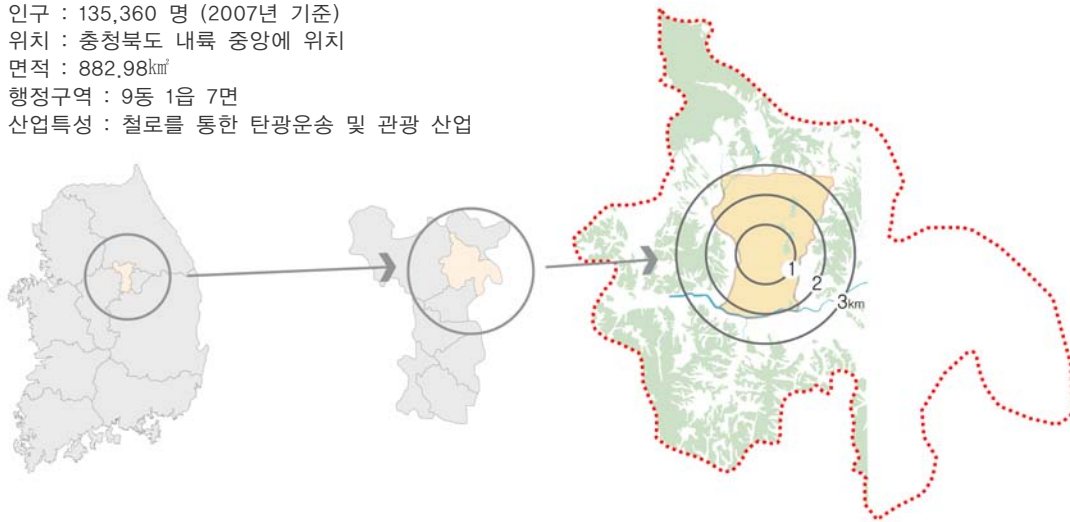
1907년 일제가 의병항쟁에 대한 보복으로 시가지를 소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기존 도시경관은 이때 대다수 소실되어 현재의 구도심은 일제 강점기 이후 형성된다. 이후 일제 강점기동안 각급 관공서가 위치한 중앙로를 중심으로 구도심 지역을 형성하였고 이때부터 교통망이 개편되면서 근대도시의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다.

1942년 중앙선 철도의 개통으로 육로 교통이 발달하면서 제천시가 중앙선·태백선·충북선이 만나는 교차점에 위치하게 되어 교통의 요충지로 성장하였으며, 시의 생산활동은 농업중심에서 물류 중심으로 변모하였다. 1970년대에 태백지구 등 주변 탄광촌의 개발로 인해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중앙시장으로 대표되는 역전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역전 주변은 제천시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제천역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의 전성기를 맞이한다. 80년대에 들어와서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명동지역의 상권이 함께 활성화되면서 시의 경제기반도 자원채굴과 물류 중심에서 상업기능 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1995년 제천시와 제원군을 통합하여 지금의 제천시가 탄생하였다.

□ 도심지 개요

제천시의 도심지는 동서남쪽으로는 장평천과 하소천 그리고 북쪽으로는 의림지를 지형적인 경계로 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의림대로가 지나가는 중앙동, 명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버스터미널, 제천법원, 중앙공원, 중앙시장 등 각종 공공시설이 밀집해 있다. 현재 도심지에는 전체 제천시 인구 14만명 가운데 14%인 2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인구 : 135,360 명 (2007년 기준)
 위치 : 충청북도 내륙 중앙에 위치
 면적 : 882.98km²
 행정구역 : 9동 1읍 7면
 산업특성 : 철로를 통한 탄광운송 및 관광 산업



제천의 도심지는 1970년대에는 태백선과 석탄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제천역과 역 전시장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하였으나 석탄사업의 하향화와 함께 점점 낙후되기 시작한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기존 시가지 북측과 서측이 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면서 도심지가 확장되었으나 의림지와 서, 남측의 하천으로 인해서 도심지의 면적인 확장은 한계를 보이게 된다. 현재 도심 밀집지역은 1950년대 형성된 것으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다양한 가로정비사업과 거리조성사업으로 중심상업지역으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으나 무분별한 개발과 상업시설의 밀집으로 인해 도심경관이 혼잡해졌으며 도심의 교육, 문화시설은 그 수가 부족하고, 질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② 제천시 도시구조 및 공공공간 현황

□ 중심시가지 변천과정 및 도시구조적 특성

남북으로 길게 형성된 산지와 3개의 하천은 1970년대 이후 도시가 개발되고 도로가 확충되면서 분할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이후 화산동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면서 주요한 봉우리만 남긴 채 도심내 산지와 녹지는 거의 사라졌으며 도심 중앙을 가로지르는 용두천 또한 복개되어 현재의 평탄한 도심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1950년대



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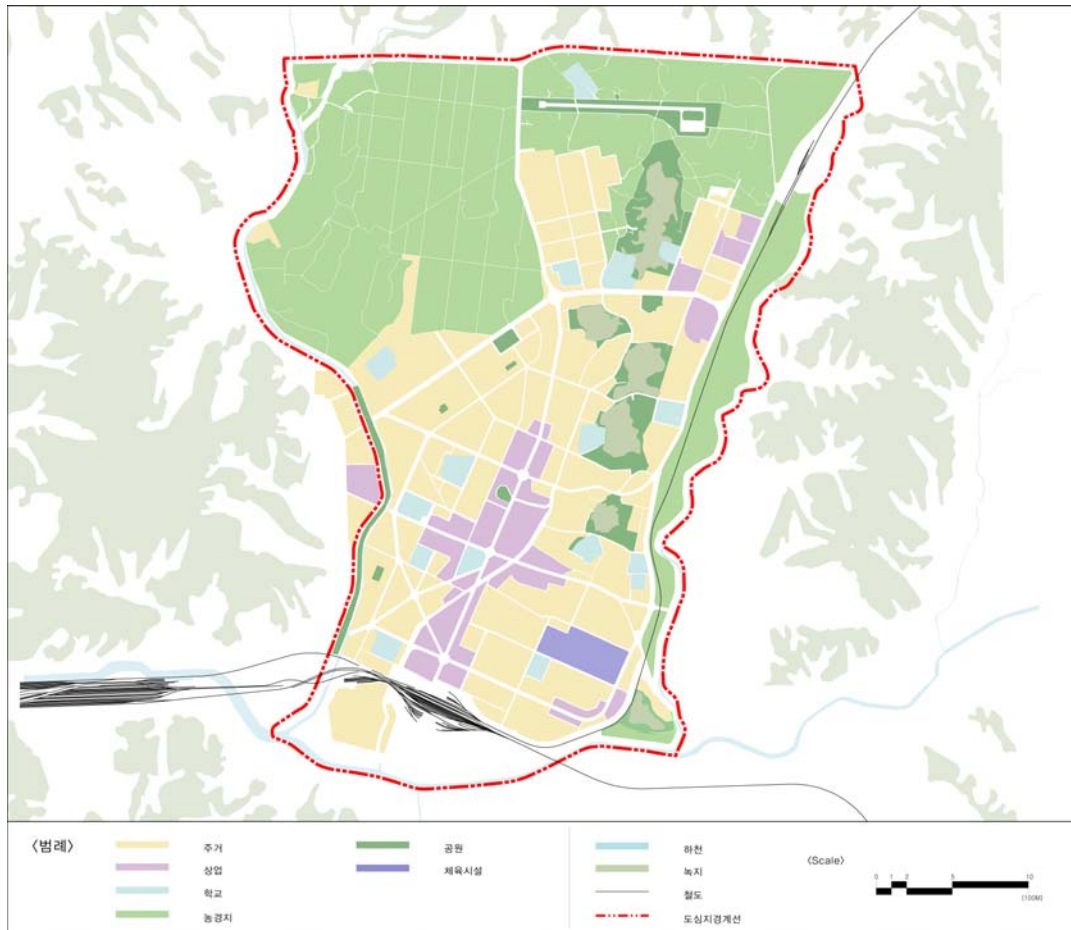


1990년대

1950년대부터 중심가를 형성한 의병대로 교차로로부터 제천역으로 이어지는 십자가 형태의 상업구역은 유동인구와 상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나 현재는 철도교통의 이용 저하와 석탄산업의 침체로 활력이 저하되고 있으며 도시환경도 급격하게 열악해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확장된 도심부는 주로 주거영역으로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고 있으나 좌우 하천에 의해 확장이 제한되었으며, 도심 내부에서는 공공청사가 이전하면서 공공시설용지가 확보되고 학교시설 등의 유희시설이 증가하여 기존 공공공간의 새로운 활용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도심 북측으로 의림지로의 대규모 녹지 및 농경지와 활주로 등이 형성되어 있어 접근성만 확보된다면 적절한 연계를 통해 도심공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공공용지의 확보가 힘든 도심 내에서 남동쪽으로 제천종합운동장이 자리잡고 있어 도심 내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심상업구역이나 기타 주거지역과는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어 보행에 의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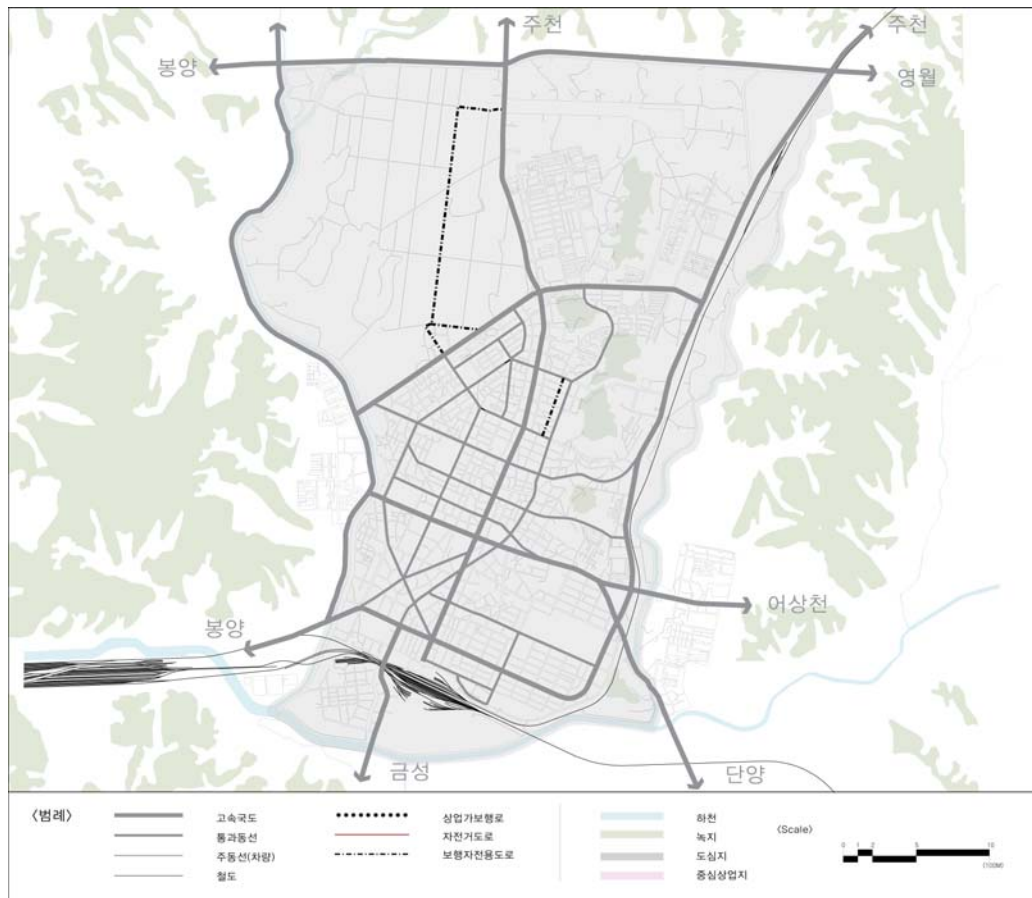
주거지역 내 소공원들이 비교적 잘 조성되어 있어 생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인접 공공시설물과의 공유 및 연결이 차단되어 있어 공공공간을 물리적으로 통합계획/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그림 117] 도심지 토지이용도(제천시)

가로체계에 있어 제천역과 의림지를 연결하고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의림대로가 가장 주요한 차량동선으로 이용되고 좌우로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동선이 위치하고 있어, 주요 차량 동선은 3개의 세로축으로 형성되며 각각의 가로축 보조간선이 연결됨으로써 차량 순환동선 체계를 갖춘다. 반면 보행자 동선⁷⁹⁾은 도심 내 일부 ‘문화의 거리’ 사업으로 조성된 보행전용도로와 의림지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노상주차와 상거래를 위한 적재물의 방치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도심 내 보행자 동선과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한 현실적인 교통개선에 대한 방향과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79) 제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기반시설 계획 부문에서는 보행 및 자전거도로망에 대한 구상도를 제안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행환경의 현황분석이 부재하고, 도심내 교통체계와의 관계나 비전(vision)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인 보행자 확보에 관한 실현수단 및 해결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부록 참고



[그림 118] 도심지 가로체계도(제천시)

□ 주요 공공공간 현황

도심내에는 2곳(중앙공원, 창전공원)의 녹지공원이 있는데 중앙공원의 경우 인구 유동량이 많은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외부공간이 유지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원이 주변 지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으로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서는 지형의 수준차를 극복하기 위한 적절한 외부 공간계획의 보완이 요구된다.

체육활동 공간으로는 종합운동장을 포함한 제천종합체육공원이 있으며 대규모 가용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나 외부공간을 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의 전환과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가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전통재래시장인 중앙시장은 통행인구가 많은 반면 물리적인 환경은 열악하다. 중앙시장 부근은 외부 자동차도로변 보행로까지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충분한 보행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며, 주변에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부족해 건물들의 전면 도로에는 노상주차가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와 주차공간, 보행로의 공간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보행로는 차들에 의해 주차공간으로 점유되고 물건이 산적해 있어 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많고 보행환경이 불량하다.

도심내 광장은 제천역과 시민회관 전면 광장이 있으며 시민회관 광장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의병대로와 인접하고 있다는 입지 특성 때문에 다양한 집회와 문화행사가 개최되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반면 제천역 광장은 철도 교통 이용자 수의 감소와 맞물려 현재 주차장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천역 광장이 의림대로의 시작점이자 도시민의 집회 및 이벤트 장소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천역 주변이 정비되어야 하고 역전 광장이 보행로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도심내 집회 및 여가 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도심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활주로는 시민을 위한 산책과 여가를 위한 대체 공공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주변으로 꽃밭 및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대규모 공원의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보행 유동량이 많은 주요상업 구역이나 주거 밀집지역과는 물리적으로 이격되어 있어 접근이나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가로망의 세로 주요축의 연계⁸⁰⁾를 통한 보행가로화 사업과 도심 내 공공공간과의 종합적인 연계 전략을 마련하여 도심공원으로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도심내에서는 공공시설물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초생활시설의 전면 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고, 시설의 노후화와 이용저하에 따른 보수·이전 등의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 유흥시설 및 이전적지를 통해 공공공간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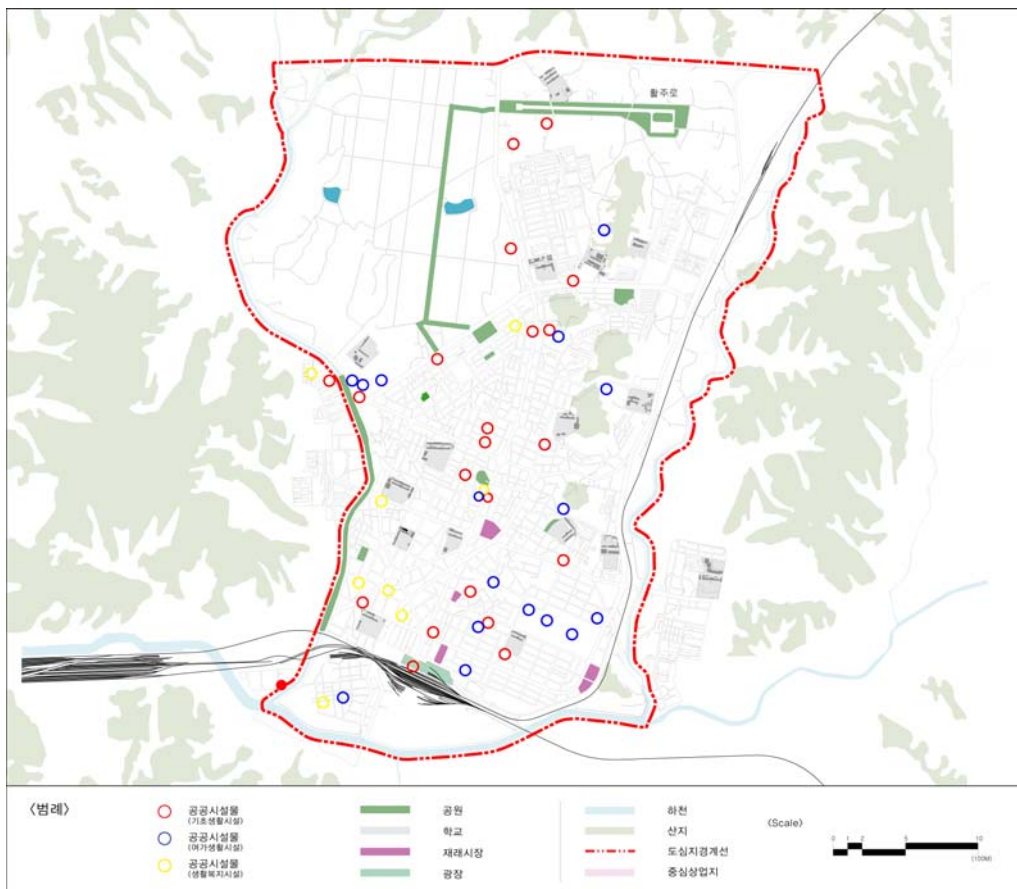
80) 현재 제천시에서는 동서남쪽의 하천과 북쪽의 의림지와 공항부지를 연계하는 순환형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구상 중에 있다.



[그림 119] 중앙공원



[그림 120] 중앙시장 보행자전용도로



[그림 121]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제천시)

③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 수립현황

□ 공공공간 관련 계획현황

도시기본계획(2020년 제천시도시기본계획)의 각종 부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인 청풍호 주변 경관기본계획,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 등이 수립되어 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광역적 차원에서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방향을 설정하고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의 부문 계획을 통해 도심지의 현황 분석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으나 도심공간에 대한 개발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⁸¹⁾. 따라서 도심지에 관한 구체적인 비전(vision)과 발전 전략이 구상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위 계획인 경관 디자인 기준과 시설물 관리 디자인에 관한 지침 등의 내용은 개별 사업의 제한규정으로 밖에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공공공간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공공공간 관련 하위계획 들은 도심지 전체의 발전을 유도하지 못하고 단일 사업만을 조정하는 역할에 한정된다.

이는 상위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전략이 도심지를 대상으로 한정되는 하위 계획체계의 역할과 연동되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으므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광역적 차원의 도시 비전(vision)을 도심지에 한정된 활성화 전략 및 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 제천시는 2007년부터 시작된 각종 도심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본격적으로 도심지 발전전략을 위한 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2010년 하반기 관련계획 수립,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심지 내 공공공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로 동서남쪽의 하천과 북쪽의 의림지와 활주로 부지를 연계하는 순환형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구상 중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도심 전반의 현황 분석과 상위 도시기본계획의 비전(vision)과 방향이 반영된 계획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81) 2020 제천시 도시기본계획, 부록 참조

[표 23] 공공공간 관련 계획 현황(제천시)

구 분		세 부 내 용
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제1종-신시가지의 개발
		제1종-기존시가지의정비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제천 개발촉진지구
자치법규	경관계획	청풍호 주변 경관기본계획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디자인법	제천시 도시환경시설물 등에 관한 디자인 시행규칙 (제정 2008. 8. 22 규칙 제400호)

□ 공공공간 관련 사업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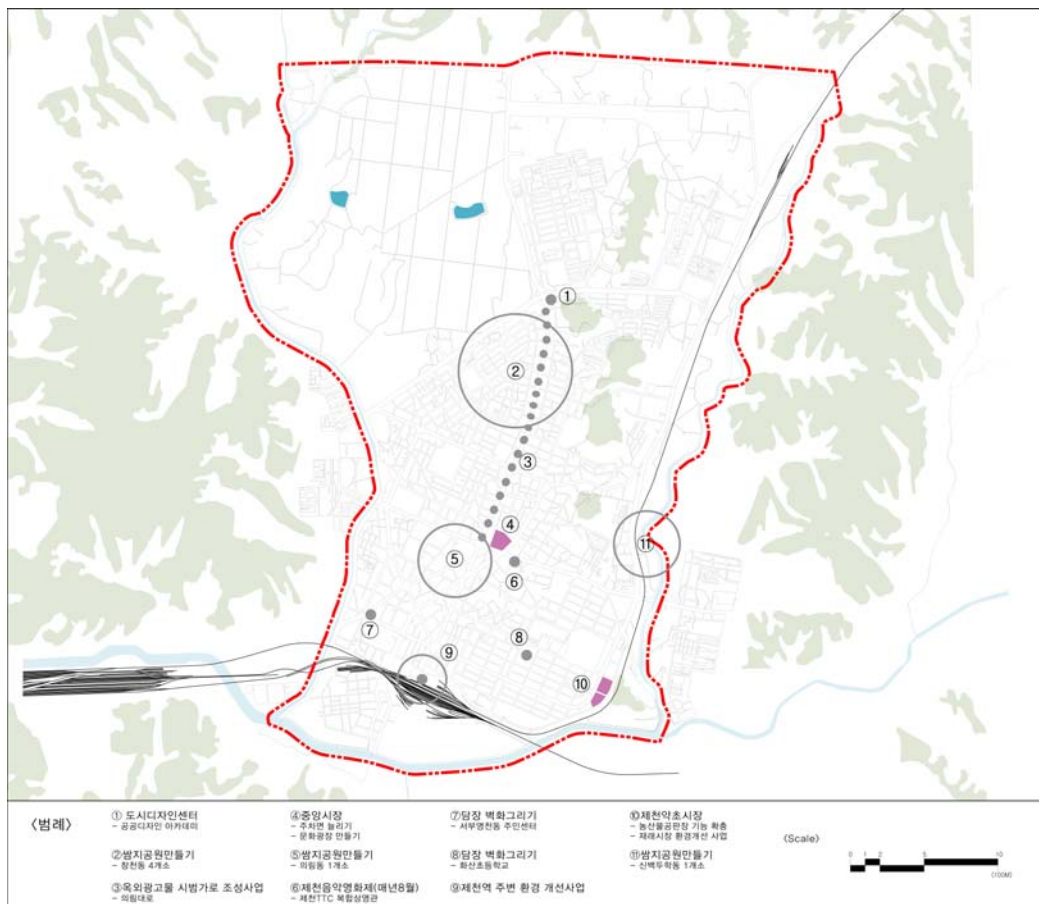
도심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 시장개선 사업, 가로조성 사업 등이 구상되고 있는데 계획이나 효과가 단편적인 개선에만 그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사업의 진행이 요구된다.

시민의 이동이 활발한 의림대로 주변 가로의 경우 부분적으로 간판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고, 중앙시장과 연결되는 중심상업지역에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설치되었지만 보행전용 구간이 너무 짧고 노상은 상거래를 위한 적재물들이 점유하고 있어 보행편의를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용구간을 확충하고 상업가로의 관리/유지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되는 등의 중장기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중앙시장의 경우 이용인구가 많고 시의 중심 시장으로서 많은 물류가 거래되고 있지만 시장 주변은 현재 대부분 노상주차로 인해서 보행공간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차량 통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열악한 시장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개선사업은 주로 역전시장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역전시장은 재래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시장 지붕을 덮고 내부를 아케이드화 하는 등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철도이용자수가 줄어들고 역전이 침체되면서 시장 곳곳에 문을 닫은 점포가 많은 상태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공간의 개선이 물리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도시적인 관점에서 현황분석과 경제적·사회적 전략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켜준다. 특히 도심지 내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률과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하고, 시장 환경의 현대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을 위한 안전 공간의 확보 또한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들이 의림대로를 기준으로 물리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공간 종합계획을 통해서 사업 간 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공공공간 관련 사업에 있어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한 도시의 경제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림지와 영상 음악제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도심내 공공공간 관련 사업에 대한 고려나 투자는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제천시의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도심내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도심 활성화 전략으로써 공공공간 사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122]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제천시)

[표 24] 공공공간 관련사업협항(제천시)

본부	주관과	사업명	
미래 경영 본부	농업축산과	농산물 공판장 기능 확충	공공시설 개선사업
	지역개발과	봉양 소도읍 육성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테마형 전원마을 조성 사업	
		전원실버빌리지 조성	
		마운틴 캐슬 건설 - 산악형 휴양리조트	
	산림공원과	쌈지공원 (도심소공원) 50개소 조성 대상지 : 봉양읍(3), 금성면(1), 백운면(2), 송학면(2), 청전동(4), 서부영천동(1), 의림동(1), 용두동(1), 신백두학동(1)	기반시설 조성사업
		런닝로드 (running - road) 조성	
	문화관광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3대 영화제로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축제 활성화 - 의림지 겨울페스티벌	
		의림지 전원테마파크 건립	
	한방경제과	제천 영상미디어 센터 설립	공공시설 개선사업
		제천 상공회의소 설립	공공시설 개선사업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지속 지원 및 중앙시장 주차장 100면 조성	재래시장 개선사업
		시장내 교양문화센터 신설	
	건설방재과	도시 간선도로망 확충	기반시설 조성사업
		청풍대교 가설	
	건축 디자인과	의림대로 교통광장 조성	기반시설 조성사업
		2009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의림대로)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 스스로 만드는’ 도시미관 공모사업	
	교통과	버스 터미널(고속·시외버스) 이전	공공시설 개선사업
행정 복지 본부	자치행정과	(구시청사) 제천 보건복지센터 건립	공공시설 개선사업
	평생학습 체육과	청주 제천학사 건립	기반시설 조성사업
		시장관사 농촌학사 설치 - 위 치 : 청전동 97-3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반시설 조성사업
		제천축구공원 건립	
		산악자전거 코스 개발 - 봉양 명암리 지역의 산촌개발지구내	
	사회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건립 및 이동복지관 운영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략 기획실		제천 종합연수타운 건설	기반시설 조성사업

④ 계획의 운영과 관리

□ 계획체계 및 계획 간 정합성

제천시의 도시관련계획에는 크게 도시기본계획, 경관종합계획, 공공디자인종합계획이 있다. 현재 제천시에서는 건축과의 업무를 건축디자인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등으로 나누어 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는 건축디자인과에서, 공공공간의 관리와 개발은 지역개발과와 건설방재과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추진체계를 구성한다.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준수하지만 도시기본계획이 실제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각 부문별로 실행부서를 달리하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각 부서 간 의사소통과 업무협약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원활하게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관종합계획의 경우 건축디자인과에서 주체가 되어 작성하며 경관법에 근거하여 사업단위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종합계획의 경우는 동일 부서(건축디자인과)에서 작성하지만 경관종합계획에 비해 좀 더 개념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각 과에서 개별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기본방향을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계획은 지역개발과, 농업축산과, 건설방재과, 사회복지와, 평생학습체육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 등이 관련되어 통합적인 운영의 참조자료가 되도록 활용할 예정이며, 통합매뉴얼도 작성하여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운영

제천시의 공간관리를 위해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공공간 대상 지역은 도심지와 충주호 주변으로 구분되며 도심지 공공공간 관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충주호 주변의 공공공간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이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도시 전체적인 공공공간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데에는 조직체계 상의 한계로 작용한다.

제천시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심의를 위해서 건축조례로 디자인심의위원회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이 디자인심의위원회 주로 시민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 간판, 가로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도시의 개발 방향에 대한 의

견을 공유하고 설정하기에는 심의 대상이 제한적이며, 심의위원의 역량과 자격 또한 공공 공간 개발 비전(vision)을 논의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크다.

현재 제천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2008년 국토해양부의 공공시설 디자인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구도심디자인개선사업’을 통해 제천역 광장을 대상으로 공공공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철도청과의 협의가 길어져 현재 진행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처럼 중소도시의 공공공간에는 철도역과 광장, 하천 주변 등 도시기반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공간 개선사업에서 이러한 공간은 제외되거나, 협의를 요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내의 공공공간의 활용과 계획이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되지 않고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필요로 하며 지역민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권한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

4) 순천시(20~30만)

① 일반현황

□ 순천 도심지의 역사

순천은 조선시대 지방관제가 개편되면서 등장하여 이후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시기를 거치며 면에서 읍으로 재편되고, 광복 이후 1949년 순천군이 승주시로, 종래의 순천읍은 순천시로 승격한다. 순천이 최종적으로 현재의 순천시의 행정구역으로 개편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승주군과 순천시가 통합되면서 부터이다.

순천의 도심지의 초기 형태는 1941년 조선총독부가 지금의 동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갖추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광양제철소가 생기고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시가지가 확대되어 1980년대에 들어서 단핵 중심의 중심시가지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조례동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신도심이 형성된다. 또한 조례동과 연향동 일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건설이 본격화되자 위락·쇼핑시설이 집중되어 도심의 중심기능은 양분되었고, 도심지 인구의 이동이 신도심으로 본격화된다. 1990년대에 들어서 구도심 지역의 인구감소, 상권의 이탈, 유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구도심의 쇠퇴 현상은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 도심지 개요

시가지의 모습은 도심으로부터 동심원적인 확장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순천시의 경우 주변이 봉화산, 남산줄기, 동천 등의 자연 지형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어 남북방향으로 선(線)적인 확장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지형적인 한계로 인해서 점점 팽창하는 도심기능을 물리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신시가지가 개발 되는 등 시가지의 외연적인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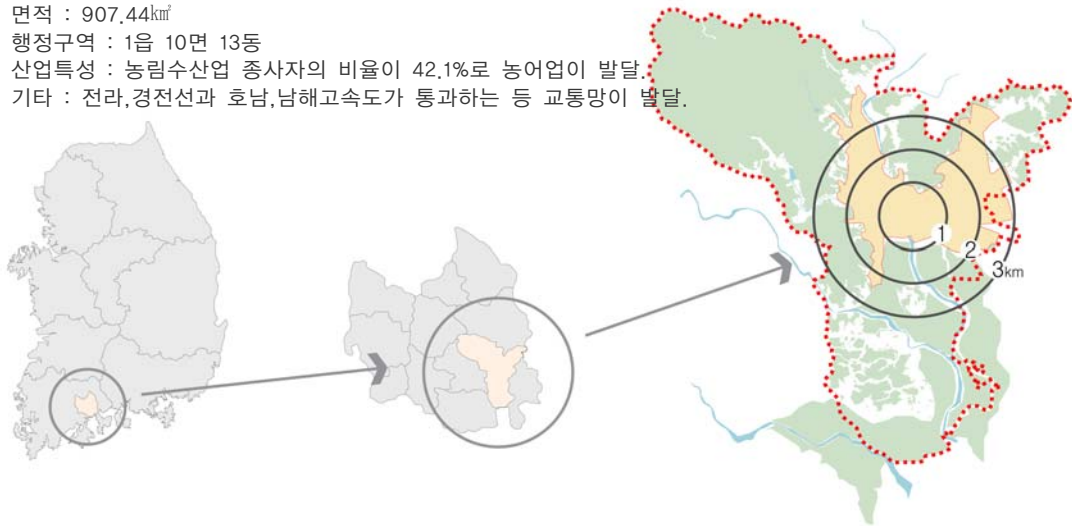
1990년대 들어서 도심의 기능 확장이 도심기능분담에 대한 계획적인 고려없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신시가지와 기존 도심은 경쟁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으며 조례동에 대한 주거지 개발과 교통체계의 정비는 구도심으로부터 생활환경이 우수한 신도심으로의 탈 도심 현상을 가속화되는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구도심은 발전이 정체된다.

인구 : 271,781 명 (2007년 기준)
 위치 : 전라남도 동남쪽에 있는 시
 면적 : 907.44km²

행정구역 : 1읍 10면 13동

산업특성 :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42.1%로 농어업이 발달.

기타 : 전라,경전선과 호남,남해고속도가 통과하는 등 교통망이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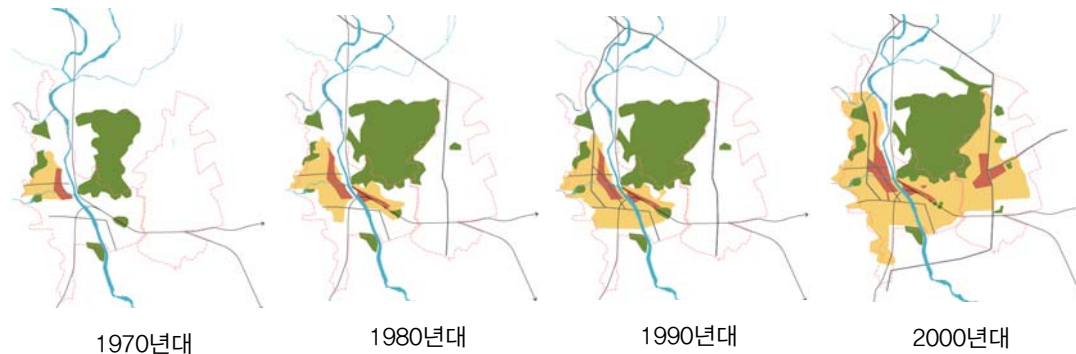


② 순천시 도시구조 및 공공공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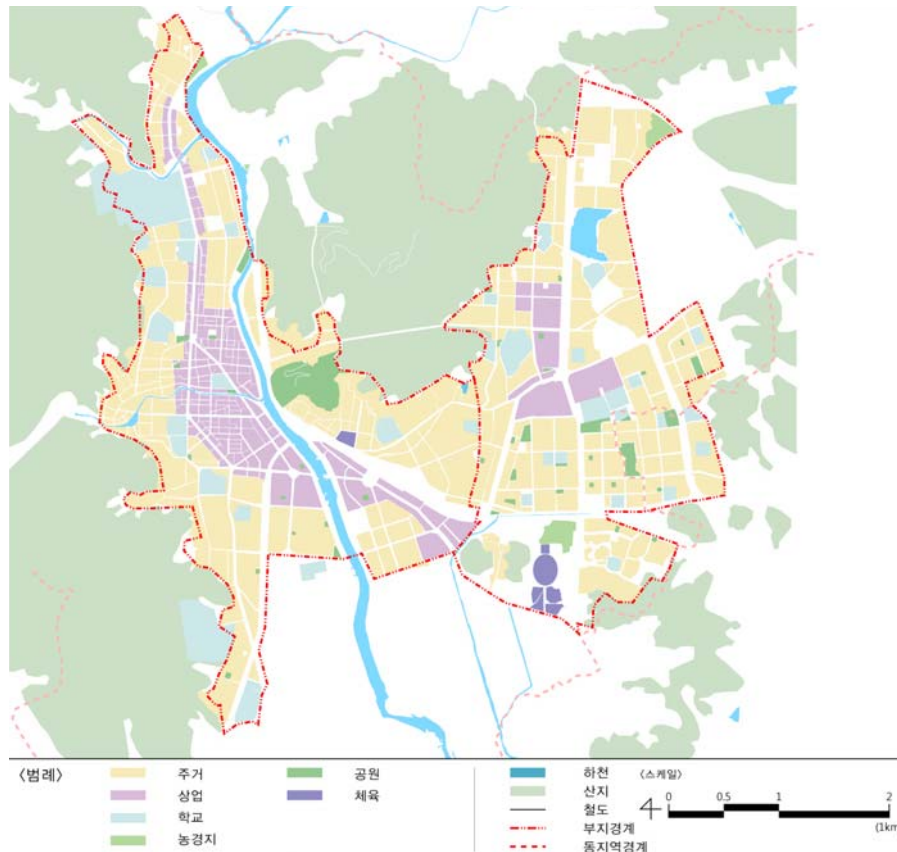
□ 중심시가지 변천과정 및 도시구조적 특성

순천시의 도심지는 상업지역이 중앙동과 순천역 2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L자 형태의 패턴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L자형의 도심 확장형태는 2000년대 들어서 조례 신도심 형성으로 U자형으로 변형된다.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봉화산으로 인해서 순천의 도심은 다른 도시들이 하나의 중심을 가지는 동심원으로 확장하는 것과 달리 봉화산을 중심으로 U자형 도시공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순천시의 주요 상업시설은 중앙동 전역에 걸쳐 있고 성동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업 거리에 밀집해 있으며 주거형 상가와 상업용 건축물들이 분포하고 있고 주로 3층 이하인 경우가 많다. 또한 상가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대부분 건물의 전면 폭이 매우 협소하고 녹지비율이 매우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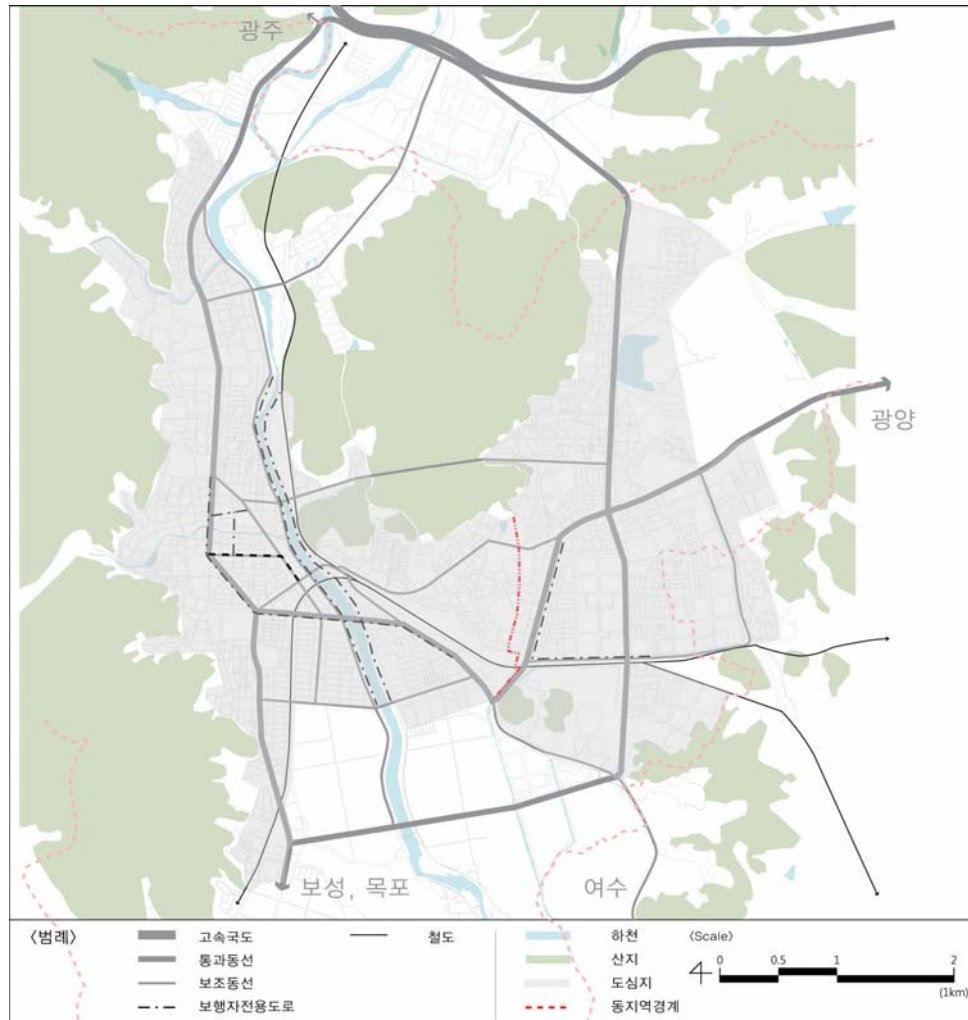


[그림 123] 도심지 토지이용도(순천시)

1970년대 철도 개통이후로 순천은 철도와 호남, 남해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교통요충지였다. 차량동선으로는 순천과 여수를 잇는 광역 순환도로와 도시 외곽을 도는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도심으로는 순천역과 중앙동을 잇는 주동선이 도로의 위계를 형성하고 있다. 순천시의 주요도로가 상업지역인 중앙동을 통과하고 있어 이곳으로 차량과 보행동선과 복잡하게 얽히고 있어 도심교통량 분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순천시에서는 『자전거도로 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를 계획하고 중앙로에 자

전거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등 시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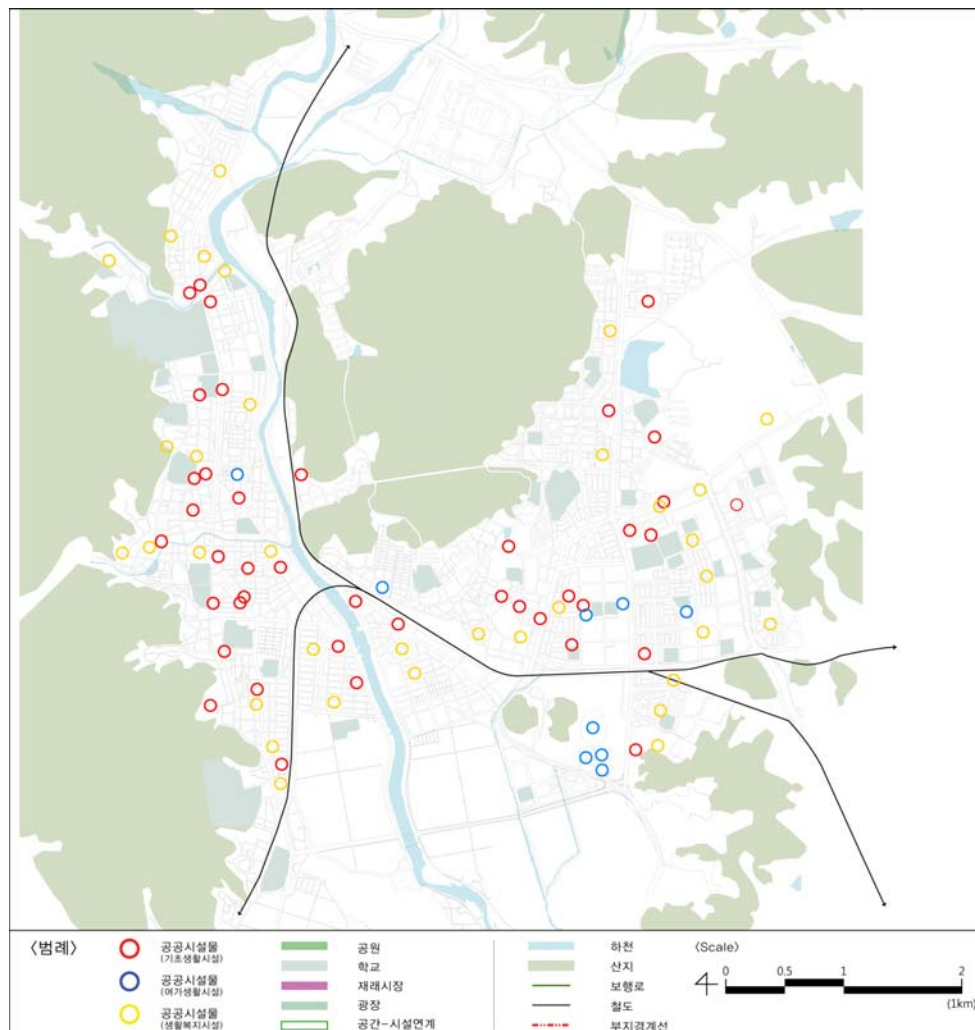
[그림 124] 도심지 가로체계도(순천시)

□ 주요 공공공간 현황

순천 도심의 주요한 녹지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봉화산과 동천과 옥천 두개의 주요 하천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에 대한 환경적인 중요성과 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현재는 이들 지역 주변에 도시공원 설치와 주변환경정비, 생태복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공공시설물은 어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관공서를 위주로 한 기반시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이들 공공건축물들이 제공하고 있는 오픈스페이스와 식재공간 등의 연계가 부족하고 제공하고 있는 면적 또한 협소하여 공공건축물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성이 미흡한 편이다.

순천시에는 도시 중앙부에 위치한 죽도봉 공원과 동천 및 옥천 기타 주위에 많은 녹지지역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공간을 공공공간으로 활용하면서 물리적으로 연계하여 도 내 공공공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동천 주변으로 자전거도로를 도심과 연결하여 수변지역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림 125] 공공시설 및 공공공간 분포현황(순천시)

③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수립현황

□ 공공공간 관련 계획현황

순천시의 도시관련계획에서 공공공간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공공시설물, 가로, 공원 및 녹지관련 계획이 있으며, 이 중 공공시설물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정비 및 신축, 개축 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공원 및 녹지의 경우 도심공원 조성을 통해서 도심의 녹지환경 개선에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들 모두 산발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도심공원들 사이에 종합적인 개발 방향이나 비전(vision)은 제시되지 않는다.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경관계획은 공공건축물이 지역내 도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옥외공간에 있어서 지역의 핵심이 되는 공간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단계에서는 공공건축물을 기능별 단위 건축물로 파악, 분류하고 있을 뿐 도시 전체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을 도시공간 관련 사업에서 주요한 결절점으로서의 역할과 이에 대한 계획 실현 수단으로 인식하는 지방정부의 관점 변화가 요구된다.

[표 25] 공공공간 관련 계획수립 현황(제천시)

구 분		세 부 내 용
개발계획	도시기본계획	2020년 도시기본계획수립
		2015년 도시관리계획
		기존도심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지구단위계획	제1종-신시가지의 개발
		제1종-기존시가지의 보존
		제1종- 복합구역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x
자치법규	경관계획	청풍호 주변 경관기본계획,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건축정책기본계획	건축디자인 G.R.E.E.N

한편 순천시는 도심 쇠퇴의 원인을 경제적, 도시정책적, 물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분석하고 도심 활성화 전략을 세워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도심내 공공기능을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도심기능 이전을 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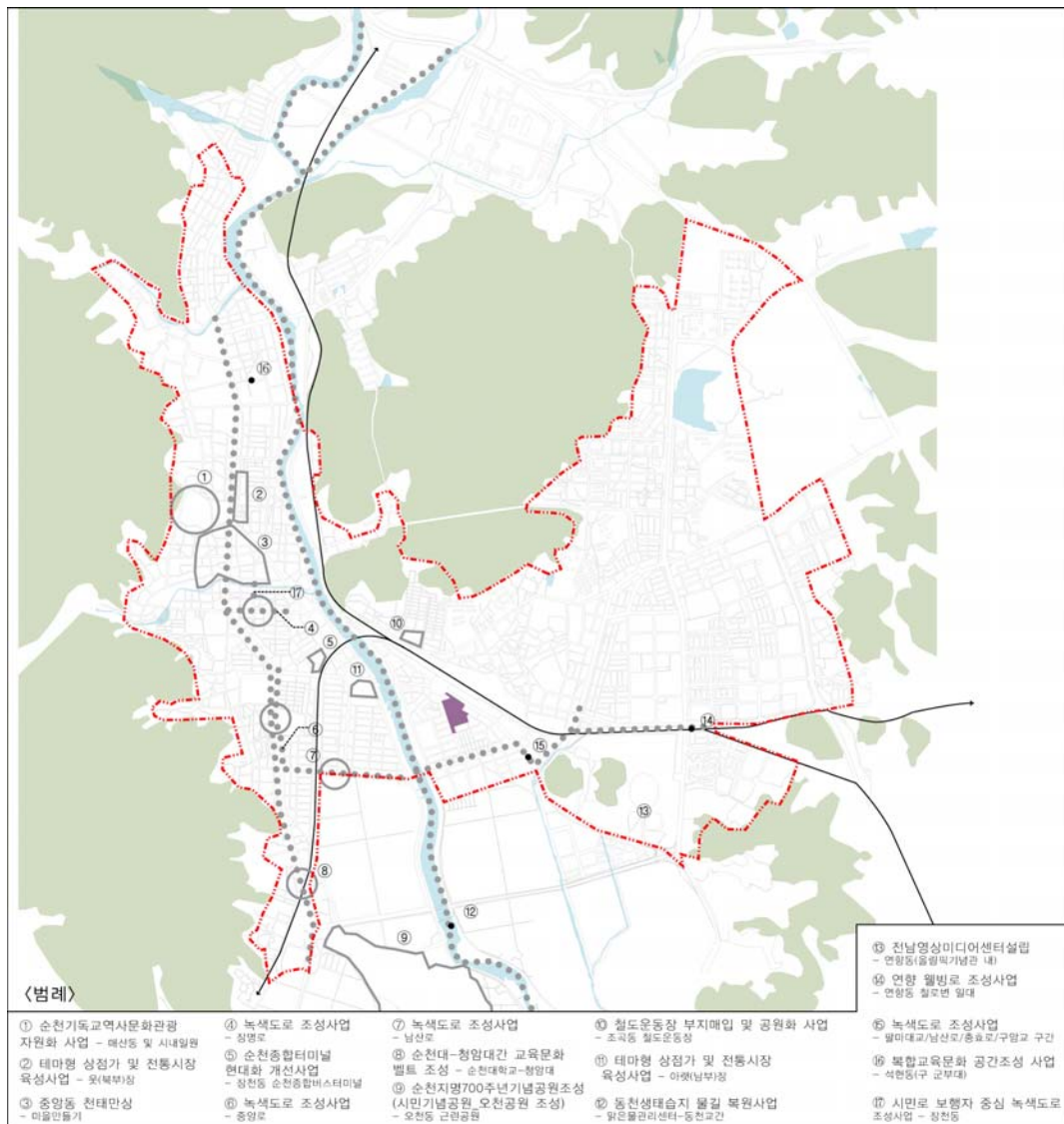
화하며 기능이 이전된 지역의 활성화 대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도심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생활, 업무, 문화공간으로 정비하여 전통이 살아있는 도심지 기능의 회복을 꾀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존 시가지의 유동인구 증가와 도심지 기능 확대를 위해서 도심의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지 개발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

현재 순천시는 2013년 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시에서는 순천시의 비전(vision)을 ‘대한민국 생태수도’라는 목표 아래 도심공간에 대한 각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계획에서 공공공간은 경관계획에 있어 녹지축을 도입하여 이 축을 중심으로 한 도심공원 확충과 가로수 확충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죽도봉을 생활 공간화하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동천주변에 대한 정비를 통해서 순천만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도심공간을 순천만으로까지 확장하는 공간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도시 경관계획에 있어서 녹지축의 도입과 순천만까지 연계되는 도심 수공간의 연계 등은 도시 공간의 계획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간적인 연계를 유도하는 데 중요한 발전 방향을 제공한다.

도심 내부의 사업에 있어서 공공공간은 주로 시장개선사업과 거리미관환경정비, 시설물정비 사업에 치중되고 있으며, 거리미관환경정비와 시설물정비사업의 경우 내용이 중복될 소지가 많다. 이에 순천시에서는 2007년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를 디자인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만 공공공간 관련 사항은 주로 건물의 간판, 거리시설물과 같은 세부사항들에 한정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시설물 디자인은 도시의 전체상과 요소별 기준·지침들을 함께 조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 관련 사업은 도서관 확충, 경로당, 청소년시설 정비, 문화관 건립 등 시설의 확충에 주력하고 있으며, 일부 노후한 체육시설 등의 정비를 함께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설의 신설 정책은 지역에서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예산이나 가용대지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기존 도심의 유희시설의 활용을 통해 적정하게 전환되어야 하겠다.



[그림 126] 도심지 공공공간 관련 주요 사업현황(순천시)

[표 26] 공공공간 관련사업현황(순천시)

운 영 과	사 업 명	사업성격
도서관 운영과	책과 예술이 있는 나눔장터 운영 : 원도심 시민들의 커뮤니티센터 역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조례 호수도서관 건립(순천시 조례동)	공공시설 개선사업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신규1, 보수3)	공공시설 개선사업
평생학습과	시민 교육문화공간 조성(순천시 석현동35번지) : 도서관, 보건소, 공연장, 공원, 평생학습관	공공시설 개선사업
여성가족과	신도심 종합복지센터, 도서관 건립 : 순천시 조례동 1600-1	공공시설 개선사업
문화체육과	순천기독교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 순천시 매곡동 179-10	공공시설 개선사업
도시과	복합문화관 건립사업 : 순천시 대대동 1-3번지	공공시설 개선사업

운 영 과	사 업 명	사업성격
문화체육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 행동, 영동, 금곡동 일대	기반시설 조성사업
	인라인 스케이팅장 조성 : 순천시 동천 수변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영상 미디어센터 및 복합문화관 건립 : 문화의 거리 내	공공시설 개선사업
체육시설 관리소	팔마 씨름장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주경기장 주변 불량보도 정비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 순천시 연향동 올림픽기념관	공공시설 개선사업
관광진흥과	공예공방 및 판매장 설치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심권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추진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 : 순천시 도사동 오천문화공원 내	공공시설 개선사업
	순천대 앞 대학로 정비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청소년수련소 시설정비	공공시설 개선사업
경제통상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주민생활 지원과	주민복지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 : 경로당 신축 및 보강,	공공시설 개선사업
보건위생과	장사시설 공원화 사업 : 순천시 야흥동 일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공공청사 친환경 Green Building 화	공공시설 개선사업
건축과	금곡지구 거점확산형 시범사업 : 순천시 금곡동 66번지 일대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순천시 향동	기반시설 조성사업
	왕조 운곡지구 도시환경 개선사업 : 순천시 왕지동, 조례동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로과	도심지 보행 및 주차차 환경정비 개선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연향2지구~율산공원간 보도정비	기반시설 조성사업
	풍전주유소~조례마을간 도로개설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밝은거리 조성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	공공시설 개선사업
도시개발 사업소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	공공시설 개선사업
	조례호수공원 조성사업 : 왕지동, 조례동 일대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과	도시공원 특성화 사업 : 순천시 왕조1,2동	기반시설 조성사업
	매산공원 조성공사 : 순천시 금곡동127-4	기반시설 조성사업
	장대공원 조성사업 : 순천시 조곡동 210번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건설재난관 리과	신도심 간선도로변 녹지조성 : 조례동 홈플러스 ~ 대림철물 구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동천 생태습지 물길복원사업 : 맑은물 관리센터 ~ 도사동 동천교간	기반시설 조성사업
	동천 화장실 및 오두막 설치 : 순천시 오천동 112-1	기반시설 조성사업
	동천가꾸기 및 시설물 유지관리	기반시설 조성사업
	석현천 생태복원 사업 : 순천시 석현동	기반시설 조성사업
산림소득과	해룡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전라남도 소방박물관 건립사업 : 순천시 교량동613-2	공공시설 개선사업
	가로수 숲길 조성사업 : 순천로, 금당지역, 선암사길	기반시설 조성사업
	보차도 경계녹화사업 : 백강로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도시과	벽면녹화사업 : 연향로	공공시설 개선사업
	북초등학교 가로변 담장 녹화사업 : 순천시 매곡동 북초등학교	공공시설 개선사업
	담장 허물기 사업 : 순천시 삼산동, 왕조1동, 향동	공공시설 개선사업
교통과	정겨운 시내버스 승강장 조성 및 관리	기반시설 조성사업
	종합버스터미널 주변환경 개선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합리적인 시내버스 노선조정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개선사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생태수도 지원사업소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조성사업 : 오천동 근린공원, 시장부지 주변	공공시설 개선사업

④ 계획의 운영과 관리

□ 계획체계 및 계획간 정합성

순천시의 도시관련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경관종합계획, 건축정책기본계획, 기존도심 활성화기본계획이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가운데 하나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과에서 ‘100년의 역사문화가 숨쉬는 거리’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127] 도시관련계획체계(순천시)

□ 공공공간 관련 계획의 운영

현재 순천시에서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사업부서가 각기 달라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획실의 경우에 기존의 사업성과만을 취합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도시 건축분야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다양한 부서에서 각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계획 사이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정합성 확보에도 어려움⁸²⁾이 있다. 따라서 도시관련 계획과 사업은 부서별로 분리 조성되는 개별화의 문제가 크며 이를 지원하고 있는 각종 법령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심의제도에 있어서도 경관심의, 건축심의, 건설기술심의, 광고물

82) 이러한 예로 낙안읍성 간판정비사업 시행 도중 기존의 건축규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진행이 중지되기도 하였다.

심의 등 성격이 유사한 제도들이 중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 간, 부서 간 개별화와 이를 지원하는 법령 간 중복 및 상충하는 문제점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5) 심층조사 결과 종합

① 공공공간 분포현황

□ 구도심 외부로의 공공공간 사업 발생으로 인한 공공공간의 부재와 편중

- 도시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구도심내에서 적절한 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심 외부에 대규모 공공공간 계획 및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도시의 규모가 커질수록 택지개발을 통한 대규모 신도심이 형성되어 있으며 신도심의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공공공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므로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공공간의 비율 및 접근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남
- 따라서 장기적으로 공공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도심 지역과 구도심 외부의 공공공간 관련 사업들의 연계할 수 있는 전략과 도시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② 공공공간의 물리적 한계

□ 차량 중심의 가로체계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의 변화 요구

- 도심계획이 차량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도심내 여유공간은 주차장이나 차선으로 우선 확보되고 과다한 차로 폭, 노상주차장 방치하여 지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은 점차 줄어들게 됨
- 관리 부실로 인한 인도의 단절, 불량한 노면상태, 노상 장애물은 보행환경의 질적 저하를 야기함
- 공공공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 중심의 가로체계로 변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도심내 전반적인 교통체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함

□ 구도심내 공공공간의 절대적 부족에 따른 기존 도심공간의 재활용 필요

- 구도심은 체계적인 공공공간 계획을 통해 도시가 개발되기 이전에 이미 기존의 토지이용이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공간의 적극적인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실질적으로 구도심은 공원 및 녹지의 면적이 매우 부족하며, 집회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광장과 같은 대규모 공공공간이 부재한 실정임
- 따라서 구도심의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물 및 기반시설의 재활용 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용도전환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공공간을 확보해나갈 필요가 있음

- 대규모 도심의 경우 청사의 이전에 따라 이전적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그 활용이나 대책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하므로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전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소규모 도심의 경우 학교시설 및 유휴 공공 시설물들을 재활용하는 대안이 고려되어야 함
- 대규모 공공청사의 경우 전면공간이 주로 주차장으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공공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건축물들이 연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외부 프로그램의 고려와 전면공지의 연계를 통해 공공공간으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접근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공공기능을 설치할 수 있는 수변공간은 도심과 인접한 대규모 생활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으며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부족한 도심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 공공공간 활성화 영역으로서 구도심 중심상업지역의 적극적인 개선 요구

- 소규모 도심의 경우 재래시장에, 대규모 도심의 경우 재래시장을 포함한 상업거리와 대형 마트 주변으로 시민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이 지역들은 주로 구도심내에 상업용도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음
- 따라서 상업구역은 공공공간의 필요성이 가장 대두되는 영역으로서 지역민이 주로 활동하는 재래시장이나 상업가로의 공공공간 개선사업이 중요하며 특히, 시장개선 사업과 상업가로의 연계로 통한 가로사업이 주요한 공공공간 개발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음

③ 공공공간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진행 절차

□ 사업간 연계 부족으로 인한 사업효과의 지속성 감소

-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하여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부서 간 협의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공공공간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구상할 수 없고 관련 계획 간 정합성이 떨어짐
- 따라서 공공공간에 대한 명확한 비전(vision)과 개발 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공간 종합계획의 역할과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나 부서 간 협의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공공공간 사업의 체계적인 진행과 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

□ 예산 위주의 공공공간 사업 진행으로 인한 사업의 실효성 저하

- 공공공간 관련 사업은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에 따라 진행되고 단발적인 지원으로 사업이 완료됨으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나 이용률에 대한 고려는 부족함
- 시기별로 사업이 중복되거나 중장기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업이 단기간에 줄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지역 단위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과 이에 대한 예산 지원방안이 요구됨

□ 공공공간의 현황 파악 미흡에 따른 통합관리 필요

- 공공공간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지역단위에서 기존 공공공간의 현황파악 및 관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방정부 소유의 공공공간은 유형별로 관리 부서가 분리되어 있다는 점, 중앙정부 소유의 공공공간은 지방정부와는 별개의 국유재산으로 지방정부의 관리 및 현황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작용함
- 공공공간의 활용을 위한 비전(vision)과 전략의 도출을 위해서는 현재 지역의 공공공간 현황에 대한 명확한 파악과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전담 조직이 필요함

□ 공공공간 관련 계획 간 정합성 부재

- 도시기본계획 내 부문계획으로써 공공공간의 계획 내용이나 수위가 지역마다 모두 다르며, 도시의 비전(vision)이나 개발방향을 공유할 수 있는 공공공간 관련 종합적인 계획이 없어 각종 하위계획 간의 연계나 정합성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공공공간 관련 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의 개발방향과 비전(vision)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계획으로서의 상위계획을 설정하고, 이러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별/유형별 하위계획이 추진되어야 함

□ 관련 법률 간/ 제도 간 상충 및 중복

- 공공공간 관련 계획은 상위 근거법을 모두 달리하기 때문에 상호 독립적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으나 계획의 내용이나 방향은 유사한 경우가 많아 공공공간의 통합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 간 상충 요소의 조정이 필요함
- 지역의 차원에서는 유사한 심의 및 검증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어 관련 심의에 따라 공공공간의 계획 내용이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의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해야 함

제4장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 및 활용방안

1. 기본전제
2. 계획의 구성과 활용
3.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

제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해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수립 사례와 국내 중소도시의 공공공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의 공간관리체계와 연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아직까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천전략과 제도적 측면의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이에 앞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활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조건들을 기술하였다.

1. 기본전제

공공공간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장으로서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중요한 지역자산으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공공공간을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라 할 수 있다.

서구 유럽의 경우, 가로나 광장 등 도심지 내 공공공간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이미 오래 전 정립되었고 근대 산업과 교통의 발달로 차로와 주차장 등 기능적인 공간으로 변질된 도심지 내 공공공간을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삶의 중심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공공공간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관리 수단들이 확보되었다. 앞서 해외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심지 내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vision)을 바탕으로 각 도시별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주체 별 역할을 분담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의 경우 최근 가로환경 정비 등 공공공간 관련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면 단위공간의 시각적인 디자인 질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거나 수변공간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등 활동을 고려한 공공공간 조성사업도 다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 추진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 내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의 장으로서 공공공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공유에서 출발한 예는 드물다. 다시 말해 공공공간은 이제까지 특정기능을 담당하는 기반시설로서 인지되고 관리되어 왔으며 이에 따른 계획과 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국내 중소도시의 실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활용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이 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첫째,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 장으로서 도심지내 다양한 공공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둘째, 계획의 기획과 실행,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행정부서의 전문성 강화, 셋째,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그리고 넷째 시민의식 고양 및 참여여건 조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 장으로서 도심지내 다양한 공공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앞서 제시한 기본 요건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공간에 대한 개념의 확장으로, 공공공간을 통과교통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잉여공간이 아닌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 장으로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의적인 공공공간 활용 방안과 디자인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과 공공공간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며 공공공간의 궁극적인 필요성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수단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 계획의 기획과 실행,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행정부서의 전문성 강화

다음으로는 공공영역인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주요 주체인 지방 행정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공공공간은 모두의 것인 동시에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은 공간이다. 또한 공공공간은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는 수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공간을 관리하는 주무 부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기획과 통합적인 계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현재 국내 중소도시의 여건상 지방정부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지방재정의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방식은 각 부처에서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연하게 활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각각의 여건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해서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민의식 고양 및 참여여건 조성

마지막으로 공공공간은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조성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공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양하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한편 계획과 사업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지역 내 공공공간에 대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관리를 담보하며, 이로 인해 지속가능하고 활력있는 공공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2. 계획의 구성과 활용

1)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

공공공간의 종합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수립은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가와 계획을 누가 어떻게 운용해야 할 것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수립방안을 계획의 주요 구성과 계획의 운영체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계획의 구성과 내용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한 지역의 공공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vision)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공간 조성과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계획을 구현하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크게 현황분석, 기본구상,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디자인과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실천전략의 세 부분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계획의 구성과 내용은 각 도시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쓰링엔시의 경우 가로, 광장, 시설물 등 부문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나가오카시의 경우 공간단위별 디자인지침은 다른 계획과 연동하여 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각 단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계획 수립 시 단계별로 지속적인 피드백 작업이 필요하다. 각 단계가 각각의 계획으로 작성될 경우 이러한 연계성은 특히 중요하다.

현황분석은 지역의 특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 전 단계에 걸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현황분석은 계획지역의 비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와 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를 포함하며 상위계획이나 관련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하여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는 지역의 여사를 비롯해 인구, 사회, 경제구조 등 지역의 공공공간이 형성된 배경과 향후 담아야 할 활동을 파악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물리적인 공간형성 요소로는 도시구조, 지형, 지역 경계와 범위, 용도와 교통현황, 주요 공공공간과 각 공간의 이용실태, 공공공간 공간적 특성과 구성요소 등을 들 수 있는데, 계획 수립 목표에 따라 분석 대상과 내용이 보완되거나 강조될 수 있다.

기본구상은 분석한 지역 현황을 바탕으로 대상 지역의 비전(vision)과 공공공간 조

성과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포함한다. 공공공간 조성과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은 크게 특징적인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공간 디자인에 관한 기본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차원의 기본방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공공공간 정책이 결정되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마련된다.

실천전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공간디자인계획 부분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 사업추진 방식과 프로세스, 그리고 시범사업 등 사업계획부분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그림 128]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구성과 주요내용

② 계획의 운영체계

도시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아름다운 공공공간의 조성은 잘 짜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좋은 계획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은

계획을 실행해나가는 과정과 주체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계획실행 과정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편 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행정주체와 간접적으로 계획에 참여하는 시민이나 전문가 등의 주체들의 역할과 협의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획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과 기존 공간관리 계획을 연계하여 실효성 확보

공공공간 관리에 대한 비전(vision)은 도시의 비전(vision)에 부합해야 하는 한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비전(vision)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지속적인 실행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각각의 실행전략은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공간의 물리적 공간요소에 관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의 경우 특정 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하거나 조례로 책정하여 디자인심의 등의 실행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계획의 기획과 코디네이트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행정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체계 마련

기반시설별로 나뉘어진 일반적인 행정관리체계 상 공공공간을 한 부서에서 주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경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부서에 관련 부서간 협의를 주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서 사업과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고, 무엇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단계적인 실행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행정부서의 기획능력과 코디네이트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행정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공공공간 사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담 행정인력의 잦은 순환보직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 공공공간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과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공공공간 향상

지역 자산으로서 공공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 지역의 공간구조와 기존 공공공간 현황과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은 그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도출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 기초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작업이다.

한편 추진된 공공공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는 피드백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공공공간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민간전문가 활용

전문 행정인력이 부족하거나 기반이 취약할 경우, 혹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활용은 유용하다. 특히 지역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지역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의 경우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으며,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중간자적 입장에서 코디네이터로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 자칫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각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다.

□ 공간관리 효과 도출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 마련

공공공간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공간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책자나 웹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공공공간 시책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 사전협의 방식 등을 활용하여 여러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제공하는 것도 공공공간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공청회나 시민과의 대화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경험이 많은 민간 코디네이터 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공무원과 전문가, 상인조합, NGO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방안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단순한 홍보와 의견수렴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관협의체 구성은 기존의 시민활동이 활발해야만 가능한 것으

로,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나 협회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지역의 시민단체나 동호회 등 단체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이에 앞서 지역의 시민단체를 육성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2)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방안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계획체계 내에서 행정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경우와 법정계획인 특정경관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밖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계획체계 내에서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각 부처별로 실행되고 있는 공공공간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비전(vision)과 실천전략 계획의 수립을 전제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신설법이 제정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과 같이 도심지역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행정계획이나 특정경관계획으로 수립하거나 중앙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립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은 상호 연동될 수도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행정계획으로 수립하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계획서로 활용을 하거나 반대로 사업지원계획으로 수립했던 계획을 보완하여 행정계획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또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일부는 행정계획으로, 디자인지침 등은 특정경관계획으로 작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비전(vision)을 설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행정계획으로 수립을 하건 사업계획으로 수립을 하건 장기적인 차원에서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공간계획과 연계하여 활용해야 한다. 특히 도시의 비전(vision)에 도심지 공공공간 정책과 전략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하며,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실천전략 중 디자인 지침은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디자인지침을 실행으로 옮기는 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할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연동하거나 조례로 제정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중소도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공간의 가치와 도심 활성화 요소로서 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관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공간 관련 사업을 통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간판을 정비하는 프로그램, 공중화장실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가로를 개선하는 프로그램, 수변공간을 정비하는 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위주로 지원하기 보다는 이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취지를 알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며 이와 동시에 관련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자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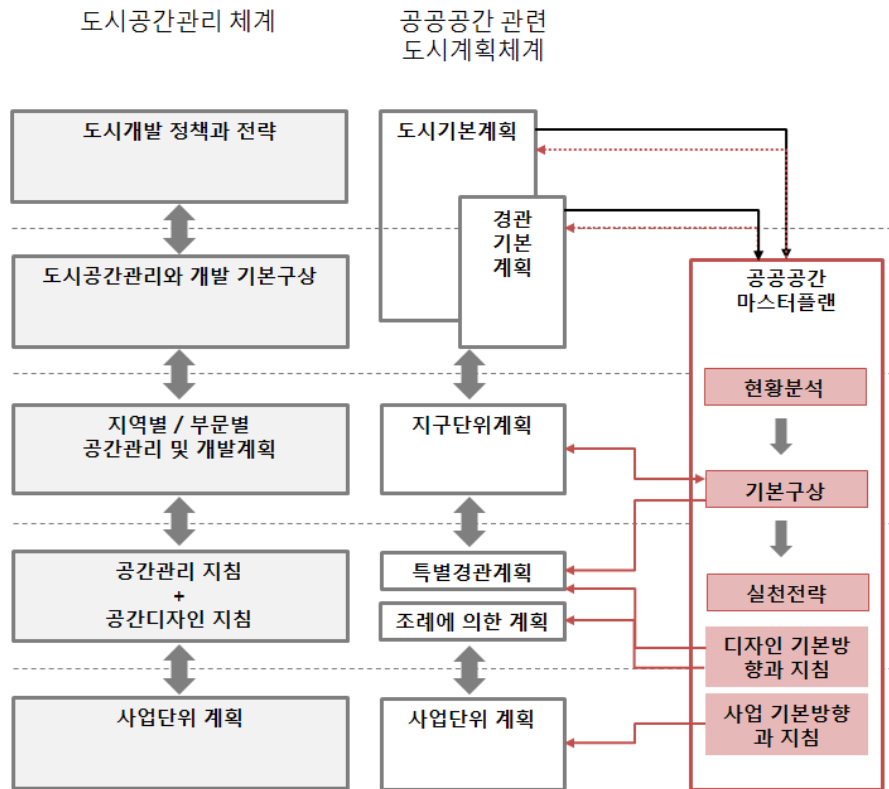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전문행정인력을 확충하여 중소도시의 행정능력을 고양하는 한편, 지역 대학이나 연구소 등 민간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전문적인 행정능력이 갖추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공공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면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이 그때, 그때의 목적에 맞추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다음은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행정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특정경관계획을 활용하여 수립하는 방안, 그리고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들에 대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보았다.

① 행정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 중 노팅엄, 코펜하겐, 에슬링엔시 모두 공공공간 관련 계획을 행정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고 있다. 행정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법정계획보다 수립절차나 운용 면에서 훨씬 유연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 비전(vision)을 그려보고 사람들과 협의하기 위한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기가 용이하며 기존의 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 행정부서들 사이에 실행지침으로 활용될 경우

지속적인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그림 129] 행정계획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활용

우리나라 중소도시에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만 있으면 수립하기 쉽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실행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이 쉽게 바뀌는 현실 아래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계획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예산 확보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공공공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적으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행력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입안자와 행정가,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행수단을 확보하고 코디네이트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관련 행정부서간 공유와 협의체제

강화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는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성패를 좌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획능력과 코디네이트 기능이 가능한 전문적인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하며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코디네이터 기능 수행이 가능한 전문행정인력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행정계획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이 가장 잘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이라는 점에 있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심층조사 대상으로 조사했던 순천시의 경우 이미 수많은 공공공간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고 담당공무원 사이에 도심지 내 주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공간관리와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이 같은 경우 행정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② 특정경관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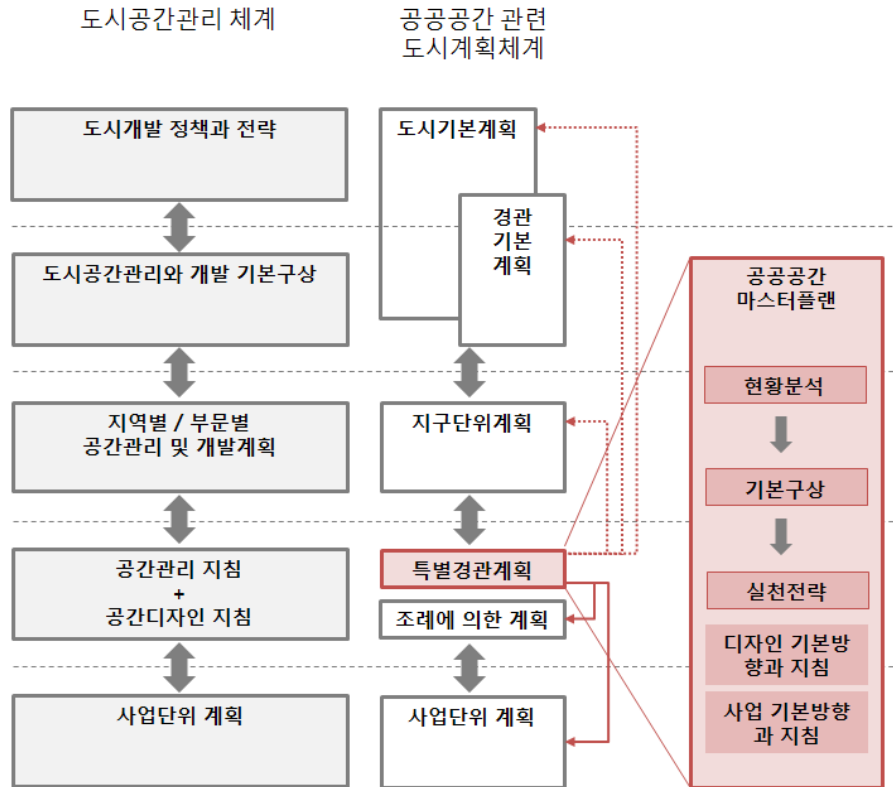
특정경관계획은 「경관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수변경관, 가로경관, 역사문화경관, 자연경관, 시가지경관 등 특정한 경관유형이나 야간경관, 색채경관, 공공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경관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계획이다.

특정경관계획의 특성상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특정경관계획을 활용하는 것은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과 수립하는 방법이나 실효성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단, 행정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특정경관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계획의 지속성과 실행력 측면에서 경관사업이나 경관협정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관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전담할 행정부서가 확보되어 있다는 측면도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특정경관계획 제도가 수립된 사례가 많지 않고 아직 그 실효성이 검증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특정경관계획의 활용 역시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좌우된다. 또한 현재 경관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의 전문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타 부서의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코디네이트 기능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별경관계획으로 수립할 경우 역시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 행정가, 시민 사이에 공공공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행정부서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밖에,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시민의 참여 촉진 방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행정인력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림 130] 특정경관계획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활용

③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

현재 중앙정부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공간 관련 사업의 수는 매우 많다. 이와 같은 사업은 부처별로 마련된 프로그램에 따라 특정사업에 대해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평가 후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가로환경개선,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변공간 관련 사업 등 가로나 수변공간 등 일정대상 공간과 시설물 위주의 지원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대상공간 또는 시설의 디자인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고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체계는 부처별 경쟁에 의해 중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는 문제점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나 종합적인 공간관리 현황을 고려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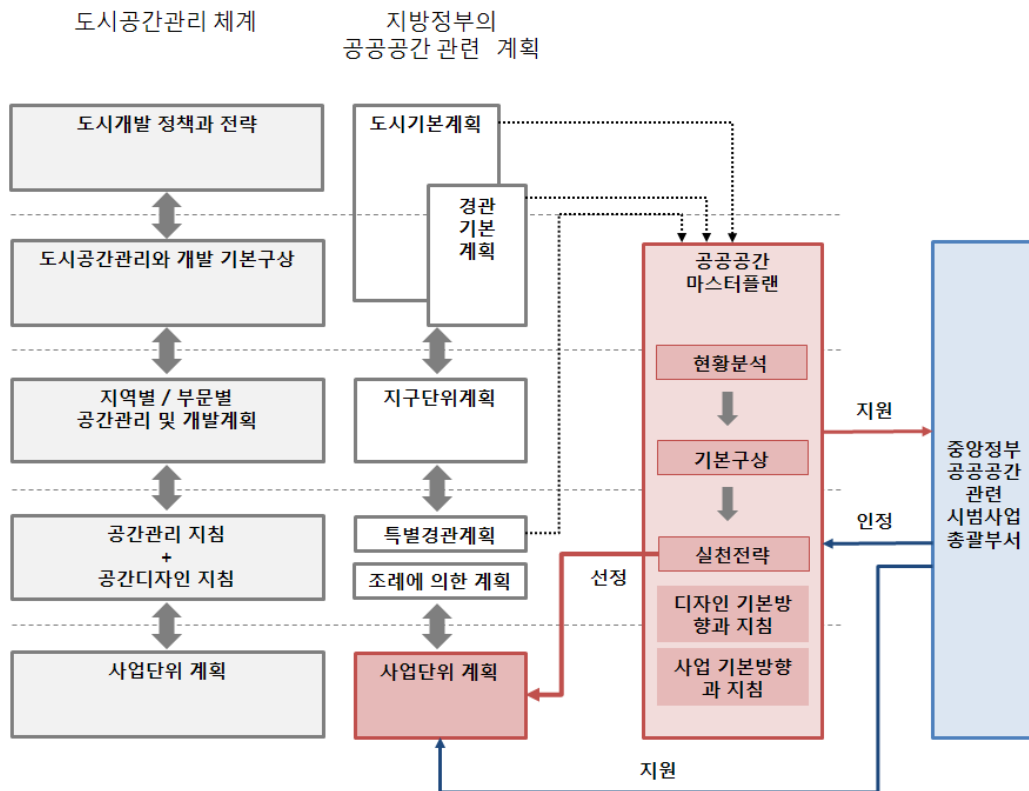
[표 27] 중앙부처별 경관향상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부처명/담당부서		주요 사업	근거법령	예산
국토 해양부	건축문화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건축기본법	15억
	첨단도로환경과	경관도로 조성 시범사업(경관도로정비)		
	도시정책과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계획법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건축문화팀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건축기본법	15억
	건축문화팀	4대강 수변공간재생 디자인		5억
	건축문화팀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		
문화 체육 관광부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사업		
	디자인공간문화과	간판문화 개선 시범사업		
	디자인공간문화과	공공디자인시범사업		
		4대강 주변도시 공공디자인 사업		174억
지식 경제부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		
		공공디자인 컨설팅 사업		
		국가환경디자인 개선 사업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한 환경색채 시범사업		
		지역디자인혁신사업 등		
행정 안전부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살기좋은지역기획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프로젝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아름마을가꾸기 사업		
	생활여건개선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등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한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이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 등과 같이 일부 지원

사업처럼 물리적인 공간사업과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시민과 협동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방안은 국내 중소도시의 여건상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이 어렵다는 점과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보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점에 착안한 활용방법이다. 즉,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의 인정제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여건에 맞는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공간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마스터플랜을 평가하여 실효성이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그림 131]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활용

이를 통해 top down 방식의 단편적인 사업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별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전제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경쟁체제에 의한 지원을 통해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도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공간 관련 중앙부처별 사업을 통합하고 일원화된 예산지원 창구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체제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종료되면 전체 계획의 실행력 역시 감퇴될 수 있으므로 지원을 받는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통한 장기적인 실행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도시재생법(가칭)」이 제정되어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면 공공공간 사업이 도시재생정책과 연계된 주요 시범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중앙정부의 시범사업과 연계한 사업계획으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확장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계획(가칭)’의 부문계획으로 공공공간 도시마스터플랜을 수립하거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행정계획으로 수립한 후 ‘도시재생계획(가칭)’과 연동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을 위한 정책제언

공공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제도적 과제들이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

- 공간관리 및 공공공간 관련 계획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 도시의 비전(vision)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비전(vision)과의 정합성 확보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각각의 실행전략을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 확보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총괄하는 담당부서 지정 및 관련 부서간 협의체제 강화
 -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부서에 관련 부서간 협의를 주관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계획간 정립성을 확보하고 사업간 연계성 강화
 - 관련 부서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을 통한 사업과 예산의 중복 방지 및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
 - 행정부서의 기획능력과 코디네이트 기능을 담당하는 전문행정인력의 확보와 전문인력의 잦은 순환보직방식 지양
- 공공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 파악과 사업성과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
 - 수요를 파악하여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공공공간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 공공공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 점진적인 공공공간의 질적인 향상 도모
-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전문가 활용
 - 지역 전문가, 혹은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한 지역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및 지속적 교류와 협의를 통한 계획의 전문성 확보

- 행정과 전문가 상인조합, NGO 등 시민단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나 워크숍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용
-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 확충
 - 공공공간 관련 정책 및 사업관련 홍보
 - 여러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한 방안 마련 : 사전협의, 워크숍, 공청회, 협의체구성 등
 - 공공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지원

□ 중앙정부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

-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을 고려하는 지원방식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프로그램별로 지원되고 있는 중앙부처별 시범사업의 예산을 일원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시급한 사업들에 대한 유연한 지원방식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 지원하는 시범사업의 성과관리체계 마련
 - 경쟁에 의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지방정부의 자생력을 점진적으로 배양
-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력 확충
 - 공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에 전문 행정인력을 확충하고 관련계획과 사업의 코디네이터로서의 권한을 부여
 - 업무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문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기간을 늘리거나 장기간 동일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제5장 결 론

1. 필요성과 기대효과

1) 국내 중소도시 공공공간 이용 실태와 현황

본 연구의 대상인 중소도시 구도심부의 주요 공공공간으로는 가로와 광장, 공원, 수변공간 등의 기반시설과 청사나 학교 등 공공시설물의 외부공간, 그리고 재래시장을 들 수 있다.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순천시, 제천시, 남원시, 거창군에서는 공통적으로 도심지 내, 특히 구도심에는 공원 및 녹지의 면적이 매우 부족하며, 집회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광장과 같은 대규모 공공공간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 조성된 밀도 높은 구도심 내에 새로운 용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대규모 공공공간 사업은 도심외곽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선택지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이나 산책로 등 새롭게 조성된 공공공간이 편중되어 있었다. 특히 구도심 내 기반시설은 환경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으며 가로의 경우 차량중심의 가로체계로 구성되어 인도가 단절되어 있거나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많은 노상 장애물 등으로 인해 보행환경이 열악하였다.

한편 규모가 작은 도심지의 경우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도심지의 경우 재래시장을 포함한 상업거리와 대규모 마트 주변으로 시민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 가로조성사업, 간판개선, 가로시설물 디자인, 전선지중화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수변공간을 활용한 산책로와 공원이 새로 조성된 경우가 많았으며 자전거도로를 새로 조성한 사례도 있다.

공공청사나 학교,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물 전면부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공원으로 조성된 경우에도 쉼터의 기능이 추가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조성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또한 청사의 이전에 따른 공지에 대한 활용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공공시설은 그러나 도심 내에 그 수가 많을 뿐 아니라 특히 학교의 경우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시설간 연계를 통한 활용잠재력이 높다고 판단된다.

2) 도심지 공공공간 관리를 통한 지역활성화와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필요성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내 공공공간에 대한 조사를 요약하면 구도심지역 내 활용 가능한 공공공간으로는 주로 가로공간과 일부 공공시설물의 외부공간이나 이전적지로, 상호 연계하고 주변의 수변공간이나 공원, 산지 등과 신시가지의 공공공간과 연계할 경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최근 공공디자인, 수변공간 개선, 자전거도로 확충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되면서 공공공간 관련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데, 지역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단위별로 독립적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협의 없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사업이 중복되기도 한다. 특히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사업보다는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나 이용률에 대한 고려는 부족하였다. 중앙부처의 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의 공공공간 사업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장기적인 비전 하에 추진되기 보다는 일회적인 요구나 정책적 판단에 의해 파편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공공간을 관리하

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현황과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제반여건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공공공간의 활용과 조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비전(vision)이 정립되어야 한다.

3)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활용 가능성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은 기존의 계획체계 내에서 행정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와 법정 계획인 특정경관계획으로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현실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계획체계 내에서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 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으로 수립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각 부처별로 실행되고 있는 공공공간 관련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비전(vision)과 실천전략 계획의 수립을 전제하고, 의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신설법이 제정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과 같이 도심지역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4) 기대효과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양한 활동을 담는 질 높은 공공공간을 제 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전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역의 물리적 자산으로서 공공공간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의 보다 직접적인 효과는 공공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조성이라 할 수 있다. 면밀한 현황분석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도출하고 도심지 개발과 관리의 방향에 맞는 비전(vision)을 마련하고 공공공간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준인 동시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됨에 따라 각 부서 별 사업의 중복을 막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국내 중소도시 도심지의 공공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담는 장으로서 질 높은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설계, 관리, 그리고 소통의 수단으로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수립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이다.

그러나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국내에서 실제적으로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활동과 커뮤니티 장으로서 도심지내 다양한 공공공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운용하는 주체로서 계획의 기획과 실행, 코디네이터 기능을 담당하고 행정부서의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다루지는 못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동력으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프로그램 위주의 중앙부처별 사업지원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원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현재 각 부처별로 지원되는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은 전제 없이 현 상황에서 공공공간 마스터플랜이 정착되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심지내 공공공간의 개선만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지의 활력을 되찾을 수는 없다.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고 환경이 쾌적한 공공공간은 많은 사람들의 이용을 끌어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공공에서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역할과 임무가 더욱 중요시된다. 이와 같은 공공공간의 개선은 도심지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각각의 지방도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 도시가 발달한 역사적 배경, 주요 산업기반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질 높은 공공공간과 더불어 외국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도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나 다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낮과 밤의 인구를 늘리는 일이며, 이는 일터와 주거가 도심지역에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일본의 경우 교외지역으로 이전시킨 공공시설들을 다시 도심지역에 배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에쓰링엔시에서는 교외에 추진중이던 대형쇼핑센터의 사업주를 설득해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 밖에도 컨퍼런스 센터와 호텔시설을 새로 조성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공간의 개선과 더불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정책은, 주거환경 개선 및 상업 및 업무시설 활성화 등 외곽지로 빠져나가는 인구를 도심지로 다시 끌어들이는 정책이다.

본 연구는 그러나 이와 같은 포괄적인 도시재생 부분까지 다루지는 않았다. 도시재생의 한 부분으로서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과 마스터플랜의 활용을 제안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진애(2008), 「김진애의 공간정치 읽기」, 서울: 서울포럼

국내문헌

• 보고서

- 강식 외(2007), 「계획적 도시개발, 정비를 위한 도시마스터플랜제도 연구」, 시정개발연구원
- 강민정 외(2008), 「도심재생을 위한 도심상업지역의 노후도 평가지표 개발」, 대한건축학외논문집, 제24권 제2호(통권232호)
- 김광우(2002), 「중심시가지 활성화 미영독 18개 도시 사례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 김운수(2006),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한배(2002), 「도시경관계획의 작성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 김해시(2008), 「김해시 도시 생활권역별 경관로드맵 계획」
- 김해시(2007), 「2020년 김해도시기본계획」
- 남원시 도시기본계획 경관부문계획 부록
- 대한도시국토계획학회(2007), 「도시계획수립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건설교통부
- 박재길 외(2006),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과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 박은관, 안용진(2005),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 배순석(200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방향과 과제」, 한국주택학회
- 서수정 외(2008),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2006), 「서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6), 「도시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7), 「시민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조성방안」

서울특별시(2006),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특별시(2006), 「주택국, 서울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자료집」

서울특별시(2005), 「서울시 경관관리 기본계획」

송상열 외1인(2006),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한국부동산학회

신용석(2005), 「공공 여가공간의 개념과 특성 및 연구방향」

신정철 외(2004),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아키텔렌종합건축사사무소(2007),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경관상세계획」

양석우 외(2007),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이상민(2007), 「도시 공공공간 개선방향 설정을 위한 개념정립 및 현황조사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희정 외(2002), 「주요 외국의 도시계획제도와 변화」,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2005),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경관기본계획」

임유경 외(2009), 「기성시가지 공공공간 현황진단모형 개발(중간 연심회 자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장경철(2008), 「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공공공간 이용 대책」

전영옥(2003), 「도시 어메니티의 개선과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정희운 외(2006), 「21세기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천시 2020 도시기본계획, 부록

조준배 외(2008), 「장소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미숙(2008),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국토연구원

최영국 외(2002),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체계의 연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설계학회(2009), 「지방 중소도시의 현주소와 도시재생 실천전략의 모색(지방중소도시 도시재생 전략세미나)」

Gale International/Posco E&C/KPF(2004), 「New City Songdo」

• 학술지

김기호 외(2006), 「대규모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공간 확충에 대한 연구(독립적인 전문설계조직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2권 제12호

방승환 외(2005), 「가로설계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외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손종우 외(1999), 「공공 공간의 도시적 의미작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19권 제2호

- 손창우 외(2007),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용도개발의 공공공간 계획 특징에 관한 연구(수용기능에 따른 특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 양선아(2003), 「남원의 토지이용 및 가로변천 연구」, 석론, 전북대학교
- 양석우 외(2007), 「도시 그린웨이 네트워크를 위한 계획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6호
- 오덕성 외(2004), 「기존도심 활성화사업의 기초적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5호(통권187호)
- 이광태(2005), 「쉐필드 구도심 중심지역의 도시경관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1권 제4호(통권198호)
- 이석우·이영해(2005), 세계의 도시 82 [중세의 미와 현대감각의 조우, 코펜하겐], 국토 .284권, 국토연구원
- 이정형·김진욱(2007), 「가로블록 구성방식에 따른 가로공간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제21 제8호
- 이주영 외(2007), 「도심재생을 통한 현대 공공공간의 활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이훈길 외(2003), 「서울 도심 공공영역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 장정철 외(2006), 「대규모 도시개발과정에서 공공공간 확충에 대한 연구(독립적인 전문설계조직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제12호(통권 218호)
- 정요한 외(2007), 「공공영역 및 토지이용을 중심으로 한 도심재생 사례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 정재용 외(2007), 「도시재생을 위한 복합용도개발의 공공공간 계획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7권 제1호
- 장희명 외(2008), 「기존도심 활성화 방안에서의 사용자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4권 제3호(통권233호)
- 최정선 외(2006), 「도시계획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한 경관관리제도 정비방향 연구(일본 경관관리제도와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7권제2호
- 하해진·이현호(2005), 「도시계획 관련제도 고찰을 통한 효율적 도시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1권 제 11호

- 학위논문

- 김대성(2003), 「도시개발 방식의 유연화에 관한 연구(공공목표와 시장수요의 조화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논문
- 신연(2006), 「서울시 특별계획구역의 공간시설 구성에 관한 연구(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을 중심으로)」

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우진(2006), 「도시 그린웨이 계획에 관한 연구(뉴욕, 밴쿠버, 시애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단행본

김기호·문국현(2004), 「세계 도시에서 배우다 - 도시의 생명력, 그린웨이」, 랜덤하우스중앙

해외문헌

- 단행본

ARCHITECTURE+URBANISM UNIT(2005), 「Civilizing Spaces」, NLA

Annie Boyer(1994), 「Am nager les espaces publics : le mobilier urbain」, Le Moniteur

Arbeitsgemeinschaft der Stadtplanungsämter im Staedtetag Baden-Wuerttemberg, Quo Vadis Stadt-Planung

Arella Masbouni(2002), 「Projects Urbains en France, Le moniteur」

CABE(2005), 「Making Design Policy」

CABE(2004), 「The Value of Public Space」

City of Philadelphia(2008), 「Five-Year Financial and Strategic Plan for Fiscal Years 2009-2013」

Delaware River City Corp(2005), 「North Delaware Riverfront Greenway」, the Philadelphia Environmental Council

GEHL ARCHITECTS(2007), 「World class streets: Remarking New York City's public realm」, New York Cit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GEHL ARCHITECTS(2008), 「A METROPOLIS FOR PEOPLE」, City of Copenhagen

Helle Soholt 외(2005), 「Tallaght-towards tomorrow's town centre」, GEHL ARCHITECTS

Henry Chabert(1993), 「Espaces Publics- Espaces De Vie」, Horvath

Jan Gehl & Lars Gemzoe(2000), 「New City Spaces」,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Jan Gehl(2003), 「Life between buildings」,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Jan Gehl & Lars Gemzoe(1996), 「Public spaces public life, copenhagen」, The Danish Architectural Press &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 School of Architecture Publishers

Jan Gehl, 「Public Spaces for a Changing Public Life」

Jean-Baptiste Vaquin(2005), 「Paris Project」, Atelier Parisien D'urbanisme

Jerold S. Kayden(2000),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Wiley

Northern Liberties Neighborhood Association(2007), 「Northern Liberties Waterfront Plan」

Kristine F. Miller(2007), 「Designs on the Public : The Private Lives of New York's Public Spaces」, Minnesota

Landeshauptstadt Stuttgart(2006), 「Stufen der Raeumlichen Planung in Stuttgart」, Arbeitspapiere zur Stadtentwicklungsplanung

London borough of Richmond upon Thames(2006), 「Public Space 도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

NKCDC, WRT(2008), 「New Kensington Riverfront Plan」, NKCDC

Nottingham City Centre and Urban Design(2005), 「NOTTINGHAM 도심 마스터플랜(City Centre Masterplan) 2005-2015」, Nottingham City Council

Nottingham City Council(2009), 「Nottingham city centre urban 도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

Nottingham City Development Department(2005), 「Nottingham local plan」, Nottingham City Council

Pavillon De L'arsenal(2006), 「Paris en ile-de-France」, Histories Communes

Roger Narbonu(1997), 「La Lumi re Urbaine, Le Moniteur」

Setha Low & Neil Smith(2006),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Routledge

Sharon Zukip(1995), 「The Culture of Cities」, Blackwell

Simon Texier(2006), 「Voies Publiques : Histoires & Pratiques de l'Espace public Paris」, Picard

Stadt Esslingen am Neckar(2002), Modell Esslinger Innenstadt - Oeffentliche Raeume, Urbane Renaissance durch Vernetzung

Stadt Esslingen am Neckar(2003), Lichtleitplanung fuer die Innenstadt - Esslingen am Neckar

Stadt Esslingen am Neckar(2004), Modell Esslinger Innenstadt - Oeffentliche Raeume

Stadt Esslingen am Neckar(2004), Leitplanung StraBen und Plaetze fuer die Innenstadt Esslingen am Neckar

Stadt Esslingen am Neckar(2004), Moeblierungskatalog Historische Innenstadt - Esslingen am Neckar

Stadt Esslingen am Neckar(2008), Stadtstrategie ES2027 - Dokumentation der Buergerbeteiligung von November 2007 bis August 2008

Stadt Esslingen am Neckar(2008), Gestaltungsrichtlinien – Private Sondernutzungen im Oeffentlichen Raum

Stephen Carr(1993), 「Mark Francis, Public Spa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URBED(2009), 「NOTTINGHAM CITY CENTRE URBAN 도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 Nottingham City Council

Virginie Picon-Lefebvre(1997), 「Les espaces publics modernes」, Le Moniteur

- 보고서

나가오카시(2009), 「나가오카 광역시민의 '경사스런 자리'가 될 새로운 나가오카의 얼굴만들기」, 중심시가지 지구도시재생정비계획

나가오카시(2008),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

일본내각(2007),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지침

ALSOP Architects(2005), 「Bradford City Center 도시 디자인 가이드(Design Guide)」, Bradford Council

- 학술지

나카데 분페이, 「나가오카 중심시가지 활성화 계획의 지역전문가」, 일본 나가오카대학 교수

나카데 분페이(2007), 「도시, 거리, 시내, 가다림... - 중심시가지재생의 이론적 배경」, 경제교통문제논집 "지혜의 힘", 나이가타현 경제교통문제연구소

- 인터넷

URA 홈페이지 (<http://www.ura.gov.sg>)

<http://de.wikipedia.org>

<http://www.alsoparchitects.com/>

<http://www.design-nottingham.org/>

<http://www.esslingen.de>

<http://www.ifez.go.kr>

<http://www.gehlarchitects.com>

http://www.grandlyon.com/index.11.0.html?&no_cache=1

<http://makephopecity.com>

<http://www.nottinghamcity.gov.uk>

<http://www.portlandonline.com/portlandplan>

A Study on methods of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as a strategy for urban revitaliz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chah, Chu Young
Lim, Hyun Sung
Lee, Sang Min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regeneration of local communities are increasingly recognized as important social problems. In this situation,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public space are acutely needed as a strategy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of old urban areas.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methods of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as an alternative proposal against the absence of spatial plan and systematic strategy in the area of construction, use and management of urban public space.

In order to promote the project of public space successfully, first and foremost, the systematic management and continuous improvement of public space are essential. It is possible to perform an important role to suggest basic direction for local revitalization and urban revitalization. As a method for this investigation, the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could be a rough sketch for how public space in a specific area can be constructed and managed. The roles of a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could be divided into the method for design, the method for communication and the method for space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not only a design method to express and explain basic directions, concepts and guidelines of public space through texts, drawings and images after analyzing local conditions but also involves a communication method to negotiate with multiple stakeholders.

This research selected examples of international cities that have tried to revitalize urban areas by making public space and have well formulated plans institutionally, and examined these construction processes to understand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 Four citi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as examples.

Copenhagen in Denmark where they continuously changed public space in urban area in favour of pedestrians since 1960s. Nottingham in the United Kingdom and Esslingen am Neckar in Germany where they revitalized old business districts and lagging urban spaces through the improvement of old public space where people can congregate. Nagaoka in Japan where they have a revitalization plan for urban center through complex public projects on the strength of national policy. From these examples, we arrived at five implications.

Firstly, the role of public space has changed to a competitive element, and its importance is increasing. Secondly, the flexible planning systems share the established vision, and the roles between plans are distinguished clearly. Thirdly, the careful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continuous reviews and monitoring systems of the existing urban area operate at the same time. Fourthly, the multiple participation methods are stimulated. Finally, there are collaborative systems between departments i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y have professionalism.

In order to examine the problems of public space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 Korea, the typology of public space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ose are public space as an urban infrastructure, public space relating to public space and public space where is managed and owned jointly by private and public sectors like traditional market.

Legal management systems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could be divided into legal plan and illegal plan. In addition, in the case of legal plan, it could be divided into the plans which are established at urban scale and the other plans which are established by business sector. These plans are made and implemented slight differently by the aim of the plan, agent and law, and the discussion and cooperation between agents are insufficient.

Main works of public space are dispersed to some departments by its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because it needs different functions and management.

This research selected four cities in Korea by its population size to investigate the plans and management systems of public space in urban area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field surveys and interviews with public officers were implemented and we abstracted eight problems.

Firstly, the absence and inequality of public space by public space projects of the outside of old urban center. Secondly, the demand for changing from car based road system to pedestrian based road system. Thirdly, the need for recycling in the existing urban areas where public spaces are lacking. Fourthly, the demand for the aggressive improvement of old central business district as revitalizing public space. Fifthly, the decrease of continuous effects by the shortage of connection between projects (rephrase). Sixthly, the decrease of effectiveness through a limited budget for public space. Seventhly, the need of comprehensive management for understanding current conditions of public space. Eighthly, the absence of validity for related plans for public space. This research suggests the parts of the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as an integrated manage method which is based on the implications from case studies and plans that can be related to the existing spatial management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s.

There are some preconditions for an efficient use of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First of all, a bond of sympathy about the necessity for public space should be developed for diverse activities and the field of communication in urban areas. Second, it needs to reinforce the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department to make plans for public space and implement it. Third, it is important to make fundamental condi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ublic space by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and active participation.

The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is composed of the analysis of current conditions, basic strategy and action plan which includes spatial design and related details for projects. Also, the continual feed-back system is essential to interconnect between plans organically. Increasing professionalism of administrative department, utilization and making the negotiation system with local residents and experts are crucial to manage plans effectively and to have executive ability

There are three ways to use the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At first, it is possible to make a plan as an administrative plan in the existing planning system. Secondly, it can be planned and used to specific landscape plan as in-law plan. Lastl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plan linked with supporting plan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because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have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re are some policy issues which are needed to operate the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successfully at central government level and local government level.

At local government level, firstly, it should define the role of spatial management and related plans of public space, and reinforce its relationship. Secondly,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which has a responsibility for the master plan for public space should be clearly designated and the negotiation system between departments has to be improved. Thirdly, the management system to check current conditions of public space and assess the outcome of project should be set up. Fourthly, local experts have to perform an important role to understand local characteristics. Fifthly, the method for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should be developed. At central government level, firstly, it is important to make a supporting system which considers the local identity of each local area. Secondly, a supporting system which fosters the power of local level should be established. Finally, there is a need to expand human resources for special administrative officers who can perform a role of coordinator.

Key word : Public space, Masterpla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Integration scheme

부록1. 1차 중소도시 선별과정

□ 인구 20-30만 도시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경 기 도	군 포 시	100.00000	0.02507	1.67241	100.00
	광 주 시	39.96984	0.01197	0.05628	58.01
	김 포 시	31.18249	0.00540	0.28542	53.77
강 원 도	춘 천 시	29.82649	0.01054	0.13538	96.28
	강 릉 시	7.38617	0.01043	0.14977	86.17
충청북도	충 주 시	9.86277	0.00810	0.22378	80.51
충청남도	아 산 시	15.74263	0.00676	0.42074	79.30
전라북도	군 산 시	45.44493	0.00456	0.70351	84.38
전라남도	여 수 시	33.80700	0.00337	0.28249	93.19
	순 천 시	21.23161	0.00978	0.29409	90.62
	목 포 시	100.00000	0.01057	1.75620	100.00
경상북도	경 주 시	30.63018	0.00552	0.19438	83.13
	경 산 시	25.23729	0.00909	0.37214	87.79
경상남도	양 산 시	62.47563	0.00554	0.54246	98.27

1. 도시지역면적/전체면적

No.	도구분	시구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업면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시화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강원도	강릉시	7,38617	0.01043	0.14977	86.17
2	충청북도	충주시	9,86277	0.00810	0.22378	80.51
3	경상남도	거제시	14,13040	0.00843	0.22884	82.03
4	충청남도	아산시	15,74263	0.00676	0.42074	79.30
5	전라남도	순천시	21,23161	0.00978	0.29409	90.62
6	경상북도	경산시	25,23729	0.00909	0.37214	87.79
7	강원도	춘천시	29,82649	0.01054	0.13538	96.28
8	경상북도	경주시	30,63018	0.00552	0.19438	83.13

2. 도시지역밀도

No.	도구분	시구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업면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시화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강원도	춘천시	29,82649	0.01054	0.13538	96.28
2	강원도	강릉시	7,38617	0.01043	0.14977	86.17
3	전라남도	순천시	21,23161	0.00978	0.29409	90.62
4	경상북도	경산시	25,23729	0.00909	0.37214	87.79
5	경상남도	거제시	14,13040	0.00843	0.22884	82.03
6	충청북도	충주시	9,86277	0.00810	0.22378	80.51

3. 상업지역면적/전체면적

No.	도구분	시구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업면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시화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경상북도	경산시	25,23729	0.00909	0.37214	87.79
2	전라남도	순천시	21,23161	0.00978	0.29409	90.62
3	경상남도	거제시	14,13040	0.00843	0.22884	82.03
4	충청북도	충주시	9,86277	0.00810	0.22378	80.51

4. 도시화율

No.	도구분	시구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업면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시화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전라남도	순천시	21,23161	0.00978	0.29409	90.62
2	충청북도	충주시	9,86277	0.00810	0.22378	80.51

□ 인구 10-20만 도시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경 기 도	이 천 시	17,59246	0,01690	0,11721	68,09
	구 리 시	100,00000	0,02825	1,19592	100,00
	양 주 시	34,28579	0,01171	0,05787	40,00
	안 성 시	28,16510	0,01071	0,08846	78,80
	포 천 시	4,25228	0,01087	0,06118	43,88
	오 산 시	100,00000	0,01281	2,36251	100,00
	하 남 시	100,00000	0,01530	0,29628	100,00
	의 왕 시	100,00000	0,02232	0,38954	100,00
	여 주 군	3,78364	0,01510	0,03641	49,00
충청북도	청 원 군	22,09526	0,00471	0,14431	54,12
	제 천 시	6,36606	0,01128	0,10619	80,52
충청남도	서 산 시	24,14923	0,00306	0,11927	59,63
	당 진 군	12,19003	0,00369	0,05991	44,21
	논 산 시	8,75302	0,00875	0,12242	58,63
	공 주 시	5,66741	0,00972	0,05004	50,76
	보 령 시	5,47998	0,00885	0,09811	61,91
전라북도	정 읍 시	6,58927	0,00572	0,17917	63,68
전라남도	광 양 시	35,23660	0,00188	0,34548	88,79
경상북도	안 동 시	4,75112	0,00780	0,10379	72,41
	김 천 시	6,00778	0,00559	0,15851	72,18
	칠 곡 군	32,61157	0,00622	0,11986	89,94
	영 주 시	7,40802	0,00753	0,19535	78,91
	상 주 시	3,99680	0,00517	0,08835	59,57
	영 천 시	5,98004	0,00652	0,09765	76,32
경상남도	진 해 시	100,00000	0,00739	1,75674	100,00
	통 영 시	6,88920	0,00816	0,13615	84,73
	사 천 시	19,84143	0,00545	0,24305	84,96
	밀 양 시	7,19019	0,00564	0,10677	55,26
제 주 도	서귀포시	19,13477	0,00517	0,19582	84,25

1. 도시지역면적/전체면적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경 기 도	여 주 군	3,78364	0,01510	0,03641	49,00
2	경상북도	상 주 시	3,99680	0,00517	0,08835	59,57
3	경 기 도	포 천 시	4,25228	0,01087	0,06118	43,88
4	경상북도	안 동 시	4,75112	0,00780	0,10379	72,41
5	충청남도	보 령 시	5,47998	0,00885	0,09811	61,91
6	충청남도	공 주 시	5,66741	0,00972	0,05004	50,76
7	경상북도	영 천 시	5,98004	0,00652	0,09765	76,32
8	경상북도	김 천 시	6,00778	0,00559	0,15851	72,18
9	충청북도	제 천 시	6,36606	0,01128	0,10619	80,52
10	전라북도	정 읍 시	6,58927	0,00572	0,17917	63,68
11	경상남도	통 영 시	6,88920	0,00816	0,13615	84,73
12	경상남도	밀 양 시	7,19019	0,00564	0,10677	55,26

2. 도시지역밀도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경기도	여주군	3,78364	0,01510	0,03641	49,00
2	충청북도	제천시	6,36606	0,01128	0,10619	80,52
3	경기도	포천시	4,25228	0,01087	0,06118	43,88
4	충청남도	공주시	5,66741	0,00972	0,05004	50,76
5	충청남도	보령시	5,47998	0,00885	0,09811	61,91
6	경상남도	통영시	6,88920	0,00816	0,13615	84,73
7	경상북도	안동시	4,75112	0,00780	0,10379	72,41
8	경상북도	영천시	5,98004	0,00652	0,09765	76,32
9	전라북도	정읍시	6,58927	0,00572	0,17917	63,68
10	경상남도	밀양시	7,19019	0,00564	0,10677	55,26

3. 상업지역면적/전체면적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전라북도	정 읍 시	6.58927	0.00572	0.17917	63.68
2	경상남도	통 영 시	6.88920	0.00816	0.13615	84.73
3	경상남도	밀 양 시	7.19019	0.00564	0.10677	55.26
4	충청북도	제 천 시	6.36606	0.01128	0.10619	80.52
5	경상북도	안 동 시	4.75112	0.00780	0.10379	72.41
6	충청남도	보 령 시	5.47998	0.00885	0.09811	61.91
7	경상북도	영 천 시	5.98004	0.00652	0.09765	76.32
8	경 기 도	포 천 시	4.25228	0.01087	0.06118	43.88

4. 도시화율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전라북도	통 영 시	6.88920	0.00816	0.13615	84.73
2	충청북도	제 천 시	6.36606	0.01128	0.10619	80.52
3	경상북도	영 천 시	5.98004	0.00652	0.09765	76.32
4	경상북도	안 동 시	4.75112	0.00780	0.10379	72.41

□ 인구 5-10만 도시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경 기 도	동두천시	34,57897	0,00968	1,08475	81,84
	양 평 군	5,42908	0,01107	0,06385	43,03
	과 천 시	100,00000	0,01854	0,43209	100,00
	가 평 군	9,94641	0,00628	0,05335	58,28
강 원 도	동 해 시	62,71333	0,00409	0,86210	99,44
	속 초 시	33,79211	0,01008	1,67342	98,27
	삼 척 시	6,00777	0,00446	0,07785	80,92
	홍 천 군	1,66541	0,00785	0,02057	54,17
충청북도	태 백 시	21,94994	0,00455	0,33967	90,74
	음 성 군	4,38009	0,00500	0,09905	53,33
	진 천 군	4,21405	0,00768	0,12301	55,44
	옥 천 군	10,11890	0,00660	0,07254	71,56
충청남도	영 동 군	3,52113	0,00509	0,04343	49,87
	홍 성 군	6,29211	0,00853	0,09665	55,52
	예 산 군	6,21294	0,00732	0,07714	48,24
	연 기 군	16,93099	0,01174	0,07923	68,53
전라북도	부 여 군	7,07859	0,00805	0,08726	40,85
	태 안 군	3,76068	0,00454	0,19239	46,32
	서 천 군	8,93472	0,00151	0,34035	45,24
	금 산 군	5,08917	0,00538	0,06606	48,39
전라남도	김 제 시	7,49427	0,00460	0,14792	42,39
	남 원 시	3,97086	0,00696	0,13108	62,07
	완 주 군	18,35132	0,00405	0,06900	53,03
	부 안 군	9,50045	0,00369	0,10908	48,33
경상북도	고 창 군	5,23724	0,00442	0,08161	40,72
	나 주 시	16,96142	0,00241	0,21686	47,66
	해 남 군	2,81914	0,00516	0,03850	30,72
	고 흥 군	2,56679	0,00460	0,04664	26,52
경상남도	화 순 군	9,40759	0,00834	0,07079	70,52
	무 안 군	6,08200	0,00243	0,20252	31,00
	영 암 군	14,36626	0,00138	0,16062	51,07
	영 광 군	7,97687	0,00481	0,12440	73,92
경상북도	완 도 군	2,41405	0,00935	0,05615	61,90
	보 성 군	3,00758	0,00771	0,07329	51,12
	문 경 시	4,11049	0,00481	0,13470	64,05
	의 성 군	2,77067	0,00387	0,04420	33,40
경상남도	울 진 군	4,74288	0,00356	0,08562	63,86
	함 안 군	8,46381	0,00445	0,10754	52,75
	거 창 군	3,87467	0,00771	0,04324	65,30
	창 념 군	8,96176	0,00508	0,11447	53,05
경상남도	고 성 군	2,38489	0,00747	0,02779	49,89
	합 천 군	2,39359	0,00510	0,03158	33,14
	하 동 군	1,20482	0,00716	0,03050	35,19
	남 해 군	2,20568	0,01089	0,02801	26,30

1. 도시지역면적/전체면적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경상남도	하 동 군	1,20482	0.00716	0.03050	35.19
2	강 원 도	홍 천 군	1,66541	0.00785	0.02057	54.17
3	경상남도	남 해 군	2,20568	0.01089	0.02801	26.30
4	경상남도	고 성 군	2,38489	0.00747	0.02779	49.89
5	경상남도	합 천 군	2,39359	0.00510	0.03158	33.14
6	전라남도	완 도 군	2,41405	0.00935	0.05615	61.90
7	전라남도	고 흥 군	2,56679	0.00460	0.04664	26.52
8	경상북도	의 성 군	2,77067	0.00387	0.04420	33.40
9	전라남도	해 남 군	2,81914	0.00516	0.03850	30.72
10	전라남도	보 성 군	3,00758	0.00771	0.07329	51.12
11	충청북도	영 동 군	3,52113	0.00509	0.04343	49.87
12	충청남도	태 안 군	3,76068	0.00454	0.19239	46.32
13	경상남도	거 창 군	3,87467	0.00771	0.04324	65.30
14	전라북도	남 원 시	3,97086	0.00696	0.13108	62.07
15	경상북도	문 경 시	4,11049	0.00481	0.13470	64.05
16	충청북도	진 천 군	4,21405	0.00768	0.12301	55.44
17	충청북도	음 성 군	4,38009	0.00500	0.09905	53.33
18	경상북도	울 진 군	4,74288	0.00356	0.08562	63.86

2. 도시지역밀도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경상남도	남 해 군	2,20568	0.01089	0.02801	26.30
2	전라남도	완 도 군	2,41405	0.00935	0.05615	61.90
3	강 원 도	홍 천 군	1,66541	0.00785	0.02057	54.17
4	전라남도	보 성 군	3,00758	0.00771	0.07329	51.12
5	경상남도	거 창 군	3,87467	0.00771	0.04324	65.30
6	충청북도	진 천 군	4,21405	0.00768	0.12301	55.44
7	경상남도	고 성 군	2,38489	0.00747	0.02779	49.89
8	경상남도	하 동 군	1,20482	0.00716	0.03050	35.19
9	전라북도	남 원 시	3,97086	0.00696	0.13108	62.07
10	전라남도	해 남 군	2,81914	0.00516	0.03850	30.72
11	경상남도	합 천 군	2,39359	0.00510	0.03158	33.14
12	충청북도	영 동 군	3,52113	0.00509	0.04343	49.87
13	충청북도	음 성 군	4,38009	0.00500	0.09905	53.33
14	경상북도	문 경 시	4,11049	0.00481	0.13470	64.05

3. 상업지역면적/전체면적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경상북도	문 경 시	4,11049	0.00481	0.13470	64.05
2	전라북도	남 원 시	3,97086	0.00696	0.13108	62.07
3	충청북도	진 천 군	4,21405	0.00768	0.12301	55.44
4	충청북도	음 성 군	4,38009	0.00500	0.09905	53.33
5	전라남도	보 성 군	3,00758	0.00771	0.07329	51.12
6	전라남도	완 도 군	2,41405	0.00935	0.05615	61.90
7	충청북도	영 동 군	3,52113	0.00509	0.04343	49.87
8	경상남도	거 창 군	3,87467	0.00771	0.04324	65.30
9	전라남도	해 남 군	2,81914	0.00516	0.03850	30.72
10	경상남도	합 천 군	2,39359	0.00510	0.03158	33.14

4. 도시화율

No.	도 구 분	시 구 분	도시지역면적/ 전체 면적	도시지역 밀도 (1/1인당 도시지역면적)	상 업 면 적 ((중심+일반상업)/전체 면적)	도 시 화 율 (도시지역 인구기준)
1	경상남도	거 창 군	3,87467	0.00771	0.04324	65.30
2	경상북도	문 경 시	4,11049	0.00481	0.13470	64.05
3	전라북도	남 원 시	3,97086	0.00696	0.13108	62.07
4	전라남도	완 도 군	2,41405	0.00935	0.05615	61.90
5	충청북도	음 성 군	4,38009	0.00500	0.09905	53.33
6	전라남도	보 성 군	3,00758	0.00771	0.07329	51.12

부록2. 12개 중소도시 도시기본계획 내용요약

1. 순천도시기본계획
2. 충주도시기본계획
3. 안동도시기본계획
4. 정읍도시기본계획
5. 제천도시기본계획
6. 통영도시기본계획
7. 거창군중장기발전계획
8. 남원도시기본계획
9. 문경도시기본계획
10. 보성군종합개발계획

□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 경관지구 특성화
- 경관체계의 시스템화
- 경관형식의 다양화
- 경관제도 및 관리체계의 개선

□ 경관형성을 위한 단계별 실천프로그램 수립

③ 공원·녹지

□ 추진전략 및 실천계획

- 지속가능하며 건강한 생태도시를 위한 자연 친화적 녹지공간 계획
 - 주월산-조계산-백운산 산림녹지축과 동천, 옥천천 등 수변녹지축
- 주변 산악 및 하천, 호수, 시내 녹지를 연계한 Green-Network계획
 - 동천, 옥천천 등은 도심을 지나는 녹지축으로 적극 보존
- 지역성을 고려한 공원·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의 향상계획
 - 12.5㎡/인을 바탕으로 도시공원 면적 조성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생물공생계획
 - 생태이동통로(Eco-corridor), 에코브릿지(Eco-bridge), 녹도(Green-way), 실개천(small brook)
- 훼손된 생물서식처 복원
- 인간과 물이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조성계획
 - 시가지를 관통하는 동천, 옥천천변을 생태하천으로 조성
 - 보행녹도 및 자전거도로 확보
 - 해양 중심으로 여수-순천-광양
 - 보성강을 중심으로 보성-순천-곡성 등 광역화차원의 녹도의 조성 및 자전거도로의 연계화

□ 공원·녹지계획

i) 공원계획

- 국토계획의 12.5㎡/인, 광역계획의 16.0㎡/인의 기준을 충족하는 공원면적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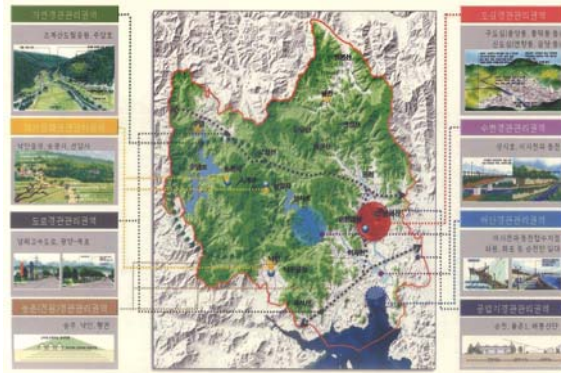
ii) 녹지계획

- 순천만 제방 숲길조성
- 광양만과 육상 녹지거점의 연결
- 남산 등 원도심 주변 녹지와 동천을 잇는 녹지축의 복원

④ 도심·주거환경

□ 택지개발사업

- 왕조운곡지구
- 조례연동지구
- 풍덕1·2지구
- 신대지구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추진전략

추진전략	실천프로그램	실천단계(시점)		
		1	2	3
산악·주요하천·주요하천의 보전과 활용	주요 산악축 육성	●		
	경관지구 지정		●	
	산림 조망 확보	●		
자연형 하천·하천의 보전과 활용	하천·하천축 육성	●	●	
	중소하천·하천개천	●		
	수변공간·지구단위계획수립	●		
역사문화·관광의 보전 및 활용	역사문화·관광의 보전 및 활용	●		
	역사문화·관광의 보전 및 활용		●	
	경관조형		●	
불량·녹지·녹지	녹지	●	●	
	농촌·농촌지정	●		
	농촌·농촌지정	●		
경관제도 및 관리체계의 개선	경관제도 및 관리체계의 개선	●		
	경관제도 및 관리체계의 개선	●		
	경관제도 및 관리체계의 개선	●		

주) 단계구분: 1단계 (2003~2010), 2단계 (2011~2015), 3단계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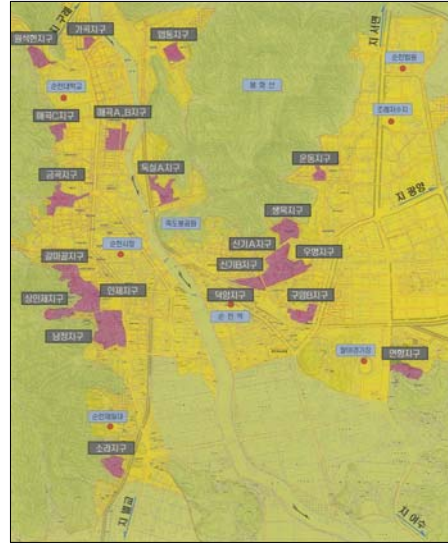
[그림 1] 경관형성을 위한 단계별 실천 프로그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총 26개, 영옥, 저전, 매곡, 율전지구는 준공단계, 수암A지구는 공사추진 중

□ 시가지 활성화 계획

- 삼산동-매곡동
 - 매곡주공1단지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향동
 - 철거재개발, 고급빌라, 고급주택 전문주거단지로 육성
- 중앙동
 - 문화의 거리조성
- 장천동
 - 원룸형 주택 또는 오피스텔 등으로 리모델링
- 저전동
 - 도시기반 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 남제동
 - 신혼교육의 중심지, 원룸형 오피스텔
- 풍덕동
 - 도시계획시설 개선·정비로 신도심, 순천역, 기존도심 연계체계강화
- 조곡동
 - 순천역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재정비로 친화적 순천시 이미지 창출
 - 죽도봉 공원을 동천과 연계
 - 죽도봉 공원과 팔마탑, 연자루, 환선정, 강남정을 연계한 도심 내 관광 명소화
 - 동천 및 옥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도



기존도심 현황 및 문제점

시가지 활성화 계획

2. 충주도시기본계획(2020년)

1)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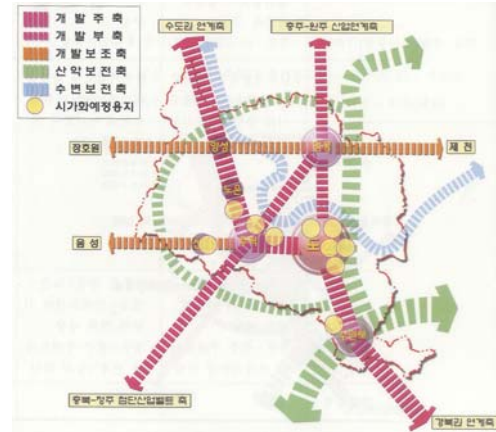
① 계획목표

□ 계획의 목표 : 중원문화 중심도시 충주

- 생태호반도시 : 충주청, 교현천, 요도천
- 첨단기업도시 : 내륙첨단산업벨트(서울-이천-충주-구미), 첨단지식산업벨트(오송-오찬-청주-충주-제천)의 교차지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로 조성
- 관광·휴양도시
- 역사문화도시

② 공간구조

- 기존도심과 각 생활권 중심인 3개 지역 중심 주 개발축 설정, 개발·보존축 체계 구상도
- 2020년 충주도시기본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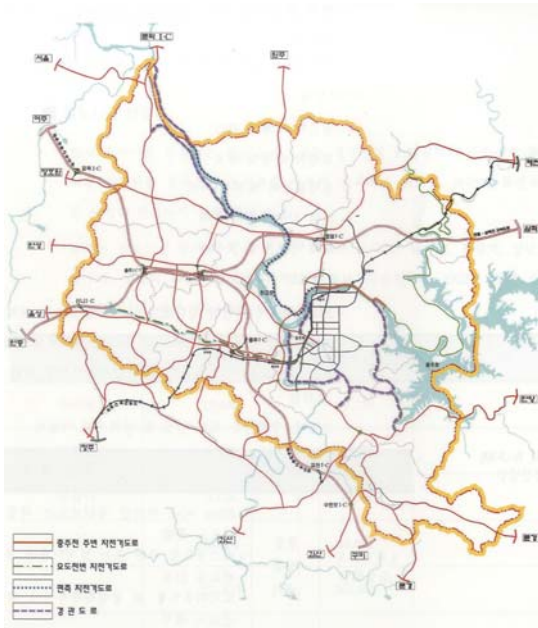
개발 · 보존축 체계 구상도

2) 부문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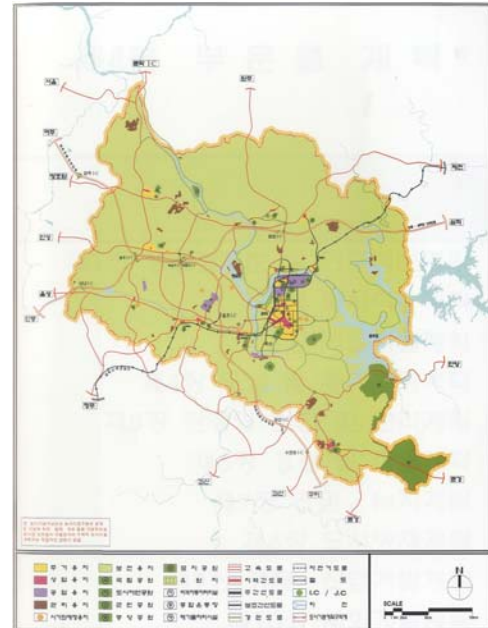
① 교통

□ 자전거도로망계획

- 충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 2006.3, 충주시 의 계획안 수용



시가지와 자전거전용도로 계획도



2020년 충주도시기본구상도

□ 보행자도로계획

- 도심지역에 대해 보행자 전용도로, 보차분리, 노상에 방치된 보행저해 시설물 정비

② 경관

□ 도시경관의 목표 및 기본방향

- 자연경관 보전 : 아름다움
 - 시각적 우수성을 확보, 자연과 인공의 조화
- 역사·문화경관 계승 : 정체성
 - 충주 대표경관 선별 및 활용, 고유한 디자인 특성 확보
- 인문·사회경관 형성 : 쾌적성
 - 경관요소들간의 조화와 통일감형성을 통한 경관의 질 향상

□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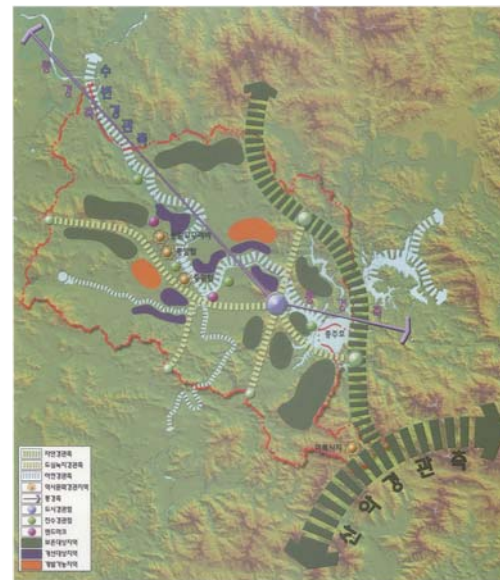
- 자연경관에 대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 인공경관에 대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 역사와 문화의 경관관리 계획 수립
 - 건축물 높이에 대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 충주시 특성을 반영한 4가지 도시 스카이라인 관리 개념을 설정하고 관리방안 검토
 - 가로조망, 도심조망, 신개발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의 경관관리 검토
- 도로·철도 축 선상의 경관관리 계획 수립
- 조망점계획
 - 자연경관
 - 충주호, 남한강, 탄금대, 달천강, 남산, 계명산
 - 인공경관
 - 충주시청, 시외터미널, 공설운동장, 충주역, 제1·2로터리
 - 도로·철도축 경관

□ 경관관리계획

- 경관권역의 설정
 - 보존대상지역
 - 남산·계명산 산악경관지역
 - 충주호·남한강 수변경관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경관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
 - 개선대상지역
 - 도심부 가로 및 하천부 재래시장 지역
 - 주요결절부
 - 주요개발지역
 - 유해경관 시설물 분포지역
 - 개발가능지역
 - 지역발전특구 사업대상지역
 - 문화재 관광중심지 발전 잠재력이 높은 지역
 - 진입거점으로 상징성이 결여된 지역
- 자연경관 관리계획
 - 산림축 경관관리
 - 인공녹지축 경관관리
 -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호암공원, 탄금대공원, 직동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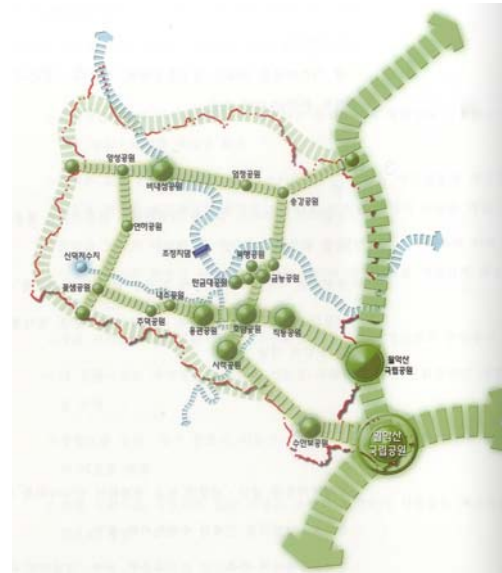


시가지내 자전거전용도로



경관관리 계획도

- 가로수의 경관적 관리방안
- 보호수의 경관적 관리방안
- 건축물의 외곽부 경관녹화방안
- 녹지네트워크 구축
- 수변축 경관관리
 - 충주호 및 남한강 등(현 상태의 유지·보전, 수변 경관지구지정 또는 건축법의 사전승인신청제도, 충주호, 탄금호, 달천강, 남한강변의 건축행위 관리)
 - 주요하천의 경관관리(충주천, 교현천)
- iii) 인공경관 관리계획:
 - 역사문화 경관관리
 - 중원역사문화 중심인 중앙탑 일원과 미륵사지 등에 대하여 경관계획 수립
 - 건축물 높이에 대한 경관관리
 - 충주시 스카이라인 관리방안
 - 옥외시설물 경관관리
 - 경관색채 및 경관조명
- iv) 도로·철도축 경관 관리계획
 - 조망점 별 가시권의 경관관리계획
 - 진입부 경관관리계획
 - 경관탐방로 관리계획
 - 도로변 경관훼손지의 경관적 복원계획



공원 및 녹지체계 구상도

③ 공원·녹지

□ 공원

i) 기본방향

- 도시공간구조와 도시개발방향에 부합하는 공원·녹지 체계망을 구상하고 목표년도 공원·녹지를 최대한 확보

ii) 기본구상

- 산악녹지축 : 광역녹지축과 남산·계명산 등을 연계
- 수변녹지축 : 충주호·남한강을 연계
- 공원축 : 월악산-직동공원-호암공원-탄금대-비내섬공원
- 수변경관축 : 충주호반-탄금대-조정지매-비내섬공원

iii) 공원계획

- 생활권별 공원계획
 - 동북부생활권에 34개소, 8,448km², 서부생활권에 11개소 2,227km², 남부생활권에 4개소, 32,768km²를 배분
- 단계별 공원계획
 - 1·2단계(2002~2010년)에 46개소 40,629km²,
 - 3단계(2011~2015년)에 49개소 43,296km²
 - 4단계(2016~2020년)에 49개소 43,444km²

iv) 중앙공원 개발계획

- 호암 근린공원, 충주시 호암동 산64-1번지 일대, 976,800m²

□ 녹지

• 기본방향

- 기존수림을 최대한 보전활용, 산악·수변 녹지축을 구상

④ 도심·주거환경

□ 기본목표 및 계획수립의 방향

- 도심 및 시가지정비계획
 - 도심 및 시가지 기반정비, 시민거주환경의 균형적인 발전
- 시가지 환경의 체계적 정비
 - 중심지 활성화 사업추진, 상업환경 정비, 공동주차장 확보, 보행자공간 정비, 소도시 정비
- 도심 및 시가지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역세권개발 및 도심기능강화

3. 안동도시기본계획(2020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한국을 대표하는 정신문화의 수도”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희망의 도시 “안동”

□ 계획의 목표

- 유교문화 · 관광중심 도시
- 바이오 · 청정산업 도시
- 물류 · 유통거점 도시
- 교육 · 연구 도시
- 수변 · 생태 도시
- 사회 · 복지 도시

② 공간구조

□ 도시공간구조 설정

i) 중심체계

- 1도심, 2부심, 4거점, 9소생활권 중심의 공간체계

ii) 발전축

- 주축
 - 풍산-도심-용상-길안
- 보조축
 - 일직-도심-북후, 도산-도심-일직
- 지역거점축
 - 풍산-북후-도산-길안-일직

iii)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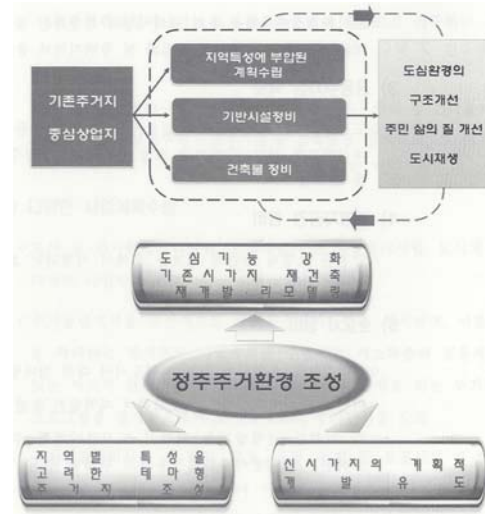
- 부심기능부여
 - 풍산읍, 용상동
- 지역거점기능부여
 - 북후, 도산, 길안, 일직
- 중심기능부여
 - 예안, 임동, 임하, 풍천, 녹전, 와룡, 남선, 남후, 서후의 9개 소생활권
- 바이오사업단지 조기개발 육성
 - 풍산읍

iv)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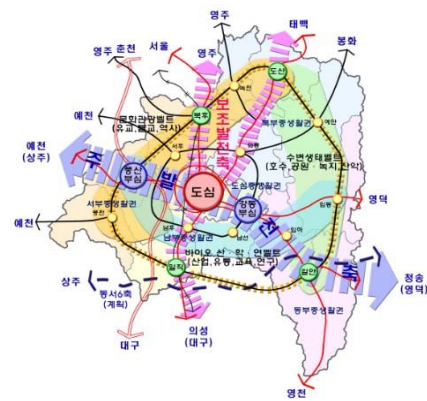
- 도심 및 외곽지역의 연계를 위한 제2순환도로 추가구상
- 교외방사축 10개, 순환축 3개, 동서축 4개, 남북축 5개

v) 공원녹지

- 낙동강 70리 생태공원계획 수용
- 안동댐 및 임하댐
- 공원 총 41개소
 - 도립공원(청량산), 도시자연공원 1개소, 근린공원 37개소, 주제공원 2개소
- 유원지 총 6개소
 - 기존계획(도산), 확장계획(안동문화관광단지), 관광지수용(하회마을관광지), 신규계획(무릉, 암산, 소산농업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020년 도시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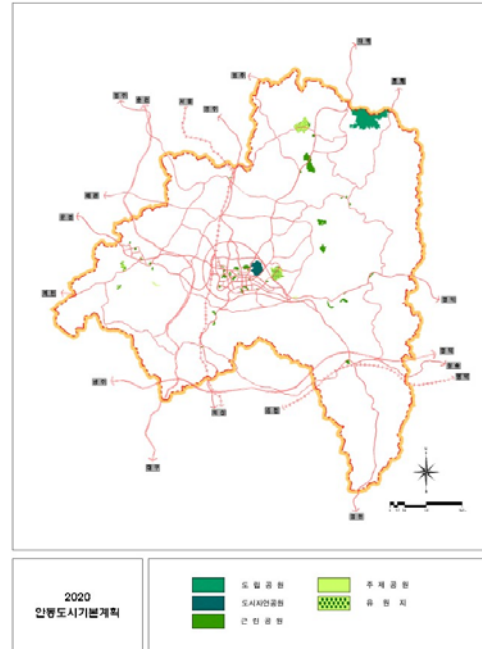
개발축 설정도

- iii) 근린공원
 -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신설 및 증설
 - 안동호 워터·그린파크 단지화 신설 및 증설
 - 수변공원, 인물역사공원
 - 임하호 수변공원조성 신설 및 증설
 - 임하리공원, 망천리공원, 임동공원
 - 청소년의 교육장소 활용 및 도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 하프콤밸리공원 신설계획, 서부리공원 신설계획
 - iv) 주제공원
 - 낙동강 70리 생태공원조성
 - 마애솔숲공원, 송천바이오벨트공원신설계획
- **공원관련 계획**
- i) 낙동강70리 생태공원 조성계획
 - 마애솔숲, 송천바이오벨트공원, 백운정솔숲 공원
 - ii) 하프콤밸리(HAFCOM-Vally)공원신설
 - 산림과학박물관, 야생동물 생태공원,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생태숲조성
 - iii) 안동댐주변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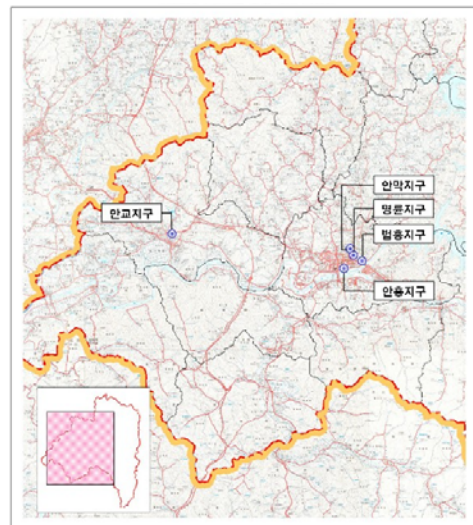
④ 도심·주거환경

□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

- i)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
- ii) 양호한 도시경관 유지와 환경정비사업 시행
 - 시가지내 산재되어 분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역사경관지구로 관리유도함
 - 낙동강 및 반변천 하천 연접구간
 - 시가지, 농공단지, 송하역세권 예정지 및 주요 도로변
 - 저·중·고층밀도가 조화되도록 개발 유도
- iii) 도심 활성화 방안
 - 테마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 중앙시장구시장 환경개선사업, 도심전통테마 상가거리, 구시가지 특화거리 (청소년길, 어가골 생태하천 길, 안동향토의 거리 등)
 - 도심과 녹지 및 관광체계화의 연계성 확립
- iv) 역세권 개발계획
 - 직접영향권
 - 250~300m
 - 간접영향권
 - 500m
 - 송하 1지구 주요개발방향(국도 34호선 북측지역)
 - 철도역사, 화물역, 물류센터, 호텔, 주차장, 상가, 배후주거지, 근린공원 등
 - 송하 2지구 주요개발방향(국도 34호선 남측지역)
 - 여객자동차정류장, 종합교통센터, 광장, 주차장, 상가, 배후주거지 등
- v) 기존 안동역 및 여객자동차정류장 활용방안
 - 중심상업기능의 활성화와 업무의 중심지로 유도하기 위하여 안동역을 포함한 철도이전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개발



2020년 공원·녹지 계획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정 현황도

⑤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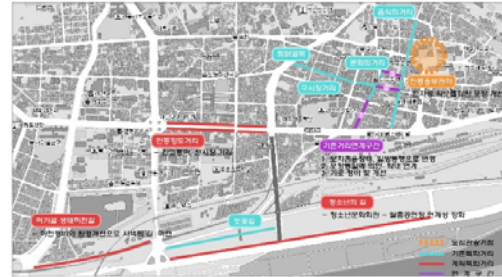
□ 산업 진흥계획

i) 상업시설의 정비확충 및 집단지화 적정배치

- 도심상업지
 - 도심부의 상업시설을 현대화하여 정주생활권 및 지역의 서비스를 담당
- 부심 및 거점상업지
 - 중생활권 단위로 적정배치하고 집단지화 유도
- 근린상업지
 - 소생활권 단위로 보행권내 적정배치

ii) 도심상권의 활성화

- 재래시장, 상가 일원의 테마상가 및 테마거리 조성
 - 차없는 거리, 가로상가 등 관광상품화 거리 조성
- 법흥동 일원의 고문화 거리 조성
- 유통구조의 조직화, 협업화 및 전문계열화를 유도
- 관광과 연계한 관광쇼핑코스 개발, 시장별 특화 전략 (풍산시장 관광명소화), 상인대학운영 등
- 시설을 현대화하고 확충하여 주민의 생필품 구매편의를 도모



구시가지 특화 거리 계획

□ 관광 진흥계획

i) 관광거점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권역별, 주제별 관광개발체계 구축

권역별 관광개발

- 도심권 (위락, 휴양, 레저)
 - 안동댐주변지역 중심, 숙박휴양단지 및 주변위락기능 확충
- 풍산권 (역사, 문화체험)
 - 역사문화형 테마파크 및 문화·서원 체험관광지
- 임하권 (전통, 문화체험)
 - 임하내안마을, 지례예술촌
- 도산권 (교육, 생태, 휴양)
 - 산림휴양기능 및 복합수변리조트단지 기능을 활용한 생태관광지 개발

주제별 관광개발

- 역사·문화관광
 - 도산서원, 하회마을 등
- 생태·수변관광
 - 안동호 워터그린파크단지화 조성 등
- 한방·건강관광
 - 복지·의료·한방특화산업 등
- 고택·농촌체험관광
 - 농업유원지, 생태마을 조성 등

ii) 안동댐, 임하댐의 수변복합 그린관광지대조성

iii) 충·효·예의 역사적 전통정신 전승을 위한 체험관광 확충계획

- 독립운동기념관건립, 종합유교문화센터건립, 도산민속마을 조성 등, 전통한옥·선비문화체험관광 활성화 등

iv) 전통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폭적인 유인시설 개발

- 안동온천개발, 골프장 건설, 복지·의료·한방타운 조성, 안동문화관광단지, 하회관광유원지, 소산농업유원지 등

v) 4계절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vi) 관광산업의 육성과 마케팅의 활성화



1권역 도심권 관광체계도

4. 정읍도시기본계획(2025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 2025년의 미래상 및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수립

- 미래상 : 21세기 문화·관광 첨단산업도시
- 목표
 - 사계절문화관광도시(도로망 확충 및 자전거전용 도로 구축을 통한 관광기반 강화)
 - 첨단자족도시(1도심, 2지역중심, 2지구중심, 10거점중심의 공간구조체계 정립)
 - 주민중심도시
 - 생태경관도시(경관중점관리지역 설정 및 8호8색, 단풍터널과 단풍산책길, 예코뮤지엄조성)

② 공간구조

□ 개발 방향

- 기존 정읍핵을 중심으로 지역중심 및 지구중심육성과 첨단산업개발축 위주의 분산집중형

□ 중심지체계

- 1도심 (정읍),
- 2지역중심 (신태인, 입암)
- 2지구중심 (고부, 칠보),
- 10거점중심 (감곡, 웅동, 태인, 정우, 소성, 영원, 이평, 덕천, 산외, 산내)

□ 개발축 및 보전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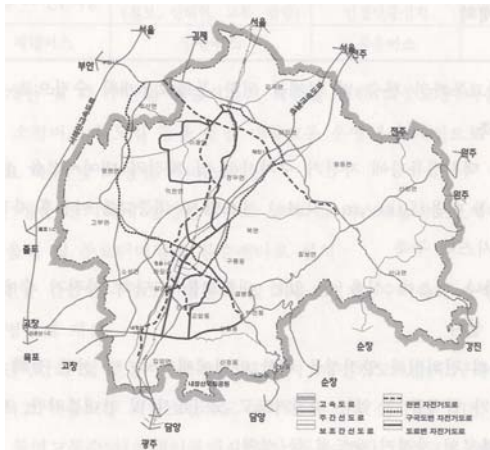
- 첨단산업개발축 : 신태인-정읍도심-청음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 관광·휴양 개발축: 고부-정읍도심-칠보
- 외부자연환경 녹지축: 선운산-내장산-옥정호-강천산-섬진강-지리산
- 내륙생태축: 대둔산-모악산-옥정호-내장산-강천산
- 수변축: 서해-옥정호, 정읍천



기본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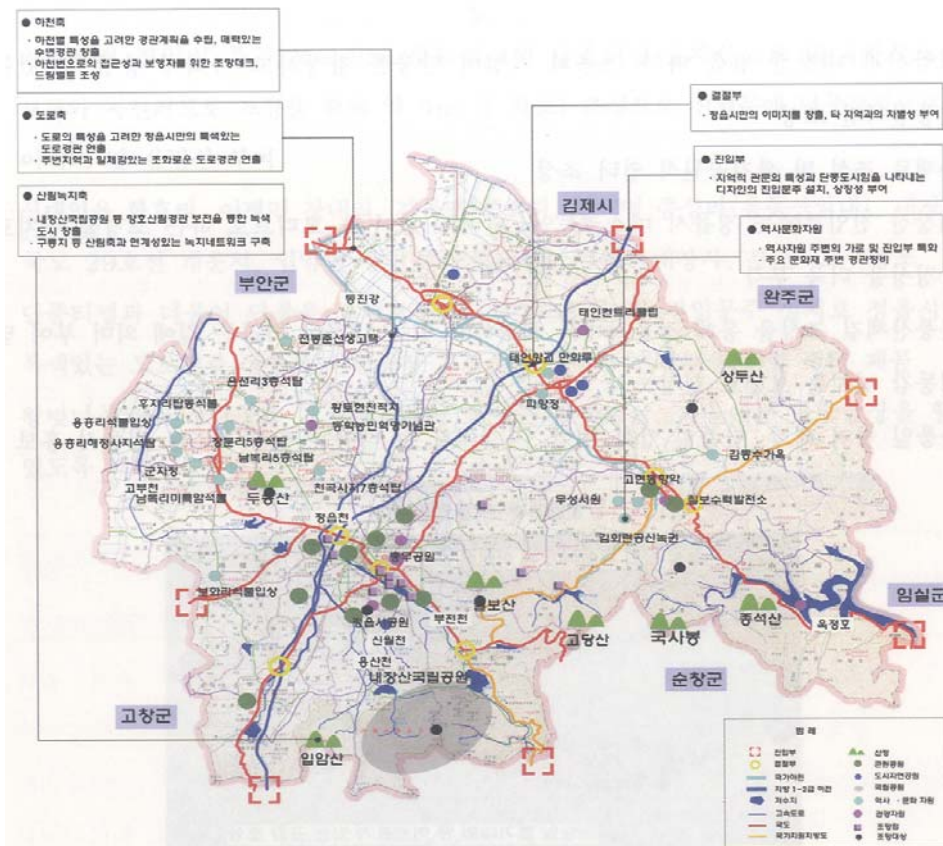
개발축 구상



자전거전용도로 구상도



보전축 구상



경관기본구상도

2) 부문별계획

① 교통

☐ 자전거전용으로 계획

- 도심과 각 중심지, 각 중심지와 주요 통근지(정읍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등), 각 중심지와 주요 관광지(내장산 등)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계획

② 경관

☐ 도시이미지 특성별 경관계획

i) 경관권역 계획

- 도시문화경관권역: 정읍생활권
- 산악농촌경관권역: 신태인생활권, 고부생활권, 칠보생활권, 입암생활권

ii) 경관축 계획

- 산림녹지축
- 수계축
- 도로축

☐ 경관중점관리지역 설정☐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관특화계획

- 8호 8색 조성계획
 - 만수호, 주동호, 원천호, 입암호, 용산호, 내장호, 수청호, 옥정호

③ 공원·녹지

□ 생활권별 균형있는 공원 및 유원지 확보

i) 공원확보

- 도시자연공원구역 :
 - 정읍생활권(대암공원, 중앙시민공원)
 - 신태인생활권(연정공원, 피향공원, 선왕공원, 향가공원)
 - 고부생활권(두승산공원)
- 근린공원: 초산공원 등 16개소, 피향공원

ii) 신규공원확보

- 정읍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 개발시 도시공원확보
- 기존 준도시지역 시가화에정용지 개발 및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소공원 조성
- 기존 자원은 적극 활용한 도시공원화 사업 추진

iii) 유원지계획 : 송정공원 북측에 유원지 신설(53,000㎡)

□ 녹지대 확충

- 가로변 공원화
 - 정읍천 도로변, 국도 30호선와 웅정호 순환도로, 국도1호선변
- 개별건축물 공원화
 - 정읍시청, 하수처리장 주변의 공지, 정읍여고, 대지내 조경, 옥상정원
- 기타녹지공간 확충
 - 새만금 유역권주변 공한지 및 산림내 생태숲, 충무공원, 죽림동산, 아양산, 웅산저수지 주변, 시가지내 구릉지 및 유허지 활용.
- 공원녹지구상도



공원녹지구상도

④ 도심·주거환경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지역
 -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지구(남산지구, 57,020㎡)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6개지구(평화, 중사, 신흥, 대실, 당현, 입석지구, 730,741㎡)

i) 기존 주택지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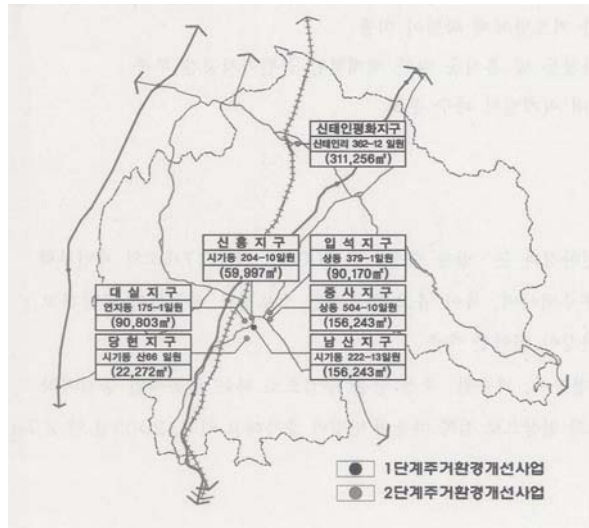
- 노후 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ii) 신주거지 조성

- 단독주택지
- 공동주택지

iii) 기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계

- 상호교류 기반 구축
- 위계별 중심지체계 수립 및 중심지별 기능특성화
- 구도시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도시지역내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

i) 정읍기성시가지 정비

- 도로구조정비
 - 정읍천변도로 교통체계 정비, 정읍도심부 도로망 및 교통체계 정비, 정읍역세권 교통체계비, 주차 환경 정비
- 지구단위정비
 - 정읍역세권 정비, 정읍제1시장 정비, 정읍제2시장 지구정비, 터미널구역 정비, 향교 주변 역사문화 지구 정비, 샘골 문화의 거리 조성, 정읍천변 경관정비
- 간선가로경관정비
 - 충무로 경관 정비, 천변 우회도로 경관정비, 서부 우회도로 경관 정비
- 거점공간정비:
 - 법원·검찰청 이전적지 활용, 구군청사(청소년 문화회관 부지)정비, 농업기술센터 이전적지 활용, (구)미원 제분공장부지 정비, 시청광장 정비, 말고개 경관 정비

ii) 신태인읍 소도읍 육성

- 도시기반시설정비
- 주민생활환경개선
 - 시가지내 미사용 건축물을 활용한 커뮤니티환경 정비, 화호 · 내석커뮤니티공원 조성 등 마을단위의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충



정읍기성시가지정비 종합계획도

5. 제천도시기본계획(2020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생태·웰빙 체험의 건강한 자연도시 제천”

□ 계획목표 및 전략

- i) 생태환경적 웰빙도시
 - 백두대간 생태녹지축 및 도시 내 구릉지 보전, 녹색 회랑 구축, 주제공원 확충
- ii) 역사적 문화관광도시
 - 제천 10경 및 주요관광지의 관광순환도로망 구축
 - 제천의 병제, 청풍호반의 벚꽃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
- iii) 중부내륙권의 물류·유통도시
 - 제천유통단지: 중부내륙권 물류·유통 분담
 - 동서간 고속도로(안중-제천-삼척)의 조기개통으로 사통팔달의 고속도로망 구축
 - 철도(충북선, 태백선, 중앙선)의 복선전철화 사업
- iv) 자족적 한방산업연구도시
 - 한방산업단지조성(10만평)
 - 제천바이오밸리와 혁신도시, 종합연수타운 등과 연계한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② 공간구조

□ 공간구조 설정

- 분산집중형 (생활권분산형 도심구조)
 - 기존도심내 기능 편중화 방지 및 도심~읍~면 간 연계성을 통한 생활권별 지역별 기능 강화
- 공간구조체계
 - 1도심(제천시가지)
 - 2생활권중심(봉양, 수산)
 - 6지구중심(백운, 송학, 금성, 청풍, 한수, 덕산)

□ 생활권 설정

- 도심중생활권 (중심상업업무주거 및 행정공업 기능)
 - 동지역(중앙, 하교, 강저), 송학면, 금성면
- 봉양중생활권(물류·유통·웰빙·한방)
 - 봉양읍, 백운면
- 남부중생활권(체험 관광 청정 농업)
 -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청풍면

□ 토지이용계획

- 시가화용지는 기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 대상지를 중심으로 최소한으로 설정하여 17.04km²가 증가한 34.35km²지정

2) 부문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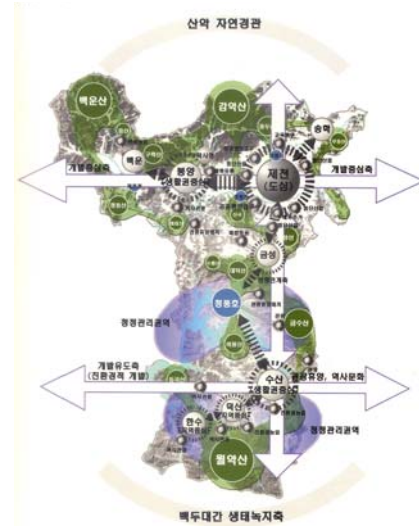
① 교통

□ 자전거 도로

- 보행 및 자전거도로망 구상도
- 2020년 4단계까지 연장 107.9km 자전거도로 설치

□ 보행자 전용 도로

- 보행환경정비
 - 의림동, 영천동, 중앙동의 상업밀집지역 등 보행량이 많은 지점에 보행자전용도로지정
 - 보행자 보호구역 도압: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상의 안전 확보
 - 교통정온화 기법: 과속방지턱, 차도폭 좁힘, 굴곡도로, 차로인식이탈시설, 고원식 교차로, 험프식 횡단보도 등



공간구조 종합구상도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보행 및 자전거도로망 구상도

② 경관

□ 제천시 경관계획 기본방향

- 미래 제천의 경관이미지 설정
- 합리적인 도시경관체계 확립
- 실현가능한 목표 제시와 구체적인 전략 수립
- 대표적 경관 및 조망축 설정
 - 경관 네트워크 구축
 - 경관기본축 지정으로 경관 유도
- 다양한 주체가 참여·협력하는 지역경관 협의체 구성
-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및 조망 확보
- 다양하고 특색 있는 경관의 발굴과 개발
 - 특화거리 및 상징거리 조성
 - 대표적 경관에 대한 야간경관
 - 가로시설의 야간경관 관리



□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도심 보·차분리 구간

경관기본구상

i) 축경관

도로축 경관

- 가로의 개방감 및 건축물 높이 관리
 - 7개 대로에 띠녹지 벨트 도입
 - 랜드마크 기능 강화: 제천 IC, 터미널, 역 등
- 투어버스와 연계한 경관도로 110km 구간 활용 철인 3종 경기시설

하천축 경관

- 청풍호와 자연계곡수 연결지역: 수변·자연경관지구로 지정관리
- 국지도 82호선 변을 야간경관축으로 활용

ii) 시가지 경관

주거 경관

- 경관상 장애물 제거와 담장허물기 운동
- 다가구 및 공동주택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상업지 경관

- 상업용건축물 가이드라인
- 공개공지 확보: 가로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
- 특화거리
 - 보행녹도체계 구축
 - 청전대로, 명륜대로, 의병대로, 용두대로, 남당대로, 의림대로, 용두천길 등에 띠녹지벨트 도입
 - 시내중심지내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및 수경경관 도입
 - 랜드마크 기능 도입, 건축물 외관정비

③ 공원·녹지

□ 공원 현황

- 남측에 월악산국립공원 120,180km²
- 2003년 도시공원면적(2,587km²), 1인당공원면적(18.6m²)

□ 공원·녹지계획

i) 공원계획

- 도시자연공원 4개소, 근린공원 14개소 (월악산국립공원, 청풍호 포함)
- 도시지역내 4대 하천변에 수변공원 지정
 - 고암천 수변공원:
 - 하소천 수변공원
 - 장평천 수변공원
 - 제천천 수변공원

ii) 녹지계획

- 녹지체계 구축
 - 녹지 네트워크 구축: 천등산-백운산-감악산-금수산-월악산
 - 수변·녹지 네트워크: 도심주요하천(제천천, 장평천, 하소천)

④ 도심·주거환경

□ 문제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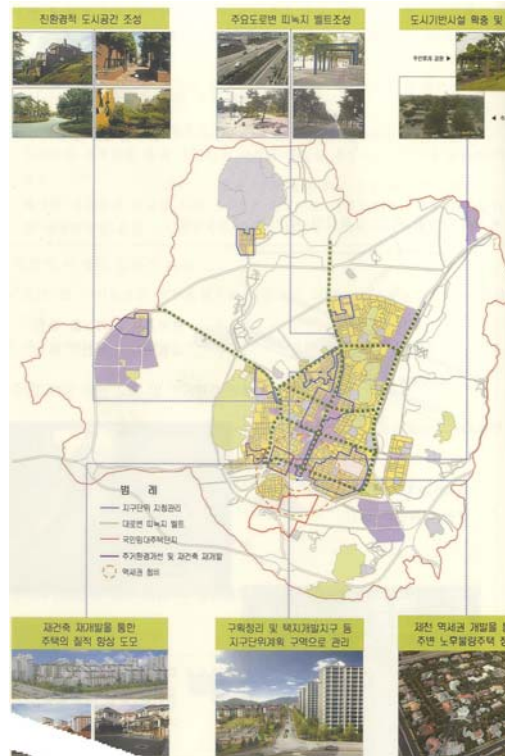
- 기성시가지 현황분석도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5개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5개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2개지구) 등 총 12개지구 3,41km² 기성시가지 주거(5.99km²·상업(0.92km²)지역 6.91km²중 49.3% 차지하여 양적공급으로 인한 단편적 주거환경 창출
- 2004년 주택보급률: 93.1%, 30년이상 노후불량 주택: 전체 주택대비11.9%

□ 도심 활성화 및 도심환경개선사업 실시

- 재개발 및 재건축 활성화
- 구획정리, 택지개발, 주택지조성사업지구 등의 개발사업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관리
- 제천역 주변지역의 노후불량 환경 정비
-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
- 도심 교통환경, 가로환경, 주거환경 개선
- 주상, 관상, 공상 등의 다양한 복합개발 유도



기성시가지 현황분석도



도심 및 주거환경 계획

□ 도심 내 문화활동 지원방안 마련

- 문화의 거리
- 주요 축제의 도심유입
- 교양문화센터, 문화예술센터 신설
- 야간경제활성화를 위한 치안유지, 방범강화

⑤ 기타

□ 상업·유통 활성화 방안

- 도시공간구조 개편
 - 근린상업지역의 분산배치로 상업기능의 지역적 분산유도
 - 시가지내에 위치한 재래시장 정비를 통해 도심상업기능 보완
 - 봉양읍 상업지역 활성화를 통한 부도심권 상업기능 강화
 - 수산면 상업지역 활성화 유도로 남부권 상업기능의 보완
- 구시가지 활성화
 - 도심보행교통 활성화: 차없는 거리, 테마형 문화거리
 - 재래시장 현대화 및 특화시장조성
 - 재래시장 미관정비 및 주차장확보 등 주변거리 정비
 - 도심속의 도매기능 이전 추진
- 신시가지의 차별화
 - 강저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상업지역
 - 제천바이오밸리 및 대학촌 등의 배후 상업기능 부여

6. 통영도시기본계획(2025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300년 통제영의 역사와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 계획의 목표 및 실천전략

기본목표와 실천전략

- 이순신장군과 한산대첩이 있는 역사도시
 - 통제영 역사의 상징성 특화
 - 한산대첩의 국제화(세계 4대 해전)
- 관광도시
 - 윤이상 국제음악제 활성화
 - 전통문화 예술자원 개발육성
 - 휴양 및 레저시설 확충을 위한 종합관광개발
- 해양조선도시
 - 조선산업의 확대육성
 - 조선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 바다목장 브랜드화

□ 목표연도 : 1단계: 2005~2010, 2단계: 2011~2015, 3단계: 2016~2020, 4단계: 2021~2025

② 공간구조

□ 중심체계 설정

- 1도심, 2지역중심, 11지구 중심
- i) 산업권
 - 산업자급권
 - 죽림, 안정, 용남, 도산(1지역, 3지구중심)
 - 주기능: 기존기반산업, 첨단산업, 물류산업, 실버산업
- ii) 도심권
 - 도심문화권
 - 향남, 도남, 북신, 중앙, 인평, 산양, 미수(1도심, 1지역, 5지구중심)
 - 주기능: 역사문화, 예술문화, 중심문화, 중심상업, 레저, 휴양, 체육, 관광
- iii) 도서권
 - 도서관광권
 - 한산, 사랑, 욕지(3지구중심)
 - 주기능: 산악관광, 역사관광, 문화관광, 해양관광

□ 도심권 주요개발구상

- 워터프론트 개발 및 역사전통문화의 거리 조성
- 세병관, 충렬사등 사적지 정비
- 해저터널 시설 보완 및 음악타운 거리 조성 등에 관광기능 활성화
- 기존 도심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한 도시 정체성 확보
- 통영 레저관광의 핵심 지역
- 조선소 이전을 통한 해양관광 시설 유치
- 향만시설 확충을 통한 해상관광 기능 강화
- 골프장 및 체육시설 도입을 통한 레저기능 활성화

2) 부문별계획

① 교통

□ 자전거도로 계획

- 지역 자전거도로
- 생활권 내부 자전거 도로
- 자전거도로 계획

□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 기본방향
 - 공공시설, 보행집결지, 오픈스페이스 등과의 연계체계 구축
 - 노선별, 구간별 특성화를 유도
- 보행자 전용도로 유형별 구상
 - 도심형, 주거형, 녹도형



건고ships거리 조성

② 경관

□ 경관지구경관

- 주택지구경관
- 상업지구경관

□ 경관축경관

- 가로경관
 - 건고ships거리의 지정 및 조성
 - 강구간 일원: 바다의 거리
 - 윤이상 거리: 음악의 거리
 - 청마거리: 예술의 거리
 - 용화사 거리: 미술과 향기의 거리
 - 마리나 뒷길: 바다와 낭만의 거리
- 공원녹지경관



자전거 도로 유형별 · 단계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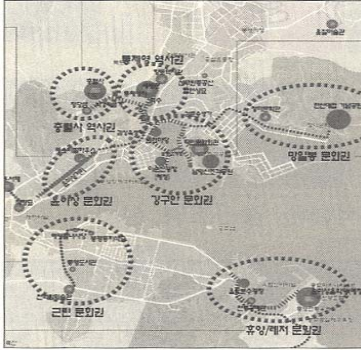
□ 경관거점경관

- 조망경관
 - 주요 광장 및 교차로의 상징성 확보
 - 충렬사 광장 등, 통영의 도심부 광장으로 재편
 - 무전사거리, 봉평오거리 등의 교차로
 - 주요 랜드마크의 조성 및 일대 가로 경관 정비
 - 세병관(통제영지) 인근
 - 역사의 거리, 음악의 거리 등
 - 조망 네트워크의 연계
 - 미늘사거리구릉지~망일봉~남망산~문화공원~도천공원~당동공원
- 역사문화경관
 - 역사문화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 통제영문화권, 충렬사문화권, 강구안문화권, 윤이상문화권, 봉편문화권, 도남문화권 등
- 해안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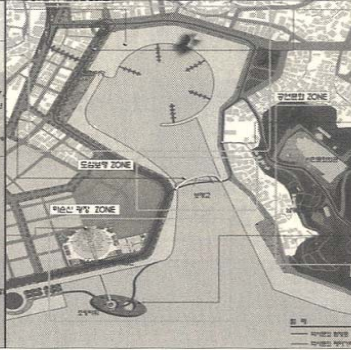
□ 연출경관

- 야간경관
- 색채경관
 - 통영시 고유의 배경색 제시: 흰색
- 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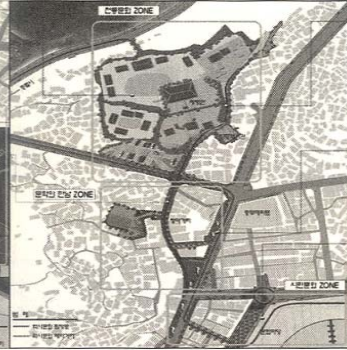
역사문화권역도



강구안문화권



통제영문화권



역사문화권역도

③ 공원 · 녹지

□ 공원현황

- 한려해상 국립공원
- 도시자연공원: 8개소
 - 광고, 구도, 원문, 망일, 인평, 당동, 도천, 미륵공원
- 근린공원: 17개소
 - 석기산, 양촌, 용남, 내죽도, 장문, 동달, 삼화, 총열, 문화, 남망산, 착량, 보디섬, 도남, 황리, 안정, 복신, 죽림공원
- 체육공원: 1개소
 - 평림공원

□ 공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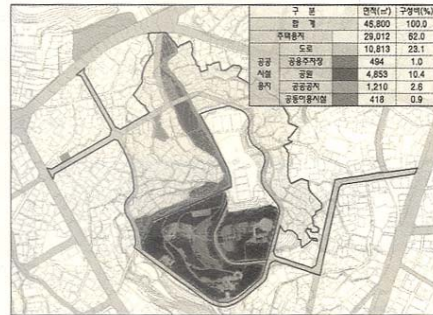
-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7개소 변경
 - 수변공원 4개소(구도공원, 내죽도공원, 해양관광공원, 복신공원)
 - 역사공원 3개소(총열공원, 문화공원, 착량공원)
 - 문화공원 1개소(남망산공원)
- 통영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앙공원 계획: 원문공원
- 광역 관광체계 향상: 망일공원 조성(한산대첩기념공원)
- 도시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 인평, 당동, 도천공원
- 산양체육공원 신설
- 평림체육공원을 체육시설로 변경

④ 도심 · 주거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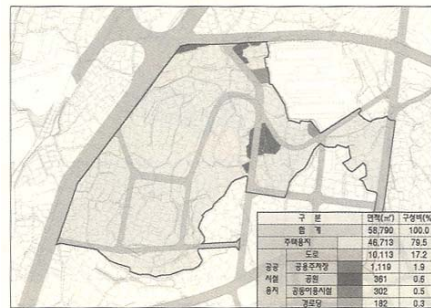
□ 도심 활성화

- 도시정체성 회복
 - 핵심지구인 강구안 활성화: 12공방 민속문화거리, 이순신광장 및 워터프론트 조성
 - 한산대첩의 국제화(세계4대 해전)
 - 윤이상 국제음악제 및 국제음악당 건립
 - 한려수도 예술랜드 조성
- 재래시장 활성화
- 비물리적 도심 활성화

서피랑지구



주전골지구



- 문화관광
 - 역사문화자원활용
 - 한산대첩축제 도심유입
 - 향토전통음식육성
 - 어촌문화 활용
- 도심경관 : 야간조명 경관조성

iv) 걷고싶은거리 조성

□ **주거환경계획**

i) 주택공급계획

- 도심권
 - 주전골, 서피랑 주거환경개선사업
 - 상양읍 일원 취락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지 조성
 - 국민임대주택 건립: 545세대
- 산업권
 - 도산면 지역 오지개발사업 추진 및 용남, 광도면 일원 정주권 개발을 통한 주택지 확보
 - 전원형주택지 조성 및 개량
 -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택지 조성(죽림, 안정 등)

ii) 주거환경정비계획

- 태평동 일원의 기반시설 정비(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 통제영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
- 경관 및 고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고도지구 지정
- 주거환경정비사업
 - 주전골지구, 서피랑지구
- 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연계추진
- 경관관리방안
 - 고도지구 지정

⑤ 기타

□ **권역별 문화예술 개발계획**

i) 도심권

동지역 일원

- 중앙공원인 남망산 공원 중심, 남망산 조각공원 확장 및 정비
- 총렬사 및 세병관 주변지역 정비
- 통제영 중심, 12공방 민속문화거리 조성
- 윤이상거리 정비, 음악타운 조성
- 공공도서관 시설 확충
- 강구안 및 문화마당 정비 및 활용 극대화
- 문화예술랜드 조성, 국제음악도시로 육성

산양읍 일원

- 이충무공 유적지인 당포성지 및 서포루 정비복원, 당포대승첩제와 연계
- 연화리 폐교 이용,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ii) 산업권: 산양읍 일원

- 안정사 대웅전, 범종, 괘물, 안정사연 및 금송패 등 지방유형문화재 보전계승
- 원문공원 내 역사문화유적지와 연계, 문화행사의 공간 조성

7. 거창군중장기발전계획(2020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 계획의 이념

- 산향정서 가 넘치는 환경문화교육자치의 도시 거창

□ 계획의 목표

- 창조성, 지성, 따뜻한 온정이 넘치는 삶의 터전 조성
 - 학교, 사회 교육의 충실 및 여건 개선
 - 타 지역과의 교류증대
 - 커뮤니티 형성 추구
- 풍부한 시민생활을 지지할 수 있는 활발한 산업 육성
- 물, 녹음, 빛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자연환경 창출
- 신선한 매력과 꿈이 넘치는 지역기반 확충
 - 계획적 토지이용의 추진
 - 종합교통체계의 정비
 - 고도정보화추진
 - 주택정비
 - 상·하수도 정비
 - 시 승격을 위한 기반조성
-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살기좋은 환경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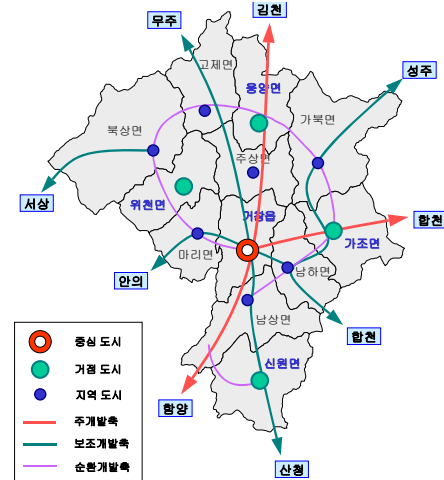
□ 부문별 발전전략

- 산업 · 경제부문
- 도로 · 교통부문
 -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망 개선
 - 대체 우회도로의 개설
- 토지이용 및 지역계획부문
 - 정주권 형성계획
 - 경남 서북부지역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 지역지구제의 체계적 지정으로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개발 도모
 - 오지개발사업, 균등개발 도모
- 문화 · 관광 · 교육부문
- 공원 · 녹지관리·환경부문
 - 폐석장으로 인한 산림파괴의 복구 및 폐석 활용방안 모색
- 사회·복지부문
- 일반 행 · 재정부문

② 공간구조

□ 지역발전축 설정

- 주개발축 계획
 - 동서방향축
 - 함천-가조-남하-거창읍-남상-함양을 잇는 88고속국도 주변
 - 남북방향축
 - 함양(수동)~남상~거창읍~주상~웅양을 잇는 국도 3호선 및 지방도 1084호선 도로주변
- 보조개발축 계획
 - 제1보조축
 - 함양(안의)~마리~거창읍~남하~함천을 잇는 국도 3호선 및 국도 24호선 도로 주변
 - 제2보조축
 - 무주~고제~주상~거창읍~남상~신원~산청을 잇는 지방도 1089호선 도로주변



거창군 개발축 설정

- 제3보조축
 - 합천~가북~가조~남하~합천을 잇는 군도 6호선 도로 주변
- 제4보조축
 - 함양(서상IC)~북상을 잇는 지방도 1001호선 도로 주변

③ 순환개발축 계획

□ 신(新)생활권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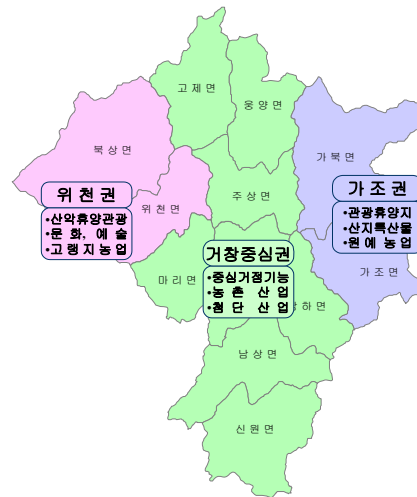
거창군 신규 생활권

생활권	행정 구역	기존생활권	신규생활권	통합생활권	면 적(km ²)	인 구(명)
거창 중심권	거창읍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신원면	대구, 김천 진주배후지	거창읍	거창읍	461.74	57,728
동부권	가조면 가북면	대구 배후지	가조면	〃	162.29	7,241
서부권	위천면 북상면	〃	위천면	〃	180.06	4,775

□ 계획권역의 설정

거창군 계획권역

권역	해당지역	거점지	권역성격	담당 기능
거창 중심 생활권	거창읍, 마리면 남상면, 남하면 주상면, 웅양면 고제면, 신원면	거창읍	중심거점	거창읍
			마리면	·전원주거 ·배후지원기능
			남상면	·첨단산업 ·근교 농업 ·배후지원기능
			남하면	·수변·휴양·레저 ·배후지원기능
	웅양면 고제면 주상면	농촌산업	웅양면	·고랭지농업·과수 원예농업
			고제면	·고랭지농업 ·산악형 스포츠
			주상면	·과수, 원예농업 ·농산물 유통
	신원면	전원휴양	신원면	·축산업 ·역사교육
서부권	위천면, 북상면	위천면	농촌휴양	위천면
			북상면	·산악 휴양지 ·고랭지 농업
동부권	가조면, 가북면	가조면	관광휴양	가조면
			가북면	·산지형 특산물



2) 부문별계획

① 교통

☐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략

- 보도턱을 낮추고 연결성의 확보
- 주택가 생활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주권회복이 필요
- 안전한 자전거 횡단 시설 확보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전담 공무원의 배치
- 녹색 교통망을 우선하는 예산 지원 확대
- 무료 자전거 대여의 활성화
- 군청, 대형상가, 학교 등에 자전거 이용 시설을 우선적 설치
- 먼 개년에 입각한 자전거 도로망의 정비가 필요
- 도로교통법상의 자전거의 법적 지위 확보 등이 필요 함

☐ 자전거 도로 활성화 프로그램

- 시민의 날, 자전거의 날 등의 정기적 행사
- 거창읍의 주요 간선도로 사이의 문화행사과 자전거도로 설치 이용
- 거창군 내 자전거 지도 배포 제작
- 렌탈(유료 및 무료) 자전거점의 설치 운영
-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을 위한 공개 제안
- 자전거 교통증진을 위한 모임 구성(예, 자전거 사랑 시민 모임)
- 고제면 또는 북상면에 전국규모의 산악자전거 대회를 개최
-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 등

② 사업계획

☐ 토지이용 및 지역계획

i) 거창 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 상동지구에서 남측 3km 지점에 정장농공단지(16천평)가 조성되어 있고 1.5km 지점에 거창전문대학, 직업훈련원 등 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배후주거단지로서 점진적인 주택수요가 예상됨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일원
- 면적 : A=284,680㎡(약 86,000평)
- 수용인구 : 4,088인
- 수용호구 : 1,239호

- 사업기간 : 1999. 12. 21~2002. 6. 30
- ii) 거창 송정 도시개발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일원
 - 면적 : A=268,000㎡
 - 기간 : 2007~2011(중기)
 - 도시계획상 생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변경 도시개발 사업으로 결정 후 사업 시행
 - 토지소유자들이 감보율에 의해 토지로 부담하는 체비지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 시행
- iii) 거창 소만지구 도시개발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
 - 면적 : A=146,890㎡
- iv) 거창읍 주거지 재건축 지원
 - 사업대상지구(4개 지구)
 - 죽전고지대 지구
 - 상림리 군청뒷편 일대
 - 중앙리 농협 거창지부 뒷편 일대
 - 동동 지구
- v) 웅양면 소재지 정주권 형성
 - 위치 : 거창군 웅양면 원촌 일원 웅양도시계획구역
 - 면적 : A=2,773km²
- vi) 가조면 소재지 정주권 형성
 - 위치 : 거창군 가조면 상마, 중마1, 중마2, 월포, 방촌
 - 면적 : A=6,86km²
- 살기 좋은 삶의 터전 조성
 - i) 거창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거창문화센터 일원
 - 면적 : A=64,800㎡
 - ii) 야외 문화공간 조성 및 확충
 - 근린공원 조성
 - 위치 : 거창읍 상림리 죽전근린공원(현 충훈탑 일대)
 - 규모 : 57,000㎡(17,242㎡)
 - 내용 : 수목식재, 산책로 및 지압건강보도, 정자, 놀이시설 등
 - 다목적 야외 공연장 건립
 - 위치 : 거창읍 원상동 체육공원 내
 - 규모 : 무대 및 객석 500석 규모
 - 무대 외형을 자연친화적인 “다슬기” 모양으로 형상화 건립하여 거창이 청정지역임을 상징화
 - 야외 조각품 설치
 - 위치 : 거창읍 가지리 청소년 푸른쉼터 내
 - 규모 : 총 10점 정도(현 2점)
 - iii) 거창 문화재 육성재원 확충
 - iv) 거창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
 - 폐교 실태조사 : 2002. 11월
 - 문화 인프라 구축 용역사업과 연계추진 : 2003년
 - 복지관내 운동시설(탁구대, 농구대)설치 대상지 조사 : 2002. 10월
 - 폐교매입B등 문화공간 확대사업 시행 : 2003 ~ 2006년
 - v) 국제 연극 도시로의 육성
 - vi) 거창전문대학 연극영화과 설치
 - vii) 거창 도서관 건립
 - 부지 : 거창읍 상동택지 지구 내
 - viii) 개봉고분, 분산성지 학술 발굴
 - 위치 : 거창읍 대동리 개봉마을 일원
 - ix) 둔마리 벽화고분 정비계획
 - 위치 : 남하면 둔마리 산 289-2(금귀봉 남쪽 450m 능선)

- x)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칭) 설립 계획
 - 위치 : 현 도립 거창전문대학 및 국립 거창기능 대학
- xi) 창업보육센터 운영
- xii) 교육기관의 단계적 위계 구축을 통한 완성 교육 실현
- xiv) 군민 건강관리실 확대
 - 사업내용 : 읍·면에 건강관리실 12개소 설치
- xv) 건강순회진단 실시
- xvi) 장애인 복지관 건립
- xvii) 노인복지회관 건립
- xviii) 여성회관 확보

□ 거창읍 발전계획

- i) 거창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남상면, 무촌리, 월평리 일원
 - 면적 : A=50만평 규모
 - 기간 : 2001~2020년(장기)
- ii) 거창 복합유통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일원
 - 면적 : A=99,800㎡
 - 기간 : 2005~2010년(중기)
- iii) 거창 산성 군립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상림리 일원
 - 면적 : A=4,287,000㎡
 - 기간 : 2001~2010년(중기)
- iv) 거창 동동 중앙공원 조성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내
 - 면적 : A=375,100㎡
 - 기간 : 2001~2004년(단기)
- v) 거창 송정 도시개발 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일원
 - 면적 : A=268,000㎡
 - 기간 : 2007~2011년(중기)
- vi) 거창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일원
 - 면적 : A=64,800㎡
 - 기간 : 2001~2004년(단기)
- vii) 거창 도서관 건립
 - 위치 : 거창읍 상동택지개발 지구 내
 - 규모 : 연건평 1,000평(600석 규모)
 - 기 간 : 2000~2002년(단기)
- viii) 거창 종합체육공원 조성
- ix) 폐기물 매립장 설치사업
 - 위치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268번지 일원
 - 규모 : 19천㎡(매립용량 261천㎡)
 - 단계별 추진구상 및 계획 : 2009~2011(중기)
- x) 복합터미널 건설계획
 - 위치 : 거창읍 송정리 새땀지구 일원
 - 면적 : A=13,400㎡
 - 기간 : 2002~2005년(단기)
- xi) 소만지구 도시개발 사업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일원
 - 면적 : A=146,890㎡



거창읍 개발계획

xii) 상동 신시가지 조성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가지리 일원
- 면적 : A=284,680㎡(약 86,000평)

xiii) 시가지 순환도로망 개설

- 위 치 : 상림~대평 구간 군도 19호선, 송정~서변 구간 군도 20호선
- 사업량 : 군도 19호선 개설 L=2.0km, 포장 L=7.0km, 군도 20호선 개설 및 포장 L=9.0km

③ 기타

□ 개발권역의 설정

권역	위 치	주 제	중심자원
덕유산권	북상면, 고제면, 웅양면	산악휴양, 연수, 레저 및 참여형 관광	월성계곡, 덕유산국립공원, 양각산
가 조 권	가북면, 가조면	노인휴양 및 가족종합위락	가야산국립공원, 가조온천지구
감악산권	남상면, 신원면	산악휴양	연수사, 감악산
거창읍권	거창읍, 마리면, 남하면	도시근교형 및 역사문화형	거창박물관, 거열산성, 거창 시내

□ 주제별 발전계획 수립

i) 거창사건 희생자 위령사업(역사·문화 관광)

- 위치 : 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대현리, 덕산리 일원
- 조성 규모 : 49,133평
- 사업 기간 : 98~2001년(4개년 계속 사업)

ii) 거창과 위천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역사·문화 관광)

- 고제~북상~위천~마리~거창을 잇는 관광벨트의 일환
- 위치 : 위천면~마리면~거창읍 일원
- 사업량 : L=70km(보행 및 자전거), 조형물 20개
- 단계별 추진구상 및 계획(중기) : 2002~2008년

iii) 우두산 및 의상봉 관광인프라 개발(역사·문화 관광)

-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우두산 및 의상봉 일원
- 단계별 추진구상 및 계획(중기) : 2002~2010년

iv) 수송대 국민관광지 개발사업(자연생태 관광)

- 위치 :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강천리 일원
- 면적 : 235,479㎡
- 추진계획(중기) : 2000~2010년

v) 덕유산 월성휴양지 조성사업(자연생태 관광)

- 청·장년층을 고려한 수련시설을 조성, 덕유산국립공원과 연계하여 오리엔트 링크(Orient Link)로 개발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일원
- 면적 : 1,121,000㎡
- 추진계획(중기) : 2000 ~ 2006

vi) 월성계곡 국립공원 지정개발(자연생태 관광)

- 위치 :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 창선리, 산수리 일원
- 총 지정면적 : 4,360km²
- 추진계획(중기) : 2000~2006년

vii) 감토산~심소정~합천댐 상류를 잇는 관광인프라 구축(자연생태 관광)

- 위치 : 남하면 감토산~심소정~합천댐 상류 일원
- 단계별 추진구상 및 계획(중기) : 2002~2008년

viii) 감악산 및 연수사 중심의 관광인프라 구축(자연생태 관광)

- 위치 : 감악산 연수사 일원
- 단계별 추진구상 및 계획(중기) : 2002~2008년

ix) 가조 종합관광휴양지 조성사업(휴양·위락 관광)

x) 오도산 COUNTRY CLUB 조성사업(휴양·위락 관광)

- 위치 : 거창군 가조면 도리 오도산 일원
- 면적 : 1,200,000㎡
- 추진계획(중기) : 2002~2008년(7개년 중기사업)

- xi) 산악자전거(MTB) 도로의 개설(휴양·위락 관광)
 - 위치 : 고제면, 웅양면, 북상면, 위천면, 마리면, 거창읍 일원
 - 사업량 : L=60km, B=8m
 - 단계별 추진구상 및 계획(중기) : 2002~2005년(4개년)
- xii) 거열산성 군립공원 조성사업(기존 관광기반시설의 활용)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상림리 일원
 - 면적 : A=4,287,000㎡
 - 기간 : 2001~2010년(중기)
- xiii) 거창 동동 중앙공원 조성사업(기존 관광기반시설의 활용)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지내
 - 면적 : A=375,100㎡
 - 기간 : 2001~2004년(단기)
- xiv) 산수유 축제 개최(기존 관광기반시설의 활용)
 - 위치 : 고제면 개령리 두루봉 일원
- xv) 폐석산의 관광자원 활용
 - 대상지 검토 및 선정
 - 위천면 상천리 일원(금원산 주변 채석장)
 - 암반등반장 조성 : 2003~2004년
- xvi) 테마 등산로 개설
 - 위치 : 가조면 수월리 의상봉 10km, 거창읍 상림리 거열산성 4km
 - 사업기간 : 2003~2005년(3개년간)
- xvii) 국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
 - 대상지 조사 : 2002. 9월 ~ 11월 (비계산, 금귀봉 등)
 - 국제적인 규모의 활공장 견학 : 문경(2002년 국제대회 개최지), 평창, 단양 등
 - 실무검토 : 2002. 12월
 - 진입도로(임도)개설 : 2003~2005년
 - 훈련장, 이착륙장, 전망대 등 시설공사 : 2004 ~ 2006년

8. 남원도시기본계획(2025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서남내륙권의 관광·생태·중추도시”남원

□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i) 문화관광도시

추진전략

- 전통문화·역사관광 개발사업의 추진
 - 관한루원, 만인의총, 운봉 국악의 성지, 흥부 발복지, 혼불문학관, 지리산
- 도심관광 거점기능 활성화
 - 남원관광지, 춘향테마파크, 관한루원, 남원성 등 도심 관광자원간의 연계강화 및 기반시설의 정비·확충
- 지리산 통합문화권 사업의 지속적 추진
 - 지리산권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을 연계한 문화·생태 관광지 조성

세부추진사업

- 남원 흥부마을(민속촌), 섬진강권역 영상관광벨트
- 지리산 고원레포츠 단지, 황토목욕랜드 조성, 골프장 조성

ii) 전원생태도시

추진전략

- 지리산국립공원, 백두대간, 보절산지, 대강산지의 광역녹지축 보전
- 요천 환경정비사업과 소하천의 정비사업 추진

세부추진사업

- 지리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태양광전지 발전파크,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 요천 환경정비사업 추진

iii) 물류거점도시

추진전략

- 광역교통의 결절지로서 서남부 내륙권의 거점기능 강화
 - 주변 7개군의 연담생활권 형성으로 농산물 등의 물류기능 도입
- 광역교통망의 정비와 도시내 교통망을 구분하여 교통체계 정비
 - 전주~광양 고속도로, 88고속도로, 전라선철도와 도시 내 진입도로의 체계적인 교통망 구축
-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도로 확충

세부추진사업

- 물류유통단지 조성
- 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

② 공간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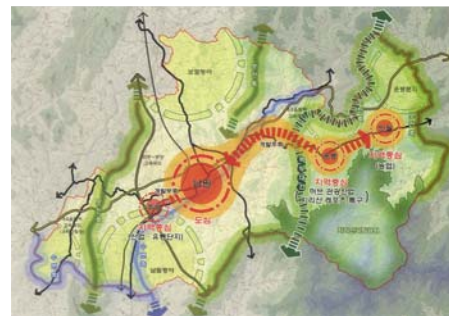
□ 도시공간구조

i) 도시축 설정

- 도시개발축
 - 개발주축 : 남원도심과 운봉읍을 연결하는 국도 24호선 축
 - 개발부축 : 전주-광양 방향의 고속도로
- 보전축
 - 백두대간~지리산지~보절산지~대강산지, 요천, 섬진강

ii) 공간구조 설정

- 중심지 체계 : 1도심(동지역) 3지역(운봉, 인월, 주생)중심
- 개발축 : 동서축
 - 개발주축 : 남원~운봉~인월
 - 개발부축 : 남원~주생
- 토지이용
 - 기존 동지역 중심으로 압축개발(행정·상업·업무기능)



도시축 설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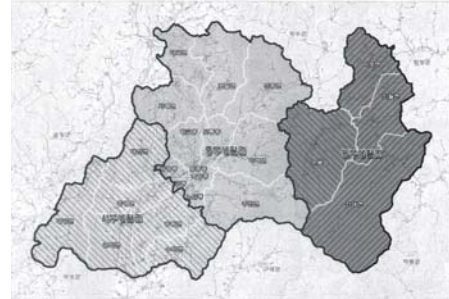
- 3개의 지역기능 성격으로 확장하여 균형개발 적극 유도
- 교통
 - 동서간 연결도로 정비·강화
 - 광역교통체계 구축·정비
- 지역중심의 균형개발 유도

□ 생활권

- 서부생활권
 - 주생면, 대산면, 송동면, 수지면, 금지면, 대강면
- 중부생활권 (도심, 중심상업)
 - 동충동, 죽향동, 노암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 금동,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이백면, 주천면, 산동면
- 동부생활권 : 운봉읍, 인월면, 아영면, 산내면

□ 토지이용계획

- 남원 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
 - 29.87km², 남원시 행정구역 면적의 4.0%
 - 남원(25.87km²), 운봉(1.66km²), 인월(2.34km²) 3개소



생활권구분도

2) 부문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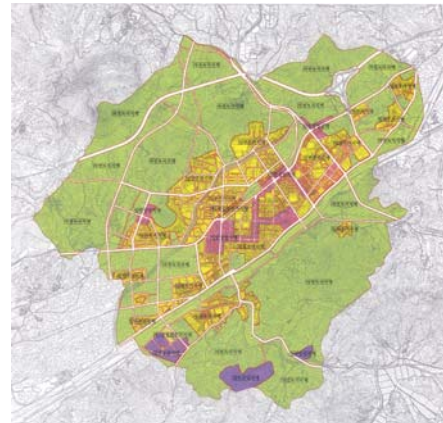
① 교통

□ 보행자 전용도로 계획

- 남원시의 보행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하지 않음
- 보행자자전거 혼용도로 계획

□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

- 남원시내에서 이념 관광지 자전거 도로 구축
 - 남원도심~춘향묘간 자전거 동선 연계 (국지도 60호선)
 - 남원도심~교룡산성간 자전거 동선 연계
- 지리산 관광지 접근도시인 운봉읍과 인월면 자전거 도로망 체계 구축
 - 남원시 부도심간 연계성 확보, 국도 24호선 축 연계
- 지역중심(운봉읍, 인월면)에서 지리산 관광지 자전거 도로 구축
 - 운봉읍~지리산 레포츠단지간 자전거 동선 연계 (국지도 60호선)
 - 운봉읍~지리산 허브밸리간 자전거 동선 연계
 - 인월면~흥부·놀부촌간 자전거 동선 연계
 - 인월면~장승쌔지공원(지리산국립공원) 자전거 동선 연계 (국지도 60호선)



남원도시지역 용도지역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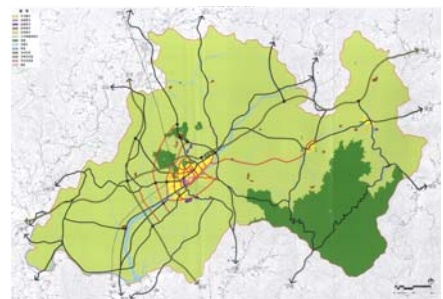
② 경관

□ 경관계획의 목표

- 자연경관과 전통문화경관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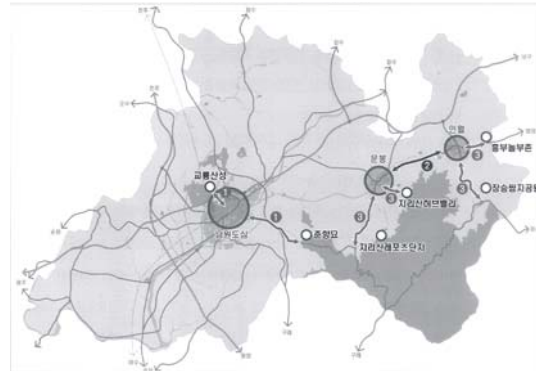
- i) 문화관광도시
 - 전통문화도시 이미지 강화
 - 축제의 도시 남원
 - 역사도시 남원
- ii) 전원생태도시
 - 휴양도시 남원
 - 생태레저도시 남원
 - 테마숙박도시 남원



2025년 남원도시기본구상도

□ 기본구상

- i) 축경관구상
- ii) 경관권역 구상
 - 서부권역 : 남원경관권역, 대강경관권역, 보절경관권역
 - 동부권역 : 운봉경관권역, 인월경관권역, 지리산경관권역
- iii) 중점 경관관리지역 구상
 - 광한루원
 - 요천 주변
 - 구도심(남원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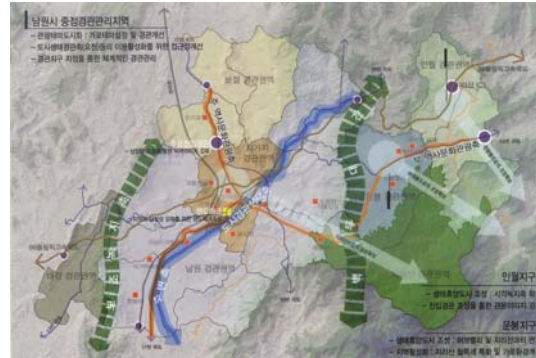


남원시 도심지역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권역별 경관구상

남원시 자전거동선체계 구축계획



남원시 경관기본구상도

□ 경관계획

i) 경관권역

- 남원경관권역 - 시가지경관권역
- 보절경관권역
- 대강경관권역
- 운봉경관권역
- 인월경관권역
- 지리산경관권역

ii) 중점 경관관리지역 기본계획

- 광한루원 주변지역
- 요천 주변지역
- 구 남원역사 주변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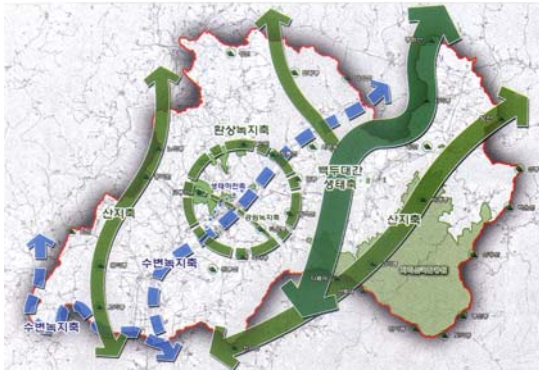
③ 공원·녹지

□ 기본방향

- 유기적 공원·녹지체계의 구축
 - 산악녹지축 : 교룡산~호인치~청룡산~말봉~장백산~덕음봉~옥녀봉
 - 수변녹지축 : 요천, 섬진강
- 공원·녹지의 공간구조 네트워크화
- 최소한의 개발과 최대한의 보전
 - 기존의 공원·녹지를 가능한 보전정비, 중앙공원의 조속한 개발

□ 공원·녹지시설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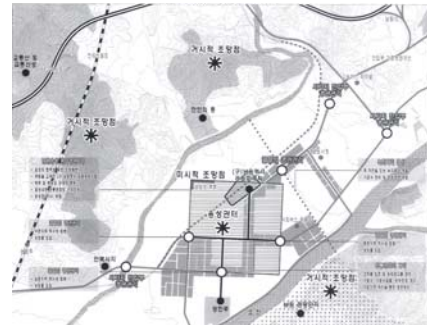
- 남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 운봉읍 주촌리, 주천면 덕치리
- 요천 친수공간 조성 (약 6.27km)



남원시 공원녹지 체계도



시가지 공원녹지 체계도



남원시가지 경관기본구상도



광한루원 주변지역 보행축 계획



광한루원 주변지역 단계별 사업추진안



기본계획안

④ 도심 · 주거환경

□ 도심 및 시가지 정비계획

i) 개발계획

시가지환경의 체계적인 정비

- 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 공설, 용남, 운봉, 인월시장 현대화사업 단계별 추진
 - 요천~광한루원~용남시장~구남원역, 이색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
- 상업환경 정비
- 공동주차장 확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ii) 실천계획

- 남원역 주변 개발사업
 - 장기 (1~4단계)
 - 남원시 첫 도입 관문
- 서부지역 개발
 - 장기 (1~4단계)
 - 시가지의 동부지역(월락, 도동동 중심) 집중성 해소
 - 중층형 아파트 단지, 3세대 동거형 주거단지, 도시형 실버타운 건설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 중기 (1~3단계)
 - 노암3통지구, 왕정15통지구, 인월지구, 조산지구 등
- 구 남원역 주변 개발사업
 - 중기 (1~2단계)
 - 폐선부지의 가로녹화를 통한 숲길조성
-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 중기 (1~3단계)
 - 공설시장, 용남시장, 터미널시장, 운봉공설시장, 인월공설시장

□ 주거환경계획

- 도시정비대상지역 환경개선(신생마을)
 - 단기(1단계)
 - 용정동 일원, 160,000㎡
 - 축산농가의 환경 개선
- 도농통합 그린빌리지 조성
 - 장기(1~4단계)
 - 아영면 성리
 - 민간주도형 맞춤형 전원주거단지(20호 이상규모)
- 광역 도농교류센터 설치
 - 중기(1~2단계)
 - 이백면 서곡리 일원



도심 및 구시가지 현황도



도심 및 시가지정비 구상도

9. 문경도시기본계획(2025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 계획목표와 기본방향

i) 첨단산업과 신산업의 활력도시

- 첨단 성장동력산업 유치와 고용증대
- 스포츠 교류와 산업 활성화
- 시니어타운과 실버산업 육성
- 대규모 기업 영농의 웰빙 브랜드화

ii) 자연과 역사문화의 관광도시

- 정통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거점 개발
- 청정자원과 농촌을 활용한 웰빙, 생태관광 활성화
- 관광활성화를 지원하는 관광지원시설 확충

iii) 자연환경이 청정한 환경도시

- 청정 환경 보전이 최우선 정책
- 자연경관의 보호

iv)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도시

- 생활권체계 안정화
- 기존시가지의 도시환경 정비
- 도시내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② 공간구조

□ 중심지체계

i) 생활권 중심지 체계

- 생활권 중심지 (3차 생활권 중심지)
 - 점촌 중심지가(점촌동, 흥덕동, 모전동)
- 지역생활권 중심지 (2차 생활권 중심지)
 - 북부생활권 중심지 : 문경읍중심지 (문경읍, 마성면)
 - 서부생활권 중심지 : 가은읍중심지(가은읍, 농암면)

ii) 관광권역 중심지 체계

- 문경권 : 역사문화관광, 산악관광
 - 문경새재, 문경온천
- 동로권 : 농촌관광, 산악관광
 - 오미자체험촌
- 가은권 : 위락 및 휴양관광, 산악관광
 - 가은관광지
- 점촌권 : 체험관광
 - 진남교반

iii) 산업활동 중심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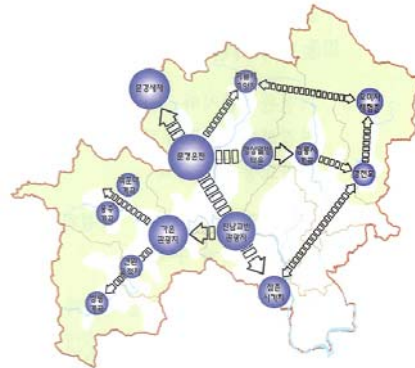
- 신기동의 기존 공업지역과 마성, 산양, 영순면의 기존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산업용지를 확장

□ 교통체계

- 산업활동거점, 관광활동거점, 개별 생활권 중심지 등과 중부 내륙고속국도 IC연결



생활권 중심지 및 시가지 네트워크



관광거점과 관광지 네트워크



교통체계

□ 공원녹지체계

- 산악경관공원녹지축
 - 문경새재도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속리산국립공원, 돈달공원
- 수변경관녹지축
 - 새재리조트, 온천휴양지, 진남교반, 영순유원지, 경천댐
- 내륙경관녹지축
 - 하늘재휴양지, 김룡사, 봉암사, 쌍룡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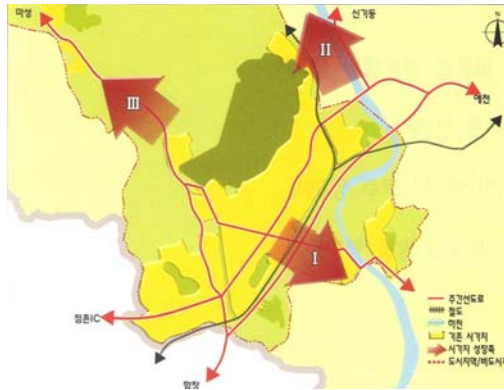
□ 중심시가지 기본구상

i) 발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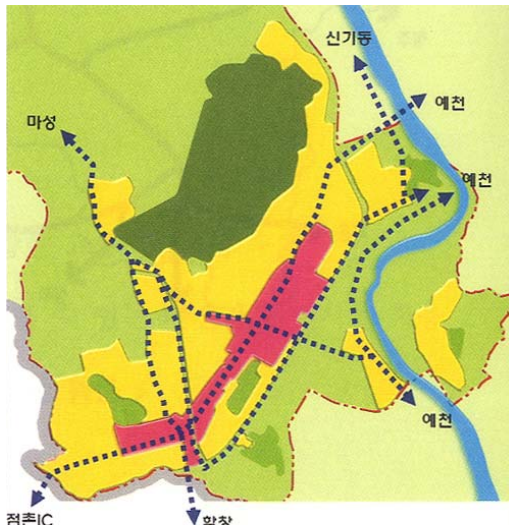
- 흥덕동과 우지동 강변의 농림지역 방향
 - 정촌동 동측개발유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선형적 도시형태 조성

ii) 보조발전축

- 윤직동과 영신동 방향
 - 점촌과 함창 사이, 기존도심과 인접, 접근성 양호



점촌 중심시가지 발전축 대안



자전거도로망 계획



산업활동 중심지 네트워크



보전녹지 및 보전녹지축



공간구조 종합

2) 부문별계획

① 교통

□ 자전거도로망 계획

- 영강변 및 생활권 중심의 자전거도로망 정비
 - 낙동강 프로젝트에 포함
- 자전거 부대시설의 지속적인 관리 및 확충

② 경관

□ 경관계획

i) 기본방향

- 개성 있는 도시이미지 창출
-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

ii) 경관계획 기본구상

- 문경시 경관계획
- 점촌동 경관계획
 - 진입부로서의 상징적 이미지
 - 영강

iii) 추진정책

- 문경 도시이미지 구축을 위한 경관관리체계 구축
- 점촌동 상업지역 야간경관 특화사업
- 문경을 온천관광단지 야간경관 특화사업
- 점촌동 상징가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 남부로~중앙로
-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한 경관탐방로 조성
- 비도시지역 개발촉진지구 경관관리

③ 공원·녹지

□ 공원·녹지 계획

i) 기본방향

-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축
- 시민의 접근성 및 활용성 증대
- 공원·녹지의 다양한 공간 조성
-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 일상생활 속 공원·녹지 조성 : 철도변 완충녹지를 공원화

ii) 공원·녹지계획 기본구상

- 점촌동지역
 - 모전로~중앙로 보행자공간 녹화, 점촌시장 북측 지역 소공원 조성

iii) 추진정책

- 낙동강 프로젝트와 연계한 점촌동 영강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조깅코스 계획
- 점촌동 중앙로 가로녹화사업
- 미조성된 공원·녹지의 조성 및 정비
- 문경을 유원지시설의 관리방식 일원화
- 둔달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
- 점촌동지역 중앙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변경
- 시가화에정용지에 공원 및 녹지 확보



문경시 경관구상도



점촌동 경관 구상도



점촌동 공원녹지 구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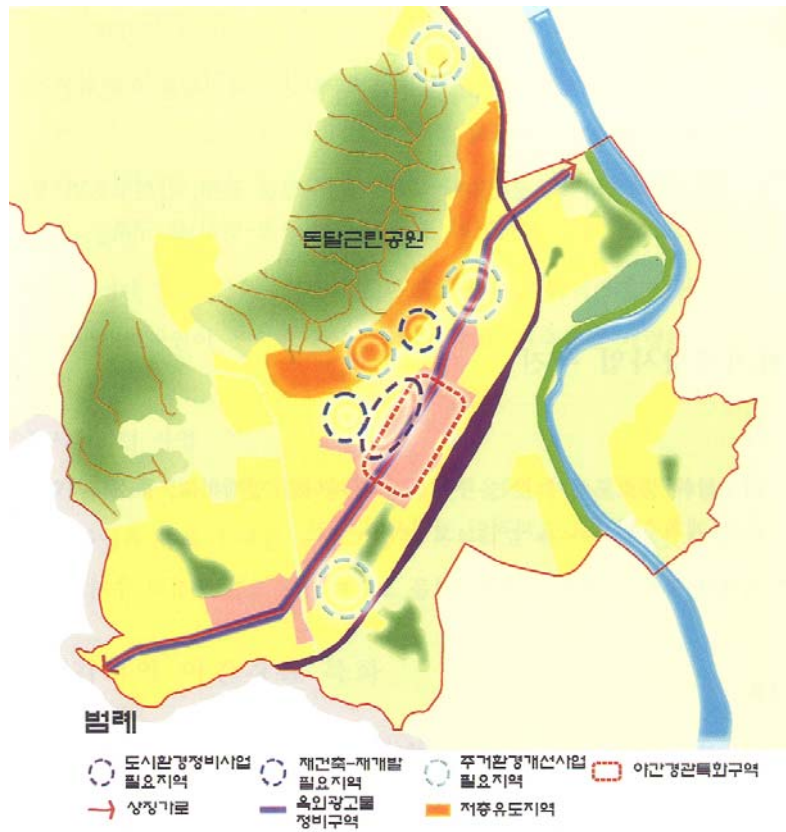
④ 도심 · 주거환경

□ 시가지 정비계획 기본구상

- 시가지 정비지역 구분
 - 도시환경정비 필요지역, 재건축-재개발 필요지역, 주거환경개선 필요지역
- 도심 상업지역의 체계적 정비
 - 중앙시장 정비, 도심 간선도로(중앙로)변 정비
- 노후주택지 주거환경 개선
 - 주거환경개선 필요지역, 재개발-재건축 필요지역 지정
- 주거환경의 균형적인 개발
 - 시가지 남동측에 집중된 주거지 정비사업을 도심지역, 시가지 북동측 주거지 주거환경정비사업, 남서측 주거지개발로 확대

□ 추진정책

- 중앙로 간선도로변 정비사업
- 현지개발사업 추진
- 살고 싶은 시범도시사업 참여
- 상업지역의 야간경관 특화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지 정비·관리 계획 수립



점촌동 시가지정비 구상도

10. 보성군 종합개발계획(2010년)

1) 기본구상

① 계획목표

“매력있고 활기넘치는 녹향, 보성”

□ 개발 목표

- 지리적 중심지 기능 강화 및 보성, 별교축의 강화
- 기존산업의 부흥 및 신산업의 발굴
- 다양한 관광기반시설 확보 및 네트워크화로 복합 여가문화의 장 마련
- 교육, 사회, 문화 등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복지능 여촌 구현

② 공간구조

□ 공간구조 구상

i) 성장주축

- 신산업축 : 보성읍-미력-득량-조성-별교
- 동으로 목포권, 서로 광양만권의 연결통로, 관문, 통과 기능을 담당
- 성장교류축 : 복내-미력-노동-보성-회천
- 광주-화순의 대도시로부터의 관문기능 및 인적, 물적 교류 기능담당
- 생태역사문화축 : 문덕-울어-별교
- 주암호 주변
- 친환경 농업, 관광지화

ii) 성장부축

- 휴양레저축 : 웅치-회천-득량-조성
- 계획적 개발을 지향함과 동시에 기성시가지의 정비를 유도

□ 생활권 구상

i) 중심지 선정

- 1차 중심지 : 별교, 보성

ii) 생활권 설정

- 생활권 설정
 - 보성권 : 보성, 득량, 회천, 웅치, 노동, 미력, 검백 (웅치, 회천, 득량, 조성은 해안을 기반으로 하는 별도의 전략개발지역)
 - 별교권 : 별교, 조성
 - 주암호권 : 복내, 문덕, 울어
- iii) 생활권 현황 및 주요기능
 - 보성생활권 : 중추관리, 관광-레저, 전원주거, 신산업
 - 노동, 미력, 검백 : 농촌경관 유지
 - 웅치, 회천, 득량 등 해안가 개발지역
 - 군 전체인구의 50.2%거주
 - 별교생활권 : 역사문화관광, 전원-주거, 교육, 신산업
 - 고흥군으로의 진입관문, 군 전체인구의 40.3%거주
 - 주암호권 : 역사문화관광, 근교농업, 산업·물류, 교육·연수
 - 보성군의 북측 관문, 군 전체인구의 9.5%거주



공간구조 구상



생활권 구분

2) 부문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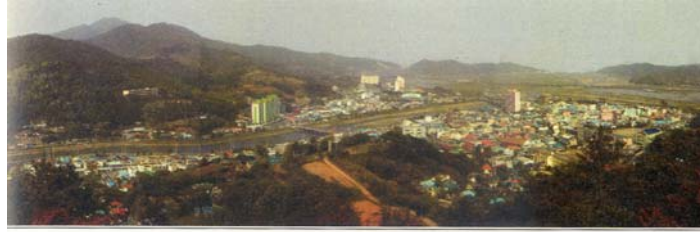
① 교통

□ 친환경 생활교통체계 개선

- 자전거도로 확충
 - 주요 시가지 내부의 자전거도로계획 및 활성화 대책 수립
 - 주요 문화관광지역의 도로개설시 자전거도로망 병행 구축
- 교통수요관리 효율화
 - 차없는 거리 및 걷고 싶은 거리 시범지역 추진 검토
 - 보행축 정비 관리, 보행자 및 녹색교통 전용거리 설치 검토

② 경관

□ 생활경관 (시가지, 도로, 취락 등)



별교읍 시가지 전경



별교읍, 보성읍 시가지 전경

□ 중심시가지 경관정비 (보성·별교읍)

- 사업주체 : 보성군, 민간
- 사업대상 : 보성, 별교 중심상업가로 등
- 사업내용
 - 가로수 수종 선정 및 식재
 - 건물 높이, 색채, 옥외광고물 등 전체적인 일체성 강화
 - 다양한 식물도입
 - 가로시설물 설치
 - 가로공원 조성
 - 보행자, 장애인 등을 배려한 공간조성
 - 건물, 시설물, 도로포장 등 경관조화를 배려한 공간 가꾸기

③ 도심·주거환경

□ 기성시가지 정비

- 노후된 시가지의 조정
-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 관광지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 개발
- 시가지의 다핵화 추진
- 실버사업 유치 목표

④ 기타

□ 관광개발계획

i) 관광개발 기본구상

- 보성관광권
- 별교관광권
- 주암호 주변관광권

ii) 지역별 관광개발계획

- 거점형 관광권 : 보성, 별교, 주암호 관광권
- 벨트형 관광권 : 해양벨트, 내륙벨트

표 58. 권역별 사업

구분	제안 사업	사업내용	거점·주요 관광자원	년도						관광 개발 효과
				이 전	'06	'07	'08	'09	'10	
보성·별교·주암호권	정비사업	제악산 자연휴양림 정비		●	●	●				
		일월산 주변지역정비			●					
		소릿길정비		●	●					
		독랑 용추폭포 주변정비				●	●			
		미륵봉기점 정비				●	●	●		
신규사업		해양전망대 건립		●						
		보성랜드					●	●	●	
거점·주요 관광자원	정비사업	소설 대백산역 문학공원조성사업	●	●	●	●				
		백제토성 통로성지 발굴사업	●	●						
		나철선생 생가복원 및 기념공원조성		●						
		채동선 음악공원 조성				●	●			
		주월산 활공장 정비								
		오토발리지 조성사업					●	●		
	신규사업	전통색 체험학교		●						
		특산물제작시연/판매장		●	●					
		서재필기념공원 정비사업		●						
		야생화/연꽃방죽조성		●						
주·군·읍·동·면·리·계	정비사업	대원사 주변지역 정비사업		●	●					
		가내 전통문화마을 조성		●						
	신규사업	잠룡 문화공예학교		●	●	●				
		천룡산 트레킹코스 조성					●	●		
		청소년 수련장 조성								
거점지구 개발계획		울포관광지	●	●	●					
		보성녹차소리문화공원	●	●	●					
		비룡공룡 테마공원	●	●						

부록3. 중소도시 공공공간 관련 사업 현황

▣ 인구 20-30만명 도시

1. 순천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12건, 46.15%)		시민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
		도시공원 리모델링
		순천조례 호수공원 조성사업
		봉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철쭉 자연동산, 이미지동산 조성사업
		시민공원 조성사업
		근린공원 조성사업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자연생태공원 기반조성사업
		용산일몰 테마공원 조성사업
		중앙로 테마공원 조성사업
		가로화단 및 쌈지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11건, 42.31%)		녹색도로 조성사업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도시관문 이미지개선사업
		도심 가로수숲길 조성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보, 차도 경계녹화사업
		벽면녹화사업
		철쭉 가로화단 조성사업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타 (총 3건, 11.54%)	역사문화 관련사업 (총 1건, 3.85%)	순천기독교 역사문화 관광자원화 사업
	기타사업 (총 2건, 7.69%)	해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연안습지 복원사업
합계		26건

2. 충주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11건, 57.89%)		여성문화회관 증축사업
		장애인 중단기 보호시설 신축사업
		노인복지회관 증축사업
		UN평화공원 건설사업
		무술박물관 신축사업
		국제 조정경기장 건설사업
		하나 웰빙센터 조성사업
		용산상가 철거 및 공원 조성사업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애인 론볼 및 테니스장 건립사업
		배드민턴전용 실내구장 건립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1건, 5.26%)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총 1건, 5.26%)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기타 (총 6건, 31.58%)	역사문화 관련사업 (총 4건, 21.05%)	목계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
		중원 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미륵사지, 하늘재복원정비사업
		정미산성 복원 정비사업
	기타사업 (총 2건, 10.53%)	충주지구 생태하천 복원 및 조성사업
		남한강 생태습지 조성사업
합계		19

□ 인구 10-20만명 도시

1. 안동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19건, 57.58%)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문화원, 문화공원 조성사업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사업
		천지갑산 인공폭포 조성사업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노인회관, 경로회관 건립사업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
		옥송 근린공원 개발사업
		공공건축물 담장허물기 사업
		안동호반 자연휴양림, 생태숲, 야생동물 생태관찰원 조성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및 증축사업
		농업공원 조성사업
		안동 종합학습체험장 건립사업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장애인 복지관 건립사업
		다큐영상원 설립사업
		안동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7건, 21.21%)		도심전선지중화사업
		가로변 쉼터 소공원 조성사업
		도심도로 분리녹지 화단조성사업
		매화나무 10만본 심기사업
		구시가지 특화거리 조성사업
		자전거도로 활성화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보수 및 환경정비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총 1건, 3.03%)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기타 (총 6건, 18.18%)	역사문화 관련사업 (총 5건, 15.15%)	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 건립사업
		안동 군자마을 문화역사 마을 가꾸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사업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기타사업(총 1건, 3.03%)
합계		33건

2. 정읍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9건, 60.00%)		말고개 경관지구 주변 공원 조성사업
		도시가꾸기 사업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상동정수장 시민공원 조성사업
		친환경녹색도시가꾸기
		공원정비관리사업
		정읍 박물관 건립사업
		체육시설물 설치사업
		태인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3건, 20.00%)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총 1건, 6.67%)		신태인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타 (총 2건, 13.33%)	역사문화 관련사업 (총 2건, 13.33%)	정순왕후 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
		칠보 유원지 조성사업
합계		16건

3. 제천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6건, 46.15%)		한방 생명과학관 건립사업
		국제발효박물관 건립사업
		삼지 소공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
		제천 철도테마파크 건립
		구도심 및 역세권 디자인 개선사업
		솔방죽 생태공원 생태학습 명소화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2건, 15.38%)		청전공원 주차타워 조성사업
		특색 가로수길,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총 2건, 15.38%)		한방 엑스포 시장 조성사업
		약초허브전시판매장 건립사업
기타 (총 3건, 23.07%)	역사문화 관련사업 (총 2건, 15.38%)	의림지 명승 유원지화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
	기타사업(총 1건, 7.69%)	하소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합계		13건

4. 통영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7건, 53.85%)		통영 생활체육관 건립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사업
		가오치 여객선 터미널 신축사업
		박경리 문학관 건립사업
		도천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미륵도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4건, 30.77%)		가로환경 정비사업
		담장없는 거리 조성사업
		건물 간판모양 개선사업
		대형건축물 벽화그리기, 경관조명 설치
기타 (총 2건, 15.38%)	기타사업 (총 2건, 15.38%)	해양 마리나 조성사업
		학림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합계		13건

▣ 인구 5-10만명 도시

1. 거창군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5건, 55.56%)		야외문화공간 조성 및 확충사업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도서관 건립사업
		장애인,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건립사업
		군립공원 조성사업
기타 (총 4건, 44.44%)	기타사업 (총 4건, 44.44%)	거창 종합문화단지 조성
		자연 생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국제 패러글라이딩활공장 조성사업
		가조 종합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합계		9건

2. 남원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5건, 25.00%)		체육시설 확충사업공공시설 정비사업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사업
		국립자연사 박물관 건립사업
		지리산 섬진강 환경생태체험관 건립사업
		구 남원역 부지 개발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5건, 25.00%)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거리환경 개선사업
		동충로 인도조성사업
		자전거명품도시 조성사업
		도심전선지중화사업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총 4건, 20.00%)		전통시장 시설 지원 및 경영지원사업
		도매물류센터건립사업
		운봉시장환경개선사업
		인월시장 재건축사업
기타 (총 6건, 30.00%)	기타사업 (총 6건, 30.00%)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지리상 고원레포츠단지 조성사업
		향파유 유원지 개발사업
		흥부놀부촌 조성사업
		백두대간 생태문화공간 조성사업
		도심속 허브꽃단지 조성사업
합계		20건

3. 문경시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5건, 38.46%)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아트홀, 모전도서관 건립사업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음악분수대 조성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 (총 2건, 15.38%)		도로시설 확충사업
		중앙 지하도 개설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총 2건, 15.38%)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기타 (총 4건, 30.76%)	역사문화 관련사업 (총 2건, 15.38%)	문화유산복원정비사업
	기타사업 (총 2건, 15.38%)	영상문화관광 복합단지 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합계		13건

4. 완도군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11건, 44.00%)		세계 해양 영웅공원 조성사업
		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건립사업
		숲이 있는 해양 경관림 조성사업
		다도해 일출공원 정비사업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쌔지공원 환경디자인 사업
		장보고 국공장 건립사업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
		도시형 경로복지센터 건립사업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총 1건, 4.00%)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 (총 3건, 12.00%)		해조류 기능성식품 판매 및 체험센터 건립
		해양바이오 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기타 (총 10건, 40.00%)	역사문화관련사업 (총 5건, 20.00%)	청해진 역사공원 조성 및 성역화 사업
		보길 윤선도 유적정비 및 복원사업
		묘당 이충무공 유적 정비 및 복원사업
		청산도 상서마을 옛담장 정비 및 복원사업
		향토유적 안내판 정비사업
	기타사업 (총 5건, 20.00%)	신지명사십리 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노화건강테마촌 조성사업
		어촌체험 관광단지 조성사업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사업
		해신 장보고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합계		25건

5. 음성군

사업유형	사업명
공공시설 정비사업 (총 5건, 71.43%)	반기문 UN 테마형 특화사업
	생태교육장 조성사업
	음성천 자연생태공원화 사업
	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산업단지 완충 녹지 조성사업
가로환경 개선사업(총 1건, 14.29%)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역 활성화 사업(총 1건, 14.29%)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합계	7건